PLAYBOY

ENTERTAINMENT FOR ALL

APRIL 2018 | KOREA



PLAYMATE
OF THE MONTH
소마

ISSUE
GENDER REVOLUTION
성 혁명의 시대,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시대적
교양에 대하여

PHOTOGRAPHY
GIRLS DON'T CRY
누가 한국의 레이싱 모델,
링 걸을 모함했나

20Q
비프리와 제레미 퀘스트의 뉴웨이브

PLAYBOY INTERVIEW
국가대표 디자이너 김영세

FICTION
백영옥의 단편소설 〈라디오 라디오〉

INTERVIEW CLASSIC
1989년, 가장 '행크스다운' 34세의 톰 행크스 이야기

ADVISOR
입으로 여성을 즐겁게 해주는 비법

SEX TALK
4월, 살이 보이는 계절

정가 7,500원
9 772586 094001
ISSN 2586-0941
WWW.PLAYBOYKOREA.COM

〈플레이보이〉를 읽는다는 것

소설가 백영옥은 한국 문단에서 '스타 작가'로 꼽힙니다. 추종하는 독자 팬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답게 쉴 틈 없이 바쁜 그는 꾸준히 강연을 다니며 독자들과 소통하고, 〈조선일보〉에 매주 칼럼을 싣고, 최근에는 MBC 심야 라디오 〈라디오 디톡스 백영옥입니다〉의 디제이가 되어 매일 잠 못 이루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백영옥 작가에게는 특별한 만화 캐릭터가 따라 붙는데, 바로 '빨강머리 앤'입니다. 그의 에세이집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 3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는 빨강머리 앤처럼 사랑에 실패한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특유의 따뜻한 문장과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아주 오래전!) 모 패션지 편집팀에서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만난 그에게 저는 〈플레이보이〉에 소설 좀 써달라고 몇 달을 졸랐습니다. "'19금 빨강머리 앤' 어때? 플레이보이스럽잖아. 빨강!" 그럴 때마다 그는 깔깔대며 웃어넘길 뿐 쉽게 청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플레이보이〉라 몸을 사린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스케줄 탓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불쑥 연락을 한 그가 먼저 소설을 쓰겠다더니 이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플레이보이〉니까." '빨간책'으로 낙인찍힌 잡지에 소설을 쓰다니, 〈빨강머리 앤〉의 독자 팬들에게 머리끄덩이나 잡히지 않을까 했던 염려는 제 자격지심이었나 봅니다. 정작 그는 단 한 번도 〈플레이보이〉에 편견을 내비친 적이 없으니까요.

종이 잡지들이 도미노의 패처럼 연이어 폐간되는 마당에 누가 요즘 잡지를 사서 '읽는다'고 애써 소설까지 싣는지, 어쩌면 저야말로 극히 시대를 역행하는 아둔한 편집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플레이보이〉가 고작 여성의 가슴골이나 강조하는 매거진이었다면 가브리엘 마르케스, 호르헤 보르헤스,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등 세계적 문학의 거장들이 쓴 사랑에 관한 짧은 이야기는 아예 세상의 빛도 못 봤겠죠. 아서 클라크와 노먼 스핀래드, 필립 K. 딕 등의 장르 문학에서 여전히 회자되는 SF 걸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소설에 아낌없이 지면을 할애하는 미국 〈플레이보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플레이보이〉는 '읽을 것이 더 많은' 잡지가 분명합니다. 〈플레이보이〉를 읽는다는 것, 잡지를 읽는다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쁨일지언정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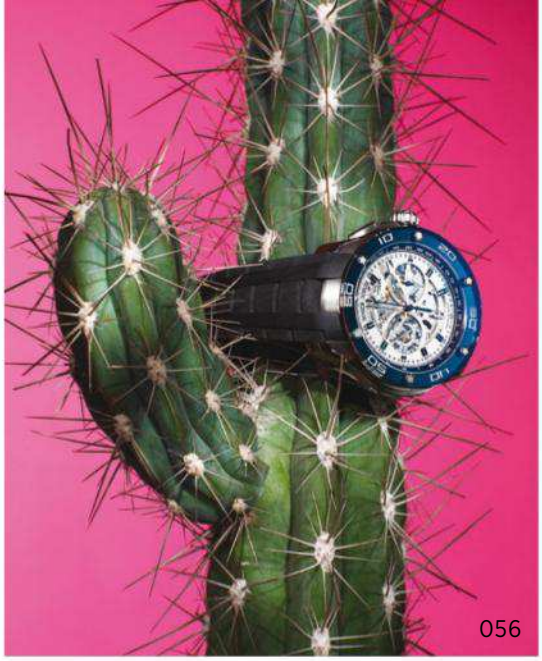
고된 창간 작업을 시작으로 8권의 책을 함께 만들며 〈플레이보이〉의 '지성'으로 존재해온 유지성 부편집장이 4월호를 마지막으로 편집팀을 떠납니다. 비록 '우리가 그토록 꿈꿔온 연예인 섭외'는 끝내 실패했으나, 그는 어떤 아득한 순간에도 뽐내는 문장이나 허황된 말로 자신을 포장한 적 없는 선비 같은 라이터였고, 드물게 좋은 인터뷰어였으며, 〈플레이보이〉의 철학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에디터였습니다. 체질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그에게 지난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을 듯합니다. 그가 낯선 어느 도시에 머물든, 다니는 길목마다 하얀 햇살이 늘 함께하기를.

"작년의 벚꽃도 재작년의 벚꽃은 아니지. 벚꽃의 꽃잎은 모두 그해에 피어 그해에 지고 마네. 또 그 이듬해에 피는 벚꽃 또한 똑같아 보이지만 실은 다른 벚꽃인 걸세. 평생 동안 같은 벚꽃을 바라본다는 것은 실은 그해뿐이고 두 번 다시 없다는 뜻이지." 일본 소설가 유메마쿠라 바쿠의 〈음양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곱씹을수록 아름답게 와닿는 이 대목은 매해 피고 지는 꽃과 그 꽃을 바라보는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꽃도 사람도 어제와 내일이 아닌, 늘 이날 이때를 사는 것이라면 한 번도 봄을 만난 적 없는 것처럼 이 계절을 마중해야겠습니다.

4월은 피고 지는 꽃 때문에 자꾸 술이 생각나고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에 좋은 달이지만, 어디든 쭉 배를 깔고 누워 책을 읽기에도 제격인 계절입니다. 〈플레이보이〉는 어떤가요? 백영옥의 단편소설 〈라디오 라디오〉, 유지성 에디터의 굿바이 섹스 칼럼 '맨살 예찬' 등 어느 페이지든 펼쳐놓고 찬찬히 이 봄을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장
김정민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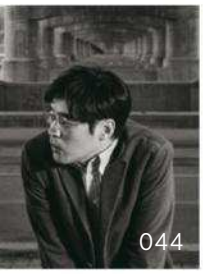

056

PLAYBOY PICKS

021 4월, 〈플레이보이〉가 엄선한 10가지 라이프스타일.

042 INTIMATE ASTROLOGY **APRIL × FLOWER**
별들이 골랐다. 화사한 연애를 부르는 향기로운 봄꽃.

PLAYBOY TASTES


044

044 MY WAY **BAE MYUNGHOON**
글을 쓰고 세상을 창조한다. SF 소설가 배명훈의 삶은 그렇게 극적이다.

046 PLACE **S.T. DUPONT**
라이터의 과거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S.T. 듀퐁.

048 ITEM **SAND CASTLE**
누렇고 노랗고 허여멀건, 모래색 물건들을 마구 쌓았다.

052 CAR **OPEN YOUR CAR**
컨버터블을 타는 여자는 드물다. 드러내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토록 〈플레이보이〉의 관점에 어울리는 조건이 있었나.

056 WATCH **CACTUS**
우뚝 섰다.

060 FOOD **NOODLE NUDE**
맛있거나 섹시하거나. 호로록 면 요리 열전.

064 PLAYBOY'S BAR **SAKE BLOSSOM**
벚꽃이 피는 봄에는 생맥주 대신 생사케.

066 TECH **봄이 오는 소리**
꽃을 보며 걷고 싶은 계절, 사운드에 어울리는 음악을 더했다.

072 SWEETHEART **FOUR SCENES**
향기를 갈아입자 처음 보는 그녀가 걸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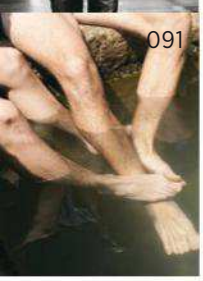
021



072

CONTENTS





PLAYBOY TALKS

082 SEX ISSUE **THIS MONTH IN SEX**
화려한 런웨이부터 '시대정신'을 반영한 캠페인까지,
황당하거나 재미있거나 유의미한 섹스 및 성 관련 소식.

086 ADVISOR **GET LOW**
입으로 여성을 즐겁게 해주는 비법은 뭘까?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088 SEX TALK **살이 보이는 계절**
마침내 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090 POET'S EYE **흑백 또는 부조리**
알베르 카뮈의 눈부신 어둠.

091 FILM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느새 국내 극장가에 스며든 퀴어 영화에 대한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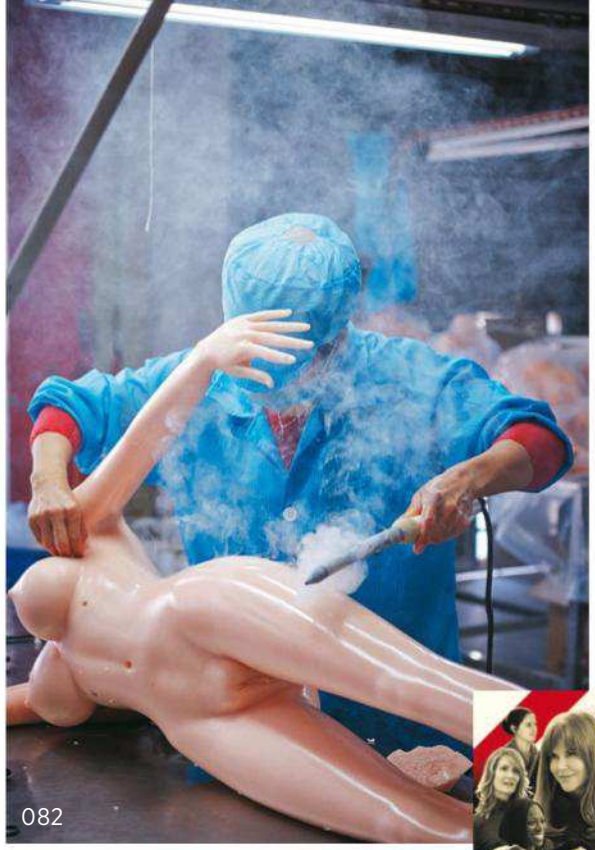
092 ISSUE **GENDER REVOLUTION**
현대사의 가장 심오한 격변 중 하나를 바라보는
만화경 같은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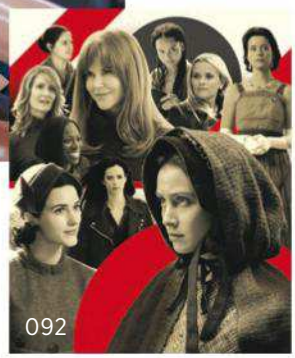
110 20Q **B-FREE & JEREMY QUEST**
변화야말로 목숨 같은 것. 래퍼 비프리와
제레미 퀘스트가 새 물결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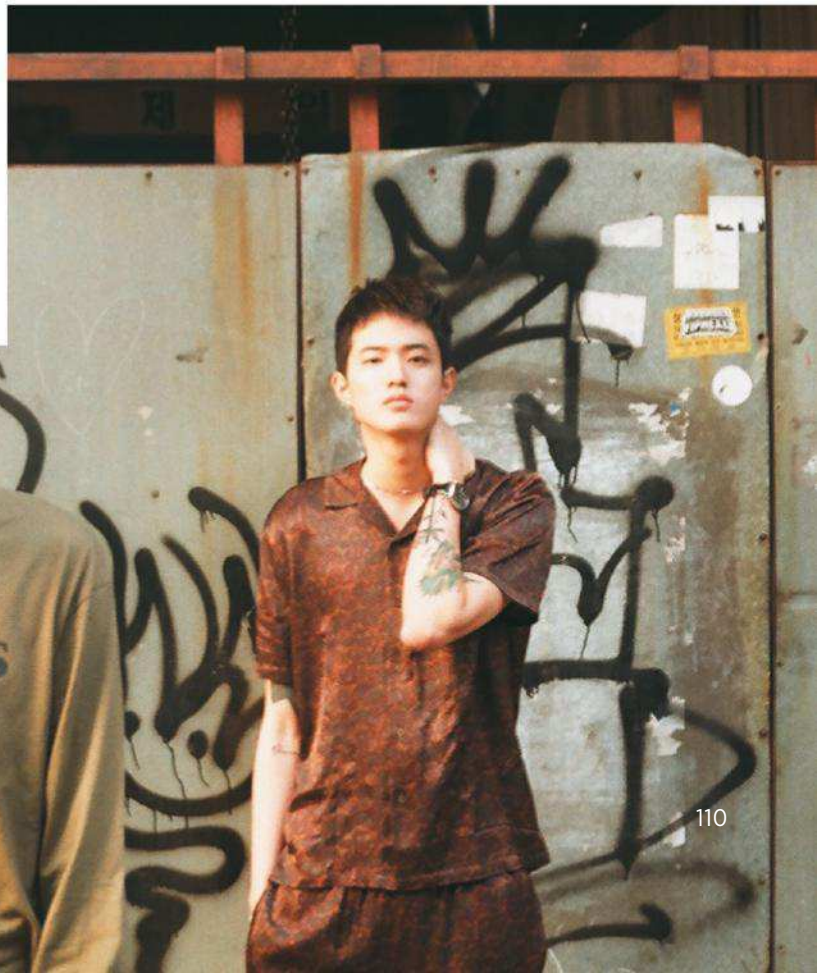
118 PLAYBOY INTERVIEW **KIM YOUNGSE**
디자이너 김영세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126 PHOTOGRAPHY **GIRLS DON'T CRY**
누가 레이싱 모델과 링 걸을 모함했나.

136 PLAYSCENE **海冰**
사진가 옥토가 찍은 푸른 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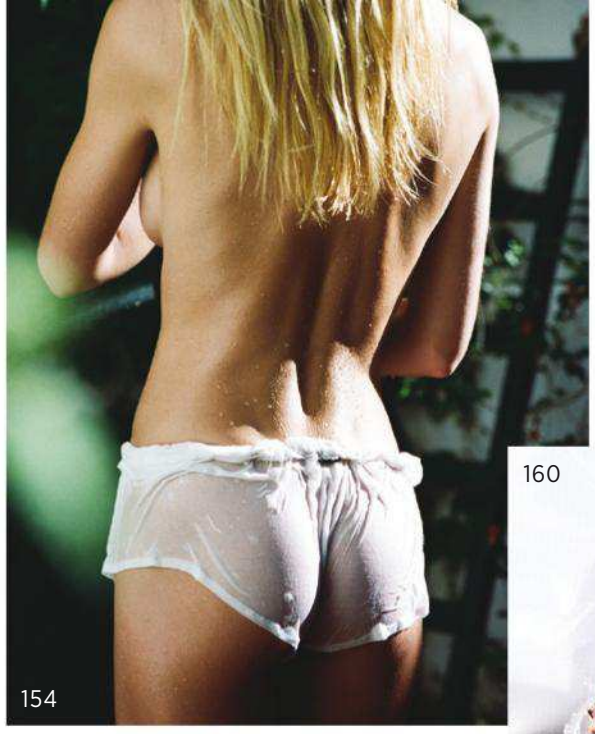








CONTENTS



PLAYBOY LOVES

138 PLAYMATE **SOMA**
4월의 플레이메이트 소마는 푸른 물빛 꿈을 꾼다.

146 US PLAYMATE **NEREYDA BIRD**
4월의 미국 플레이메이트 네레이다 버드를 세인트 바트의 터키석색 바닷가에서 만났다.

154 PLAYGIRL **SHE'S A RAINBOW**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태양 아래 선 엘리스 테일러. 인간 프리즘이 되어 빛을 분출하는 호주의 핫 걸.

160 PLAYGIFT **SEALED WITH A KISS**
플레이보이가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





PLAYBOY REMINDS

162 ARTIST IN RESIDENCE **FEMME FATALE**
불안은 지금의 스텔라 루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166 CARTOON **POWER NAP**
잠을 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미래가 온다. 대신 그곳엔 '꿈나라'가 있다.

172 CLASSIC **번데기 야구단**
야구는 끝나지 않는다.

174 FICTION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로 사연이 날아왔다. 기억은 가짜일 수 없다.

182 INTERVIEW CLASSIC **TOM HANKS**
1989년, 가장 '행크스다운' 34세의 톰 행크스 이야기.







Cover Credit
2018년 4월호 커버는 이달의
플레이메이트인 R&B 뮤지션 소마가 장식했다.
토끼 모양 의자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1971년
10월 미국판 〈플레이보이〉 커버를 오마주한 것이다.

photography
by
kim jiyang

PLAYBOY
KOREA

그룹 발행인 **GROUP PUBLISHER**
김영철 **Kim Youngchull** yckceo@playboykorea.com

비서 강주원 **Secretary, Juwon Kang**

사외이사 **EXECUTIVE BOARD MEMBERS**
Wanjoo Alexandre Kim
Michele Nathalie Lehmann-Kim

관리팀 **ADMINISTRATION**
이사 이성엽 **Director, Sungyup Lee**
차장 최호영 **Assistant Manager, Hoyoung Choi**
차장 박지연 **Assistant Manager, Jiyeon Park**
차장 최영화 **Assistant Manager, Younghwa Choi**
대리 강한규 **Assistant Section Chief, Hankyu Kang**

제작 **PRODUCTION**
차장 박선재 **Assistant Manager, Sunjae Park**

판매영업 **DISTRIBUTION**
차장 이동남 **Assistant Manager Dongnam Lee**

SP팀 **SPECIAL PROJECT TEAM**
부장 유정석 **Team Leader, Jungsuk You** anyou@kayamedia.com
아트 디렉터 계희경 **Art Director, Heekyung Kye** hkkye@kayamedia.com
디자이너 김완태 **Designer, Wantae Kim** capcom@kayamedia.com
에디터 윤연숙 **Editor, Yeonsuk Yoon** yeon@kayamedia.com
에디터 최은혜 **Editor, Eunhye Choi** gwsay@kayamedia.com

KAYA MEDIA CORPORATION

www.kayamedia.com
www.imagazinekorea.com
www.playboykorea.com

PLAYBOY KOREA Since 2017
MOTOR TREND Since 2005
THE NEIGHBOR Since 1996

2018년 4월호 통권 제8호 | 2018년 3월 21일 발행 | 2017년 1월 17일 등록 | 등록번호 강남 라-00905
발행처 (주)가야미디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대치동) 가야빌딩(우편번호 06195)
대표 번호 02-317-4800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독자 관리** 02-317-4825 **FAX** 02-317-4899 **홈페이지** www.playboykorea.com
인쇄 (주) 삼화인쇄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3 TEL . 02-850-0847 인쇄인 유성근
시스템 출력 (주)새빛그래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0번지 TEL . 02-516-8166

한국 〈플레이보이〉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에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행사인 주식회사 가야미디어에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돌려보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세요

정기구독 1년 10% off
~~정가 90,000원~~
₩81,000

정기구독 2년 20% off
~~정가 180,000원~~
₩144,000



정기구독 문의
www.playboykorea.com 02-317-4825

PLAYBOY
KOREA

큐레이터 김영철
Curator, Youngchull Kim yckceo@playboykorea.com

편집장 김정민
Editor In Chief, Jeongmin Kim boy@playboykorea.com

편집 **EDITORIAL**
부편집장 유지성 Deputy Editor In Chief, Jisung You jisungyou@playboykorea.com
패션&뷰티 디렉터 이선영 Fashion & Beauty Director, Sunyoung Lee sun@playboykorea.com
피처 에디터 김민지 Feature Editor, Minji Kim minzi@playboykorea.com
피처 에디터 양보연 Feature Editor, Boyeon Yang yangbo@playboykorea.com
교정 교열 유지숙 Tech Correction, Jisook Yu

미술 **ART**
아트 디렉터 장민 Art Director, Min Chang min@playboykorea.com
디자이너 정선희 Designer, Sunhee Jung jsh@playboykorea.com

전략기획팀 **STRATEGIC PLANNING TEAM**
PLAYBOYKOREA.COM
이사 김정주
Director, Jeongjoo Kim jjkim0730@kayamedia.com

부장 백재은 Manager, Jaeeun Baik jaenee75@kayamedia.com
차장 이유정 Assistant Manager, Yujung Lee klimt9@kayamedia.com
차장 김민경 Assistant Manager, Minkyung Kim minkim@kayamedia.com
대리 허주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eun Huh huh.jueun@kayamedia.com
대리 이승은 Assistant Section Chief, Judy Lee judy.lee@kayamedia.com
대리 임소연 Assistant Section Chief, Soyeon Lim iponi@kayamedia.com
디지털 디렉터 윤신영 Digital Director, Shinyoung Yoon yoon@playboykorea.com
디지털 필름 디렉터 김원 Digital Film Director, Won Kim bykimwon@kayamedia.com
디지털 에디터 한수연 Digital Editor, Sooyeon Han sooyeon.han@playboykorea.com
디지털 에디터 백가경 Digital Editor, Kakyung Baek kk@playboykorea.com

광고영업 **ADVERTISING BUSINESS**
본부장 박동민 Director, Dongmin Park dmpark5@kayamedia.com
부장 박재길 Manager, Jaegil Park kmsun88@hanmail.net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Hugh M. Hefner, FOUNDER

U.S PLAYBOY
Ben Kohn, Chief Executive Officer
Cooper Hefner, Chief Creative Officer
Michael Phillips, SVP, Digital Products
James Rickman, Executive Editor

PLAYBOY INTERNATIONAL PUBLISHING
Reena Patel, Chief Commercial Officer & Head of Opeations
Hazel Thomson, Senior Director, Intl Licensing

(c) Playboy 2018 as to material published in March 1989, September 2006, May 2016, June 2016, Jan/Feb 2017, March/April 2017, May/June 2017, March/April 2018 issues off the U.S. edition of Playboy. Playboy, Playmate, Rabbit Head Design and Femlin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

BOY'S VOICE

이 달, 에디터들에게 남은 말, 말, 말.

부편집장
유지성

북경과 베를린에서 압도된 기억이 있다. 한겨울 천안문광장의 그 감당 안 되던 바람, 베를린 중앙역을 나서자마자 맞닥뜨린 베를린 장벽과 그 너머의 황망함이 그랬다. 베를린에선 짐을 풀자마자 혼자 클럽에 갔다. 여기는 동독의 교회였어. 넌 한국 사람이니? 어제는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온 도시가 공사판이던 호찌민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하노이는 여전히 궁금하다. 거기서 삶을 꾸린 한 친구는 "도시는 점잖고 자연은 아름답다"고 했다.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놀러온 친구를 만났다. "지하철 샹들리에가 정말 그렇게 멋있어?" 물어보려다 멍청한 질문인 것 같아 그만뒀다. 한국 가요 레코드를 같이 들으며, 친구는 모스크바의 여름에 열린 한 페스티벌 영상을 보여줬다. 정말, 정말로 거대한 빌딩이 꽉 차 있었다. "여름에 놀러 와. 꼭 여름에." 다른 제도와 양식 아래 구축된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등장한 〈보그 우크라이나〉 표지를 봤다. 남측 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봄이다.

패션 & 뷰티 디렉터
이선영

미술학원에서 연필 소묘를 처음 배우던 시절. 흰 종이에 흑색 연필심을 쌓아 완성해나가는 그 세계엔 법칙이 있었다. 정육면체는 튀어나온 모서리에 가장 밝은빛을 주고 뒤로 또는 아래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방식. 구의 경우엔 중간 아래 즈음 반원 형태의 어두운 띠를 만드는데, 바닥이 밝을수록 띠 위치는 높아졌다. 비너스, 아그리파, 헤르메스…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그림자의 방향 또한 복잡해졌다.
어른이 된 지금 나는 기사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일을 한다. 사진은 그 일부로, 그림과 많이 닮았다. 〈플레이보이〉의 주가 되는 몸은 기름한 구체 하나에 크기가 다른 원기둥이 휘어진 면으로 이어지는데,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물건 등 외부 요소에 따라 어두운 띠는 다른 곡선을 그린다. 현대의 미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만큼, 원기둥들은 가늘고 길어 보이는 각도를, 휘어진 면에 얹혀진 텍스처는 곱고 탄탄한 매무새를 갖춰야 한다. 패션 잡지 기자이던 시절 핀봉과 스팀다리미를 끌고 다니던 나는 이제 보정 속옷과 보디 오일을 상비하고, 소매와 바짓단을 매만지는 대신 발목의 양말 자국을 지울지 말지, 또는 타투를 어떻게 드러낼지 고민한다. 어떻게 입힐지와 어떻게 벗길지 고민하는 건, 정반대 지점에 있다. 〈플레이보이〉에 합류한 지 이제 5개월 차, 잘하고 있는 건지 되돌아본다.

피처 에디터
김민지

새벽 2시. 〈플레이보이〉의 편집팀은 마감이 한창이었다. 야식 메뉴를 고르던 중, "전화하면 잠깐 내려올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커피? 자양강장제?"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던 그. 마침 모두가 출출하던 차, 고맙기도 했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무엇이 됐든 정체가 탄로날 테니. 고민하다 배고픔이 앞서 편집팀 인원을 살짝 흐리듯 이야기했고, 30분 뒤 1층으로 내려갔다. 후드를 뒤집어 쓰고 발에는 조리를 낀 채. 물론 얼굴은 철야로 노랗게 떠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두 손 가득 쥐여진 떡볶이 6인분. 예상대로 떡볶이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속절없이 맥주만 들이켰다. 상승한 호감도와 함께 '다음 야식은 어떤 메뉴를 이야기해볼까'라며 은근히 김칫국까지 들이마셨다. 모두가 배부른 시간을 보내며 4월호 마감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래저래 '떡볶이는 사랑'인가?

피처 에디터
양보연

번개 치고 비가 억수로 내린 다음날이었다. 하늘엔 듬성듬성 수놓인 구름 뭉치가 쌩쌩 부는 바람에 실려 다니고 있었다. 스마트폰 앨범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추억을 끄집어내곤 한다. 찍힌 날짜는 2017년 4월, 〈플레이보이〉 첫 출근을 앞두고 다녀온 제주도의 하늘 영상이었다. 20대 마지막 '백수 여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고 떠난 여행이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처음으로 하늘이 밉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뒤, 나는 〈플레이보이〉의 에디터가 됐다.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선스 잡지 중 하나인 〈플레이보이〉 한국판 창간을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다. 돌아보면 마감 때마다 스스로를 보채고 채근하고 혼낸 기억이 많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 생각한다. 어쨌거나, 2018년의 나는 〈플레이보이〉 4월호를 만들고 있다. 완연한 봄. 나는 갈피 없이 휙휙 흘러온 것 같은데 〈플레이보이〉는 어느새 한국에 뿌리를 내렸다. 오늘은 보슬비가 내렸다. 제주 여행 영상에 찍힌 것처럼 무정한 폭우와 달리 상쾌한 봄비였다. 기분 좋게 〈플레이보이〉의 여덟 번째 잡지를 마감한다.

양파링 오징어링 말고
키스해링 주세요

#콘돔이 #이렇게 #힙해도돼? #외않되?

키스해링은 항상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른생각은 키스해링의 이런 철학이 오롯이 담긴 아트웍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메시지를 던집니다.
SMART IS SEXY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섹시합니다.



바른생각® × Keith Haring™

©Keith Haring Foundation. www.haring.com.
Licensed by Artestar. New York.

지금 바른생각 온라인 몰에서 키스해링 에디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생각 | brsg.co.kr

DEAR PLAYBOY

〈플레이보이〉에 대한 독자들의 달콤쌉싸름한 의견.









1 관능적인 춤

댄스홀 댄스가 대체 무엇이길래 리지를 사로잡았을까?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 자신의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단박에 느껴졌습니다. 생소한 장르의 춤이지만, 머리를 땋은 채 갈색 눈동자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화보에서 댄스홀 댄스의 관능적이고 섹시한 이미지가 고스란히 전해지더군요. 벽돌과 나무로 채운 공간도 잘 그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제 '미스 프라이데이'의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심기형(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 싱그러운 3월의 플레이메이트

이번 플레이메이트 화보는 봄을 맞는 3월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식물과 가까이 있으니, 밝고 생기 가득한 다영 님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네요. 계절의 변화를 반기는 데님 스타일링 또한 이번 콘셉트와 잘 맞는 듯합니다. 요가, 발레, 필라테스 등 여러 운동을 병행하며 가꾼 늘씬한 몸매를 잘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고 탄탄한 등 근육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를 본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양지현(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 목소리의 가치

만화 캐릭터의 목소리는 개성이 강해 어디에서 듣더라도 귀에 쏙쏙 박히죠. 익숙한 목소리의 실제 주인, 강수진 성우의 이야기를 〈플레이보이〉에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목소리를 통해 여러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한 캐릭터를 발견할 때마다 저 또한 잊고 지내던 소년의 감수성을 떠올리곤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날, 청각적인 자극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올 거라는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로애락이 담긴 목소리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상준(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 보태니컬 진의 세계

다양한 술을 가리지 않는 애주가로서, 3월호의 보태니컬 진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하니 더욱 깊은 풍미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술은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레이보이〉가 추천한 몇 가지 제품을 꼭 맛보고, 칵테일도 제조 방법도 따라 해봐야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보태니컬 진을 맛볼 수 있는 화이트 바는 이미 다음 데이트 장소로 점찍어뒀습니다. **신지웅(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품은으로 들어오소

#브랜드매거진 #사보 #맞춤잡지 #편집디자인 #브랜드북 #커뮤니케이션
#디지털콘텐츠 #모바일퍼블리싱 #소셜채널운영 #콘텐츠마케팅
#더네이버 #플레이보이 #모터트렌드
#아우디매거진 #레드불레틴 #폭스바겐매거진 #한국타이어뮤 #설화수

KAYA MEDIA CORPORATION kayamedia.com | imagazinekorea.com | 02-317-4800

PLAYBILL

1 유지성

유지성 부편집장이 〈플레이보이〉를 떠난다. 그는 쫓기는 마감 중에도 '대충 마무리한 기사'를 만든 적이 없었다. 에디터가 지켜야 할 모든 덕목을 명백히 체화한 사람. 지난 1년간 유지성 부편집장을 돌아보니 이런 말이 떠오른다. 그가 꼽은 노래는 **기미코 가사이의 'Vibration'**이다. "(중략) '떨림'이라는 그 말뜻도 봄의 단어 같고…." 그는 끝까지 어떤 기사도 허투루 내보낼 생각이 없다.

2 김보라

지난 3월호에 강렬한 이미지의 커버를 장식한 커버걸 김보라. 편집부의 애정 공세는 이달에도 이어져, 향수를 주제로 한 화보 'Four Scene'에서 그녀와 재회했다. 몸 사리지 않고 욕조와 모래더미를 딩굴며 열연해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평소에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해요. 하지만 봄 하면 왠지 **버하나의 '재닛'**이 생각나요.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음악이 섹시하지 않아요?"

3 김형석

영화평론가 김형석은 영화에 관한 거라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았다. 관련 원고를 청탁해야 한다면, 어떤 글이든 그의 이름을 먼저 떠올릴 정도. 퀴어 영화에 대한 칼럼의 명민한 원고를 써준 김형석이 꼽은 봄에 듣고 싶은 섹시한 노래는 〈나인 하프 위크〉의 OST **바라이언 페리의 'Slave to Love'**다. "남녀 주인공의 나른하면서도 위험한 성적 유희가 떠오른다"는 영화로운 설명을 보탰다.

4 김보선

말보다 몸짓이 더 큰 공감을 살 때가 있다. 촬영장에서 에디터는 볼이 팰 정도로 면을 빨아들이는 시늉을 하고 연신 입술을 핥으며 촬영 시안이 되길 자처했다. 그 몸짓도 척척 알아듣는 그녀. 몸짓 한 번이면 맛깔스러운 요리를 가져와 촬영이 한결 수월했는데, 이달 에디터의 천군만마가 되어준 그녀가 이 봄에 듣고 싶은 노래는 〈소년, 천국에 가다〉의 OST **염정아가 부른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다.

5 구송이

사진가 구송이는 밤낮이 없는 것 같았다. 이건 어떠냐고, 여기를 먼저 가봤다고 시시각각 소식을 전해왔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그녀는 침착한 쪽이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세 대의 필름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목에 걸고 두 명의 혈기왕성한 래퍼들을 여러 장소에서 찍었다. 그렇게 다채롭고 젊은 사진이 남았다. 그녀가 고른 음악은 **제이미 아이작의 'Last Drop'**(Remix ft. Rejjie snow).

6 김지양

매달 〈플레이보이〉와 함께하는 세븐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김지양은 피사체를 오래 관찰한다. 쌍꺼풀 없는 긴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다, 셔터 소리가 이어지고, 어느 순간 낮은 목소리로 외친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봄에 듣고 싶은 섹시한 노래로 꼽은 것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DJ이자 보컬리스트 **예지의 '레인걸'**. "속삭이는 듯한 보이스가 좋아요. 계속 듣고 싶게 하네요."

1



2



3



4



4월호와 함께한 9명에게 물었다. 봄이면 떠오르는 섹시한 그 노래.

5



6



7



8



9



7 박훈희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플레이보이〉에 여섯 번째 섹스 칼럼 '누가 먼저였을까'를 기고한 박훈희가 물었다. "글이 이렇게 끈적해도 돼요?" '말 맛'과 상황 묘사를 적절히 사용하는 그의 원고는 늘 찬사를 부른다. 박훈희가 봄에 듣고 싶은 섹시한 노래는 **제인 버킨과 그의 딸 샤를로트 갱스부르의 'Je t'aime'**다. "섹시하잖아요. 멜랑콜리한 목소리 그리고 후반부의 격정적인 숨소리까지."

8 김선관

에디터에게 사무실 아래층 〈모터트렌드〉 편집부의 존재는 늘 든든하다. 그중 김선관 기자는 거의 매달 어떤 질문에도 알찬 답변으로 큰 도움을 준다. 그가 4월호에 세운 혁혁한 공은 'Photography' 레이싱 모델 다수 섭외다. 김선관이 꼽은 노래는 **Cigarettes After Sex의 'K'**다. 그러곤 설명 대신 노래 가사를 보내왔다. "네가 침대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오길 내내 기다리고 있어."

9 이지은

이번 〈플레이보이〉의 화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지은과 함께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고 수수한 모습을 담는 포트레이트 촬영과 관능적인 모습을 담는 'Noodle Nude' 화보. '전혀 다른 콘셉트를 어떻게 소화할까?' 그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미 팔레트가 되어버린 손등은 총천연색 화장품으로 덕지덕지. 그렇게 애써준 그녀는 **혁오의 'Hooka'**를 듣고 싶다고 했다.

광고 문의 02-317-4851 ·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pbkorea

playboykorea

@playboykorea



〈플레이보이〉와

좀 더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잡지보다 빠르고 섹시한

플레이보이코리아닷컴에서!

playboykorea.com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은 playboykorea.com 상단의 PLAYMATE 탭을 참조하세요. **광고 문의 02-317-4851 정기구독 신청 문의 02-317-4825**

www.playboykorea.com

〈플레이보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PLAY



MATE

〈플레이보이〉의 주인공은 플레이메이트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밝고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맘껏 자신을 드러내세요. 〈플레이보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Who Is A Playmate?

매달 딱 한 명 선정하는 플레이메이트는 〈플레이보이〉를 대표하는 주인공입니다. 미국 〈플레이보이〉의 첫 플레이메이트는 메릴린 먼로였죠. 플레이메이트가 되면 국내외 최고의 사진가와 사진 촬영을 하고, 근사한 화보와 함께 〈플레이보이〉의 상징인 센터폴드(Centerfold)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브랜드 광고 촬영, 행사 및 파티 참여 등 〈플레이보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체적이고 매력적인 당신, 무얼 주저하나요?

Benefits

- 국내 톱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비디오그래퍼와의 화보 및 영상 촬영
- 플레이메이트 화보 및 영상 출연료 지급
- 'PLAYMATE OF THE YEAR'로 선정 시 상금 지급
- 〈플레이보이〉 행사 및 파티 참여 시 활동비 지급
- 플레이메이트로서 대외 활동 시 발생하는 수익 분배

PICKS:10

4월, 〈플레이보이〉가 엄선한 10가지 라이프스타일.

1 no filter :

JUST LIKE ME

브랜드 디렉터 유연재와 모델 이유는 한 몸으로 산다.



> 누군가는 저를 브랜드 디렉터 유연재로, 누군가는 모델 이유로 기억할 텐데 그 자체로 재밌지 않아요?

editor **yang boyeon**
photographer **yoon sukmu** hair & makeup artist **park seulgi**

딱딱하달까, 삭막하기도 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향도 유행이나 남의 시선에 맞춰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생계 유지를 비롯한 이런저런 불안감도 느끼고요. 램샤클(Ramshackle)은 뜻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감정에서 영감을 받아 공동대표이자 둘도 없는 친구 (안)다정이와 함께 론칭한 브랜드예요.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의 액세서리를 커스텀해 선보이고 있죠. 지금은 액세서리만 있는데 곧 가방이나 인테리어 소품 제작 계획도 있어요. 그리고 대중성을 고려한 세컨드 라인 제품도 출시 예정이에요. 4월 말엔 쇼룸도 오픈하는데,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될 거예요. 램샤클이 궁금했거나 저희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 몇 년 쉬었는데, 다시 모델 일도 병행하기로 했어요. 모델로 활동할 땐 이유(Eu)라는 이름을 써요. 램샤클의 유연재가 아닌, 그냥 모델 이유로 임하고 싶거든요. 누군가는 저를 브랜드 디렉터 유연재로, 누군가는 모델 이유로 기억할 텐데 그 자체로 재밌지 않아요?(웃음) 작년에 램샤클을 시작한 뒤 운영하면서 고충도 있었는데, 이젠 일도 삶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다시 안정을 찾아야죠. 안 그래도 삭막한 서울살이, 숨 고르면서 여유롭게 살 거예요.

SQUARE MATTER

**바야흐로 4월.
스카프가
대활약을 펼치는 시기다.**



Mr. Playboy Says

**소재가 비슷한 반다나와 포켓스퀘어를 묶어
마치 양쪽 패턴이 다른 머플러인 듯 연출해보라.
믹스 매치에 자신이 붙으면
그녀가 내팽개친 실크 스카프와의
하이브리드에 도전해볼 것. 그녀의 눈이
똥그래지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부피 부담 없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 스카프.
둘둘 마는 건 작년 가을, 작년 봄,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소개하는
연출법을 들여다볼 것. 룩에 포인트를 주고자 한다면 목둘레에 맞춰 한 번
묶거나 매듭을 핀으로 장식하는 방법을, 보다 클래식하고 은근한 멋을 원한다면
양쪽 끝을 옷깃 안으로 숨기는 방식을 추천한다.

이캇 패턴의 울 혼방 머플러와 물고기 패턴의 면 소재 반다나는 **INDIGO PEOPLE**,
데님 소재 포켓 스퀘어는 이스턴 하버 서플러스로 모두 **SANFRANCISCO MARKET** 제품



PEEP SHOW
보일 듯 말 듯.

날씨가 따뜻해지면 옷차림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겨울에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거다. 그중에서도 양말. 신발로부터 발을 보호하며 발냄새가 나는 걸 막아주는 게 양말의 본분이지만, 드러날 듯 말 듯 은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양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4월엔 경쾌한 컬러로 따뜻해지는 날씨를 향한 가슴 설렘을 표현해볼 것.

오렌지&그린 스트라이프 양말은 **HOMBRE NINO by PENNY ROYAL**, 닻과 이니셜 모티브의 양말은 각각 **ANONYMOUS ISM**, **KAPITAL by SAN FRACISCO MARKET** 제품

NOT FOR SHOES
이것은 신발주머니가 아니다.

열리는 입구가 끈으로 당기는 식으로 된 드로스트링 백은 한때 중·고등학교에서나 보던 아이템이다. 지난 몇 시즌 동안 복주머니 형태로 인기를 끌던 드로스트링 백은, 올봄 남녀 할 것 없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백팩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쉽게 여닫는 기능성과 다양한 색상과 무늬로 무장한 드로스트링 백팩. 가볍게 둘러매고 봄 소풍 가는 날만 기다리면 된다.

블랙&화이트 패턴의 드로스트링 백팩은 **VANS**,
블랙 드로스트링 백팩은 **CHAMPION**,
오렌지 드로스트링 백팩은 **SLOW STEADY CLUB** 제품



PIN-UP
한 끗 차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천 한 장을 둘둘 말아 걸치는 게 옷 입기의 전부였다. 옷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필수적이던 건 바로 브로치와 핀. 소매와 단추, 지퍼는 물론 몸에 맞게 재단까지 하는 오늘날의 의복과는 관계없어 보이는 얘기지만 말이다. 필수불가결 아이템의 자리는 잃었지만 브로치와 핀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스카프를 고정하기도 하고, 가방과 모자, 레더 재킷 라펠을 장식하는 데에도 그만. 무엇보다 아이스 브레이커 또는 취향을 드러내는 척도로 핀만 한 것이 없다.

레터링 핀은 **HAVE A GOOD TIME**, 유머러스한 형태의 핀은 모두 **PENNY ROYAL** 제품



FUTURE PERFECT

**오래된 미래.
필립스의
새로운 면도기가
그렇다.**

면도기의 명가, 필립스가 새로 선보이는 '아이코닉 쉐이버'는 전형적인 외양을 갖췄다. 클래식한 셰이빙 브러시를 닮은 곡선, 그리고 로터리 스위치가 그 증거다. 하지만 이 제품의 내부를 채운 기술은 클래식의 정반대 지점에 있다. 면도기 최초로 QI 규격 무선 충전 기술을 결합한 것. 면도기는 모두 무선 충전인데, 무슨 차이냐 물을 수 있다. 이 제품의 혁신성은 충전 단자를 없앤 것에 있는데, 물에 닿으면 부식되기 쉬운 지점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 무선 충전 방식이 제품의 생명력을 늘려준 셈이다.

무선 충전 패드와 클렌징 브러시가 포함된 '아이코닉 쉐이버'는 **PHILIPS**, 어디든 두는 것만으로도 향을 내는 인센스 러버는 **FREDERIC MALLE** 제품



Mr. Playboy Says

**'아이코닉 쉐이버'에 적용한
Qi 규격 무선 충전 기술은 자기 유도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스마트폰까지
충전 가능하다는 얘기다.**





RUSH TO LUSH
다 보여줄게.

피부의 아름다움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취한다면 모순일까? 러쉬라면 얘기가 다르다. 동물실험을 없애고 공정무역을 지향하며, 포장을 최소화한 친환경 뷰티 브랜드니까. 재활용 용기로 만든 패키지마저 멋진 러쉬가 강남역 매장을 확장 이전 오픈했다. 이는 국내 러쉬 매장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존보다 약 6.5배 넓어졌다. 주목할 점은, 매장 안에 설치된 컨설테이션 부스. 밝고 건강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대로 닮은 직원들이 내게 꼭 맞는 제품을 찾아준다. 로션이나 향수는 기본, 인기 제품인 비누와 배스 볼까지 모두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집기가 제대로 갖춰졌으니 체험을 위해서라도 가볼 만하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3 02-3482-121

DIRT-OFF
공공의 적, 미세먼지 대처법.

4월은 잔인한 달. 햇살은 더욱 뜨거워지고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 작은 것들은 피부의 유분이나 화장품에 엉겨붙어 블랙헤드나 다양한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이 시기에 클렌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천연 콩 오일이나 백참나무 숯 등 자극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클렌징한 뒤, 자극 없는 수용성 AHA 성분을 함유한 각질 제거제로 모공 표면에 쌓인 오염 물질을 씻어낼 것. 만지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식물성분 비누를 가까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꾸 씻고 싶어질 테니까.

1 칼라민 파우더를 함유해 진정 효과가 있는 '두 카인드 클렌징 샤베트'는 **SIERO COSMETIC 2** 백참나무의 깨끗한 숯이 독소 배출을 돕고 피부 노화를 막는 '데일리 슈퍼폴리언트'는 **DERMALOGICA 3** 수용성 각질 제거 성분 AHA '케일라루야'와 항산화 성분이 많은 말차와 수분 공급에 탁월한 햄프시드를 함유한 '말차 햄프 하이드레이팅 클렌저'는 모두 **KRAVE BEAUTY 4** 식물성 원료에 무향료 · 무착색 · 무방부제의 투명한 '워터드롭' 비누는 **ASIS-TOBE**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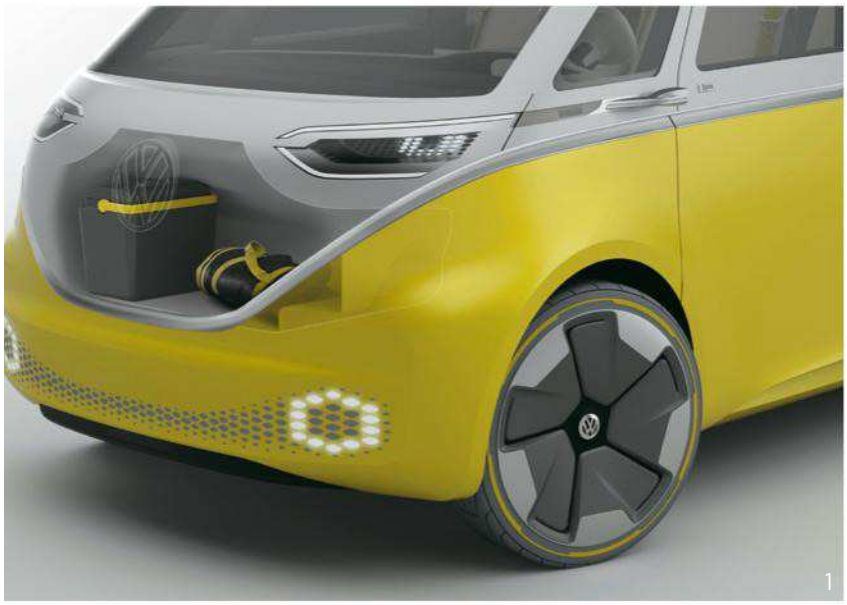




HEAD SPA
매일 스파하는 기분.

원래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약국이었다. 제약의 기술이 화장품으로 이어졌고, 그 명성이 널리 퍼져 400년을 이어왔다. 그래서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단순한 뷰티 제품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의미한다. 봄을 맞아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새로 출시한 3가지 샴푸는 과도한 피지로 기름진 두피나 건조하고 손상된 머릿결 등 다양한 헤어 고민을 해결하기에 적절하다. 필요에 따라 마치 약을 처방받은 듯 헤어를 관리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엉겨붙은 두피와 머릿결을 깨끗이 씻어내는 건 기본이고, 천연 성분이 뿜어내는 풍성한 향은 덤이다.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탁월한 석류 성분의 '샴푸 멜로그라노',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고 두피의 피지 균형을 잡아주는 창포꽃 성분의 '샴푸 아이리스', 머릿결 손상을 방지하는 라벤더 성분의 '샴푸 라반다'는 모두 **SANTA MARIA NOVELLA**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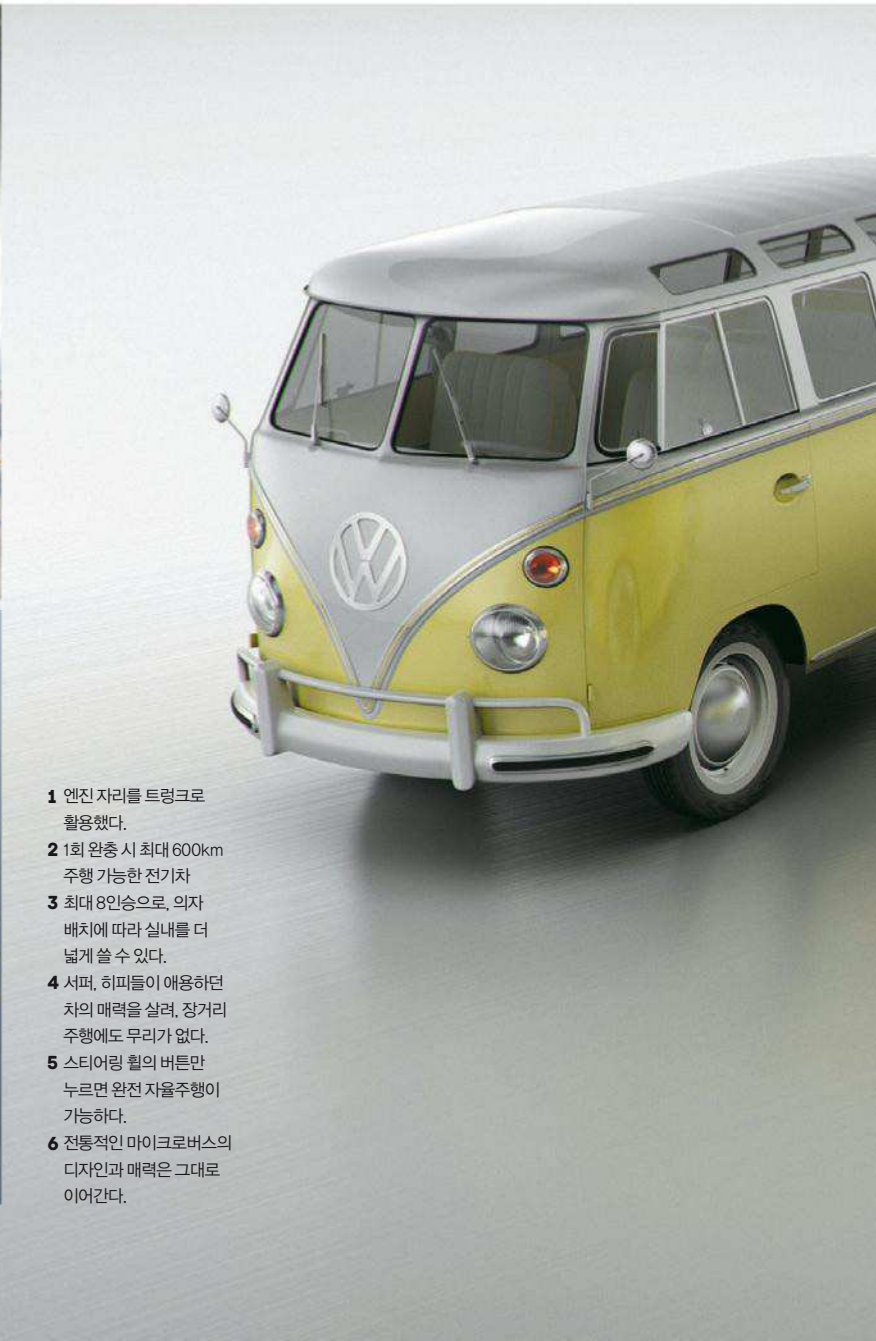
LITTLE MINI SUNSHINE

낭만과 자유를 싣고 달리는 폭스바겐 미니버스.

Mr. Playboy Says
2022년 출시 예정인 폭스바겐 I.D. 버즈는 낭만을 기억하는 자율주행 전기차다.







1 엔진 자리를 트렁크로 활용했다.
2 1회 완충 시 최대 600km 주행 가능한 전기차
3 최대 8인승으로, 의자 배치에 따라 실내를 더 넓게 쓸 수 있다.
4 서퍼, 히피들이 애용하던 차의 매력을 살려, 장거리 주행에도 무리가 없다.
5 스티어링 휠의 버튼만 누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6 전통적인 마이크로버스의 디자인과 매력은 그대로 이어간다.

한 시대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차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한 용기. 지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I.D. 버즈'는 폭스바겐이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는 그들만의 방식처럼 보였다. 자유롭고 낭만적인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마이크로버스 디자인에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한 작은 버스의 존재감이 그랬다. I.D. 버즈는 폭스바겐이 선보일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 'I.D'에 속하는 모델이다. 외부와 내부 디자인은 폭스바겐이 1968년부터 몇 차례 선보인 '스테이션왜건 타입 2'를 쏙 빼닮았고 오리지널 마이크로버스의 매력도 덜어내지 않았다. 그대로 최대 8인승. 여전히 의자 배치에 따라 실내를 라운지처럼 더 넓게 만들 수도, 침실로 쓸 수도 있다. 또한 승인된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키를 통해 어떤 사람이 탑승했는지 인식할 수 있다. 게다가 최대출력 396마력과 600km의 NEDC 전기 주행거리, 최대시속 159km라는 준수한 기능까지 갖췄다. I.D. 버즈의 더 새로운 점은 'I.D. 파일럿(Pilot)' 기능이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만 누르면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된다. 말 그대로 운전자가 없어도 알아서 주행하는 기특한 버스. 차가 스스로 주행하니, 탑승자 모두 뒷좌석의 넉넉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유롭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히피들과 서퍼들이 즐겨 타던 마이크로버스의 매력적인 디자인은 온전하고 아직까진 의무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자, 누군가는 피로하게 여길지 모를 운전자 역할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낭만을 싣고 달리는 작은 버스의 매력은 그대로다. I.D. 버즈가 폭스바겐이 점지한 '내일로 향하는 버스' 같다고 말한다면 꿈보다 해몽일까. I.D. 버즈의 출시 예정 연도는 2022년이다. 폭스바겐이 꿈꾸는 4년 뒤의 미래는 I.D. 버즈만큼 낭만적일 것으로 보인다.

모델명 I.D. BUZZ **최대출력** 396마력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최고속도** 159km/h
구동 방식 풀타임 사륜구동 **승차 인원** 최대 8인


4


5

6



Festival

SPRING BREAK!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 열리는
세 번의
댄스 음악 페스티벌.**



1 오거닉 페스티벌의 캠핑장
2,3 2017년 이퀘이션 페스티벌의 낮과 밤 풍경

봄을 맞아 아시아 3국에서 댄스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 각각의 색이 다르고,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로컬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시대 음악 신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셋 다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열려 주변 경관 또한 빼어나니, 여름휴가를 앞당겨 들러볼 만하다.



Organik Festival

타이베이는 아기자기하고 실속 있다. 그런 특성이 댄스음악 신에도 반영된다. 규모에 비해 역사가 있고, 거품을 쌓는 대신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형태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다. 특히 클럽 코너(Korner)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 신이 강세인데, 오거닉 페스티벌은 어두운 지하보다 곱절은 더 컴컴한 바다와 산의 접경에서 즐기는 테크노와 실험음악 페스티벌이다. 해변에서 캠핑하다 숲속에서 춤추는 경험이야말로 흔치 않을 터, 거기에 어쩌면 자연과 이질적인 전자음악을 듣는 밤이라면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타이베이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화롄현 후팅에서 열리는 오거닉 페스티벌은 이런 콘셉트로 벌써 7년째를 맞았다.

Dorisburg, Barker & Baumecker, Blind Observatory, Powder, C.K 등
4월 27일~4월 29일 www.smkmachine.com



Equation Festival

하노이의 새비지(Savage)는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클럽이다. 특정 장르에 몰두하기보다, 편견을 두지 않는 큐레이션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하노이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동모 호수에서 열리는 이퀘이션 페스티벌은 새비지를 '아웃도어'로 옮긴 듯한 페스티벌이다.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디제이들을 초청한다. 그중에서도 이미 세계적 스타가 된 디제이 노부, 파우더, 사모 디제이 등은 아시아 출신이거나 아시아 거주 경험이 있는 디제이다. 왜 우리 잔치에 우리를 잘 모르는 디제이를 주인공 삼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경험이 있다면, 이퀘이션의 방식이야말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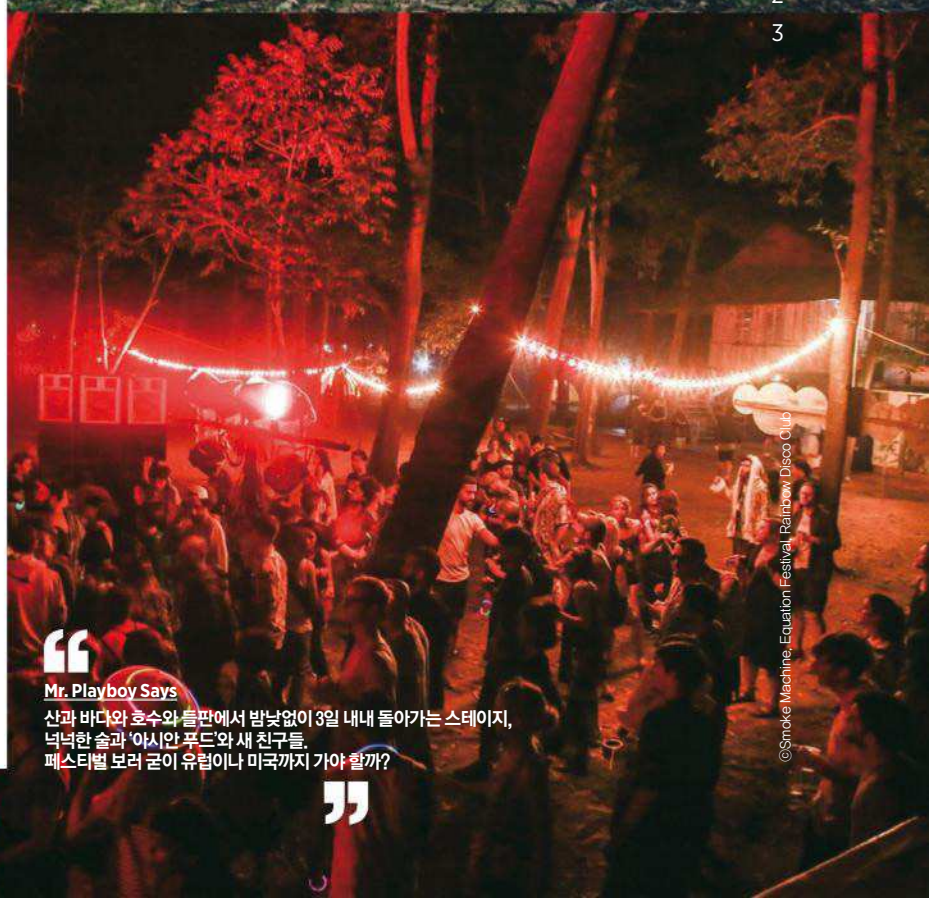
San Soda, S.O.N.S, Samo DJ, Powder, Gonno, Andy Hart 등
4월 6일~4월 8일 www.equationfestival.com



Rainbow Disco Club

레인보 디스코클럽 페스티벌은 이름 그대로 총천연색이다. 참여 뮤지션의 면면 또한 새카만 티셔츠에 묵직한 부츠보다는 편안한 치노나 하와이언 셔츠가 더 어울리는 쪽이다. 특히 레인보 디스코클럽은 암스테르담의 러시아워 레코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러시아워는 시티팝 음반을 꾸준히 재발매하고, 일본 하우스의 선구자 소이치 테라다(올해도 어김없이 페스티벌에 참가하는)의 컴필레이션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일본 음악계와 교류하는 모양새다. 베를린의 무뚝뚝함보다 암스테르담의 자유로움을 선호한다면, 포 텟이나 플로팅 포인츠의 장르 예측이 불가능한 선곡을 기대한다면, 시즈오카현 히가시 이즈 컨트리클럽의 푸른 잔디밭에서 그 모호한 흐름에 몸을 맡겨도 좋겠다.

Soichi Terada, Four Tet, Floating Points, Peanut Butter Wolf, DJ Muro 등
4월 28일~4월 30일 www.rainbowdiscoclub.com



©Smoke Machine, Equation Festival, Rainbow Disco Club

Mr. Playboy Says
산과 바다와 호수와 흙판에서 밤낮없이 3일 내내 돌아가는 스테이지, 넉넉한 술과 '아시안 푸드'와 새 친구들. 페스티벌 보러 굳이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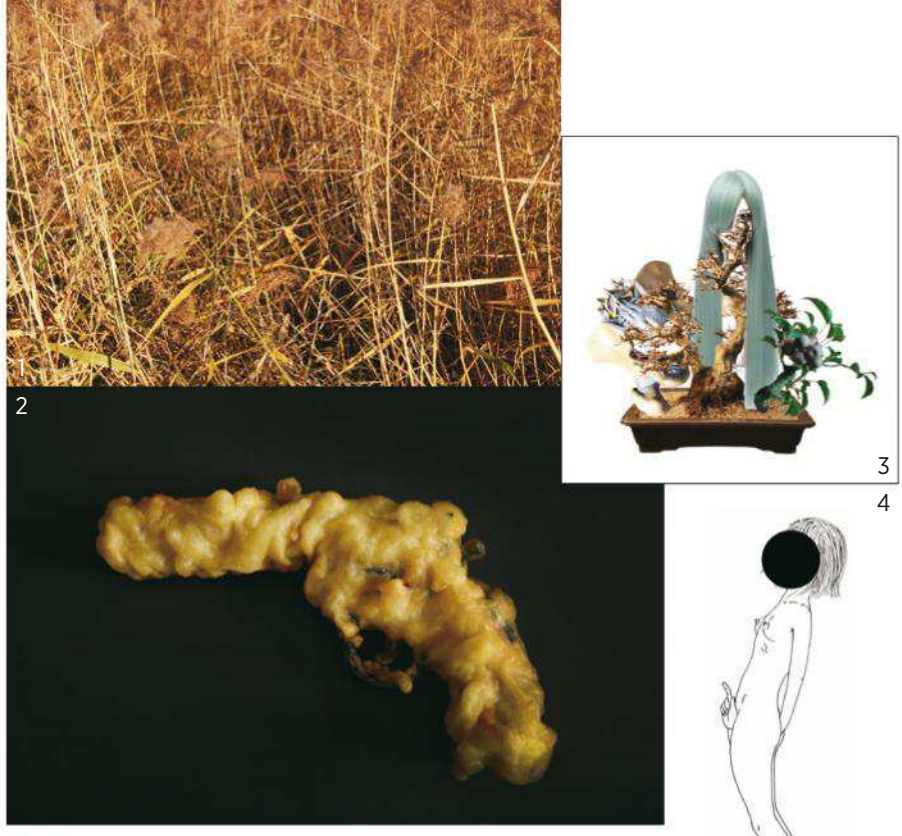
Exhibition

SHOW ME

〈딮ㅂ후라이〉展

연남동의 막사(MAKSA)와 연희동의 레이저(LASER) 등에서 여러 기획전과 이벤트를 열어온 플레이스막이 서울을 벗어나 새로운 거처 플레이스막 인천을 마련했다. 개관전 〈딮ㅂ후라이〉에서는 박가인, 박철호, 웁쓰양, 진나래 네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개한다. 〈딮ㅂ후라이〉란 전시명은 '튀기'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 본래 멸시의 의미가 담기지 않은 용어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맥락에 초점을 맞췄다. '멀쩡한 것에 왜곡된 시선과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와 주변을 속이는가 하면, 그것을 체화한 채 오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곤 한다'고 쓴 전시 서문처럼, 작가들은 각각의 시선으로 여러 왜곡과 변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 또한 날것의 물질을 기름에 '튀겨' 상태 변화를 이뤄내는 행위와 같다는 말과 함께. 몸과 성, 자연과 인간, 종교와 자본 등을 '튀기는' 그들의 시선이야말로 새롭다.

3월 17일~4월 5일 인천시 중구 개항로 75-1
www.placemak.com



1 박가인 '갈대밭', 2018 2 박철호 '리볼버M626튀김', 2018 3 진나래 '〈접골원〉을 위한 드로잉', 2018
4 웁쓰양 '〈이혼 요가〉를 위한 드로잉', 2018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를 느낀다는 건 곧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도시를 보는 일과 같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동시에 가장 잔혹한 기억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의 작품으로 대하지 않지만, 한편 가장 가까이서 작품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뮤지엄의 새로운 전시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떤가요?〉는 사진가, 설치 미술가, 미디어 및 사운드 아티스트들이 각자 봤거나 상상해 창조한 날씨를 담은 전시다. 마틴 파와 요시노리 미즈타니의 사진부터 울리히 포글의 엉뚱한 오브제까지, 떠나간 겨울을 그리워하든 벌써부터 여름을 기다리든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

4월 26일~10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Replace 한남 F동
www.daelimmuseum.org/dmuseum



김상희 'Cloud Way', 2017

Book

PLAYBOY'S BOOKSHELF

1 〈헝거〉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를 쓴 대학교수이자 문화 비평가, 소설가인 록산 게이의 자전적 에세이. 그는 어린 시절의 끔찍한 경험 이후, 일부러 자신을 거구로 만들었다. 그러면 남성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혐오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이라는 부제야말로, 그녀가 살아온 생과 싸움의 역사를 숭고하게 함축한다. **사이행성**

2 〈황색예수〉 김정환

폭압적인 1980년대 한국에 살며 '비종교적 인간' 김정환은 성경을 모티브 삼아 시를 쓰고자 했다. 열네번 째 문학과지성 시인선 R, 〈황색예수〉는 당시 세 권에 걸쳐 출간된 연작시를 한 권으로 묶은 시집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당대 종교의 세속성에 대한 비판, 성경의 진정한 의미의 발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복합적이자 유기적으로 엮었다. **문학과지성사**

3 〈민조킹의 드로잉노트〉 민조킹

야한 그림을 그리는 '야그리머' 민조킹의 드로잉은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그 특색만큼은 따라 할 수 없겠으나, 선 굵은 필체로 '쓱쓱' 그려내는 방식이라면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다. 그런 그의 드로잉 북 〈민조킹의 드로잉노트〉는 친절하다. 초창기 그림을 소개하고,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하고, 그리기 전에 준비할 것을 제시한다. 연습 페이지에 따라 그려볼 수도 있어 더 재미있다. **브레인스토어**

1 2 3



©Dmuseum, Placemak

editor **kim minji** assistant editor **kim sunhee**
photographer **choi seunghyuk, lee yongin**

EAST FEST

**익숙한 듯 생경한
아시안 요리.**



Mr. Playboy Says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쓰촨식 요리는
정신마저 아찔하게 한다.**

참지마라(參知麻辣). '좋은 사람과 함께 마라를 즐기자'라는 의미로, 쓰촨식 타파스 바 '레드문'의 슬로건이다. 한자어로 '맵고 얼얼하다'는 감각을 뜻하는 '마라'는 특히 쓰촨 요리를 먹을 때 느낄 수 있는데, 이곳의 시그너처 디시는 바로 '새우완탕'이다. 얇은 피로 감싸 만든 중국식 완자 '완탄'과 에그 누들을 매콤한 육수에 끓여내는 것. 산초의 일종인 화자오가 육수의 베이스로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콤하다. 여기에 청경채, 달걀 반숙, 마늘칩과 샬롯칩까지 수북하게 올려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다진 새우 대신 새우 무스를 사용한 완탄도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 쓰촨식 요리와 맛있는 술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참지마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20길 41-4 지하 1층 070-8865-3112



TASTE OF SICHUAN

맵기만 하지 않은 파불라의 쓰촨 요리.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중국의 쓰촨 요리를 맛보는 것은 일종의 도전일 수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맵지 않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청담동의 중식당 '파불라'에서는 그런 걱정을 잠시 넣어둬도 좋다. '맵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뜻의 중국어를 영어식으로 이름 지은 이곳에서는 '맵지만은 않은' 쓰촨 요리의 매력 탐미가 가능하다. 깔끔한 공간에 자리를 잡으면, 매운맛을 포함해 신맛, 달달한 맛, 고소한 맛 등 7가지 풍미를 골고루 담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최근 새롭게 출시한 시그너처 코스는 대표 요리인 차나무버섯볶음과 쓰촨 마라롱샤, 소리강 동파육 등 인기 메뉴를 모아 선보인다. '쓰촨 요리는 모두 맵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곳에서 편견을 깨는 식사를 경험해볼 것.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1길 51 02-517-2852

TAIWAN IN ITAEWON

이태원에서 맛보는 대만의 바오.

'바오'는 대만의 길거리 음식이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지 않다. 이태원의 '바오바'는 정통 바오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한 손에 잡히는 귀여운 모양새를 보면 조리법이 간단할 듯하지만, 레스토랑 요리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간다. 다양한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바오의 매력이라는 신념으로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 메뉴를 개발한 덕분에 조화로운 맛을 낸다. 주재료인 동파육, 다진 양고기, 트러플 오일과 버섯이 함께 넣은 부재료와 어우러지며 번의 속을 채우기 때문. 바오를 패스트푸드처럼 즐기기 위한 '익스프레스 버전'도 곧 공개할 예정이니,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바오바를 반갑게 맞이하자.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1 02-6012-0780



FOUR HANDS DINING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인터내셔널 셰프 쇼케이스.

서울의 별과 오사카의 별이 만났다. 2018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첫 다이닝 이벤트로 '라심'과 '밍글스'의 '4 핸즈 다이닝'이 서울의 밍글스에서 열린 것. 각각 별 2개와 1개를 받은 두 레스토랑의 셰프는 '한국의 봄'을 주제로 8코스의 디너 메뉴를 준비했다. 여기에 내추럴 와인을 비롯한 4종의 와인과 이탈리아 프리미엄 다이닝 워터 산펠레그리노와 아쿠아파나를 매치해 품격을 높였다. 특히 '라심'의 타케다 셰프는 직접 농장까지 방문하는 등 한국 식자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짧은 시간임에도 양국의 식자재와 조리법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번 4 핸즈 다이닝은 '근래 다이닝 이벤트 중 가장 완성도 높은 디너'라 입을 모을 만큼 성공적이었다. 특히 고추장 소스와 함께 낸 막걸리에 숙성시킨 붕장어튀김 코스와 정강이 편육, 본 매로우를 곁들인 메인 코스는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02-515-7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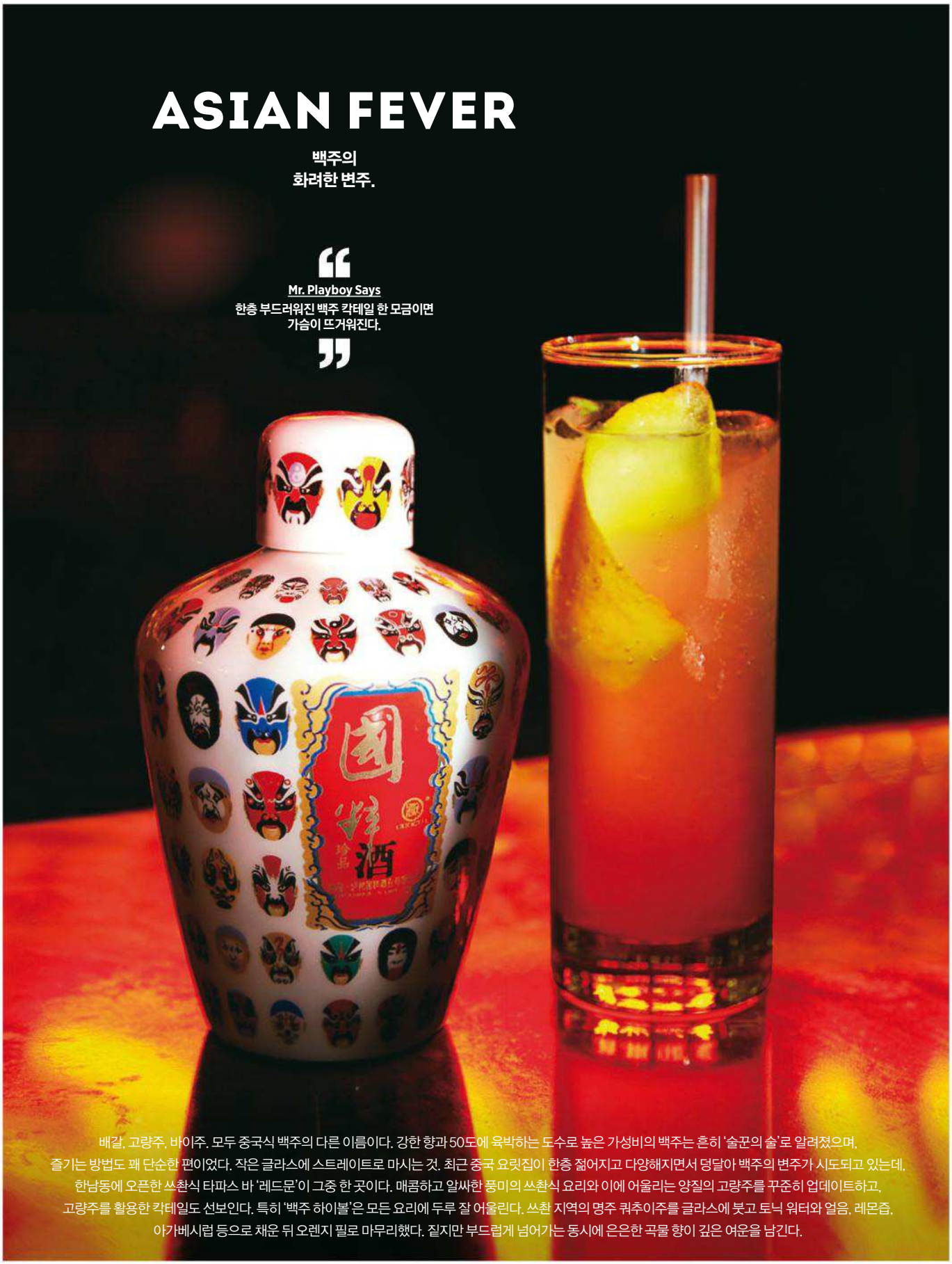


©bob.eat

ASIAN FEVER

백주의 화려한 변주.

Mr. Playboy Says
한층 부드러워진 백주 칵테일 한 모금이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배갈, 고량주, 바이주. 모두 중국식 백주의 다른 이름이다. 강한 향과 50도에 육박하는 도수로 높은 가성비의 백주는 흔히 '술꾼의 술'로 알려졌으며, 즐기는 방법도 꽤 단순한 편이었다. 작은 글라스에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 최근 중국 요릿집이 한층 젊어지고 다양해지면서 덩달아 백주의 변주가 시도되고 있는데, 한남동에 오픈한 쓰촨식 타파스 바 '레드문'이 그중 한 곳이다. 매콤하고 알싸한 풍미의 쓰촨식 요리와 이에 어울리는 양질의 고량주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고량주를 활용한 칵테일도 선보인다. 특히 '백주 하이볼'은 모든 요리에 두루 잘 어울린다. 쓰촨 지역의 명주 쿼추이주를 글라스에 붓고 토닉 워터와 얼음, 레몬즙, 아가베시럽 등으로 채운 뒤 오렌지 필로 마무리했다. 짙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동시에 은은한 곡물 향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BARBER'S BAR

중국 술을 파는 이발소.

명성관은 오픈 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던 명성이발관의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 중국식 칵테일을 판매하는 '마포 스타일의 차이니스 바'다. 투박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공간에 가득 들어찬 바 좌석을 마주하게 된다. 백주 계열의 고량주를 넣은 '화이트 피츠'와 황주 계열의 소흥주를 넣은 '차이니즈 하이볼' 등 제조 방법에 따라 중국의 여러 술을 활용했다. 달콤한 맛을 더하고 도수를 줄였으니 가볍게 마시기에도 제격이다. 다진 고기와 연두부를 매콤하게 볶은 '명성 마파 두부' 또한 곁들이기 좋은 인기 메뉴. 밤이 깊고 새벽이 찾아와도, 명성관의 삼색봉은 불을 밝히며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길 32 02-337-7456







夢中人

꿈속의 그대처럼 달콤한 몽중인의 칵테일.

'몽중인'은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을 콘셉트로 한 술집이다. '꿈속의 그대'를 사모하는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등장하던, 비행기 모형이 담긴 어항도 영화 속 장면 그대로 놓여 있다. 홍콩 분위기 가득한 이곳은 술 또한 고량주를 활용한다. 짙은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준 공간처럼, 고량주에 멜론과 사과 리큐어를 첨가하고 생크림을 얹은 '몽중샷'도 맑은 초록빛을 띤다. 함께 판매하는 3~4종의 고량주는 수수 향이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술과 요리를 모두 즐기는 캐주얼한 중식당을 지향하는 덕분에 마라탕 등 메인 메뉴는 훌륭한 안줏거리가 된다. 봉천동 골목 한켠의 작은 홍콩에서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르익으면, 경찰 663과 페이처럼 깊은 사랑을 꿈꿔봐도 좋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4가길 13 010-7167-6659



CHINESE EXPRESS

모던눌랑에서 1930년대 상하이로의 여행.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중국 술'의 이미지는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향을 맡으며 고량주를 들이켜면 술 기운이 금방 오른다. 차이니스 라운지 '모던눌랑'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 로맨틱한 순간을 선사한다. 고량주를 베이스로 제조하는 이곳의 칵테일은 익숙한 클래식 칵테일의 원료를 섞어 상큼한 맛을 더하고, 레몬이나 라임, 바질을 착즙해 풍미를 살렸다. 제비꽃 향 리큐어를 사용한 연분홍빛 '상하이 핑크'와 기네스 맥주를 넣은 '블랙 슈트'가 시그너처 메뉴. 한 잔에 거나하게 취하지 않아도 좋다. 1930년대 상하이를 모티브로 꾸민 공간에서 오래도록 천천히 마시며, 마치 중국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끽해보자.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02-6282-5005



PLAYCE CAMP JEJU

제주의 봄을 만끽하는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Mr. Playboy Says

**제주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소에서 먼저 느긋하게 잘 쉬는 것.
충분한 휴식 후에야 비로소 섬마을 사람들의 여유를 즐겨볼 수 있을 테니.**



1



2
3

1 자연광이 쏟아지는 거실
2 실내 풀을 갖춘 펜트하우스의 널찍한 공간
3 긴 테이블이 놓인 다이닝룸
4 창문 너머로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침실
5 페이스 타월부터 셰이빙 키트까지, 어메니티를 알차게 구비한 욕실
6 청록색으로 고급스럽게 꾸민 욕실





4



5

녹음이 짙어지고 꽃들이 만개하는 4월. 다채로운 이 계절을 만끽하기 좋은 지역은 단연 산과 바다가 광활하게 펼쳐진 제주다. 육지 너머로 찾아왔으니, 매 순간 이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만큼 완벽한 여행의 조건은 없다. 물론, 호텔 안팎에서의 생활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선명한 추억으로 남을 테다.

'플레이스 캠프 제주'는 제주의 자연을 자연스레 마주하고 다양한 경험까지 할 수 있는 '캠프'다. '호텔'이라 부르지 않는 건 격식을 차리기보다 캠핑을 온 것처럼 흥겹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플레이스'를 'place'가 아닌 'playce'로 표기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이곳은 실제로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광치기해변의 유채꽃밭까지 걸어서 5분 거리라 제주의 푸르고 노란 색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객실에서도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여러 콘셉트에 따라 구성한 스위트 중 가장 돋보이는 곳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탁 트인 내부는 불필요한 가구를 줄여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소파와 티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지만 굳이 거실과 부엌을 구분하지 않는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이곳을 채우는 건 함께 머무르는 사람과 낯선 지역에서 공유하는 추억이 될 터. 한쪽 바닥에 마련된 실내 풀에서는 통유리창 너머로 비추는 햇살을 맞으며 한껏 여유를 부리기에 제격이다. 루프톱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 싱그러운 제주의 풍경이 한눈에 담긴다. 양끝에 위치한 2개의 침실에서는 낮잠을 청하거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각각 다른 인테리어로 꾸몄으니, 바깥의 널찍한 공간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기대해도 좋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역동적인 경험의 기회로 가득한 바깥으로 나서보자. 호텔리어뿐 아니라 셰프와 바리스타, 숍 마스터 등 이곳의 '플레이서(playcer)'는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의 시간을 더욱 신나게 만들어준다.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 커피와 디저트, 크래프트 맥주까지 시시각각 제공하며, 여행을 사랑하는 이들의 감성과 어울리는 디자인 상품도 판매한다. 또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인 '아웃도어 플레이', 매일 진행되는 '무비 나잇', 술과 음악을 함께 즐기는 '울프 뮤직' 등 각종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져 유쾌한 낮과 밤을 보장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잘 노는'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름다운 제주의 봄을 더욱 가까이에서 흥겹게 즐기고 싶다면, 플레이스 제주 캠프의 펜트하우스에 머무르는 건 어떨까. 섬을 한 바퀴 둘러보고 캠프로 돌아와도 여행은 끝나지 않는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 20 064-766-3000
www.playcegroup.com
1박에 145만2000원(3, 4월 특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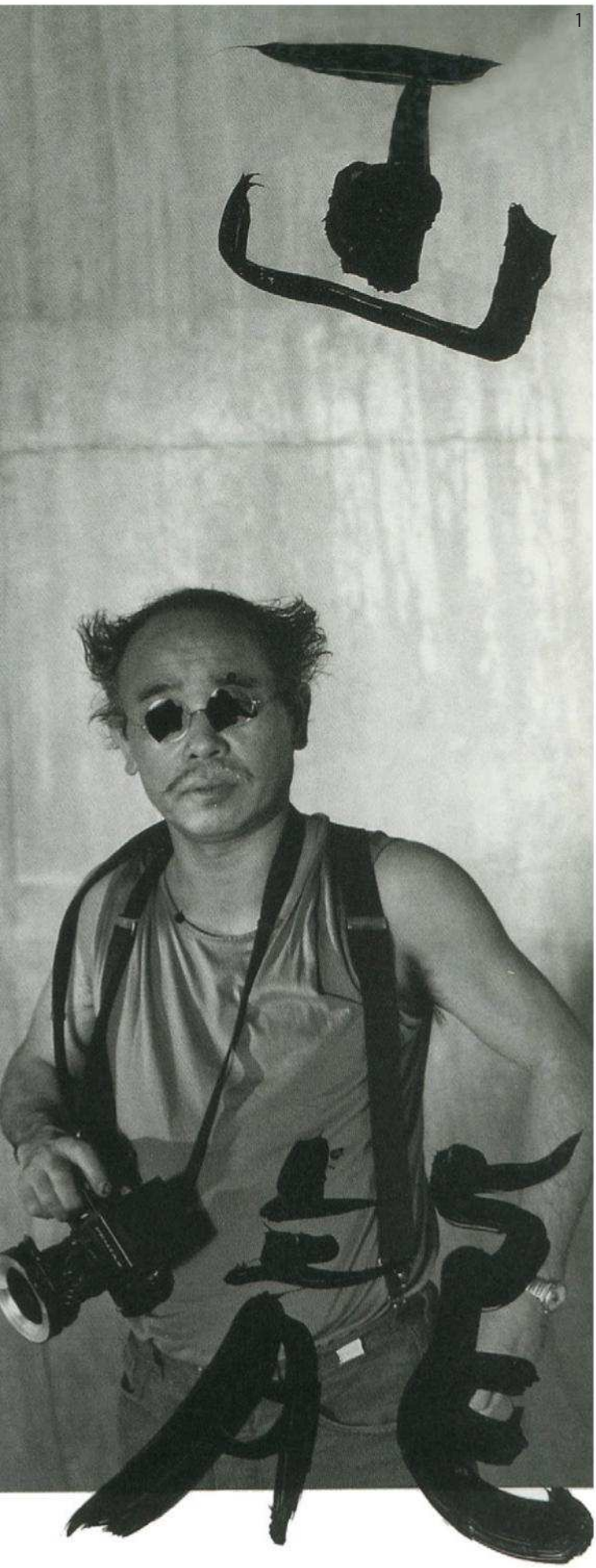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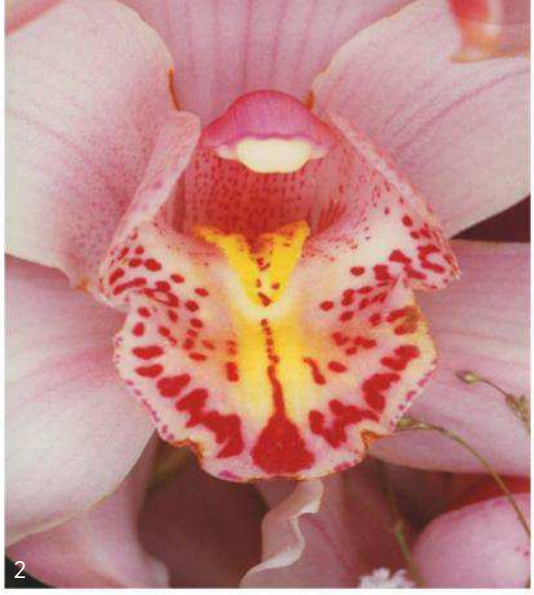
Mr. Playboy Says

성인에게만 허락된 성 박물관.
학습의 장이자 동시에 가장
도발적인 놀이터가 된다.

ALL ABOUT SEX

지금
뉴욕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





1 'Marvelous Tales of Black Ink(Bokuju Kitan) 068', 2007
2 'Flowers', 1985

박물관은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하나다. 뉴욕의 MoMA,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런던의 대영박물관이 그렇듯 전 세계 여행객들이 그 도시를 찾게 되는 이유기도 하다. 여기 2002년 개관한 성 박물관 뮤지엄 오브 섹스 역시 뉴욕을 방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18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 가능하며, 사람은 물론 동물의 섹스까지 아우르는 전시가 준비돼 있다. 지금이라면 더 좋겠다. 포토그래퍼 노부요시 아라키의 팬이라면 말이다. "그들의 불완전함을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정제되기 전의 모습을 촬영하죠". 노부요시 아라키의 전시 〈The Incomplete Araki〉는 미국 최초로 열리는 그의 회고전으로 전시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포르노그래피를 방불케 하는 아찔한 소재로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오가는 가학적이고 극히 현실적인 이미지를 촬영해온 그의 사진은 동시에 인간의 깊은 욕망과 현실의 공허함을 내포한다. 또한 에로틱한 이미지를 담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의 뮤즈이자 아내인 요코를 렌즈에 담아 그의 방식으로 아내에 대한 사랑까지 담고 있다. 꽃과 죽음을 연결한 꽃 시리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아라키 회고전 외에도 6개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 VR 전시인 〈Celestial Bodies〉와 여성 성 관련 아트워크를 한자리에 모은 〈NSFW Female Gaze〉, 1970년대 후반 뉴욕의 디스코클럽을 담은 〈Night Fever〉가 있다. 동물들의 섹스를 위트 있게 큐레이션한 〈The Sex Lives of Animals〉도 빼놓을 수 없다. 아라키의 회고전은 올해 8월까지 계속된다.



뮤지엄 오브 섹스

223 Fifth Avenue(at 27th Street) New York, NY 10016
www.museumofsex.com

그외 흥미로운 전시들.



Night Fever
1977~1979년 사교의 장이던 뉴욕의 디스코클럽을 담은 사진전
상설 전시



NSFW Female Gaze
떠오르는 25명의 여성 아티스트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 전시
~10월 14일



Celestial Bodies
가상현실 VR룸을 통한 체험형 전시
~2018년 여름



object xxx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섹스와 관련된 오브제 전시
~2018년 여름

History
마라톤은 근대 올림픽의 창설과 함께 시작되어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 불린다. 한국 선수 중엔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Information
마라톤은 42.195km지만 풀코스를 소화하기 어렵다면 하프 마라톤(21.0975km)과 10km 단축 마라톤 그리고 5km 건강 마라톤도 있다. 만약 풀코스가 시시하다면 그 이상의 울트라 마라톤 대회도 있다.

Health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 그리고 그 자체로 완벽하다.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하체의 힘이 증가하고 심장의 용적이 커져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 아, 당신이 꿈꾸던 스태미나 증진도 당연히.

Mental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마라톤 마니아로 알려졌다. 매년 마라톤 풀코스에 참가할 정도로 달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글쓰기를 위한 체력을 기르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IT'S RUNNING TIME

Running With Items
맨손 운동인 마라톤은 어떤 아이템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다르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운동화다. 러닝화는 발에 착 감기면서 쿠셔닝, 통기성이 좋고 가벼워야 한다. 오래달리기를 하다 보면 땀과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신경 쓰이기 마련. 이런 상황에선 '푸마 헤드밴드'가 유용하다. 운동할 때 음악도 빠질 수 없다. '퍼포먼스 아디스타 헤드폰'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GPS로 속도와 거리를 측정하고 운동 코치 역할까지 하는 '핏빗 아이오닉'도 유용하다. 이걸로 부족하다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도 있다. 헬스 트레이너처럼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워크로'는 기존의 트레드밀과 겉부터 차별화를 두었다. 21kg이라는 가벼운 무게와 손잡이가 없는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은 보관과 관리가 쉽다. 스마트폰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결과를 정리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더 이상 피트니스센터를 찾지 않아도 된다.

1 울트라 부스트 레이스리스, 알파바운드 비욘드M, 에너지 부스트M 러닝화는 모두 **ADIDAS**
2 트레드밀 워크로와 리모컨 그리고 스포츠 밴드는 모두 **HEALTHONE**
3 퍼포먼스 아디스타 헤드폰은 **MONSTER AUDIO**
4 아이오닉 스마트 워치는 **FITBIT**
5 헤드밴드는 **PUMA**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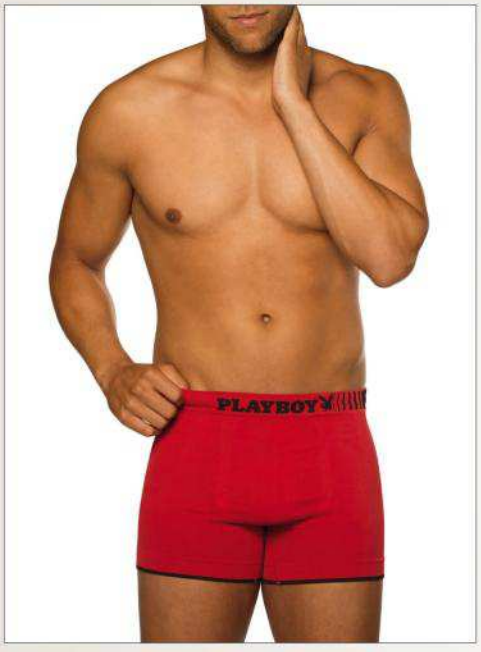
MARATHON RACE
4월에 추천하는 마라톤 대회 일정

대구국제마라톤대회
4월 1일
올해로 6년째 국제육상연맹(IAAF)의 실버라벨로 인정받은 마라톤 대회. 큰 규모만큼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풀코스, 하프코스, 10km와 건강달리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 북구 053-355-3872
marathon.daegusports.or.kr

KOREA 50K국제트레일러닝대회
4월 21일
10km, 27km 그리고 풀코스보다 긴 58km로 진행된다. 아이들을 위한 키즈 레이스도 진행하니 온 가족이 참여하면 좋을 듯하다.
경기도 동두천시
www.korea50k.com

경기마라톤대회
4월 22일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로 풀코스 참여가 가능하다. 이외에 5km, 10km 그리고 하프코스가 있으며 1만 명이 참여한다.
경기도 수원시 1577-3998
www.kgmarathon.co.kr

서울하프마라톤
4월 29일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대회로 광화문부터 상암 월드컵공원까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뛴다. 10km와 하프코스로 구성되며 참여 인원은 1만 명이다.
서울시 종로구 02-724-6333
halfmarathon.chosun.com







PLAYBOY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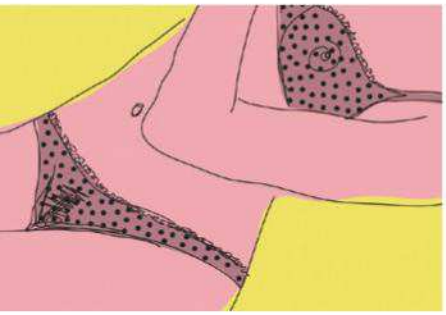
Exclusively from Playboy. Shop now.



PLAYBOY's #Times Up

여성 인권을 향한 지지와 응원의 열기에 미국 〈플레이보이〉가 동참했다. 올해 초, 〈플레이보이〉 본사에서 '타임즈 업' 운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5000만 달러(약 535억원)를 기부한 것이다. 쿠퍼 헤프너는 "어떤 상황에서든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반드시 더 좋은 국가와 세계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녀 모두를 위한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는 〈플레이보이〉의 소신이 담긴 행동이다.

POTPOURRI



Cunnilingus Wear

미국 〈플레이보이〉에서 입으로 여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커닐링구스를 위한 언더웨어를 소개했다. 냄새에 민감한 여성들이 걱정 없이 오럴섹스를 즐기도록 체취의 차단에 주력한 상품. 얇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한 덕분에 손가락과 혀끝의 감촉도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에서 이미 2만4000달러에 이르는 지원금을 모으며 인기를 입증했다. **www.playboy.com**



Shy Guy's Guide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더티 토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자극적이다. 적나라한 말을 주고받는 순간의 쾌락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미국 〈플레이보이〉가 용기를 북돋웠다. 핵심은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얕고 짙은 숨소리를 적절한 타이밍에 섞으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오늘 밤엔 솔직한 욕망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아찔한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www.playboy.com**



Unusual Pleasure

항문 자체는 성적 기관이 아니지만, 그 주변의 신경종말을 자극하면 색다른 쾌락을 즐길 수 있다. 만약 경험해보고 싶다면, 독일 〈플레이보이〉가 귀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참고할 것.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손가락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천천히 움직이며 조금씩 그 느낌에 익숙해져야 한다. 물론, 인내만큼 중요한 건 본능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자. **www.playboy.de**



Oriental Orgasm

동양의 밀교 수행법을 담은 경전, 탄트라. 멕시코 〈플레이보이〉에 의하면, 탄트라의 섹스는 신체의 모든 부위에 집중한다. 천천히 공을 들여 다리와 허리, 가슴을 어루만진 후,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의 '요니'라고 이름 붙인 여성의 질을 본격적으로 애무한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잊지 못할 전신의 오르가슴을 선사하는 경건한 의식에 다름 아니다. **www.playboy.com.mx**

©Shutterstock



I'd Rather Go Naked

러시아 〈플레이보이〉가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의 새로운 캠페인 소식을 알렸다. 모피 착용을 반대하는 모델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포즈를 취하며 "동물의 털과 가죽을 입느니 차라리 벗고 다니겠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희생도 없는, 인간 본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한 태도에서 생명을 향한 존중이 느껴진다. **playboyrussia.com**



An Erotic Artist

간결한 선과 색으로 성적 장면을 그리는 프랑스의 아티스트 리가 쿠파블르. 스스로를 '에로틱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는 그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순간을 소재로 다룬다. 정사각의 프레임 안, 두 사람은 입술과 살결을 가까이 맞댄 채 서로에게 오롯이 집중한다. 지난 2월 뉴욕에 이어 4월에는 런던의 코프랜드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regardscoupables.com**



Pain Killer

퇴폐적 매력이 돋보이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미국 〈플레이보이〉의 커버 모델이었던 스카이 페레이라. 목소리도 외모를 닮아 시크하고 몽환적인 그가 최근 덴마크 밴드 아이스 에이지의 신곡 'Pain Killer'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록 기타의 선율과 드럼의 빠른 비트 위에 고통의 감각마저 잊게 하는 듯한, 마음이 강렬하게 이끌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다.



Sex Work, Art Work

뉴욕의 아티스트 헬로 제피는 성 평등을 위해 일한다. 여성의 가슴을 형상화한 작품을 비롯한 그의 작업은 남녀 차별이 극심한 현대사회에 시각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성 노동자의 인권을 다루는 전시를 큐레이팅하며 꾸준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해시태그 #sexworkartw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hellozephy.com**

신중히 고르고 멋대로 꼽았다.
〈플레이보이〉 편집팀이 선정한 지구를 아우르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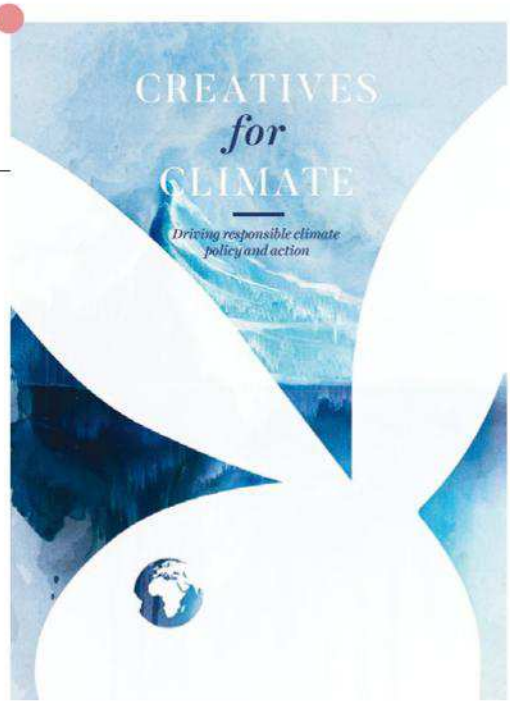
Adult's Game

어른들을 위한 섹시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출시됐다. 성인용 모바일 액션 RPG '플레임 오브 노스사이드(FOX)'는 한층 강력한 하드코어 액션과 콘셉트 코스튬을 바탕으로 탄탄한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다. 섹스 토이 숍 레드컨테이너와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사전 이벤트로 일찍이 유저들을 유혹했다.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야릇한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자. **www.ilovegame.co.kr**



섹스와 아파트 원시인

매일 집에서 생활하고 식사를 하고 섹스를 하지만, 모든 건 인류의 등장 이후 진화를 거듭해 이룬 삶의 모습이다. 과거로 돌아가 '구석기 생활'을 그대로 이어온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면 〈섹스, 다이어트 그리고 아파트 원시인〉을 권한다. 70만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르며 가족 문화와 건강, 섹스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발견되는 진화의 의미를 되짚어준다. **위즈덤하우스**



Power of Rabbits

기후와 환경을 위한 창작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모인 'Creatives for Climate'. 스콧 캠벨과 트리스탄 이튼, 벤 베넘 등 여러 예술가와 1996년 1월의 플레이메이트 빅토리아 풀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단체에서 최근 새로운 캠페인을 열었다. 토끼 모양의 예술 작품을 기부하고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기후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공식 포스터를 가득 채운 래빗 헤드의 동그란 눈에는 지구를 그려 넣었다. 모든 작품은 토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었는데, 'Happy Accident'의 작가 조 스즈키는 미국 〈플레이보이〉 본사를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고. 지구가 깨끗하고 윤택해지길 바라며, 토끼의 힘이 발휘되길 기대해보자.

intimate astrology :

editor yang boyeon
illustrator lee seungbeom

ARIES
3.21 -4.19

노랑, 빨강, 자주, 보라, 하양…. 다른 색과 섞이지 않은 선명한 빛깔들이다. 팬지는 당신의 순직한 열정을 표현하기에 꼭 맞는 꽃이다. 시각적 아름다움만이 전부가 아니다. 다량의 토코페롤과 리코펜이 함유돼 식자재로도 그만이다. 가벼운 오일 드레싱을 곁들여, 그와 함께 팬지를 맛보라. '꽃이 만발하면 함께 먹자고요. 그러면 무섭도록 정이 들어요.' 어느 시인의 말을 실감하게 될 거다. 함께 먹는 일의 무시무시함을.



APRIL × FLOWER

**별들이 골랐다.
화사한 연애를 부르는
향기로운 봄꽃.**

by 김은하

TAURUS
4.20-5.20



〈성애를 위한 플라워테라피〉라는 책이 있다면, 첫 장에 꼽아야 할 꽃이 라벤더다. 새침한 시골 규수처럼 생긴 이 꽃의 향기는 음흉하기 짝이 없다. 강력한 최음 효과에 질린(?) 중세 수녀회가 '금단의 꽃'으로 지목했을 정도. 중요한 날, 그와 사랑을 나눌 침대 베개 밑에 놓아둘 것. 보랏빛 아지랑이가 두 사람을 금단의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다.

GEMINI
5.21 -6.21



여성성이 만발한 꽃들 사이에서 엉겅퀴의 존재감은 도드라진다. 무엇 하나 호락호락 넘어가는 법이 없는, 주체적인 그녀를 닮았달까. 섣부른 접근을 불허하는 잎사귀는 또 어떤가. 그녀의 가시에 심장이 다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꽃으로 선처를 구하라. 그리고 미덕을 칭송하라. 충성을 서약하는 포로에게 주군의 사랑과 은혜는 한없이 부드러울 것이다.

CANCER
6.22-7.22



얼마나 음란한 빛깔이기에, 복숭앗빛을 가리키는 도색(桃色)이 색정적 이슈를 뜻하게 됐을까. '썸' 타는 그녀와 함께, 4월의 복숭아밭에 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아기 볼을 간질이는 듯 봄바람이 살랑거리는데, 파스텔 블루로 흘러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복숭아 꽃잎마다 달큰한 살내음이 진동한다. 그날 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LEO
7.23-8.22



영화 〈아메리칸 뷰티〉 이래 '장미 목욕'은 섹슈얼한 로망의 꼭짓점을 차지해왔다. 이제 그것을 실현할 차례다. 욕조 위에 둥둥 뜬 꽃잎은 요염한 향기를 뿜어내고, 플로팅 캔들과 어우러져 상대의 얼굴을 '오르가슴 핑크'로 물들인다. 물론 장미꽃잎에 반사된 홍조만은 아닐 것이다. 말린 장미꽃잎으로 준비할 것. 생화는 빛깔은 곱지만 향기가 가볍다.

VIRGO
8.23-9.23



등나무 아래 긴 벤치에 당신이 누워 있다. 꽃냄새라도 음미하려는 듯 두 눈을 감고, 어느 순간 얕은 잠이 든다. 그 잠과 꿈 사이, 백일몽과 현실 사이로 그의 얼굴이 쑥 들어온다. 흡사 등나무꽃처럼, 당신 얼굴 위로 긴 머리칼을 늘어뜨리면서. 그의 머리칼이 볼에 닿자 심장은 꿀벌처럼 잉잉대며 전율한다. 등나무꽃 아래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법이다.

LIBRA
9.24-10.22



순결과 관능이 한 떨기 꽃이 된다면, 그건 분명 백합일 것이다. 백합의 하얀 꽃잎은 풀 먹인 수녀복처럼 금욕적이지만,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에로스는 손이 댈 듯 뜨겁다. 꽃잎 속에 숨은 암술과 수술의 위용은 또 어떤가. 꽃이 식물의 생식기임을 환기시킨다. 백합을 건네라. 기독교와 사타니즘이 동시에 이 꽃을 사랑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SCORPIO
10.23-11.22



비만 맞으면 뜻밖의 색정을 토해낸다. 물이 닿으면 크리스털처럼 투명해지는 꽃, 산하엽 얘기다. 투명해진 꽃잎은 보다 농염해진다. 소나기에 망연자실해진, 옥양목 적삼 입은 고운 여인네 같달까. 이제껏 알아왔음에도, 새롭게 눈에 들어온 상대에게 선물하고 싶은 꽃이다. 지금껏 한 번도 나눈 적 없는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 몸으로.

SAGITTARIUS
11.23-12.24



별꽃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은 서서 보는 것도, 앉아서 보는 것도 아니다. 누워서 감상해야 그 매력이 온전히 시야에 들어온다. 이 비밀을 상대와 함께 탐구하라. 별꽃이 흩뿌려진 풀밭에 누워 서로의 얼굴 너머 꽃밭을 배경으로 눈을 맞추는 거다. 사방에서 별이 뜰 만큼 또렷한 키스, 일명 '스타리아이드 키스(starry-eyed kiss)'를 경험하게 될 거다.

APRICORN
12.25-1.19



빙빙 에둘러 가는 게 지루하고 진부하다고? 그런 당신의 에로스에 어울리는 꽃은 이름부터 노골적인 '클리토리아'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쏙 닮은 탓인데, 서구 식물학자가 이름 붙이기 전에도 성기에 빗댄 이름으로 불렸을 만큼 유명하다. 좀 더 발칙하고 음탕해지고 싶은 날, 소환해볼 만한 소품이다. 당신의 침대를 더욱 뜨겁게 해줄 것이다.

AQUARIUS
1.20-2.18



잎이 트기도 전에 피는 꽃이다. 진달래는 성숙한 농염함이라기보다, 앳된 풋풋함으로 뒤돌아보게 만든다. 김소월의 말을 빌리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그런 꽃. 당신의 사랑도 그렇다. 엷은 분홍빛 작은 입술의 상대와 진달래 핀 오솔길을 걸어보라. 아무 사이도 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가슴 따듯한 시간. 미묘한 로맨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PISCES
2.19-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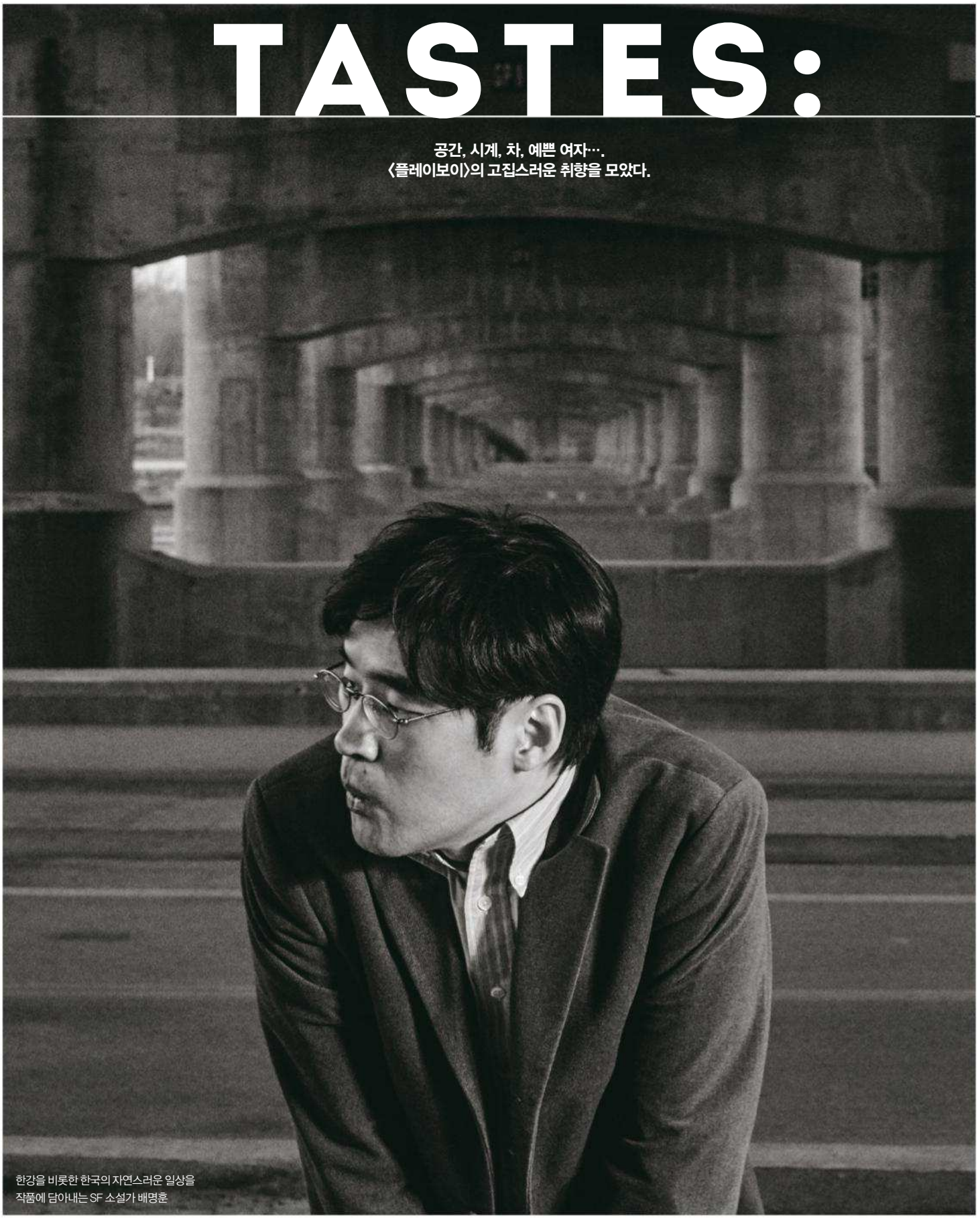


동백나무는 완벽한 연애 아이템이다. 바닥으로 길게 늘어뜨린 가지를 들어 올리고 나무 기둥에 다가설수록, 뜻밖에도 연인들을 위한 비밀 공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꺼운 잎사귀들이 외부의 소음과 시선을 차단해준다. 자, 무엇이든 해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포털 사이트로 가까운 동백나무의 위치를 파악할 일만 남았다.

점성학 칼럼니스트 김은하의 시니컬하고 섹시한 필력의 점술은 오직 〈플레이보이〉에서만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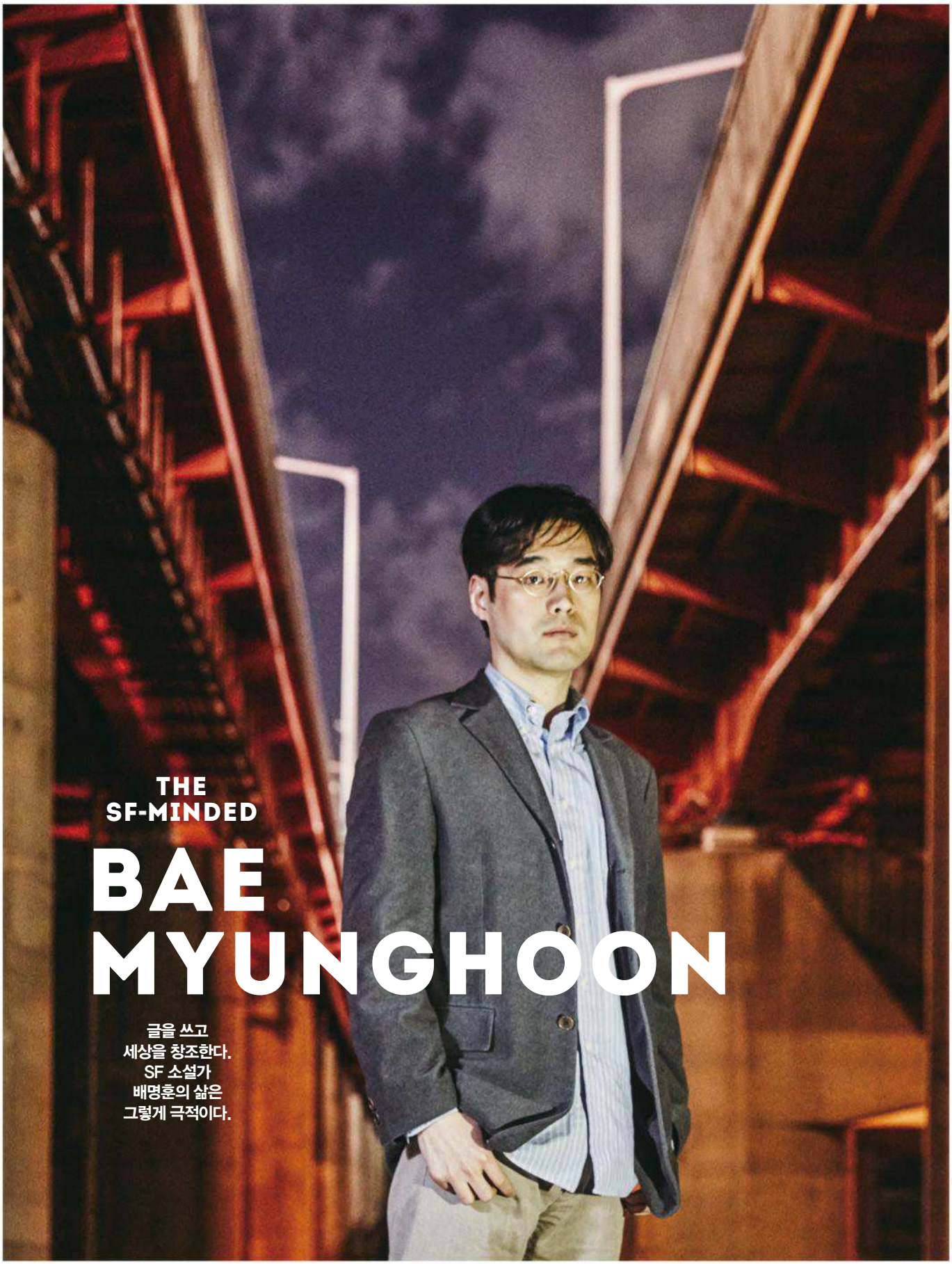
TASTES:

공간, 시계, 차, 예쁜 여자….
〈플레이보이〉의 고집스러운 취향을 모았다.



한강을 비롯한 한국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작품에 담아내는 SF 소설가 배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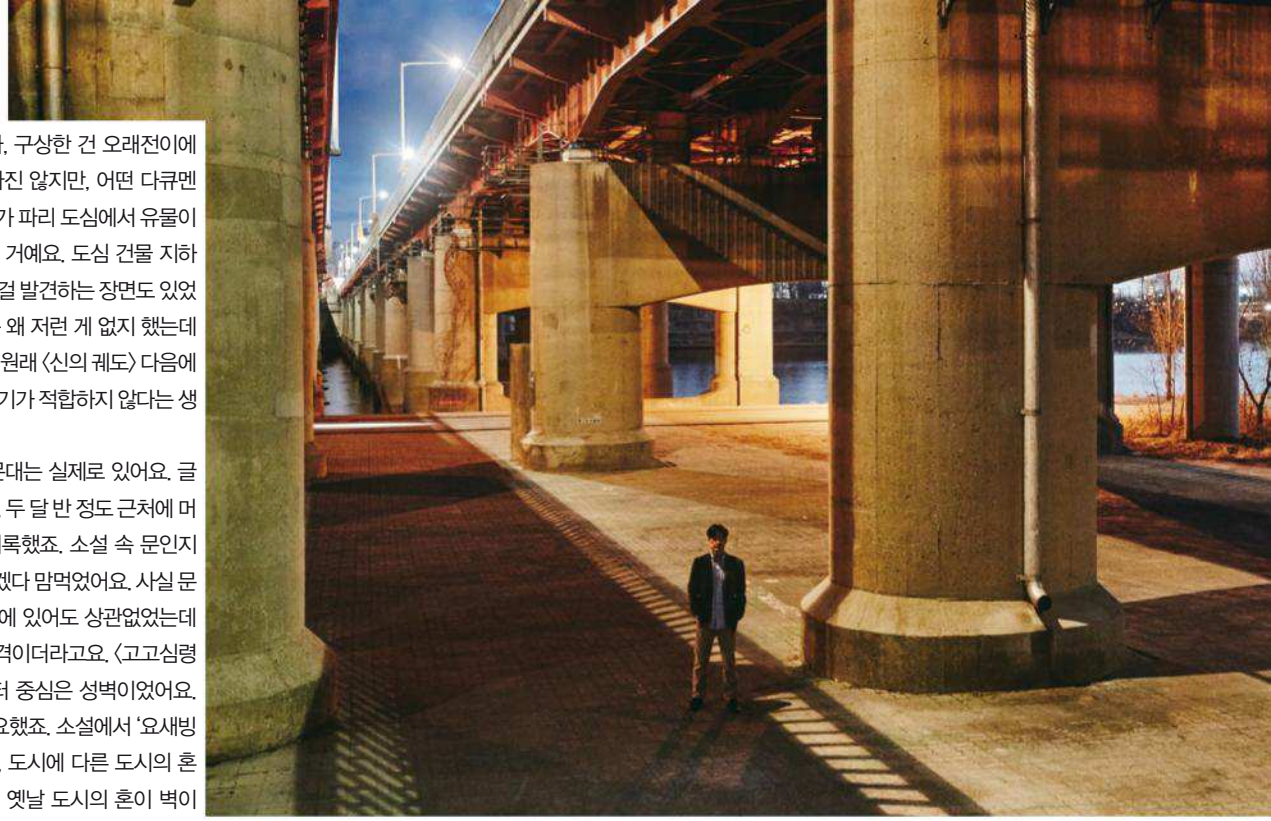
MY WAY - SPACE - ITEM - CAR - WATCH - FOOD - PLAYBOY'S BAR - TECH - SWEETHEART



THE
SF-MINDED

BAE MYUNGHOON

글을 쓰고
세상을 창조한다.
SF 소설가
배명훈의 삶은
그렇게 극적이다.



〈고고심령학자〉를 써야겠다. 구상한 건 오래전이에요.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 고고학자가 파리 도심에서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러 다니는 거예요. 도심 건물 지하 창고에서 오래된 성경 같은 걸 발견하는 장면도 있었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저런 게 없지 했는데 좀 더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원래 〈신의 궤도〉 다음에 쓰려고 맘먹었다가, 발행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미루다 작년에 냈어요.

소설 속 배경인 소백산 천문대는 실제로 있어요. 글을 쓸 때 직접 다녀왔거든요. 두 달 반 정도 근처에 머물며 천문대를 관찰하고 기록했죠. 소설 속 문인지 박사의 외딴 연구실로 써야겠다 맘먹었어요. 사실 문인지 박사의 연구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천문대를 보니 연구소로 제격이더라고요. 〈고고심령학자〉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중심은 성벽이었어요. 가제를 '벽'으로 쓸 만큼 중요했죠. 소설에서 '요새빙의'라는 형태로 출현하는데, 도시에 다른 도시의 혼령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옛날 도시의 혼이 벽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고고심령학'은 사전엔 없는 말이에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던 대학원 시절에 쓴 단편소설이 있는데, 그걸 개작해 2007년 단편 〈누군가를 만났어〉로 펴내며 처음 세상에 알렸죠. 하지만 단편일 때와 10년 뒤 장편이 된 〈고고심령학자〉의 고고심령학 개념은 많이 달라요. 이를테면 〈누군가를 만났어〉에서 고고심령학은 관측하고 측정하는 방법론이에요. 이과적 접근이었죠. 〈고고심령학자〉에선 좀 더 인문학적인 방법론이고요.

〈고고심령학자〉의 주인공은 네 명 모두 여성이에요. 그중 김은경은 10여 년 전부터 같은 이름으로 다른 소설에도 주인공으로 썼어요. 저랑 나이도 같은 인물이죠. 제가 나이를 먹고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김은경도 더 성장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제가 소설에 김은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여자 배우의 나이가 30대 후반을 넘어가면 배역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한 기준으로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으로 두기엔 김은경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 거죠. 왜 그래야 하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그 후론 김은경을 다시 주인공으로 쓰고 있어요.

제 소설을 보면 알겠지만, 등장인물의 기본 설정이 여자예요. 그중 〈고고심령학자〉는 고고심령학자 네 명이 활동하는 얘기인데, 넷 다 여자고요. 남자 주인공을 넣지 않은 이유는 소설 속에서 남녀 캐릭터 간 로맨스가 생기면 여자 캐릭터가 생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녀의 로맨스가 들어가면, 남자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를 소모해서 더 생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엔 남자 주인공이 없어요. 여성 캐릭터가 소설 속에서 그냥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맘으로 썼거든요. 저는 소설에 '인간'을 그리는데, 그걸 남자로 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작가로서 페미니즘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 SF 소설은 1970년대 즈음까지 거의 백인 남자만 등장하는 장르였어요. 요즘은 작가들이 작품으로 인종을 다양하게 다루는 게 어떤 '트렌드'가 됐고, 그다음엔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표현되는 것으로 확대됐어요. 누군가는 페미니즘이 윤리적인 부분이니, 정서적인 올바름과 작품 표현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걸 나누지 않아요.

옛날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엔 백인 남자만 나오는 걸 당연시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광고 영상에 백인들만 나오면 위화감이 드는 시대거든요. SF 팬이라면 누구나 "나도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작품의 주인공이 미국 백인 남성이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감정이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요. 동양 사람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누구도 공감할 수 있어야죠. SF 소설은 이런 인식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백인 남자로만 채워진 우주를 보면 촌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죠.

한때 한국 SF 소설 작가들에게 '한국 사람이 주인공이어도 재미있는가'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야기라면 거기에 한국 지명을 붙여도 되나 하는 문제였죠. 이젠 자연스러운 게 일상적이란 걸 아는 작가들은 한국 지명을 써요.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소재가 그거니까요. 제 소설이 일상적이고 한국적인 이유도 자연스럽기 위해서고요.

SF 소설가로서 제 작품이 영화화되는 걸 항상 꿈꾸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은닉〉은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라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재밌을 것 같고요. 〈첫숨〉은 주인공이 달에서 온 무용수인데, 지구 중력의 6분의 1인 환경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영화로 표현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아직 한국 SF소설이 영화화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지만 이제는 좀 인식이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저는 아직도 소설 쓰기가 재밌어요. 말 그대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한글을 깨치고 난 뒤론 뭔가를 써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도 제게 소설 같은 걸 써보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저는 줄곧 써왔어요. 먹고살 수만 있다면 평생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학자가 되는 거였고, 하나가 소설가였어요. 저는 소설가가 되더라도 나중에 정년 퇴임할 즈음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쩌다 보니 일찍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소설 쓰는 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이 소설엔 남자 주인공이 없어요. 여성 캐릭터가 소설 속에서 그냥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맘으로 썼거든요. 저는 소설에 '인간'을 그리는데, 그걸 남자로 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1



2



3

S.T. DUPONT

라이터의 과거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S.T. 듀퐁.



5



4

'소리 들어봤어? 듀~퐁!' 덮개를 열 때 나는 투명하고 경쾌한 클링 사운드로 럭셔리 라이터의 대명사가 된 S.T. 듀퐁. 이 하우스가 라이터를 출시한 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인 1940년대의 일이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던 석유 충전식 라이터는 가스 충전식 라이터를 거쳐, 오늘날 어떤 환경에서도 점화가 쉬운 터보식 라이터로 진화를 거듭해왔다.

청담동에 위치한 S.T. 듀퐁 플래그십 매장은 장인들의 예술품이나 다름없는 라이터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더불어 롤링스톤스, 마블 등 대중문화 속 아이콘들과 협업한 터보식 라이터까지 갖춰, 라이터 뮤지엄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

라이터만 있는 건 아니다. 명함지갑과 벨트, 가방, 포멀과 캐주얼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캐주얼 의상 등, 남자의 일상을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갖췄으니. 지난해에는 여기에 슈즈가 가세했다. 아시아 최초도 아니고 무려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슈즈 라인을 론칭했다. 라이터와 슈즈라니, 혹자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제품군이라며 의아해할 수도 있다.

사실 S.T. 듀퐁은 가죽 제품으로 시작한 하우스다. 프랑스의 시몽 티소 듀퐁이 하우스를 창립한 1870년대는 수송과 관광이 부흥하던 시기. 당시의 럭셔리 하우스들이 그랬듯이 S.T. 듀퐁은 상류층을 위한 여행 가방을 선보였고, 이후 여행 가방 하우스로 명성을 떨치며 명함지갑과 벨트 등 가죽 소재 남성 제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작년에 론칭한 슈즈 라인에도, S.T. 듀퐁의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장인정신과 혁신적 기술, 145년간 이어온 하우스의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다. S.T. 듀퐁이 처음 라이터를 선보이던 시기, 여행 가방을 만들던 시절의 가죽 세공 기술을 적용한 것이 하우스의 성공 비결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S.T. 듀퐁의 이런 노력은 품질에 대한 신뢰로 보답받았다. 지난해 내한한 CEO 알랑 크레베의 말에 따르면 매출의 10%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라이터와 세련된 가죽 제품으로 가득한 S.T. 듀퐁의 플래그십 매장에 들를 이유는 충분하다. 더구나 시가를 즐기는 아버지, 어벤저스 시리즈를 좋아하는 아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매장이라니 더할 나위 없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61 10:30~20:00
02-518-1967 www.st-dupont.co.kr





1 S.T 듀퐁을 상징하는 클링 사운드의 가스 충전식 라이터
2 포멀과 캐주얼 모두를 아우르는 슈즈 라인
3 클래식한 매력의 S.T. 듀퐁 플래그십 매장 전경
4 가죽 제품으로 시작한 하우스인 만큼 의류 중 가죽 재킷이 가장 인기 있다.
5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만년필과 라이터 등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6 피카소 파운데이션, 마블의 아이언맨과 협업해 탄생한 제품
7 다양한 컬러의 이그조틱 레더 소재 워치 스트랩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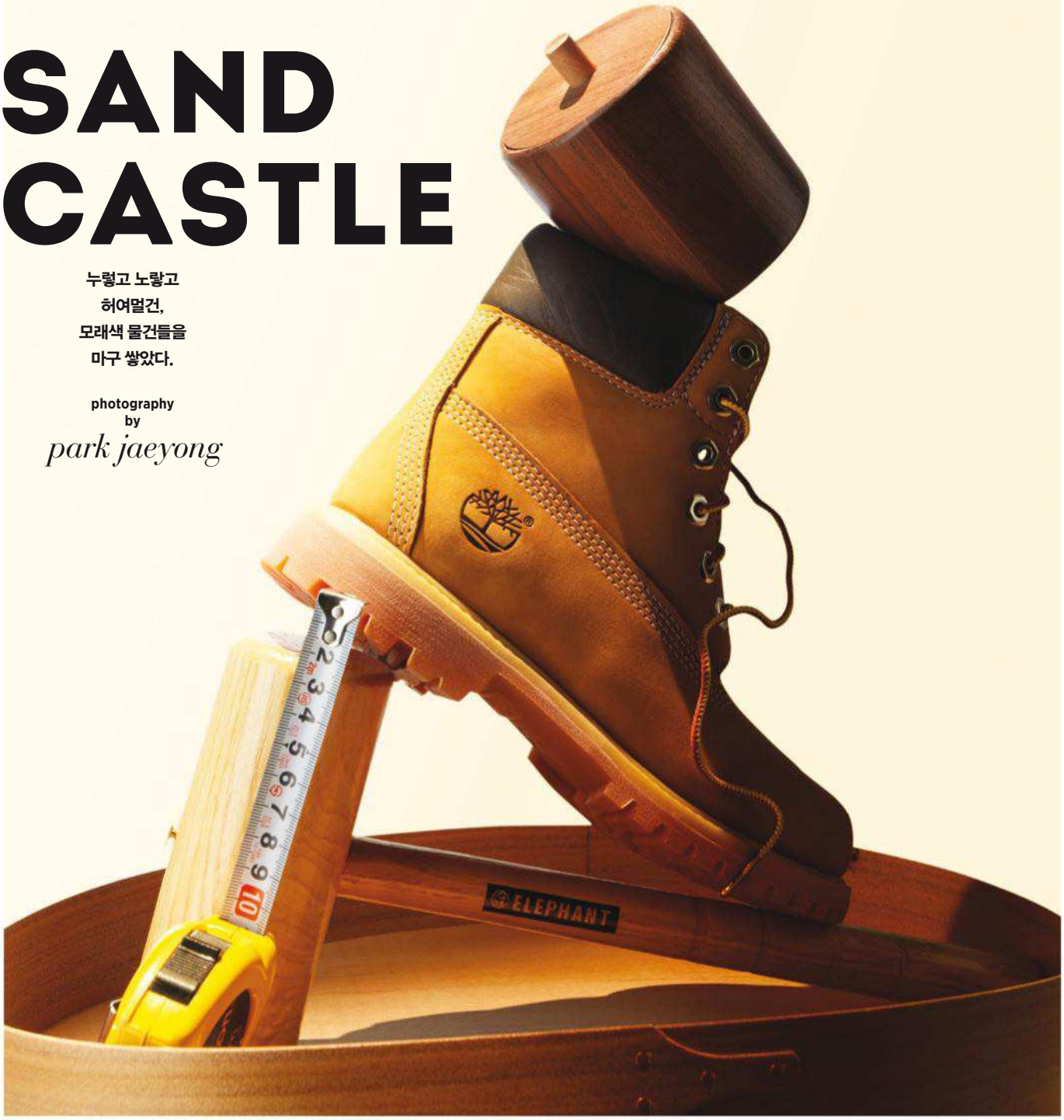


방수 처리한 가죽을 네 번 박음질해 견고하게 완성한 '6인치 프리미엄 부츠'는 **TIMBERLAND** 제품

SAND CASTLE

누렇고 노랗고
허여멀건,
모래색 물건들을
마구 쌓았다.

photography
by
park jaeyong



TIMBERLAND

팀버랜드의 태생은 아웃도어다. 산등성이에나 어울릴 법한 이 순박한 브랜드의 이미지에 변화가 찾아온 건 1990년대다. 팀버랜드 특유의 거친 이미지에 반한 힙합 뮤지션들이 무대에서 워커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 힙합이 대중문화 한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브랜드의 매출도 함께 늘었지만, 팀버랜드는 힙합과 관련한 그 흔한 협업 하나 진행하지 않는다. 경영진은 말한다. 팀버랜드의 DNA엔 힙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연을 동경한 대중문화, 힙합이 팀버랜드의 존치 이유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트랜스퍼런시 모드로 작동 시 음악 청취 중에도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베오플레이 H8i' 헤드폰,
360도 방향으로 동일한 소리를 내는 휴대용 블루투스 '베오플레이 A1' 스피커는 **BANG & OLUFSEN** 제품



BANG & OLUFSEN

뱅앤올룹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즐기도록 돕는다. 특유의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지만 따스하게 여겨지는 외형은 지금 디자인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북유럽 스타일'의 원형. 그 내부를 채운 건 외부 소리에 대응하는 노이즈 캔슬링 또는 트랜스퍼런시 기능, 두드리는 것만으로 트랙 스킵이나 통화 연결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등 사용자의 편의성과 직관성을 필두로 한 첨단 기능이다.



나무와 팔라듐 소재의 '2000 텍서스' 볼펜,
양극 산화 처리한 알루미늄 소재의 '룩스 골드' 만년필과 알루미늄 케이스는 모두 **LAMY** 제품

LAMY

라미 펜은 모양새가 같았던 적이 없다. 정체되는 것을 피해 꾸준히 외부 디자이너들과 협업해왔기 때문. 그것도 무려 재스퍼 모리슨, 나오토 후카사와, 리하르트 사퍼 같은 월드 톱 클래스 디자이너들과. 이런 노력은 브랜드에 2007년 독일 브랜드 어워드가 수여하는 '세기의 브랜드' 상을 안겨주었다. 수많은 디자인을 선보여온 독일산 라미 펜이 고수하는 원칙은 한 가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독일의 바우하우스 철학이다.

'누드에이치앤드크림' 핸드크림은 **TAMBURINS**, 굽기를 가늠할 수 있는 프리뷰와 해동, 베이글 기능을 더한 '케이 믹스 TCX752CR' 토스터기는 **KENWOOD**, 45g 무게에 7mm 사이즈로 휴대성을 높인 '슬림 7' 라이터는 **S.T. DUPONT** 제품



KENWOOD

켄우드는 1947년에 설립한 이래 실용적이면서 스타일리시한 주방 제품을 선보여온 영국의 주방 가전 브랜드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수십 종의 가전이 레드닷디자인과 iF디자인 어워드는 물론 뛰어난 품질의 제품에 주어지는 플러스 엑스 어워드까지 섭렵한 걸 보면 켄우드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다.





PORSCHE BOXTER 986 CONVERTIBLE 2002

구형 포르쉐의 매력은 변치 않은 운전 재미와 의외로 편한 관리다. 주변에서 이 차는 샛노란 보디에 새빨간 소프트 톱 때문에 '오므라이스'란 별명을 갖고 있다. 주인은 '꼬꼬마'라 부른다.

OPEN YOUR CAR

컨버터블을 타는 여자는 드물다. 드러내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토록 〈플레이보이〉의 관점에 어울리는 조건이 있었나.



김진아 디자인 기획자

"사실 가족들은 제가 이 차를 타는 걸 몰라요." 김진아는 드라이빙 슈즈를 신고 차에서 내렸다. 벤츠 F1팀의 스폰서, 페트로나스의 청록색 무늬가 붙은 신발. 카 마니아라면 이 묘사만으로도 이 차를 타는 이유가 단지 포르쉐라서가 아니란 걸 알 것이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보다 차가 더 멋지게 보이는 낮에 찍는 것에 환호했다. 카메라를 둘러메고 온라인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일한 적도 있다. 온갖 차를 만지다 4년 만에 미련 없이 떠나 본업인 디자인 기획자로 일하고 있지만, '자동차 덕심'은 변하지 않았다. 어린 날 로망이던 포르쉐와 컨버터블의 조합에 수동기어를 얹은 차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주말에만 아껴 탄다. 2002년에 처음 산 주인부터 마니아 손에만 맡겨진 차는 포르쉐 박스터 986. 포르쉐만의 동그란 헤드라이트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빠진 모습이 특징인 차다. 그는 "컨버터블이 나를 감성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감성이 세다. 블랙 컬러의 아반떼 XD 스포츠를 업무용으로 탄다. 그것도 수동이다.





AUDI TT CONVERTIBLE 2008

윤아은은 TT 2세대가 머지않아 올드카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 믿고 지금껏 손세차만 하며 이 차를 각별히 돌보고 있다. 이 차에 가장 자주 오르는 생명체는 치와와 여동생 '토토'.







윤아은 패션 브랜드 온라인 MD

"영화 〈아이, 로봇〉에 등장한 동그란 아우디 콘셉트카 때문이에요." 그 뒤로 동글동글한 차는 다 꿰고 있다는 윤아은. 그의 첫 차는 미국 유학 시절에 산 마쯔다 3였다. 알 만한 사람은 아는 경쾌한 콤팩트카의 존재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겉으로는 단정하면서도 속은 재밌는 차. 찾고 찾아 맞이한 게 아우디 TT 컨버터블이다. 2008년 2세대를 미국에서 샀고, 귀국할 때 그대로 배에 싣고 왔다. 방향지시등만 한국 실정에 맞게 노란색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다. 아날로그 계기반은 아직도 마일(Miles) 단위다. 한국에서는 드문 차니까, 종종 에피소드가 생긴다. 밖에 세워두고 어딜 다녀오면 주변을 맴돌며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다. 고속도로에서 낯선 차가 같이 달리자고 '붙기도' 한다. 컨버터블의 숙명인 작은 트렁크와 뒷좌석 없음은 아쉬울 때도 있지만 머지않아 올드카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 믿고 지금껏 손세차만 하며 돌보고 있다. 때로 지루한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평범한 회사원 윤아은의 일탈은 언제나 컨버터블과 함께다.





MINI COOPER S CONVERTIBLE 2017

미니쿠페 컨버터블의 매력은 다루기 쉬운 데다 보기 드문 4인승이라는 점.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즐기는 주지은에게 합리적인 결정권을 주었다.





주지은 모터스포츠 기획자

"누구나 한 번쯤 타고 싶어 하지 않나요? 꽉 막히는 서울에서 펀(Fun)한 차는 필수예요." 주지은은 왜 컨버터블이냐는 말에 이렇게 되물었다. 그럴 수 있다. 그는 앞서 영국과 홍콩에서 금융인, 헤드헌터로 살다가 한국에선 내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일했다. 올해 양산차 모터스포츠 국제대회 중 하나인 TCR(투어링 카 레이스) 시리즈가 한국에서도 시작되는데, 그는 매니저로 참여한다. 이쯤 되면 더 궁금하다. 왜 하필, 어쩌면 흔한 미니 컨버터블인가. 그는 타는 순간 "내 거다!"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폭스바겐 골프와 푸조 206, 기아 프라이드까지 도심에서 좁은 길을 맘껏 누비는 차만 고른 일관된 기준도 있었다. 뭐든 열정적이지 않을 때가 없었다. 운전석도 남한테 안 내준다. 대리운전을 맡긴 적도 없다. 그는 주말에도 주로 서킷에 있다. 빨간색 올뉴 프라이드로 아마추어 레이스를 연습한다. 언젠가 '알파로메오 TCR을 타고 레이스를 뛰는 게 꿈'이다. 누구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브리티시 그린 컬러의 컨버터블과 주인의 성정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작지만 날래고 빠르며 유쾌하다.





BENZ SLK55 AMG CONVERTIBLE 2015

심홍선은 소프트톱 관리의 어려움과 터보엔진에 대한 과욕을 버릴 때, SLK가 가장 적절한 차라고 생각한다. 장거리용으로 BMW 118d 쉐도우 에디션을 얼마 전 한 대 더 마련했다.





심홍선 심혈관외과 전문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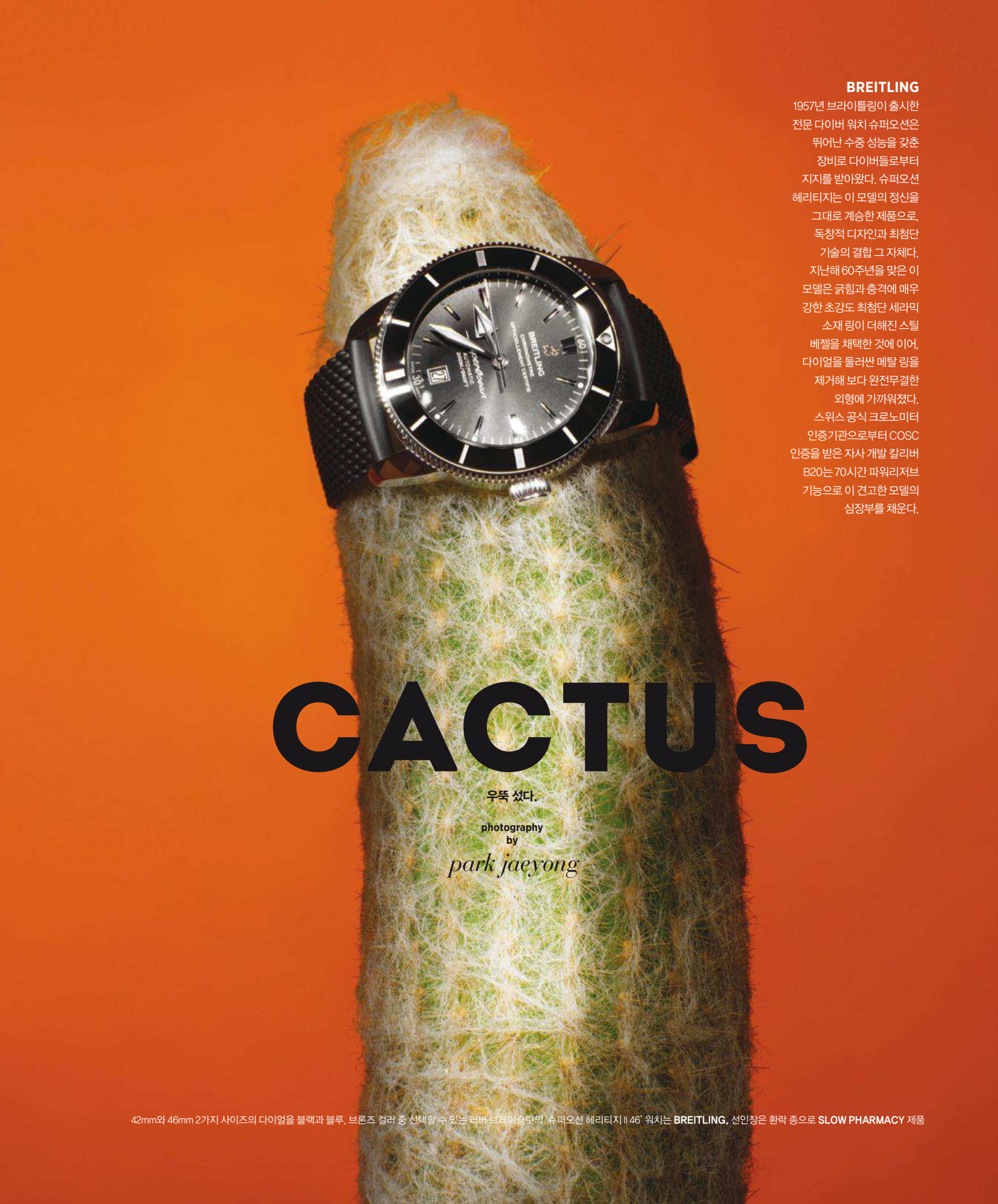
"컨버터블로 출근하는 여자라, 뭔가 섹시하지 않나요?" 심홍선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 골프와 수상스키, 보드와 야간 드라이브로 채워진 삶을 공개한다. 쉴 새 없이 바쁜 그를 친구들은 '홍스타'라 부른다. 심홍선이 SLK 시트에 처음 앉았을 땐 20대 중반이었다. 어릴 때부터 컨버터블 오너가 되길 바랐고 꿈을 이뤘다. 차를 고른 이유도 확실하다. 벤츠의 마지막 자연흡기 컨버터블. 가솔린 V6임에도 리터당 10km가 넘는 연비와 실용적인 하드톱의 매치가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식의 빠른 판단과 실행력으로 살아간다. 보기 드문 전문 간호사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심혈관수술팀에서 일하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이기도 하다. 대충이 용납되지 않는 삶. 노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직접 일해서 마음껏 갖는 것에 당당하다. 고단하다면 고단한 삶에 이 차를 산 것을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다. "가끔은 내가 이런 차를 타는 여자라, 누군가 다가오기 어려워한다"는 걸 느낄지라도.



44mm의 티타늄 소재 케이스에 러버 스트랩의 '펄션 마이크로 로터가 있는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ROGER DUBUIS**, 선인장은 근위주 종으로 **SLOW PHARMACY** 제품

ROGER DUBUIS

강인함은 로저드뷔의 세계를 대표하는 단어다. 전사의 세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엑스칼리버 컬렉션이 그렇고, 모험가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은 여기 펄션 컬렉션이 그렇다. 해저 100m 방수 기능 또는 COSC 인증을 받은 자사 개발 RD680 칼리버가 구현하는 52시간 파워리저브 기능 등은 펄션의 강인함이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증명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모델을 빛나게 하는 건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마치 베젤인 듯 케이스에 스크루로 연결된 디자인. 사파이어 크리스털 아래엔 형광물질 루미노바로 아라비아숫자가 새겨져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잃을 일이 없다.



BREITLING

1957년 브라이틀링이 출시한 전문 다이버 워치 슈퍼오션은 뛰어난 수중 성능을 갖춘 장비로 다이버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슈퍼오션 헤리티지는 이 모델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제품으로, 독창적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 그 자체다. 지난해 60주년을 맞은 이 모델은 긁힘과 충격에 매우 강한 초강도 최첨단 세라믹 소재 링이 더해진 스틸 베젤을 채택한 것에 이어, 다이얼을 둘러싼 메탈 링을 제거해 보다 완전무결한 외형에 가까워졌다.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기관으로부터 COSC 인증을 받은 자사 개발 칼리버 B20는 70시간 파워리저브 기능으로 이 견고한 모델의 심장부를 채운다.

CAC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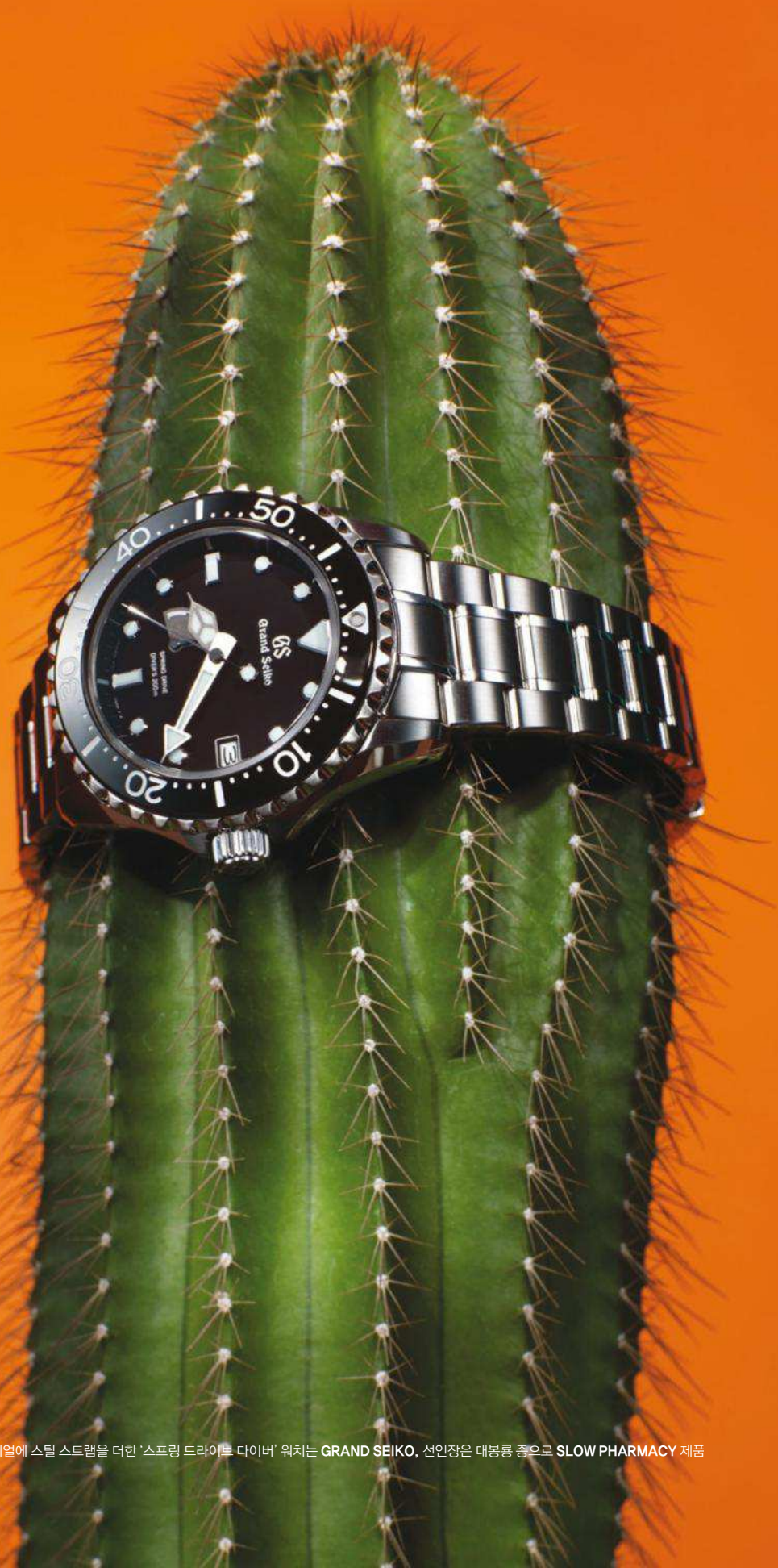
우뚝 섰다.

photography
by
park jaeyong

42mm와 46mm 2가지 사이즈의 다이얼을 블랙과 블루, 브론즈 컬러 중 선택할 수 있는 러버-브레이슬릿의 '슈퍼오션 헤리티지 II 46' 워치는 **BREITLING,** 선인장은 환락 종으로 **SLOW PHARMACY** 제품

GRAND SEIKO

1969년 세계 최초로 수정의 압전 현상을 동력으로 하는 쿼츠 시계 '아스트론'을 개발하며 스위스 시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 세이코. 이들이 28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05년 첫선을 보인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는 기계식 시계를 움직이는 메인 스프링을 변형, 동력과 정확성을 높이며 '영원 불변의 시계'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브랜드에 안겨주었다. 여기에 더해진 '자랏츠 폴리싱' 마감 유광 케이스, 다면 커팅 인덱스와 회전 베젤의 형광물질 루미브라이트 같은 요소는 세이코의 최상위 브랜드인 그랜드 세이코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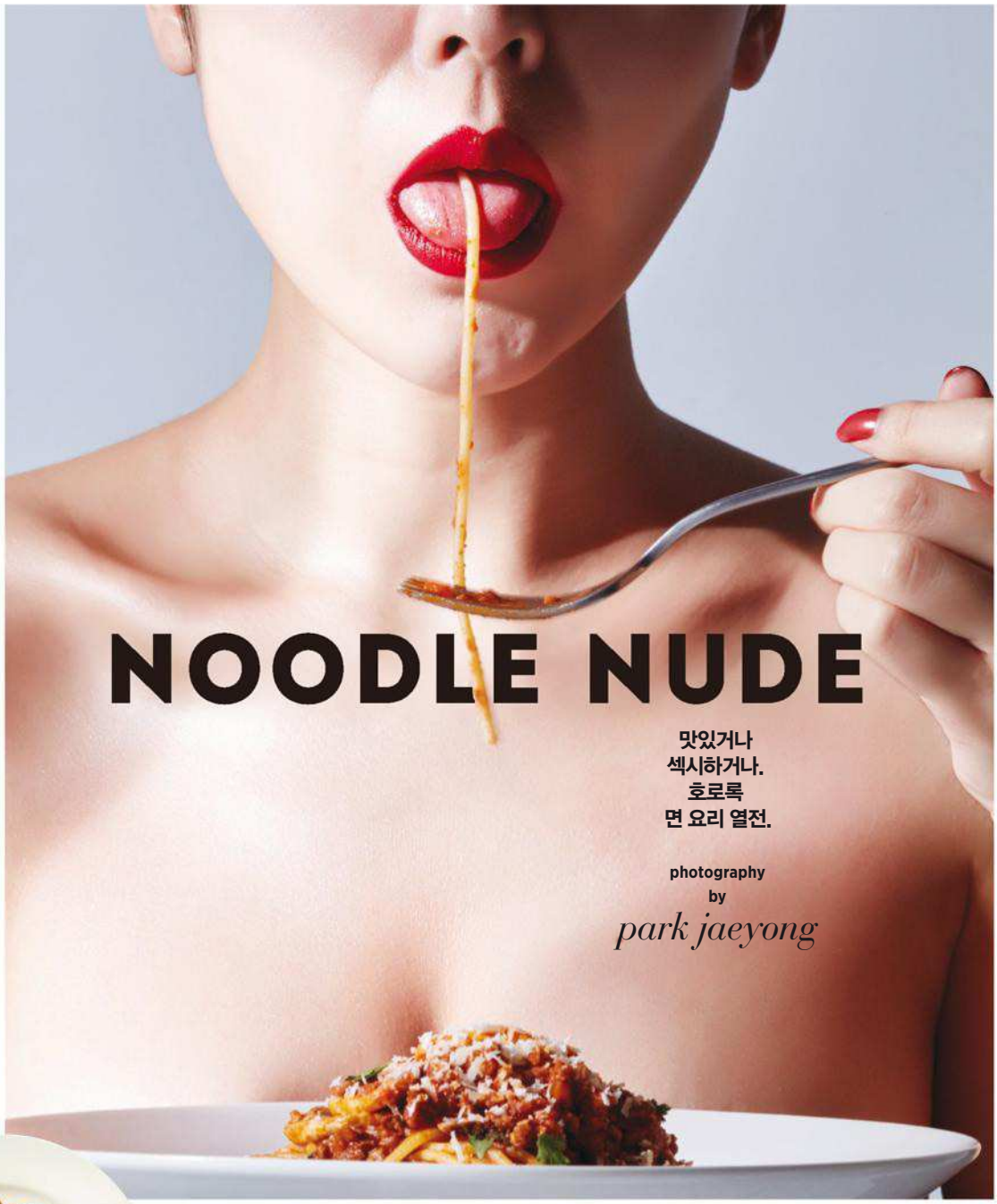
44mm 사이즈의 다이얼에 스틸 스트랩을 더한 '스프링 드라이브 다이버' 워치는 **GRAND SEIKO**, 선인장은 대봉룡 종으로 **SLOW PHARMACY** 제품

45mm 사이즈 케이스에 플라스마 하이테크 세라믹 브레이슬릿이 연결된 '하이퍼크롬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RADO**, 선인장은 환락 종으로 **SLOW PHARMACY** 제품



RADO

라도는 1986년 최초로 하이테크 세라믹을 시계에 도입한 브랜드다. 이 분야에서 선구적 기술을 갖춘 라도인 만큼 그 과정 또한 독보적이다. 지르코늄 파우더를 압축한 뒤 경도를 높이기 위한 신터링 공정, 그리고 균일하고 다양한 색상을 위한 라도만의 특허기술인 플라스마 공정을 거쳐 비로소 형태를 갖추는 것. 플라스마 하이테크 세라믹 제품만의 가벼운 무게감, 따뜻한 질감과 스크레치로부터 자유로운 특성은 탁월한 제품을 위한 라도의 노력이 빚은 결과물이다.



NOODLE NUDE

**맛있거나
섹시하거나.
호로록
면 요리 열전.**

photography
by
park j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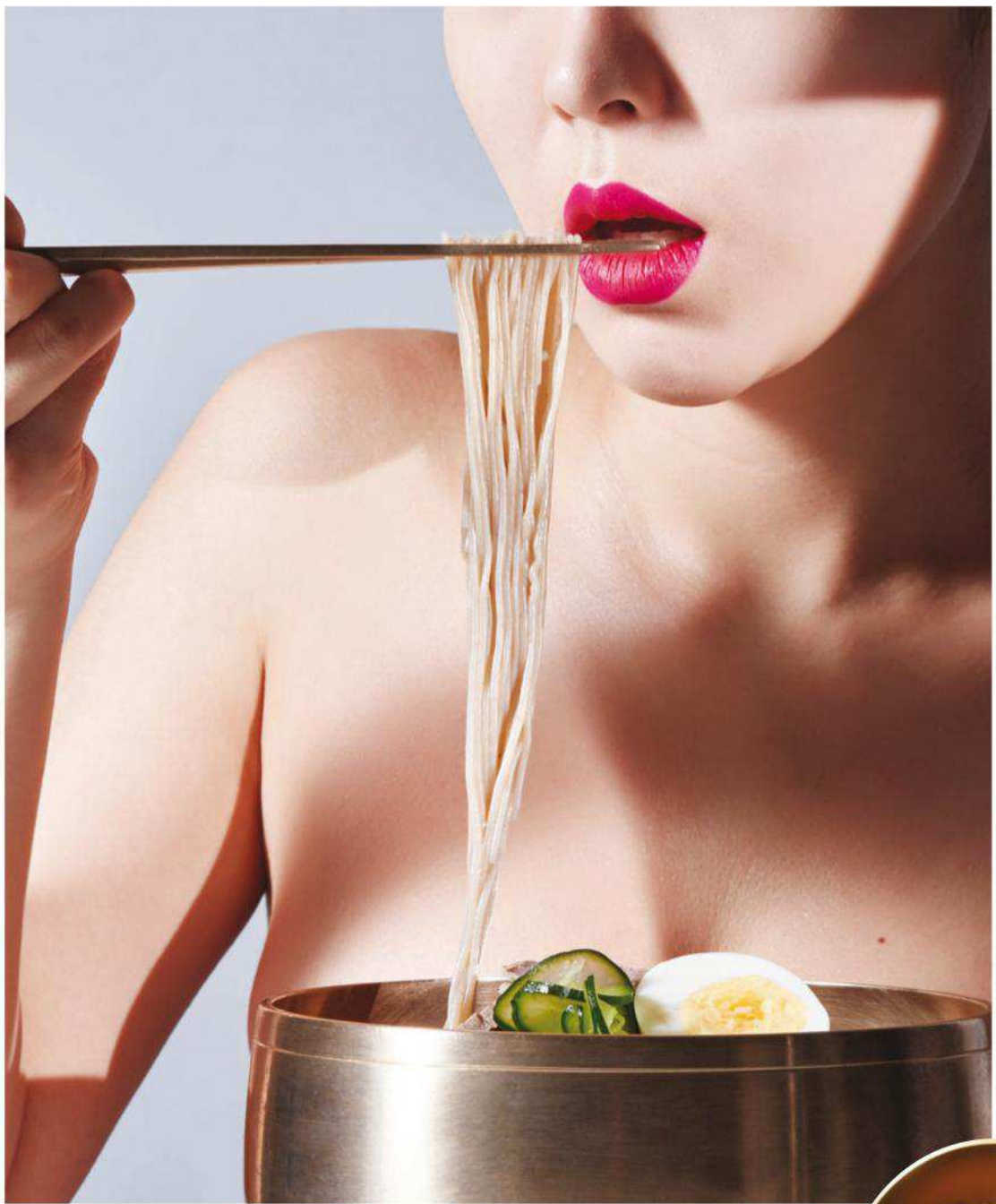


양송이 라구 토마토 파스타

다진 쇠고기와 양송이를 넣고 뭉근하게 끓인 토마토소스 파스타. 클래식한 조합이지만 재료 본연의 충실한 맛을 음미할 수 있다.

Ingredients 양송이버섯 4개, 스파게티 면 100g, 파르메산 치즈 · 파슬리 · 소금 적당량씩
라구 소스 다진 쇠고기 150g, 양파 1/3개, 당근(2cm) 1토막, 셀러리(6cm) 1토막, 다진 마늘 1작은술, 홀토마토 1 1/2컵, 월계수 잎 1장, 소금 · 후추 · 포도씨 오일 약간씩

Recipe 1 라구 소스는 분량의 재료를 넣어 뭉근하게 끓인다. **2** 스파게티 면은 소금을 넣은 물에 5분간 삶는다. **3** 양송이는 얇게 썰어 포도씨 오일로 볶다가 라구 소스를 넣어 끓인다. **4** ③에 삶아놓은 면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볶는다. **5** 면에 소스가 배어들면 파르메산 치즈와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한다.





평양냉면

양지로 깔끔하게 우려낸 육수에 아삭한 동치미와 달콤한 배로 재현한 평양식 냉면.
심심한 듯 수수하지만 묘한 중독성이 있다.

Ingredients 냉면 사리 1인분, 오이(3cm) 1토막, 배 1/6개, 삶은 달걀 1/2개, 고운 고춧가루 1/2작은술, 식초 1큰술, 설탕 2/3큰술, 동치미 무 적당량, 소금 약간

육수 양지 200g, 무(5cm) 1토막, 대파 1/2대, 국간장 1큰술, 물 5컵, 동치미 국물 2컵, 소금 적당량

Recipe 1 냄비에 양지, 무, 대파, 물을 넣고 중간 불에 끓인다. **2** ①의 육수가 우러나면 면보에 거른 뒤 차갑게 식혀 동치미 국물,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다. **3** 오이는 얇게 썰어 소금에 절이고, 동치미 무는 얇게 썰어 고춧가루와 식초, 설탕에 절인다. **4** 삶은 양지는 얇게 썰고 배는 채썬다. **5** 냉면 사리를 삶은 뒤 그릇에 담고 육수와 고명을 곁들인다.





채소튀김을 얹은 우동

오동통한 면, 감칠맛 나는 육수 그리고 바삭한 채소튀김이 만들어내는 세 박자.

Ingredients 고구마 1개, 당근(5cm) 1토막, 마늘종 3줄기, 우동 면 1개,
송송 썬 대파 · 포도씨 오일 · 밀가루 적당량씩
육수 물 3컵, 쯔유 3큰술, 맛술 1큰술
튀김 반죽 박력분 2/3컵, 전분가루 1/3컵, 달걀 노른자 1개, 맥주 2컵, 얼음 · 소금 적당량씩
Recipe 1 고구마와 당근은 채썰고 마늘종도 비슷한 길이로 썰어 밀가루를 고루 묻힌다.
2 볼에 튀김 반죽 재료를 넣고 적당히 섞은 뒤, ①을 넣고 튀김옷을 입혀 노릇하게 튀긴다. **3** 냄비에 물과 쯔유, 맛술을 넣고 한소끔 끓여 육수를 만든다. **4** 우동 면을 삶아 육수를 붓고 채소튀김과 송송 썬 대파를 올려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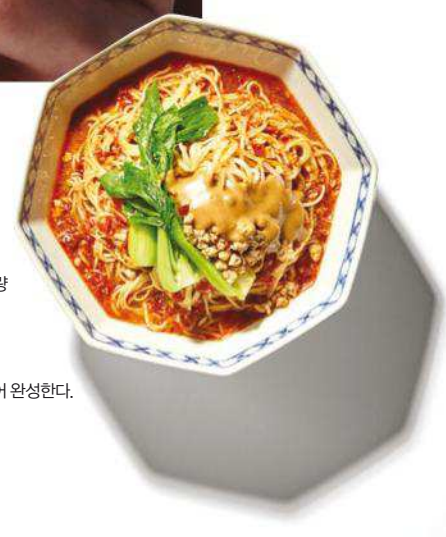


탄탄면

아찔하게 매콤한 쓰촨식 누들. 끈적한 육수가 촉촉하게 배어든
에그 누들 한 입이면 잠자던 입맛도 살아난다.

Ingredients 다진 돼지고기 40g, 청경채 2개, 숙주 40g, 다진 마늘 1작은술, 다진 대파 1/2큰술,
다진 생강 1/2작은술, 고춧가루 2/3큰술, 지마장(또는 땅콩버터) 1큰술, 에그 누들 2개, 청주·포도씨 오일 적당량
육수 치킨 스톡 3컵, 두반장 2큰술, 굴소스 1/2큰술

Recipe 1 달군 냄비에 포도씨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 대파, 생강을 볶다가 다진 돼지고기, 고춧가루,
청주를 넣어 볶는다. **2** ①에 치킨 스톡을 붓고 한소끔 끓인 뒤, 두반장과 굴소스를 넣어 육수를 만든다.
3 ②가 끓으면 청경채와 숙주를 넣고 익힌다. **4** 에그 누들은 끓는 물에 삶아 그릇에 담은 뒤 탄탄면 육수와 지마장을 넣어 완성한다.



SAKE BLOSSOM

벚꽃이 피는 봄에는 생맥주 대신 생사케.

사케 중에서도 열처리하지 않은 생사케를 '나마사케', '나마자케'라고 한다. 쌀과 물, 누룩만으로 술을 빚은 뒤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한다. 효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저온 숙성시키는 것도 일반 사케와는 다른 점. 유통기한은 짧은 반면, 목 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신선해 봄부터 여름까지 사랑받는 술이다. 잘 고르면 고급 화이트 와인과 샴페인처럼 프루트한 아로마와 탄산을 느낄 수 있어 특히 20~30대에게 반응이 좋다. 평균 도수는 15~17도로 소주보다 약간 낮은 편. 반주로 즐기기에도 이상적이다.





Playboy's Choice

1 가메이즈미 CEL-24

50%로 도정한 코우치산 주조호적미와 누룩, 물로만 만들었다. CEL-24라 부르는 특수 효모로 발효시킨 뒤 열처리와 여과 과정을 생략하고 저온에서 숙성시켜 신선한 풍미가 매력적이다. 프루트한 아로마는 마치 고급 화이트 와인과 닮아 식중주로도 알맞다. 11명의 장인이 뜻을 모은 고치현의 가메이즈미주조에서 만든다.

2 시치다 준마이 무로카나마

묵직한 보디감과 화려한 향을 품었다. 야마다니시키와 레이호우 품종의 쌀로 빚어 만든 시가현의 생사케. 경쾌하고 깔끔한 '터치'가 매력적이다.

3 준마이슈 쿠로우시 시보리라테

1980년대 사케를 위해 개발한 쌀 품종인 야마다니시키, 주조호적미로 만들었다. 50%의 정미율로 은은한 쌀의 감칠맛이 도는 부드러운 타입. 식사 중간에 즐기기 좋은데 특히 어묵, 야키토리(꼬치구이)와 잘 어울린다.

4 에미시키 센세이션 블랙

시가현의 에미시키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한정판 사케. 병을 뒤집으면 침전물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다마사카에, 고시가구라를 50:50 비율로 발효시켜 단맛과 산미가 조화로운 편. 특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향이 강하게 나는 것이 특징이다.

5 가제노모리 아키츠호 무로카나마겐슈

샴페인과 같은 탄산을 가진 생사케로 나라현의 유초주조에서 생산된다. 300년 가까이 쌓은 주조 기술을 갖춘 곳으로 아키츠호 100%를 65%가량 도정해 빚는다. 도수가 17~18%로 생사케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기분 좋은 청량함과 절제된 프루트 향이 매력적이다. 참치나 연어 등 맛과 향이 진한 생선류와 잘 어울린다.

How To Enjoy

청주를 데워 먹기도 하는 일본이지만 생사케는 차갑게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생사케의 가볍고 신선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술 온도를 5~1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데,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 특유의 단맛이 사라진다. 탄산이 있는 것은 와인 글라스에 마실 것을 추천한다. 차가운 글라스에 얼음을 넣고 온더록 스타일로 즐겨도 좋다. 음식은 회를 비롯한 신선한 해산물 요리나 구이 요리와 잘 맞고 프랑스 음식과의 마리아주도 훌륭하다.

Best Place

사케리아 잇콘

맛있는 요리와 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일본식 타파스 바. 일본 술만 40여 종을 갖췄는데, 그중 생사케가 6종이나 된다. 모두 취향 좋은 오너 셰프가 직접 골랐다. 특히 여성이 마시기에 부담이 적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술이 주를 이룬다. 화로에 구운 숯불구이 요리와 제철 생선 요리 등 곁들이기 좋은 요리가 술을 부른다. 재즈, 힙합, 팝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노래가 흐르는 분위기 좋은 카운터 바에 앉아 부산한 키친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안줏거리다. P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70길 28 2F 02-543-9878

봄이 오는 소리

꽃을 보며 걷고 싶은 계절, 사운드에 어울리는 음악을 더했다.

photography
by
park jaeyong



"시대를 좌우한 프로듀서의 주도하에 잘 만든 팝은, 그 시대 모든 음향 기술의 총집약일 터. 특정 주파수의 강한 자극보단 골고루 좋은 소리를 낸다."

Playlist
Quincy Jones : The Dude
David Foster : The Best of Me
Giorgio Moroder : From Here To Eternity
Janet Jackson : Control
N.E.R.D And Rihanna : Lemon

Transparent

1937년, 최초의 다이내믹 헤드폰(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적용한)인 DT 48을 출시한 베이어다이나믹. 80여 년이 흐른 현재는 테슬라 테크놀로지 2.0을 탑재한 'Avent-Ho Wireless'의 출시로 헤드폰계 선구자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여기에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인 Qualcomm® aptX HD와 블루투스 4.0 버전을 결합해 무선의 자유로움까지. '아벤토 와이어리스'는 중저음부터 맑고 고음역까지 투명한 재생 능력을 발휘한다. 애플리케이션 MIY(Make It Yours)로 자신만의 사운드 프로파일을 개발하고 즐길 수도 있다.

이어컵의 터치 패드로 모든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온 이어 헤드폰 Aventho Wireless는 **BEYERDYNAMIC** 제품



음악과 주변 소리를 함께 듣는 일은,
여행지에서 제격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사운드트랙'으로 남는다.
벌써부터 그 여행을 기다리며.

Playlist

Marcos Valle : Bicicleta
매염방 : Summer Lover
사토 히로시 : You're My Baby
세이수미 : 광안리의 밤
Pat Metheny : Sueñ o Con Mexico

Surroundings

뱅앤올룹슨 최초의 무선 이어폰으로 지난해 12월에 출시되어 최초 생산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이슈가 됐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이어폰은 터치 인터페이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5.7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내장해 파워풀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또 음악과 함께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트랜스퍼런시 모드를 탑재했는데, 음악을 완전히 끄고 주변 소리를 증폭해서 듣거나 음악과 주변 소리를 적절히 듣는 모드 등 3단계를 갖췄다.

차콜 컬러 온 이어 이어폰 베오플레이 E8은 **뱅앤올룹슨** 제품



Being Easy

아이폰 7과 함께 공개된 애플의 완전 무선 이어폰 에어팟. 특유의 디자인 때문에 '분실하기 쉽다' 혹은 '음질이 떨어질 것이다'처럼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애플이 출시한 역대 액세서리 제품 중 최고'라는 평가와 사용자의 8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아이폰, 아이튠즈에 오디오 포맷으로 사용하는 AAC 오디오를 장착해 고음질의 원음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 또 어느 쪽이든 두 번만 두드리면 Siri가 응답한다. 더불어 충전 케이스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데, 15분 충전으로 3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9년에는 방수와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추가된 에어팟 2를 출시할 예정이다.

모든 애플 기기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Airpods은
APPLE 제품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처음 든 생각은?
뛰고 싶다. 뛰면서 음악을 듣고 싶다.
달리기 하면 처음 생각나는 장면은? 〈트레인스포팅〉."**

Playlist

Iggy Pop : Lust for Life
Ramones : Blitzkreig Bop
The Clash : London Calling
Gang Of Four : Damaged Goods
Underworld : Slow Slippy

Lowdown

70년간 오디오 명가 자리를 지켜온 독일의 젠하이저. '모멘텀 온 이어 2'는 진동을 전기신호로 교환하는 트랜스듀서를 18Ω 네오디뮴으로 장착해 원음부터 섬세하게 잡아내는 헤드폰이다. 풍부하게 구현되는 베이스는 젠하이저만의 대형 다이어프램 덕분. 귀에 밀착되는 이어 쿠션은 사운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까지 한다. 고급스러운 가죽 커버와 스테인리스 슬라이더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완벽하다.

귀를 감싸는 오버 이어 헤드폰 Momentum On-Ear 2는 **SENNHEISER** 제품



"저음은 규모인 동시에 발견이다. 몸이 저릿한 건 저음의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 이런 소리가 숨어 있다는 발견이기도 하다."

Playlist

Lee Perry & The Full Experiences : Disco Devil
Third World : Now That We Found Love
Burial : South London Boroughs
Wiley : Wot Do U Call It?
Stormzy : Big For Your Boots

**“춤을 몰라도, 음악을 몰라도 춤출 수 있다.
4분의 4박자 댄스음악은
본능적이라 그렇다. 댄스, 댄스, 댄스.”**

Playlist

David Bowie : Let's Dance
Chic : Dance, Dance, Dance
Black Box : Ride On Time
A Guy Called Gerald : Voodoo Ray
Aphex Twin : Cirklon3 (КолхознаяMix)



Dance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에 깜짝 등장한 DJ 마틴 게릭스가 착용해 더욱 화제가 됐다. 패셔너블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이탈리아의 오디오 브랜드 V-moda.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메탈 실드 이어컵과 하우징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Crossfade 2’의 차기작 ‘Crossfade 2 Wireless’는 무선 제품으로 음악을 들으며 통화도 할 수 있다. 특허받은 헤어밴드의 프레임은 귀에 틈 없이 헤드폰을 밀착시켜 오래 착용해도 불편하거나 헤어스타일이 망가지는 일이 없다.

최대 10m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무선 연결이 가능한
Crossfade 2 Wireless는 **V-MODA** 제품



Clean & Clear

오디지의 가장 인기 있는 LCD 시리즈 헤드폰에서 착안한 인 이어 이어폰. 평면 마그네틱 드라이버를 채택해 10Hz 음역의 저음까지 잡아낸다. 16 임피던스로 무엇보다 작은 볼륨에서도 크고 명확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한마디로 풍부하다.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이어폰으로 애플 스토어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세계 최초의 평면 마그네틱 이어폰 iSINE 10은 **AUDEZE** 제품

"라이브 음반은 공연장을 송두리째 옮겨놓은 분위기를 낸다. 잘 녹음될수록 더욱. 그렇게 집에서 혼자 콘서트를 즐긴다."

Playlist

Bill Evans Trio : My Romance
Keith Jarrett : Köln, January 24, 1975 Part I
Kamasi Washington : Askim(〈Live At 5th Street Dick's〉 中)
Marvin Gaye : Distant Lover(〈Marvin Gaye Live!〉 中)
D'angelo : Brown Sugar(Live At The Jazz Cafe, London 中)

FOUR SCENES

향기를 갈아입자
처음 보는
그녀가 걸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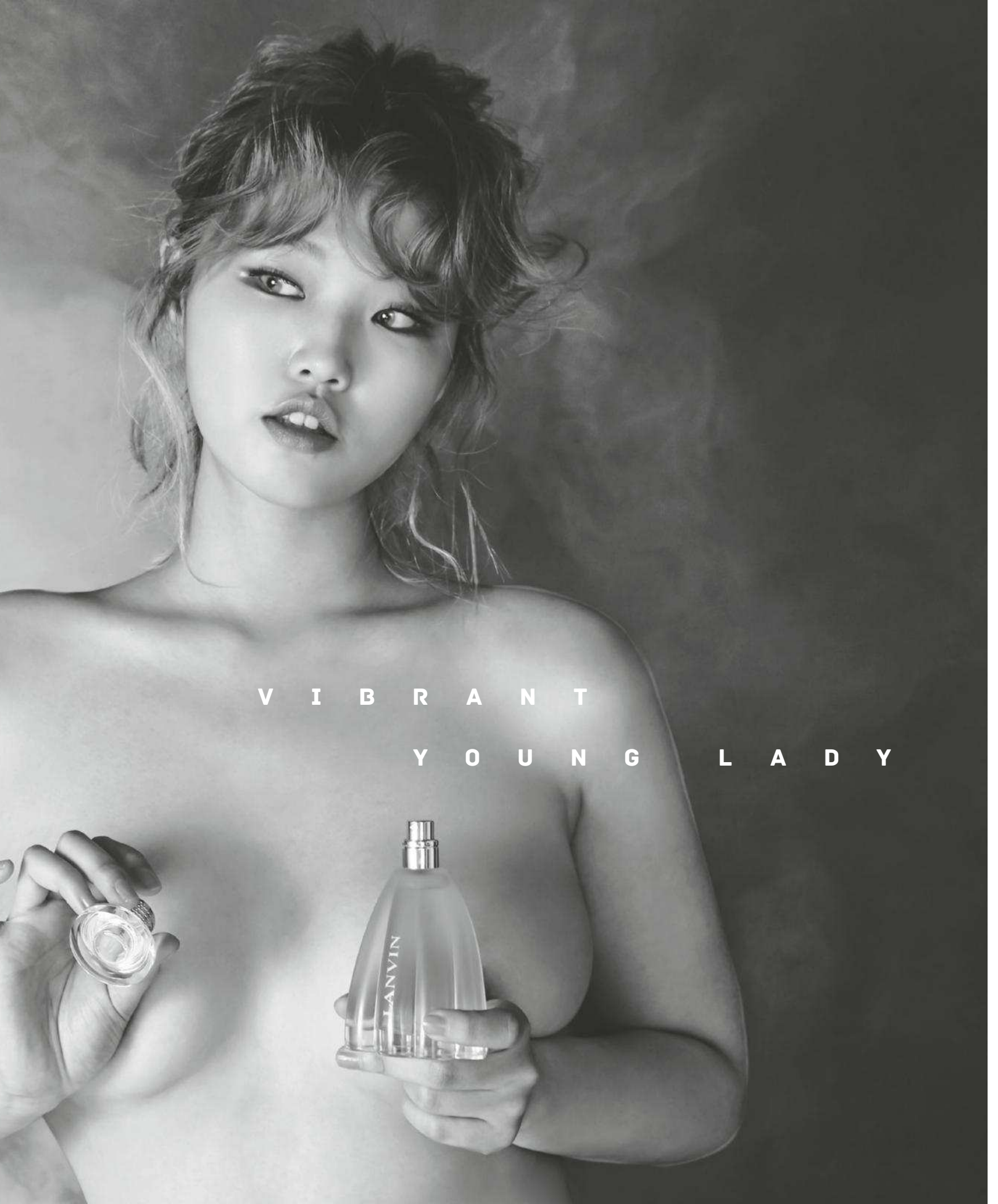
photography
by
kim ji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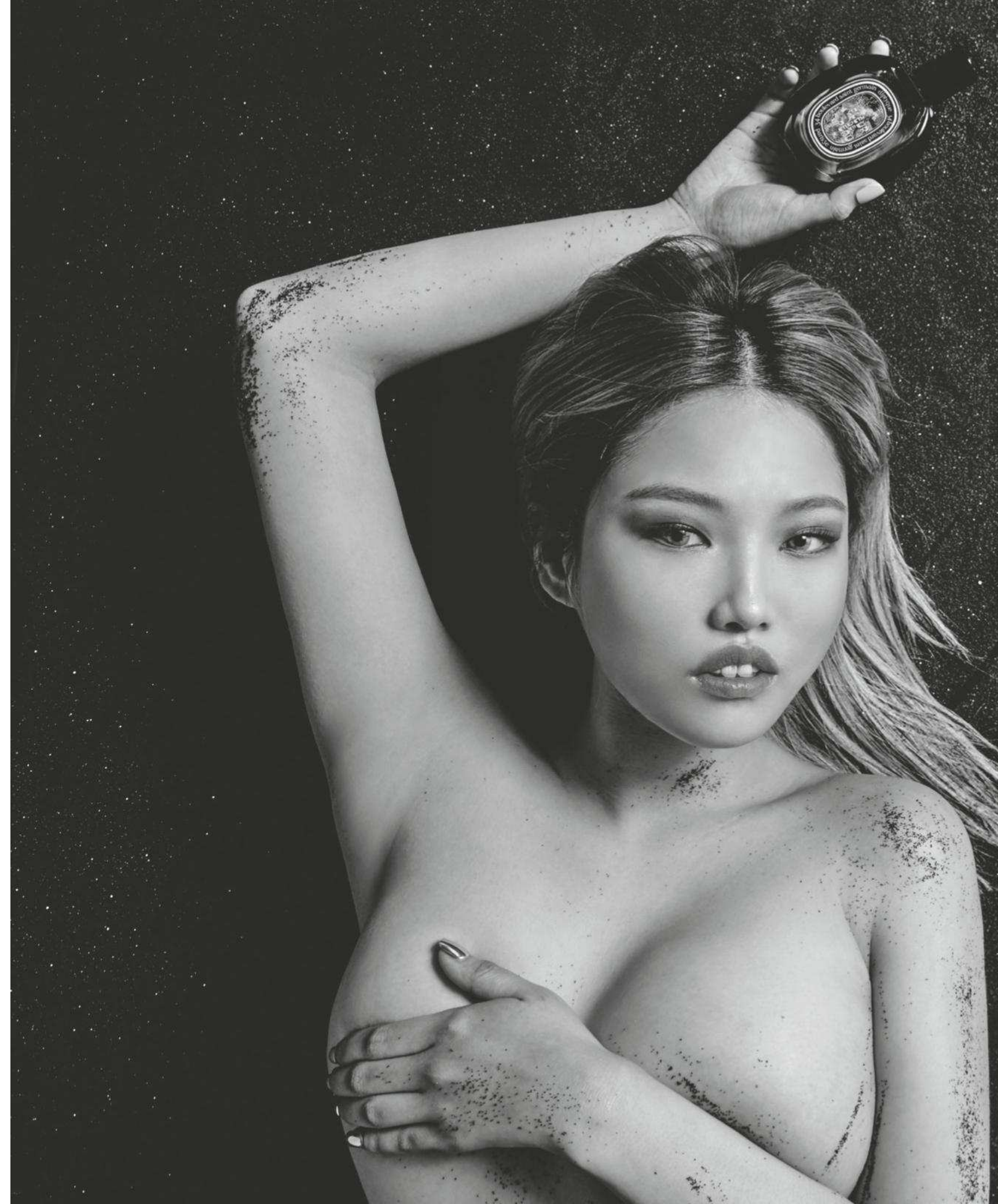


LANVIN

끊임없이 변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특유의 섬세함으로 표현해온 랑방의 향수.
올해 출시한 '모던 프린세스 오 센슈얼'은 밝은 에너지, 주도적인 태도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현대 여성 그 자체다.
망고, 멜론과 자몽 같은 열대 과일의 상큼함으로 시작되는 향은 재스민과 샌들우드로 관능적 여운을 담았다.

'모던 프린세스 오 센슈얼' 오 드 투알렛은 **LANVIN** 제품


V I B R A N T
Y O U N G L A D Y
LAN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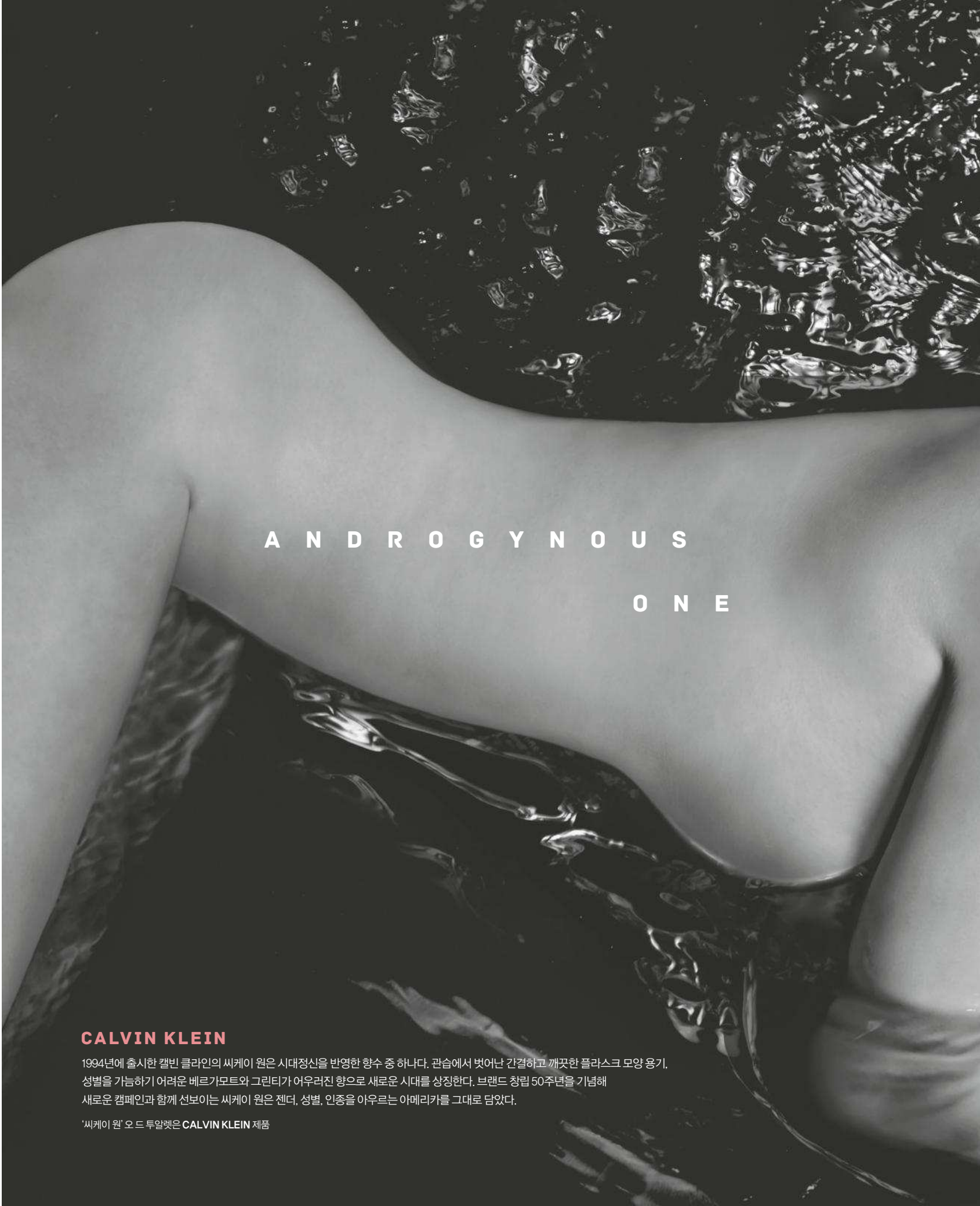




DIPTYQUE

언제나 기억 속 향기를 이야기해온 딥티크. 딥티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중성적인 향수 두 가지를 선보였다.
그중 '플레르 드 뽀'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살갗의 향 머스크를 메인으로 차갑지만 기품 있는 아이리스,
알싸한 핑크 페퍼콘이 어우러져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한다.

'플레르 드 뽀' 오 드 퍼퓸은 **DIPTYQUE** 제품



CALVIN KLEIN

1994년에 출시한 캘빈 클라인의 씨케이 원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향수 중 하나다. 관습에서 벗어난 간결하고 깨끗한 플라스크 모양 용기, 성별을 가늠하기 어려운 베르가모트와 그린티가 어우러진 향으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브랜드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캠페인과 함께 선보이는 씨케이 원은 젠더, 성별, 인종을 아우르는 아메리카를 그대로 담았다.

'씨케이 원' 오 드 투알렛은 **CALVIN KLEIN** 제품


ck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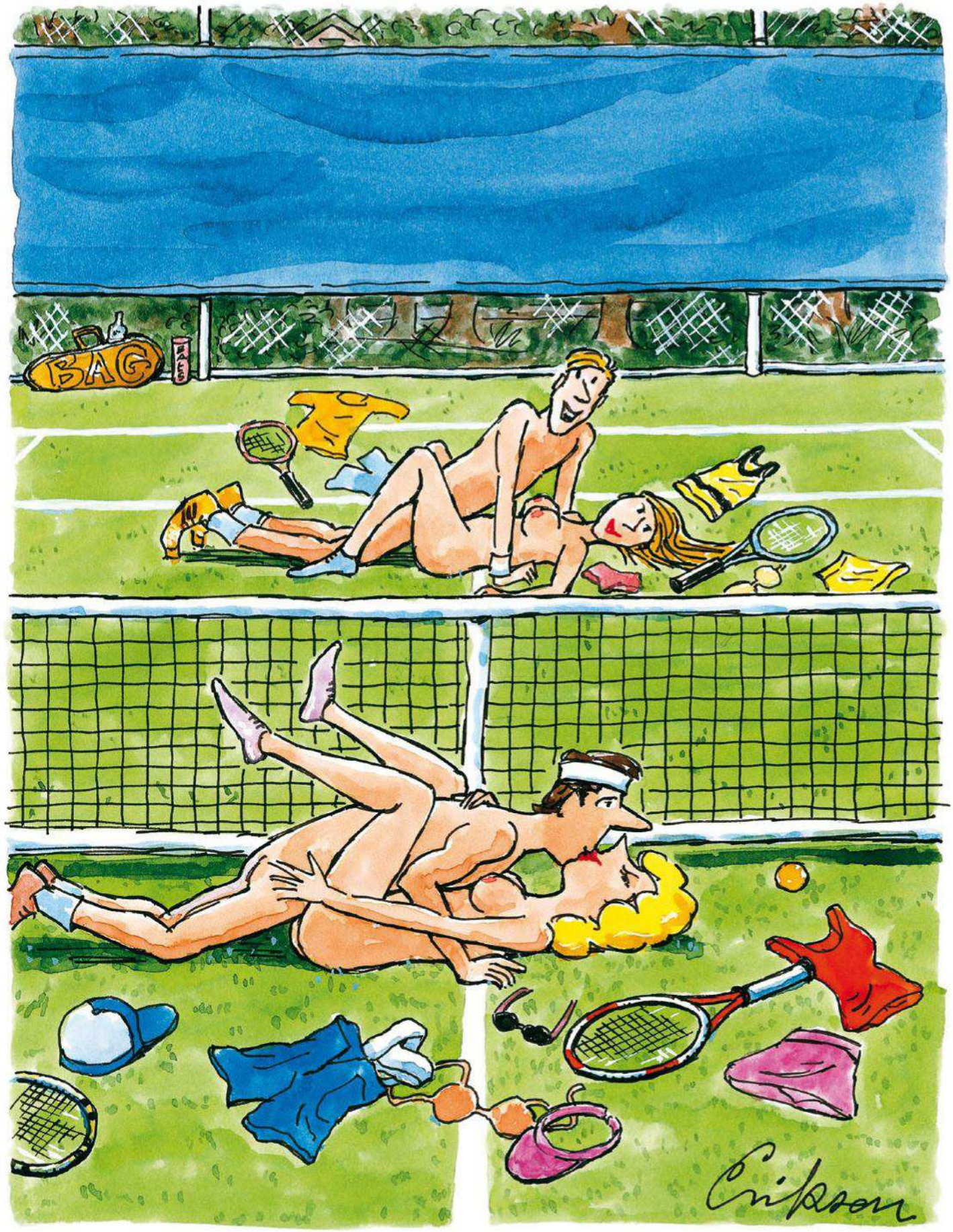


FEMME FATALE

FREDERIC MALLE

최고의 향수만을 만들어온 조향사들의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작업물을 선보이는 프레데릭 말. 그중에서도 '슈퍼스티셔스'는 기라로쉬, 입생로랑, 랑방을 거치며 엉뚱한 매력이 더해진 드라마틱한 여성상을 창조해온 알버 앨바즈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로즈 에센스와 재스민, 파출리가 어우러져 신비로움과 유혹, 미묘한 감정이 공존하는 향으로, 잊혀지지 않는 잔상을 남긴다.

'슈퍼스티셔스' 오 드 퍼퓸은 **FREDERIC MALLE** 제품


BAG
BATS
Erikson

TALKS:

정치, 사회, 문화, 섹스
그리고
〈플레이보이〉가 만난 사람들.



키스 해링의 작품을
제품 패키지에 적용한
바른생각의 콘돔

photographer **lee yongin**

SEX ISSUE - ADVISOR - SEX TALK - POET'S EYE - FILM - ISSUE - 20Q - PLAYBOY INTERVIEW - PHOTOGRAPHY

THIS MONTH IN SEX

화려한 런웨이부터 시대정신을 반영한 캠페인까지, 황당하거나 재미있거나 유의미한 섹스 및 성 관련 소식.

SEX IN ART

editor **yang boyeon**



©Jung Yoonsuk

New Generation

일민미술관의 2018년 첫 전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작가 3인이 참여한 프로젝트 전시 〈IMA Picks〉다. 김아영, 이문주, 정윤석 작가의 개인전이 3개의 전시실에서 각각 열리는 기획전 형태. 마네킹 공장과 섹스 돌 공장에서 수집한 여성 나체 인형을 아카이브한 정윤석의 '눈썹', 4대강 사업을 떠오르게 하는 크루즈 관광선과 개발 현장을 그린 이문주의 '모래산 건설',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상상의 지하광물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은 김아영의 비디오 작품 '다공성 계곡'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 4월 29일까지 4000~5000원 02-576-3062 ilmin.org/kr



©Stephanie Sarley

Food × Sexuality

여성의 성기 드로잉에 악마의 얼굴을 그리기도, 마그리트의 걸작 'The Rape'에 남성의 성기로 된 코를 더한 그림을 공개하기도 한 비주얼리스트 스테파니 살리. 섹슈얼한 관점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그의 새로운 전시 소재는 음식이다. 살리가 포착한 양배추, 자몽, 복숭아 등의 일면은 여성의 외음부를 연상시킨다. 전시명은 〈We Are Food〉. 4월 8일까지 독일의 'Museum of Fine Arts Leipzig'에서 열리며 이후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의 오스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stephaniesarley.com

Sexhibition

아라리오 뮤지엄 동문모텔1에서 인세인박의 개인전 〈Sexhibition〉이 열리고 있다. 그가 수집해온 포르노 편집 영상부터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 등을 전시 중이다. 매거진,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미지를 수집, 재편집한 인세인박의 작품은 여성 혐오 등 사회적으로 이슈를 다루는 매스미디어를 풍자한다. 청소년 관람 불가.

제주시 산지로 37-5 3월 2일~9월 30일
1만원 064-720-8202
www.arariomuseum.org



©artist and Arario Museum

WOMEN'S MONTH

assistant editor **kim sunhee**



©Shutterstock, www.internationalwomensday.com

Color of the Oscars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배우들이 형형색색의 드레스로 레드 카펫 위를 수놓았다. 골든글로브에서 드레스 코드를 블랙으로 통일하고 그래미에서 흰 장미를 달고 나온 것과 달리 화려한 모습이 펼쳐졌다. 하지만 평등을 향한 열정은 그대로였다. '타임즈 업' 열풍을 이으며 성차별 시대의 종결을 환영하는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 여성과 남성을 넘어, 드레스 색깔만큼 다양한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약하는 자리였다.

Press for Progress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이 지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PressforProgress'다.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여성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한 캠페인의 이름. 공식 웹사이트의 'Take Action' 버튼을 누르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작은 마음이 모이면 거대한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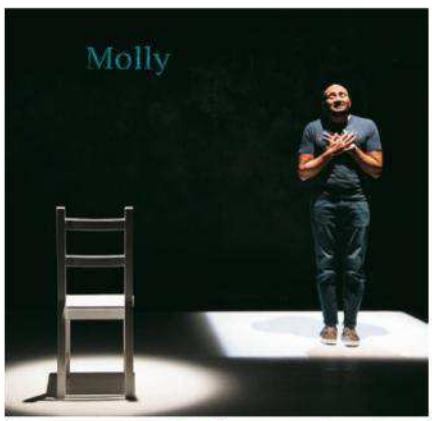
#March4Women

런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성을 위해 행진했다. 'March for Women'이라는 의미를 담아, 3월 4일(March 4th)에 함께 모여 성차별의 근절을 외치며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인종과 정치, 종교를 초월한 이 소망은 전 세계로 울려 퍼질 것이다.



한 남자의 용기

마슈크 무스타크 딘의 원맨쇼가 화제다. 여자에서 남자로, 성 정체성을 찾는 스토리의 'Draw the Circle' 공연으로 무슬림 부모를 둔 트랜스젠더 배우의 자조적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간지 〈뉴요커〉에서는 '이 시대의 가치 있는 증거'라며 호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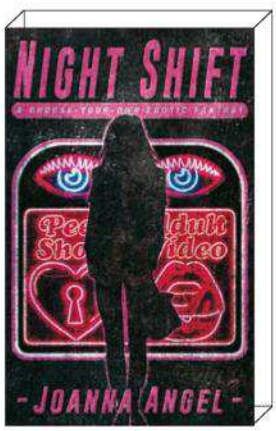




©Russ Rowland

SEX IN CULTURE

editor **kim minji**



포르노 스타의 판타지 북

얼터너티브 포르노의 아이콘 조안나 앤젤이 판타지 북 〈Night Shift〉를 발간했다. 커플을 위한 다양한 체위와 섹스 토이 그리고 페티시를 위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 에로틱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완벽한 지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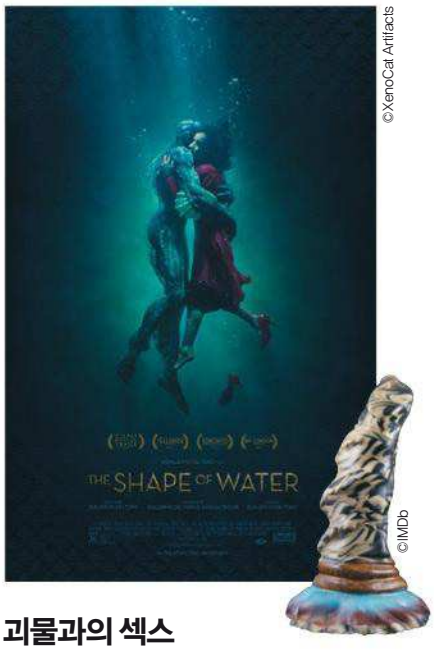
Call Me Sex

래퍼 영 서그가 지난 2월 말 돌연 자신을 'Sex'라 불러달라고 선언했다.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명도 'Sex'로 바꾼 상태. 2016년 음반 〈Jeffery〉 발매 당시 "No, My Name is Jeffery"라고 언급한 전례를 보면 그의 차기작 혹은 다음 행보가 'Sex'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을 거라 예상된다.



SEX IN DESIGN

assistant editor **gi howoong**



©XenoCat Artifacts

©IMDb

괴물과의 섹스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셰이프 오브 워터〉는 인간과 괴생명체의 러브 스토리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섹스 토이 브랜드 제노캣 아티팩스(XenoCat Artifacts)는 영화 속 괴생명체를 모티브로 한 딜도를 출시했다.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예술적 콘돔

'ARTcondomNYC'는 뉴욕시에서 지원하는 건강한 성 문화와 사회적 평등을 위한 현대미술 프로젝트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데이비스 존 아티에가 콘돔 패키지를 디자인했다. 내년 2월까지 아티에 이외에 6명의 아티스트 작품이 콘돔 포장지와 포스터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1200만 개의 콘돔에 등장하니, 예술과 섹스가 어떻게 어울릴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자.



©www.dia-art.com/acnyc



©instagram.com/ripndip

고양이와 텐가

발칙한 고양이 캐릭터와 섹스 토이. 엉뚱한 조합인가 싶지만 컬래버레이션 결과를 보면 묘한 어울림에 미소 짓게 된다. 스케이팅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립앤딥이 최근 섹스 토이 브랜드 텐가와 협업했다. 브랜드의 시그너처 캐릭터인 고양이를 남성용 자위 기구에 그려 넣은 이 제품은 보기 드문 위트 있는 색다른 시도다. 다만 기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는 미지수.



photographer **lee yongin**

팝콘돔

키스 해링의 작품을 이용해 패키지를 디자인한 콘돔이 나왔다. 키스 해링은 1988년 에이즈 진단을 받은 후 1990년 사망하기까지 여생을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썼다. 바른생각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성 인식과 성범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범한 회사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키스 해링과 바른생각의 철학은 일치합니다. 바른생각과 키스 해링의 유쾌한 만남'이라고 당당히 소개한 바른생각은 '성은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며, 콘돔 사용은 올바른 생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미 바른생각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11만 개의 콘돔을 공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콘돔 패키지 디자인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에 공감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자.


©Mazouk

(Not) Losing My Religion

아말 클루니와 카라 델레바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마주크의 2017 S/S 시즌 캠페인은 명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눈여겨볼 것은 그들의 옷차림. 이슬람교도의 전유물인 히잡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미의 여신으로 분한 모델을 보고 있으면, 멀티 컬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미적 기준을 갖는 게 옳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구찌는 2018 F/W 런웨이에 인도 시크교도의 상징인 터번을 백인 모델에게 씌워 구설수에 올랐다. 그동안 하이패션이 유색 인종에게 인색했던 건 사실이다. 십몇 년 전부터 중국 시장이 중요해지며 그나마 아시안 모델을 광고와 런웨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 전 프라다 쇼에서는 흑인 모델 아녹 야이가 오프닝을 장식했다는 소식에 세간이 떠들썩했다. 나오미 캠벨이 흑인 모델로 처음 프라다 쇼 오프닝 모델로 선 게 21년 전인 1997년의 일이라니, 호사가들이 가만 있었을 리 없다.

하우두유두

흰 티셔츠 차림의 금발 미녀가 수영장 한가운데 섰다. 모델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머리까지 다 젖었다. 그녀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서자 가슴과 유두 실루엣 사이, 티셔츠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내 유두가 당신을 공격하기라도 하나요?' SNS 채널들이 유두를 검열하는 상황에 직구를 던지는 이 매혹적인 영상은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계정에 오른 것이다. 무려 25만 명이 지지한 걸 보면, 공격보다 매혹당한 게 맞는 것 같다.



©instagram.com/si_swimsuit

SEX IN FASHION

editor **lee sunyoung, kim minji**


©Christopher Kane

More Joy of Sex

런던 패션 위크의 크리스토퍼 케인 쇼가 섹슈얼하게 물들었다. 크리스 포스와 찰스 레이먼드의 일러스트 북 〈The Joy of Sex〉(1972)에 포함된 작품이 런웨이에 등장했기 때문. 모델들이 일러스트가 프린트된 시폰 의상을 입고 걸을 때마다 묘한 상상이 발동했다. 크리스토퍼 케인은 이번 컬렉션에 대해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섹스를 할 때의 모습은 열정적이죠. 섹스 자체만으로 즐거울 수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란 답변만을 남겼다고. '조이 오브 섹스' 일러스트 라인 외에도 레더와 레이스 소재를 다채롭게 활용한 의상을 만나는 자리였다.

Power to the People

들불처럼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지금,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캠페인이 있다.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We should all be feminists)'라는 문구로 패션계 우먼 파워 무브먼트의 선두에 선 디올이 이번 시즌에도 대담한 문구를 내세운 것. '왜 이제껏 위대한 여성 예술가가 없었던 걸까?(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 이 도발적인 질문을 반증하듯, 이번 컬렉션은 아티스트 키 드 상팔의 작품을 모티브로 삼았다. 캠페인에 등장한 그림은 물론 아티스트의 작품이다.



©Dior

SEX IN THE CITY

editor **yang boyeon**
assistant editor **kim sunhee**


©Cams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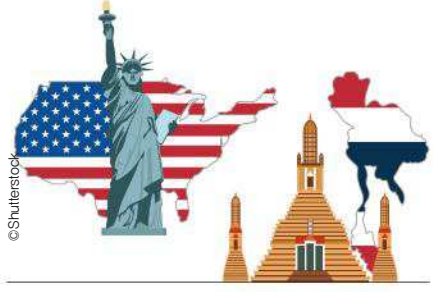
Pizza & Soda

대표적인 웹캠 플랫폼 캠소다(Camsoda)가 여성 섹스 토이 럽그럽(Rubgrub)을 출시했다. 뻔한 섹스 토이와 다른 점은 이 토이로 피자 배달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 심지어 토이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주문이 가능하다. 캠소다는 '럽그럽'으로 더 많은 피자 브랜드와의 협업을 꿈꾼다.

www.camsoda.com

FOSTA?

지난 2월 말,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성매매 처벌 법안인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FOSTA,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이 통과됐다. 웹사이트에 성매매 콘텐츠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관련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플랫폼 자체를 위협한다며 우려하는 반응도 있지만, 불건전한 접근을 막을 수 있으니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Shutterstock

Hello Thailand

태국 관광청이 '섹스 관광'이라는 수식어에 반발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외국 장관들의 발언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것. 방콕과 파타야 인근에 성매매 종사자가 많지만, 태국은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광 문화와 성 문화 모두 건강하게 지키려는 노력은 방문객들이 이곳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GET LOW

입으로 여성을 즐겁게 해주는 비법은 뭘까?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국 〈플레이보이〉로 날아든 다양한 고민에 섹스 칼럼니스트 레이철 래빗 화이트가 확신에 찬 말투로 조언한다.

by *rachael rabbit white*

Q: 지난밤 파티에서 여사친 몇 명과 커닐링거스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쓰는 테크닉을 겸손하게 자랑했더니, 한 명이 이러더군요. "나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 장담하는데, 자기 여친은 느끼는 척 연기하는 거야." 다른 여사친은 깔깔 웃더니 자기는 그런 식으로 오르가슴을 딱 한 번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파트너 솜씨가 끝내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환각제를 먹었기 때문일 거라고 하더군요. 사나이의 기를 더 확실하게 밟아버리겠다는 듯, 세 번째 여자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나는 평생 오럴을 받고 오르가슴을 느낀 적이 없어. 그걸 해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야. 불쌍한 남정네들이 이불 아래 갇혀서 40분씩 핥아댔으니까. 그래서 그 사내들도 좀 쉴 수 있도록 느끼는 척해줄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네요.

A: 지문처럼, 눈송이처럼, 여성 각자의 소중이처럼, 모든 오르가슴은 달라요. 당신이 묻는 것이 커닐링거스를 즐기는 여성들이 있는지 여부라면, 우렁찬 목소리로 "맞다"고, "아아아, 그래, 그래, 맞아"라고 대답하겠어요.

입으로 끝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몇 안 되는 가치 있는 기술이에요. 훌륭한 오럴섹스가 항상 오르가슴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지만, 모름지기 남성은 여성의 가랑이에 얼굴을 묻고 여성이 쾌감으로 부들부들 떨 때까지 그 작업을 멈추지 않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해요. 자신의 성생활 버킷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거죠. 쉽게 성취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해요. 이 사례의 경우, 당신은 그 목표에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여사친들의 의견을 조사해봤다니, 나 역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내가 평범한 경기 중에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문제가 아냐. 전혀 그렇지 않아." 에리카의 의견이에요. "고개만 깊이 처박는 건 멍청한 짓이야. 카푸치노에 뜬 거품을 홀짝거리듯 혀가 소중이 위를 스치듯 지나가는 플레이는…. 내 입이 남자 똘똘이를 슬쩍 스쳐만 지나가면 남자는 어떻게 느낄까?"

섹스 연구자들은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는 오럴섹스의 인기가 1960년대와 1970년대 정점에 올라선 이후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했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오럴을 해주는 행위의 인기가 오르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래퍼들은 그런 플레이에 대한 음악을 내놓고, 사내들은 그 플레이에 대해 허풍을 떨지." 다른 친구의 의견이에요. "왠지 모르겠지만, 여자한테 오럴을 해주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성의 욕망은 중요시하지 않아. 남자의 허세를 더 중요시하지." 서로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좋은 섹스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테크닉이죠. 당신이 상대방의 소중이에 깊이 있는 쾌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문헌이 인터넷에 많아요. 숙제를 하듯 그 문헌을 공부하세요. 클리토리스에 혀를 천천히 접근시킬 때 취하는 단계를 알려줄게요.

혀를 수직으로, 수평으로 놀려 상대를 흥분시키는 법을 배우고, 멍청해 보이겠지만 혀로 여러 가지 알파벳을 그리려 애써보세요. 강렬한 빨아들이기 동작도 실행해보고요. 혀를 리드미컬하게 놀리는 동안 혀 뒤에 손가락 하나를 붙여 혀를 따라 움직이다 손가락에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혀를 나비처럼 할짝거리는 동안 손가락 2개를 구부리면서 힘주어 삽입해보세요. 이 체위를 유지하는 동안 그녀의 골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녀의 두 다리를 약간 모은 자세로 유지하는 걸 명심하고요. 한창 플레이를 하려다가 이런 비법을 잊고 멘붕이 되지 않도록, 소중이의 작은 입술과 큰 입술이 이룬 황무지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긴장을 푸세요. 이런 플레이를 제대로 경험한 여성은 나른한 기분을 느껴야만 해요. 휴가와 비슷해요.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나 느릿느릿 여유를 부리는 휴가요. 그녀가 보이는 반응을 읽어내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청하세요.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당신이 파티에서 만난 여성들과 오럴섹스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그녀는 딱 잘라 말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내키면 받고 싫으면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간밤에 이 사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다고.

Q: 홀딱 빠진 여자와 한 달 넘게 데이트 중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얼굴을 보고 그녀와 같이 밤을 보내는 게 보통이에요. 그녀가 바쁠 땐 반려견을 돌봐주기까지 했죠.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가 틴더(Tinder)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은 걸까요? 어떻게 하면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는 일 없이 그녀 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A: 현대사회가 낳은 새로운 연애 문제로군요.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공식 커플로 발전하는 과정을 무리 없이 통과하는 건, 상대방과 당신이 사귀는 사이라는 걸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이 적힌 재킷을 입던 시절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연인들은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는지 알아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답니다. 교외로 외출한 그녀를 위해 그녀의 반려견을 돌봐준다면, 나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고 가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밸런타인데이에 근사한 반지를 선물하는 상상을 하게 될 거예요. 농담이에요. 당신은 그녀의 펫 시터인 것이 분명해요. 바라건대, 그녀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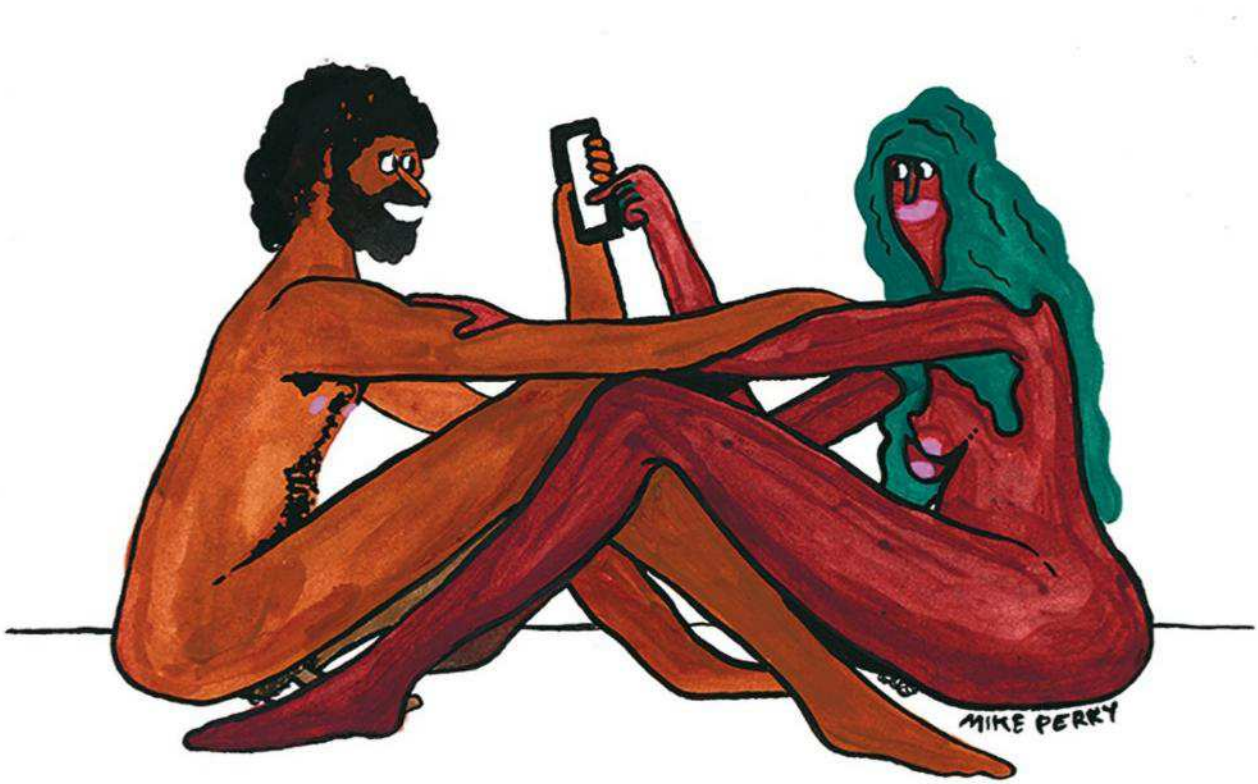
이 관계는 쌍방인가요? 그녀도 당신을 위해 사려 깊은 일들을 해주나요? 백 번 말해봐야 한 번 행동하는 것보다 못한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 사소한 조짐을 찾아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이것저것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순전히 당신이 주는 걸 받기만 하나요? 그녀도 당신이 바쁠 때 반려견을 돌봐줄까요? 투자에 대한 대가를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 그리고 노고를 투자하는 '호갱'이 되지는 마세요. 당신이 남자건 여자건, 연애 초기에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위험 신호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고는 해요. 실제로는 당신이 악녀와 동침하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닫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보다는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마도 여친' 입장에서 이 상황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그녀가 자신의 틴더 계정을 깜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나는 어쩌다 한 번씩(따분할 때, 나르시시즘에 빠지거나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데이팅 앱을 쓰곤 해요. 하지만 틴더에서 이메일이나 알람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몇 달씩 로그인을 안 할 때도 있고요. 꿈에 그리던 남자와 데이트하느라 내 범블(Bumble) 계정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 고사하고, 그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몇 주를 지내기도 하죠. 그 남자한테 정말 홀딱 빠졌다면, 내가 가입한 데이팅 앱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새로 피어난 연애 감정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그 여성분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희소식은 이거예요. 그녀의 계정이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라는 건 그녀가 적어도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결국, 모든 관계의 토대는 서로의 의사를 터놓고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면, 일단 바라던 목적지에 두 사람이 도달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의 친구가 틴더에서 그녀를 봤다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그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우선 객관적인 사실부터 거론하세요. 공격적인 태도는 취하지 말고요. 당신은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지한 생각을 품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녀도 당신이 자기에게 홀딱 빠졌다는 걸 아나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녀 역시 당신과 비슷한 의혹을 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데이트를 시작할 때면 괴상한 짓거리를 하곤 하죠. 불안감에서 비롯된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는 것도 그런 짓 중 하나예요. 어쩌면 그녀도 당신이 당신의 데이팅 앱을 지웠다고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대답을 듣게 될까 두려워 차마 물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연인의 이름이 박힌 재킷을 입던 시절은 먼 과거지사가 됐지만, 디지털 시대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해나가는 의식을 막을 순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는 이런 시도를 해보세요. 그녀에게 근사한 저녁을 차려주고 촛불에 불을 붙인 뒤 '섹시 타임'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의 휴대폰에 있는 데이팅 앱을 지우는 거예요. P



살이 보이는 계절

마침내 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맨살 예찬

봄날의 맨살을 이길 순 없어.

by 유지성

마지막 섹스 칼럼을 쓴 날이 언제였더라. 아무튼 겨울이었다. 체질적으로 스웨터를 도저히 입지 못해서, 겨울이면 맨날 덜덜 떨면서 출퇴근을 했다. 스웨터를 입은 여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몸에 잘 맞는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어떻게 보이는지쯤은 안다. 그러니까, 겨울의 나는 성적 매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통계를 내본 적은 없으나, 겨울의 섹스 횟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일단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맘 반, 스스로 자신 없는 맘 반 정도일까.

겨울의 섹스 칼럼은 대개 실내에서 느린 호흡으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다소 서정적이다. 처음 만난 여자보단 오래 알던 사이, 낯선 곳보다는 너와 나의 집, 일부러 그렇게 덥혀놓은 건지 술 몇 잔만 마시면 옷을 하나씩 (도합 세 겹쯤 차례차례) 벗어젖히게 되는 술집. 낮보다 밤이 놀라울 정도로 긴 계절. 그리고 그 자체로도 지겹도록 긴 계절. 겨울의 끝은 거의 체념했을 때가 되어야 온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러운 식이다. 비 한 번 내리고 나서 기온이 20℃까지 치솟는다든가.

사실 별로 서정적이지 않고 성질이 급한 나는 따듯한 양말부터 벗어 던진다. 아, 양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드디어 해방. 이제 양말을 넣는 맨 아래 서랍은 (애석하게도) 겨울에 콘돔을 넣어둔 서랍처럼 그다지 열 일이 없다. 그런데 처음엔 좀 우습다. 발등이 이렇게 하얬나? 겨울 동안 햇빛을 쬘 일이 드물었으니. 외출하기 전 옷을 다 입고 나면 거기만 부끄럽다. 복숭아뼈는 귓바퀴만큼이나 묘하게 생긴 데다 만질 때의 감각도 이상하군. 몇 달간 남의 것도, 내 것도 볼 일이 없었으니까(물론 섹스 중에는 주로 알몸이지만 다른 일에 바쁘지 굳이 발등이나 복숭아뼈를 뚫어져라 쳐다보진 않으니). 페티시에 대해서라면 할 말이 많다. 어쩌면 내게 성적 자극을 주는 요소는 제 각각인 수많은 페티시의 총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다. 페티시는 학문적 정의와 일상적 용례가 꽤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다. 각자의 페티시가 있는 만큼, 개인마다 페티시의 정의도 다를 터. 나의 페티시란, 특정 신체 부위나 옷이나 메이크업이나 소지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리로 피가 팡팡 솟아 상상이 끝까지 다다르고야 마는 어떤 순간이 찾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 순간적이다. 세트 리스트를 달달 외우고 간 콘서트에서의 감정보다 택시 라디오에서 예상하지 못한 선곡에 온 맘을 빼앗기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반투명 검정 스타킹을 좋아해, 나는 염색한 단발을 좋아해, 나는 까만 피부를 좋아해…. 페티시다. 하지만 더 주체할 수 없는 건 찰나의 변화에서 온다. 이를테면,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적당히 취해 2차로 좌식 술집에 들어섰을 때, 아래로 내리는 지퍼가 달린 신발을 벗고 양말마저 벗고 맨발을 드러낸, 그 젖은 발의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고 만 것 같은 경험.

결국 페티시는 도통 낯선 무언가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것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이다. 나는 스타킹을 신지도 않고, 단발머리를 하지도 않고, 피부가 까맣지도 않아 더욱 궁금한 것이기도 하다. 스타킹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단발머리를 뒤에서 보고 싶다, 까만 피부는…. 하지만 그렇게 '반짝' 등장하는 맨살을 이길 순 없어. 저 맨살은 어디에서 어떻게 끝날까,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여름이 되면, 좀 더 뜨거워지면 더욱 잘 알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을까.

4월, 기다리다 지쳐 나가떨어질 즈음 덜컥 봄이다. 내 새것 같은 복숭아뼈랑 발등도 이상한데, 누군가와 가까이 마주 앉으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 만에 은밀하지만 은밀하지 않은 몸의 어떤 부분이 보인다. 발목이거나, 쇄골이거나, 종아리거나, 목덜미거나. 아무렇지 않으면서 아무렇지 않지 않은 신체 부위들. 여기는 당당한 과시와 몹쓸 관음의 장인 한여름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이 아니니까. 하지만 비키니 수영복 같은 건 페티시의 리스트에 없다. 그 풍경이라면 가기 전부터 이미 예측할 수 있다. 그보단 하루 새 머플러와 장갑을 벗어 던지고, 건조함에 몸서리치다 충동적으로 머리 모양을 바꾸고, 무채색 양말과 스타킹을 처박아놓는 도시의 계절과 만남에 몸과 맘이 잔뜩 동한다. 겨우내 꽁꽁 닫혔던 땀샘이 벌컥 열리듯.

몇 주 전 주말 낮, SNS에 처음 맨발로 외출한 날의 하반신 사진을 찍어 올렸다. 해놓고 보니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런 내 모습이 섹시할 거라 여긴 건 아니지만, 가볍고 짧은 옷을 입고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스스로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음을 부정할 순 없다. 꼭 페티시 때문인 건 아니다. 다만 맨살로 세상에 나서는 기분이, 맨살로 공기를 대하고 맨살을 드러내는 기분이 다르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



누가 먼저였을까

날씨와 성욕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그해 4월의 원 나잇 스탠드는 갑자기 포근해진 봄날의 열기 탓이었다.

by 박훈희

처음 만난 사이였다. 충동적인 원 나잇 스탠드였다. '업무 파트너와는 자지 않는다'는 원칙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처음 만난 비즈니스 파트너와 원 나잇 스탠드라니! 다음 날 아침, '내가 미쳤지' 하며 베개에 머리를 박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따뜻해진 4월의 날씨 때문이었다. 하필이면 그날 날씨가 포근했고, 그는 재킷을 벗어 손에 들고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으며, 하필이면 셔츠 사이로 그의 단련된 복근이 비쳤다. 어머, 그렇게 선명한 식스팩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도 모르게 '저 복근,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몇 시간의 맥주 미팅 이후 취기에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알몸은 취기가 완전히 깬 상태에서도 보기 좋았다. 나도 모르게 그의 식스팩에 다시 손을 얹어보았다. 복근은 단단했고, 내 손기척에 잠에서 깬 그의 페니스도 단단해졌다.

그 밤, 누가 먼저 '호텔로 가자'고 하트 시그널을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친구 A가 물었다.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는 답했다. "술 마시는 중에 그가 반복적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내 손을 은근슬쩍 잡은 건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겼어. 근데 그 술집에서 내가 그 남자 셔츠 속에 손을 집어넣었을지도 몰라. 내가 그의 셔츠에 손을 넣는 장면은 머릿속에 없는데, 내가 그런 욕망을 가졌다는 게 뚜렷이 기억나거든." A는 내 말에 박장대소하며 단언했다. "넣었네, 넣었어. 술 다 깬 지금 그 정도로 기억하면 그건 99% 손을 넣은 거다."



박훈희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섹스 칼럼을 쓴다.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으며, 섹스 지침서 〈어땠어, 좋았어?〉를 출간했다.

그날, 그 남자의 셔츠 속으로 보인 건 식스팩만이 아니었다. 셔츠 안에는 뽀얗고 매끄러운 윤기가 넘치는 그의 속살이 있었다. 나는 스스로의 남자 취향에 대해 두 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한 가지는 내가 '뽀얀 피부'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샌님 같아 싫어'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나에게 그 남자의 뽀얀 피부는 섹시함을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구릿빛 피부와 다른, 새침한 매력이 있었다. 생전 처음으로 '여자의 뽀얀 피부에 괜스레 가슴 설레는 남자 마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공감했을 정도니까. 스스로에 대해 깨달은 나머지 한 가지는, 나는 생각보다 시각적 자극에 약하고, 몸 좋은 남자를 탐한다는 거였다. 단지 식스팩이 근사하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성욕을 느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재미있는 점은, 4월의 해프닝을 겪은 것이 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해프닝을 비웃은 A도 내 욕망만큼은 이해했다. "가벼운 셔츠 차림의 남자가 좀 섹시하긴 하지. 나는 셔츠 버튼을 목까지 다 채운 남자가 영 답답해 보이거든. 그런데 날이 따뜻해지면 버튼을 두세 개 열고 자연스럽게 목을 드러내잖아. 소매를 약간 걷었을 때 팔에 힘줄이 보이면 막 흥분되고 말이야. 무엇보다 옷차림이 가벼우면 옷을 빨리 벗을 수 있잖아. 호텔 룸의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서둘러 셔츠와 팬츠를 벗어 던지고 내 몸을 탐하는 남자와의 밤은 너무 자극적이야. 재킷 벗고, 셔츠 벗고, 터틀넥까지 벗어야 할 때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니?" 그 마음, 나도 안다. 섹스 스캔들에 관한 한 모든 경우의 수가 나보다 한 수 위인 B는 한 술 더 떴다. "난 반바지 입은 남자의 허벅지를 볼 때 갑자기 성욕이 느껴질 때가 있어. 반바지 입고 의자에 앉으면 무릎 위로 허벅지가 살짝 보이잖아. 거길 보면 남자의 허벅지 근육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게 되거든. 그 상상과 동시에 내 하반신이 뻐근해지는 걸 느껴. 반바지 속으로 내 발을 집어넣고 싶다니까!" 봄날의 옷차림과 의도하지 않은 남자의 노출에 성욕을 느끼는 건 나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4월의 그 밤에 정말 내가 불쑥 그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걸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그가 먼저 내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나도 재킷 안에 얇은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고, 취기와 열기가 오르면서 재킷을 벗었으니까. 몸 위를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에 블랙 브래지어가 비쳤을 것이고, 셔츠 칼라 사이로 스스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섹시 포인트인 쇄골이 보였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그의 복근을 발견해낸 것처럼, 그 역시 내 셔츠의 버튼 사이로 내 가슴을 엿보았을지 모른다. 가끔은 술의 열기에 취해 긴 머리카락을 올려 묶으며 목덜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날 발목이 보이는 데님 팬츠를 입은 것도 기억난다. 손목과 발목이 몸에 비해 얇은 나는 체형 커버를 위해 되도록 발목을 드러내는 패션을 선택한다. 남자의 시선을 의식한 옷차림은 아니었다. 유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그날 그 옷차림을 선택한 것은 그저 내가 캐주얼하면서도 섹시함을 잃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해서였다. 하지만 그 밤, 예기치 않은 봄바람에 나 역시 그에게 내 몸의 일부를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었다. 그 역시 나처럼 우연히 엿보게 된 여자의 속살에 성욕을 느꼈을지 모른다. 그것이 4월의 해프닝을 만든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상상조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첫 미팅에서 내가 주책맞은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망상일까.



흑백 또는 부조리

알베르 카뮈의 눈부신 어둠.

by 강정

이 작가의 컬러사진을 몇 장 본 적이 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담배를 피워 문 유명한 흑백사진에 익숙해진 탓이었을까. 컬러로 본 그의 얼굴은 왠지 작위적으로 느껴졌다. 흑백사진 위에 누군가 물감으로 색칠을 한 것처럼 보였다. 세계의 근원적 부조리와 마주쳐 절망하는 '이방인'보다는 부조리와 모순의 교착을 삶의 평범한 당위로만 자각하는 '일상인'의 얼굴 같았다. 흔히 빠질 수 있는 이미지의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이미지의 착종(?)일 테지만, 컬러로 본 그는 전혀 그답지 않았다. 물론, 살아 있을 당시 그를 본 사람들에게 그는 명백한 컬러를 지닌 사람이었겠지만, 그의 작품만 읽고 몇 개의 잘 알려진 프로필로만 그를 인식하게 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는 흑백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컬러로 본 그의 모습은 그와 꼭 빼닮은, 그를 연기하는 어설픈 배우 같았다.

이 사진은 1955년에 찍은 것이다. 돌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5년 전이다. 출판사의 발코니 담장에서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담장에 걸친 오른팔 끝엔 노트가 놓여 있다. 뭔가를 골똘히 바라보는 것 같지만, 둥그런 그림자가 멍처럼 드리워진 눈매는 왠지 텅 비어 보인다. 무엇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품새다. 그럴 경우, 그의 시선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한다. 그럼에도 눈은 결국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법. 그러고 보니 풍경 전체가 기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가 서 있는(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상체 아랫부분은 왠지 허방일 것만 같다) 발코니 쪽엔 볕이 환하지만, 그가 내려다보고 있는 아래쪽은 그림자가 짙다. 요컨대 그는 밝음 속에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외면은 빛 속에 있지만, 그의 내면은 그가 바라보는 풍경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건지도 모른다. 빛보다 어둠이 더 눈부시다는 듯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다. 문득, 그가 만들어낸 주인공, 햇빛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뫼르소가 떠오른다. 〈이방인〉을 펼쳐보자.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하자, 길쭉한 칼날이 되어 번쩍하면서 나의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이 되어 눈두덩을 덮었다.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나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심벌즈 소리와, 단도로부터 여전히 내 앞으로 뻗어 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타는 듯한 칼날은 속눈썹을 쑤시고 아픈 두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위의 진술은 뫼르소가 바닷가에서 아랍인에게 총을 쏘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아랍인은 단도를 들고 뫼르소를 위협하고 뫼르소는 권총을 든 채 맞선 상황. 그런데 뫼르소를 자극한 것은 아랍인이 들고 있는 칼이라기보다 거기에 반사된 빛의 칼날이었다. 그는 아랍인에게 아무런 원한도 분노의 감정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시야를 어지럽히는 빛의 칼날에 저항하듯 방아쇠를 당긴다. 정확히 네 번. 뫼르소는 끝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이 기우뚱'해진 상태에서 뫼르소는 급격히 전락한다. 세계는 이제 방아쇠를 당기기 이전과 이후로 명백하게 나뉜 채로 부당한 법정놀이를 시작한다. 그가 무심히 행했던 모든 행동과 말이 죄의 단서가 되고, 심지어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질서의 훼방꾼'이 된다. 이럴 때, 햇빛이 눈부셨다는 고백은 빼도 박도 못할 원죄 요소로 작용하는 바, 그는 결국 빛에 의해 살해당한 자가 된다.

그러한 '빛의 살해'를 폭로한 지 13년 후, 그는 어느 발코니에 서서 음영이 드리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넓은 이마를 공백의 노트처럼 밝히고 있는 빛의 창살들. 그러고 보니 그 옆에 약간 삐딱한 수직으로 꽂혀 있는 얇은 쇠기둥이 인상적이다. 절묘하게도 그것은 그의 몸과 그 뒤쪽의 정경을 아슬아슬하게 갈라놓고 있다. 살짝 삐져나온 왼쪽 팔꿈치의 일부엔 아래쪽 거리를 향하려는 그를 안간힘을 다해 붙들고 있는 빛의 악랄한 손자국이 찍혀 있을 것 같다. 그는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모든 걸 폭로하려 드는 빛의 강압에 시달리는 자에겐 모든 걸 감춰주고 행위의 윤곽을 희석시키는 아래쪽 어둠의 세계가 더 따뜻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렇지만 끝내 그는 자살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이론적 토대가 된 〈시지프의 신화〉는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 된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럼에도 끝내 자살은 유일무이한 해결책이 아니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결코 그 질문 자체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차방정식이 아니다. 다만, 빛의 꼭대기에서 어둠의 수렁을 한없이 내려다봐야 하는 숙명 앞에서 모든 부조리와 모순의 총체를 스스로에게 설득시키는 정답 없는 질문과 모험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바라보고, 쓴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시야에 잡히는 모든 것이 허상 같지만, 자아를 둘러싼 모든 허상은 허상인 그 자체로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검으냐 희냐를 분별하기 이전부터 이 세계의 어느 부분은 검었고, 어느 부분은 희었다. 때론 뒤섞이기도 착종되기도 하면서 여전히 세계는 흑백 뒤에 숨겨진 색들을 끄집어내 숱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노란색은 보기에 따라 똥이 되기도 금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색을 빼버리면 그저 알쏭달쏭한 회색 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다. 농도가 짙어지면 어둠으로, 농도가 옅어지면 빛으로 변화하는 그것 앞에서 섣부른 가치 판단은 삼가는 게 좋다. 자칫하면 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상대방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미간은 늘 찌푸려질 수밖에.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피곤하다. 그러나 이 피곤 자체가 유일한 나의 삶이다. 내게 그 어떤 색도 임의로 입히지 말아달라. 나도 나 자신이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초록색으로 바라보는 당신에게 나는 서서히 농도가 짙어지는 핏빛 덩어리로 실체를 드러내 당신의 새하얀 드레스를 더럽힐지도 모르니까."

다시, 그를 본다. 왼쪽 눈을 둥그렇게 감싼 음영에 유독 눈이 간다. 세상의 빛이 하도 산란스러워 피부 안쪽에서 저절로 선글라스가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다. 빛이 짙을수록 어둠은 이토록 또렷하게 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는가.

©gettyimages

시인 강정은 1992년 스물두 살에 데뷔해 25년째 시를 쓰며 밥을 먹고 산다. 여섯 권의 시집을 냈고, 네 권의 산문집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플레이보이〉를 통해 첫 단편소설 〈유리의 감옥〉을 발표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느새 국내 극장가에 스며든 퀴어 영화에 대한 소견.

by 김형석

요즘 한국 극장가에 심상찮은, 다양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오스카 시즌과 맞물려 몇몇 LGBT 영화의 개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봉작 라인업을 살펴보면, 먼저 호모포비아 커뮤니티에 의해 인터넷 평점 테러를 당하고 있는 〈120BPM〉과, 오스카 각색상을 수상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있다. 〈레이디 버드〉에도 게이 틴에이저의 에피소드가 있으며, 한국 영화 〈환절기〉도 빼놓을 수 없다. 개봉을 기다리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 〈판타스틱 우먼〉은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이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게이-레즈비언 시네마가 주류에 진입한 지는 꽤 되었다. 오랫동안 벽장 안에 갇혀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형성하던 이 영화들은 1990년대 '뉴 퀴어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인디펜던트 영화를 이끌었다. 재작년 〈캐롤〉이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것도 같은 시기였다. 이후 LGBT 영화는 저예산 영화의 틀을 깨고 나온 셈이다.

그렇다면 최근 LGBT 영화의 새로운 흐름이라면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은 반대편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젠 선남선녀의 이성애에 관한 영화는 더 이상 대중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장악한 로맨틱 코미디는 이미 예전의 위상을 잃었다. 대신 감히 말하지 못하던, 경계를 허물며 때론 기묘한 러브 스토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스카 작품상 리스트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는다면, 무슨 얘기인지 대번에 알 거다. 올해 작품상 수상작 〈셰이프 오브 워터〉는 언어장애를 지닌 여자와 크리처의 사랑 이야기다. 〈겟아웃〉은 인종 간 로맨스를 다루며, 여기에 성 정체성에 눈뜨는 소년의 이야기 〈콜 미 바이 유어 네임〉과, 범상치 않은 성장 영화 〈레이디 버드〉가 있다. 게다가 지난해 오스카 수상작은 21세기 최고의 LGBT 영화로 평가할 만한 〈문라이트〉였다. 이 영화에 비하면 〈라라랜드〉는 알록달록한 판타지 영화처럼 보일 정도다.

그렇다면 왜 우린 남녀의 로맨스 대신 '사랑'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걸까?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 그 정답이 있다. 1980년대 이탈리아의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LGBT 영화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데 매우 적절한 매체라는 걸 증명한다. 남녀가 만나 당연한 듯 사랑에 빠지고 잠시 이별하지만 결국은 다시 만나는 해피엔딩의 타성에 이성애 로맨스가 갇혀 있다면,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영화가 사랑의 감성을 다루는 방식은 차원이 다르다. 엘리오(티모시 샬라메)는 음악을 사랑하는 17세 소년. 고고 미술 사학자인 아버지(마이클 스털버그)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온 24세 청년 올리버(아미 해머)와 함께 여름을 보내게 된다. 엘리오와 올리버는 서로에게 끌리고, 그들은 짧지만 잊지 못할 사랑을 나눈다. 보수적인 시대이기에 감춰야만 하는 관계. 영화는 미술이나 문학 같은 예술적 장치를 이용해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다가가는 소년의 내면을 드러낸다.

영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벅찬 느낌일까? 그러나 엘리오와 올리버는 결국 헤어지고, 소년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이때 모든 것을 감지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잠언에 가까운, 사랑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건넨다. 이 대목은 숨 막힐 정도로 공감을 자아내며 관객을 심각한 위로와 연민으로 어루만진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은 로맨스의 결과가 아니라 그 꼼꼼한 과정과 감정의 일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겠다는 듯, 두 사람의 관계를 차곡차곡 담아나간다. 이런 미덕은 이젠 어쩌면 LGBT 영화에서만 접할 수 있는 감성이며, 〈문라이트〉 역시 이런 시적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레이디 버드〉는 틴에이저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해야 할, 졸업반 아이들의 이야기다. 주인공 레이디 버드(세어셔 로넌)는 대륙을 가로질러 동부에서의 대학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건 또 있다. 호감을 지니고 있던 소년 대니(루커스 헤지스)가 알고 보니 게이였던 것. 절친 줄리(비니 펠드스타인)와도 벽을 쌓게 되지만, 결국 그 모두를 인정하고 끌어안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문라이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따뜻한 색, 블루〉까지 최근 LGBT 영화들은 상당 부분 성장 영화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화법은 매우 구체적이다. 캐릭터의 욕망이 어느 순간 불타올라 격정적 로맨스가 탄생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체성에 대한 은밀하면서도 섬세한 사연들. 완고한 이성애자도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들이다.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한 장면

김형석은 영화 저널리스트이고, 시네필이며, 영화에 대해 끊임 없이 생각하고 사정 없이 쓴다. 그는 영화 전문지 〈스크린〉에서 10년 동안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현대사의
가장 심오한 격변 중
하나를 바라보는
만화경
같은 시선.



THE GENDER



REVOLUTION

〈플레이보이〉의 CCO 쿠퍼 헤프너가 성차별주의와 섹스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

하비 와인스타인이 전 세계 방송 뉴스와 신문 지면을 장악하기 2주 전, 나는 Playboy.com을 위해 남성성(masculinity)과 남자다움(manhood)을 분석하는 글을 썼다. 당신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게 될 그 글에서, 나는 남성들에게 남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최상의 모습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적인, 그렇지만 일찌감치 행해졌어야 할 대화를 해볼 것을 – 남성들끼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도 대화를 해보는 더욱 중요한 일을 – 서로에게 권해보라고 주장했다. 내가 그 글을 쓴 동기는 간단했다. 나는 서구사회에서 남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불어 여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조직의 고위 경영진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미투(#MeToo)에서 타임즈 업(Time's Up) 이래, 남성성에 대해 더욱 꾸밈없고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했다.

우선,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여기 〈플레이보이〉의 지면에서는 특히 더 그래야 한다. 하비 와인스타인,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읽고는 곧바로 섹스와 사내들의 욕정이 문제라는 위험천만한 결론으로 넘어간다. 대다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였던 건 그게 아닌데도 말이다. 순전히 자기 잇속을 챙기겠다는 마음속 목표를 위해 권력을 역겹게 오용하고 거기에 섹스를 이용한 짓들이다. 와인스타인과 힘 있는 자리에 오른 다른 많은 이들이 저지른 짓들은 정말로 부도덕하다. 그런데 합리적인 남성 – 성적인 취향이 독특하더라도, 품위 있게 처신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개인 – 과 대화를 하려면, 성차별주의와 섹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그 경계선은 권력을 오용하는 건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와인스타인의 상황을 분석할 때, 섹스가 무기로 이용됐다는 걸 알 수 있다.

〈플레이보이〉 창간 이후 세상이 변해왔음에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성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걸 비난한다. 그 표현이 여성에게서 비롯됐을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우리는 이성애자 남성들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내가 오른쪽 페이지의 글에서 논의하듯, 무의식적일지라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걸 본다. 반면, 자신들의 전통적 커리어에서 성공을 쟁취하려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또는 다른 형태의 독립성을 가지려고 시도하면, 그 여성들은 정밀한 검토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 일터와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불공평한 상황은 남성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남성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

와인스타인의 몰락이 가져온 도미노 효과를 보면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직업과 관련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남성 권력의 오용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확산돼왔다는 것을 떠올린다. 많은 남성들이 그걸 철저하게 인식하지는 못해왔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다고 선택했건 말건, 우리 모두는 살아오는 내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해왔다. 슬프게도, 대다수 여성들은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저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의 희생양으로 전락해왔다.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는 일, 그리고 양성 모두에게 논의 테이블의 좌석을 제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적인 각성 – 섹스를 비난하는 쪽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향한 부당한 행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로 안내하는 각성 – 을 도울 것이라는 게 나의 희망이다.

THE PLAYBOY PHILOSOPHY

남성성과
남자다움에 대하여.

by
cooper hefner

우리 자신은 인간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이래로, 남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탐구해왔다. 우리 남성들이 스스로에게 허용한 탐구 수준은 여성들에게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탐구하게끔 허용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여성이 어느 조직의 경영진 역할을 목표로 했건 또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기를 희망했건, 여성들은 실패할 운명에 처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실패한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진실이 있었다. 여성들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할 때면 언제든 남녀를 불문한 비평가들이 난데없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세상이 의심의 여지없이 변해왔음에도, 이 투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과 영향력 있는 여성들은 장벽을 깨부수면서 여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의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베티 프리던(전미여성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여성학자)과 글로리아 스타이넘(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 그리고 페미니즘의 두 번째 물결(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젠더 논쟁의 범위를 가족과 일터, 생식권 등의 분야로 확장시킨 운동)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절한 운동인 듯 보인다. 록산 게이 같은 작가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정계 인물들은 이전 시대 운동가들의 배턴을 이어받아 자유와 평등한 놀이터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일 뿐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성들은 반대편에서 나는 무언(無言)의 웅성거림을 자주 들으면서 심적으로 괴로워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남성으로서 해온 발전, 또는 최소한 그걸 둘러싼 대화와 논쟁에 균열이 생겼다. 따라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간단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의문이. 오늘날 미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남성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남성성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양극단에 서 있는 인물들이 남성들에게 자신을 이런저런 관점으로 바라보라며 의견을 제시해왔다. 우리 아버지 휴 헤프너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내내 이런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날, 우리는 남자다움을 정의하는 새로운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당신이 스타라면 여자의 X지를 움켜쥘 수 있다(2005년에 녹음된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 사람은 현재 자유세계의 리더다. 역사적 인물들이 한 발언을 생각하던 나는 미국의 전(前) 대통령이 한 말을 떠올리곤 나도 모르게 서글퍼졌다. "세상의 거의 모든 남성들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품성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 말은 훌륭한 도덕성을 탐지하는 나침반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훌륭한 남성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품성의 윤곽을 그려주기도 한다. 그가 한 발언은 그가 서거한 이래로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실한 말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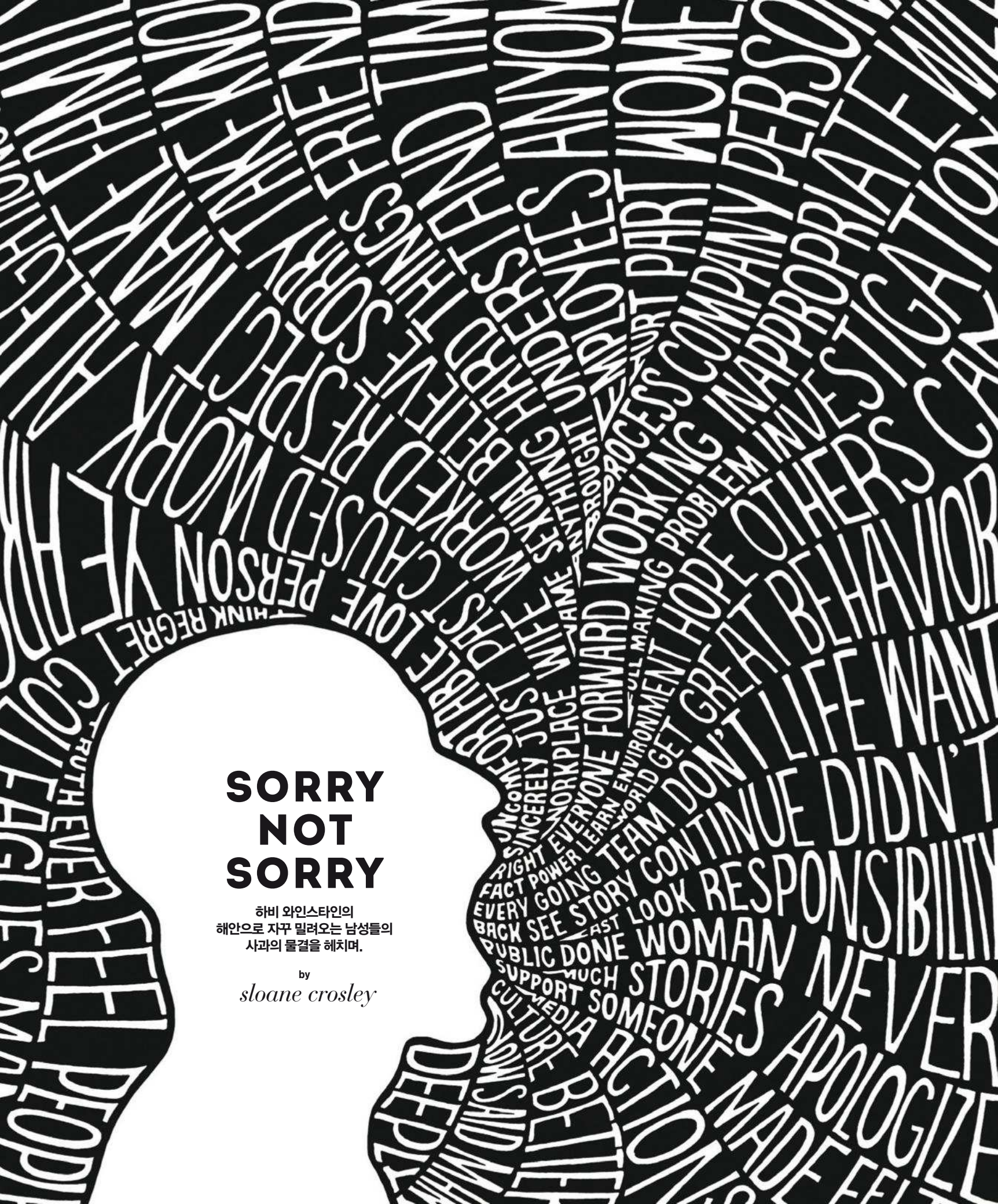
오늘날 댄 빌저리언(미국의 포커 선수이자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유명한 SNS 스타) 같은 남성들은 지나치다 싶은 물질적 풍요로 사람들을 흐뭇하게 만드는 남성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투사해 수천만 명의 SNS 팔로워를 끌어모은다. 물질을 향한 그들의 지나친 탐닉은 그걸 지켜보는 수백만 명을 매혹시키고 있지만, 빌저리언을 추종하는 청년들과 남성들 대다수가 정말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앞서 제기한 것과 동일한 질문에 대답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남성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남성성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빌저리언의 생활은 우리 아버지의 그것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특이한 행로를 걷기로 한 우리 아버지는 빌저리언이나 다른 이들이 깊이 있게 탐구하지도 않은 채로 추종하는 남자다움의 특징을 묘사했다. 탐구 작업을 계속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남성들이 남성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사람으로 임명해온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오늘날, 남성성은 툭하면 폭력과 연관되곤 한다. 나는 대다수 남성들이 폭력을 옹호한다고 믿지 않는다. 폭력을 낭만화하는 걸 좋아하는 남성이 많지만, 실제로 극단적 폭력을 즐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섹슈얼리티 역시 남성성을 정의하지만, 역사상 특정 시점에 어떤 사회가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섹슈얼리티에는 항상 '건전한' 또는 '변태적'이라는 딱지가 붙어왔다. 섹슈얼리티는 한 사람의 자아와 그 사람의 파트너들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시돼야 옳다. 관습적으로 그어진 경계선 밖에서 살아가는 남성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세상은 게이 남성을 '사내답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문화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이 믿음은 남성성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사회 정책의 스펙트럼에서 극단적으로 보수적 위치를 점하는 이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어떤 것을 수용하라는 게 그것을 권장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떠올려보라.

우리는 이미 많이 늦었다. 여성들이 여성다움을 재정의하는 데, 그간 남성들이 남성다움을 향상시키는 것만큼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 실패한다면, 'X지를 움켜쥘 수 있다'는 자들이 남성다움의 그릇된 의미에 대해 국민들에게 계속 떠들어대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 동안, 누구도 이런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SORRY
NOT
SORRY
하비 와인스타인의
해안으로 자꾸 밀려오는 남성들의
사과의 물결을 헤치며.
by
sloane crosley

어릴 때 정기적으로 언니의 물건을 훔치곤 했다. 카세트테이프, 야한 소설, 머리핀, 게임보이 카트리지. 내 절도 행각은 거의 매번 들통났다. 내 절도 솜씨는 도둑고양이가 구사하는 모든 수법을 어설프게 따라 하는 개의 솜씨와 비슷했다. 나는 사과를 하곤 했다. 그때마다 언니는 똑같은 말을 했다. "너는 꼭 들통났을 때만 미안해하더라." 타당한 견해였다. 언니의 침대 밑에서 야한 로맨스 소설들을 끄집어낼 때, 나는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 내가 한 짓들이 들통나 욕을 먹는 구체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불편한 심정을 느꼈을 뿐이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모든 사과가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걸 배웠다. 그 배움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2015년에 나는 여자들이 그토록 많은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기명 논설을 〈뉴욕타임스〉에 쓰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글이 SNS에 꽤나 많이 퍼지면서 CBS의 〈디스 모닝〉에 출연하게 됐다. 거기서 나는 찰리 로즈(성추행으로 퇴출당한 방송 저널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로즈가 그 주제에 흥미를 보이지 않은 것은 그 주제에 대한 글을 쓴 내 필력이 부족했던 탓은 아닐 것이다. 그 동영상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카메라가 그에게 돌아갈 때마다, 그는 눈에서 잠기운을 떼어내고 있었다. 그는 아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몸소 실천하느라 바빠 고단했을 것이다.

맷 라워(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저널리스트)와 앨 프랭큰(여러 건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사임한 상원의원), 루이스 C.K.를 비롯한 유명인사 10여 명과 더불어, 로즈는 어쩔 도리 없이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남성들이 내뱉는 "내 탓이로소이다"는 그 자체가 급성장하는 장르 – 성희롱 가해자의 한탄 – 가 되기에 이르렀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니다. 심지어 "이쪽 보고 웃어주세요!"를 외치는 하위 장르도 있다. 게다가 "나는 게이예요!"라고 외친 배우 케빈 스페이시 같은 남자들도 그 문제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인물들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즈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서 보낸 그의 시간을 주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개인적인 신병 훈련소로 본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는… 여성들과 그들의 삶을 심오하고 새롭게 존중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한다. 누구? 우리? 라워는 자신을 '겸손'하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말을 지껄이는 그는 이제 막 수상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할 참인 것만 같았다. 로즈처럼, 그는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시달린 고통과 직업적으로 겪은 고충을 자신을 위한 배움의 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지난 이틀간 저는 저 자신의 곤혹스러운 결함을 대단히 매서운 눈으로 살펴봐야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곤혹스러운 결함을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는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루이스 C.K.의 사과는 아마도 사과하려는 의도 면에서는 제일 뛰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사과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최악의 인물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고자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하비 와인스타인은 그가 '전심전력을 기울여' 맞붙을 계획이던 전미총기협회보다도 그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사과는 그 속성상 불완전하다. 공개적으로 뉘우쳐야 할 짓을 저지를 만큼 불완전한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그 속성상 불완전하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뉘우쳐야 할 짓을 저지를 만큼 불완전한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수로 부딪친 것이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으며 수 세기를 보낸 여성들은 사과의 기법에서는 – 대단히 특별한 기술을 훈련받은, 미투 운동이 마녀사냥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리암 니슨처럼 –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씁쓸한 감정도 큰 우리는 남성들이 사과의 기법에 관해 그렇게 형편없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여전히 경악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라틴어로 'mea culpa'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잘못을 통해'라는 뜻으로, 모든 통탄할 만한 행위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의미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느꼈다니 유감이군요"는 사과가 아니다. 사회에 책임을 돌리는 '맥락을 고려하면'이라는 말도 사과가 아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은 글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 봉건시대 일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는 가해자 자신의 책임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둔 것이다. 거꾸로 타인이 가해자를 존중하는 데서 사과가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내가 이 남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글쟁이로서는 그들에게 공감한다. 분명 나는 사과문을 집필하는 직업은 아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말과 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언어가 그토록 쓸모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조차 마음이 아프다. 더불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직접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즉 '그런' 사과는 사과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그들의 사과는 새로운 도덕관념을 과시하는 듯한 잘난 체, 또는 사과문 작성자를 상처 입은 사람으로 봐달라는 뻔뻔한 요구로 장식돼 있다. 아니면 그들은 꽃사슴 같은 눈망울로 우리를 보며 눈을 깜박거린다. 어떤 이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갈 때 돈을 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10대 좀도둑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 아무런 견해도 내놓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책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세상 모두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나운 폭풍도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남성들이 미국 국민의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걸 감지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를 만들어냈다. 모니카 르윈스키를 보라. 우리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생기 넘치고 짜릿하게 높아지는 와중에,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끈기 있게 유지되는 이유는 그게 아니다. 이 순간의 끈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똑같은 뉴스가 〈Us 위클리〉의 커버를 장식하는 동시에 〈뉴욕타임스〉의 1면도 장식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과 추이를 살피기 쉽다는 뜻이다. 당신이 시리아 내전을 처음부터 예의 주시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그 내전의 전말을 파악하는 일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혼란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산업 전반에 널리 퍼진 성적인 비행은 이 주제를 오래도록 논의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제 이 주제는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공개 사과문을 작성하는 남자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아니, 우리는 그 말을 아무 문제없이 잘 듣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만들어낸 난장판에서 당신들을 해방시키고 당신들이 초래한 피해에서 당신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로 부린 꼼수는 야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 착한 야수니까. 우리는 남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음담패설을 하면 안 된다고, 직장에 있는 동료 여성에게 다시는 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야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 보조를 맞추려고 찾아왔다. 그 야수는 최근 몇십 년 동안 – 또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수 세기 동안 – 지금의 모습으로 형태를 갖춰왔다. 당신들의 사과가 계속 등장하는 동안, 그 사과들은 야수의 귀 주위에서 따분한 윙윙 소리를 낼 것이다. 파리들처럼 말이다. 정신 사납고, 중요한 상황과는 동떨어진 짓을 하는 파리들처럼.



LADIES OF RAGE

TV 방송계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법칙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여성 캐릭터는 미인이거나 분노한 여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둘 다에 해당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그런데 새로 시작된 드라마 몇 편이 그런 법칙을 과감히 깼다.

by

julia cooke

매끈한 팔다리가 퉁퉁 불은 채로 물속에서 흔들린다. 노란 스펀지로 창백한 입술의 립스틱을 닦아내고, 금발인 짧은 앞머리가 보디 백의 지퍼에 걸린다. 크리스티 게바라 – 플래내건의 2016년 단편영화 〈시체가 된 여자들〉은 여성 시신 이미지를 모아 15분짜리로 몽타주한 작품으로, 이미지 대다수는 TV 범죄물 드라마에 등장한 것들이다. 영화 내내, 남자들은 아름다운 젊은 백인 여성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웅성거린다. 그러다 느릿느릿 말한다. "이런 시체 본 적 있어?"

TV 범죄물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은 대개 관습적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 설령 그 여성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녀는 남성 캐릭터에게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플롯 전개의 전환점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요즘 TV에 등장하는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대신 분노하고 있다. 분노는 더 이상 남성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여성 캐릭터가 꽃미남과 해피엔딩을 맞기 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결점도 아니다. 최근에 등장한 시리즈 몇 편은 여성의 분노가 그녀 자신에게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을, 강인함과 괴력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분노한 여주인공을 등장시킨 드라마들은 실험적 작품부터 상업적인 작품, 사실적 작품부터 환상적인 작품까지 다양하다. 설정한 시대적 배경도 제각각 과거와 현재, 미래로 다르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지금 시청률과 리뷰 별점, 트로피를 긁어모으고 있다. HBO의 〈빅 리틀 라이즈〉와 훌루(Hulu)의 〈핸드메이즈 테일〉은 작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제외한 드라마 부문의 모든 주요 트로피를 가져갔다. 여기에 또 다른 분노한 여성이 등장하는 아마존의 〈마블러스 미스 메이슬〉도 가세했다. 이 세 드라마는 골든글로브를 장악했다. 그런 드라마 리스트는 계속 이어진다. 〈앨리어스 그레이스〉, 〈제시카 존스〉, 〈인시큐어〉, 〈탑 오브 더 레이크〉, 〈더 크라운〉.

TV 드라마의 역사를 보면, 스크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분노와 육체적 미모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분노는 아름다운 여성을 미친 여자로 만들었다. 시트콤 〈치어스〉의 멋쟁이 칼라(Carla)나 〈그레이 아나토미〉의 닥터 미란다 베일리를 생각해보라. 그 반대편에는 〈멜로즈 플레이스〉의 조각상 같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녀들은 분노를 풀기 위해 정신 나간 짓을 산뜻한 방식으로 저지르곤 했다. 컬럼비아 대학 영화학 교수인 힐러리 브로거는, 〈매쉬〉의 마거릿 홀리헌 소령은 그녀의 분노가 더 이상은 플롯 전개의 전환점이 되지 못했던 나중 시즌들이 돼서야 드라마 안에서 '예쁜 여성'이 됐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평범한 여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노한 여성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TV 드라마의 분노한 여주인공들은 전략적 캐릭터가 될 수도, 수동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캐릭터가 될 수도, 혁명적이거나 자상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브로거의 견해다. "그녀들에게는 남성 동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효과적인 캐릭터가 되기 위해 더 이상 남성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요즘, – 여주인공의 미모가 일으키는 복잡한 파장과 자주 연관되는 – 불의(不義)는 살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온갖 재미있는 행위를 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여성들에게 건네고 있다. 마블의 〈제시카 존스〉에서 그가 정의로우면서 막돼먹은 슈퍼히어로가 되게끔 자극하는 것은, 강간을 자행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킬그레이브를 향한 분노다. 〈마블러스 미스 메이슬〉의 밋지 메이슬은 남편이 비서와 놀아나자, 1950년대를 살아가는 두 자녀의 어머니라는 이중의 금제(禁制) 아래에서도 스탠드업 코미디언 커리어를 추구하며 음탕하면서도 재미있는 공연을 하는 데 분노를 쏟아붓는다. 넷플릭스와 캐나다방송공사(CBC)가 공동 제작하는 시리즈 〈앨리어스 그레이스〉에서 주인공은 그녀의 남성 고용주를 살해하는 것을 도왔을 수도,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진정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9세기의 하녀가 어쩌면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정신과의사에게 들려주는, 그녀가 일상적으로 당한 굴욕과 폭력의 이야기를 어떻게 비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차분한 표정과 파란 눈동자 아래에서 분노가 일렁거리는 것을 본다. 그녀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그녀를 탓하게 될까?

"나는 분노를 캐릭터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내가 여성들이 늘 분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메리칸 싸이코〉와 〈나는 앤디 워홀을 쏘았다〉를 비롯한 여러 영화를 연출한 〈앨리어스 그레이스〉의 감독 메리 해론의 말이다. "여성들의 분노는 불의한 상황에 대해 보여주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현재, TV에 분노한 여성들이 급증한 것을 그토록 주목할 만한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정상성'이다. 분노가 플롯을 바꾸는 전환점이나 캐릭터의 중요한 특징이 아닐 때에도, 심지어 리얼리즘에 판타지가 삽입될 때에도, 스크린의 여성들은 평범한 여성 시청자가 보자마자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 〈인시큐어〉에서, 중책을 맡은 변호사 몰리는 백인 남성 동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빅 리틀 라이즈〉는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에 거주하는 경쟁심 강한 어머니들의 틈새를 파고든다.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하는 매들린은 겉으로는 환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좌절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가시 돋친 재담을 쏟아내는 듯 보인다. 로라 던이 맡은 사나운 워킹맘이자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운 레나타 클라인은 근사하게 가꿔온 완벽성에 균열이 드러나자 전화기를 수영장에 던진다. 셰일린 우들리의 제인은 항상 일관된 모습을 유지한다. 그녀는 겁탈당하던 장면을 계속 떠올리면서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남자와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지갑에 권총을 넣고 다닌다. 다양한 상황에서 초래된 그녀들의 분노는 미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리고 스크린에 등장한 그녀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자기방어나 커리어를 위해 혹은 원한이나 권력을 향해 쏟아내려 몸부림친다.

여성에 대한 묘사가 변화하는 것은 할리우드에서 카메라 뒤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증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해론은 넷플릭스와 CBC에서 〈앨리어스 그레이스〉의 제작을 승인한 임원이 모두 여성이었다고 지적한다. 〈빅 리틀 라이즈〉에 출연한 위더스푼과 던, 그리고 니콜 키드먼은 최근에 제작사를 차렸다. 작년엔 처음으로 에미상 감독상에 여성 3명이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리드 모라노가 〈핸드메이즈 테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포스트–하비 와인스타인 시대인 현재,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예언하는 듯 보인다.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에서도 분노는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위자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다.

여성 캐릭터들이 TV 안에서 깨달은 교훈은 기이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TV 밖으로 뻗어 나온다. 〈제시카 존스〉 두 번째 시즌의 모든 에피소드는 여성 연출자들이 연출할 예정이고, 〈인시큐어〉의 몰리가 하는 행동을 시청한 여성들 – 특히 흑인 여성들 – 이 급여를 올려달라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사이클은 지속된다. 힘 있는 자리에 오른 여성들이 복잡한 여성 캐릭터를 스크린에 등장시키는 것으로 더 많은 여성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변화를 향한 길은 분노를 거친다. 물론 분노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기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여성들이 분노를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리우드의 현 상황에 대한 해론의 설명이다. "여성들이 그 얘기를 흔치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럼없이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내가 당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와우, 여자들이 쇠스랑을 들었군. 아니에요. 여자들은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때때로 분노라는 딱지가 붙는 감정은, 그게 여성들에게서 비롯됐을 때는 전혀 분노가 아니다. 그건 그냥 여성들이 자기들 얘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직접 겪은 이야기를 말하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나한테 일어난 일'로 바꿔놓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HELP WANTED



나날이 증가하는 남성 후원 그룹
네트워크는 유해한 남성성의 물결에
어떻게 맞서고 있나?

by

mickey rapkin

차를 꺾어 주차장으로 들어간 건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여기가 그곳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었다. 어두워진 지도 몇 시간 됐고, 공기는 LA 외곽의 12월 밤치고는 상쾌한 편이었다. 드디어 문자가 왔다.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을 발견했다. 텅 빈 공원에서 동그라미 형태로 서 있는 아홉 명의 남자.

이 모임은 파이트 클럽이 아니지만, 여기에도 분명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 제일 먼저, 그들을 '녀석들(guys)'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들은 '자식들'이라고 불릴 사람들도 아니고, 불알친구들도 아니며, 누군가의 배다른 형제도 아니다. 이들은 남성들(men)이다. 파이트 클럽이 아닌 이 모임의 규칙 제2조는 이 공원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든 이 공원에 놔두고 가라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여기서 배운 교훈을 동아리 외부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늘 밤에 팀 멤버들이 밝히는 개인적인 비밀은 무엇이든 비밀로 지켜줘야 한다.

맞다, '팀'. 그게 규칙 제3조다. "후원 그룹(Support Group)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제이슨(자신의 본명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한 말이다. "후원 그룹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서로의 기분을 풀어주는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듯 살아가면 인생살이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신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든 일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아마도 그는 별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듯했다(실제로 이마가 벗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로 3시간 동안, 나는 장성한 남자들이 각자의 제일 추잡한 공포와 최악의 기억에 맞서는 모습을 보게 될 터였다. 지독히도 암울한 탓에 HBO의 드라마 〈룸 104〉의 에피소드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개인적 비밀을 털어놓는 남자도 있을 것이다.

이 남자들은 MDI의 멤버들이다. MDI는 '남성들이 성공적인 가정과 경력과 공동체를 꾸리는 성숙하고 사내다운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멘토링함으로써 위대함의 씨를 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밝힌 비영리 조직이다. 신조는 투박하지만, 기저에 깔린 메시지는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게 분명하다. MDI('멘토Mentor, 발견Discover, 격려Inspire'의 약어) 회원은 북미 전역에 1000명이 넘고,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모인 101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이 창립된 건 1990년대 후반이지만, 우리가 영웅으로 여기던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자기 똘똘이를 옷 밖으로 끄집어내왔다는 사실이 계속 알려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조직의 사명이 시기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다.

MDI 팀들은 자선 이벤트를 주최하고 간간이 철야 수련회에 참가하기도 하지만, 이 조직의 진정한 존재 이유는 매주 갖는 팀 미팅이다.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고 싶어 하는 남성들을 위한 후원 그룹이 새로운 형태의 모임이 아닌 건 확실하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 Meetup.com에는 남성들을 후원하는 데 전념하는 그룹이 미국에만 360개나 등록돼 있다. 남성들에게 동지애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에게 후원 그룹이라는 딱지를 구체적으로 붙이지 않는 시티 대즈(City Dads) 같은 그룹은 그 숫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 1984년에 창립해 22개국에 900개 이상의 그룹을 거느린 비영리 조직 맨카인드 프로젝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MDI,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그룹들은 여성 혐오적 발언을 뻔질나게 쏟아내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끝자리를 차지하는 대안 우파로 자주 분류되는 소위 '남성들의 우파 집단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

남성들은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독감을 느끼죠. 남성들을 후원하는 그룹의 장점 중 하나는 세상에는 자기 말고도 수치심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안이 급증했음에도, 남성들은 쉽사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 들 것 같지 않은 존재로 남아 있다. 지난 2월,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남성들의 정신적 건강에 찾아온 조용한 위기'에 대한 글을 실었다. 이 글에 따르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4배나 높다. 심리학 교수이자 〈남성들과 함께하는 심화 심리요법(Deepening Psychotherapy with Men)〉의 저자 프레드릭 라비노비츠는 나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성들은 그들이 마땅히 달성했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이상적인 일들의 기준에, 그 일이 무엇이건 미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걸 내심 수치스러워 합니다. 그 이상적인 일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는 것도, 커리어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독감을 느끼죠. 남성들을 후원하는 그룹의 장점 중 하나는 세상에는 자기 말고도 수치심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남성들이 규모가 더 큰 공동체에 참가하는 성향은 모벰버 운동(The Movember Movement)이 인기를 얻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모멤버 운동에 참여한 남성 수백만 명은 전립선암과 고환암을 비롯한 남성들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이 되면 콧수염을 기른다. 자기 항문에 대해 떠들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콧수염을 자르지 않고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이야말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때문에 야기된 문제가 너무 만연한 데다 심각하기 때문에 2003년에는 남성성과 자조(自助)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가 행해졌다.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밝혀낸 건,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게 만들려면 그 도움의 이름을 "'평균적인' 남성에게 적합한 서비스들"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아서 그들을 속여야 한다는 거였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게 MDI가 하고 있는 일이다. 남성들은 후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표식으로 볼지도 모른다. 그런데 팀에 합류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

나는 공기가 반쯤 빠진 배구공을 쫓아 여기 주차장에서 덤불로 들어가고 있다. 모든 MDI 팀 미팅은 "오락과 체육(Fun & Physical)"이라 불리는 30분짜리 활동으로 시작된다. 오늘 밤, 이 남자들은 배구를 변형한 괴상한 규칙(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만,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만 스파이크할 수 있다)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 '네트'는 줄지어 세워놓은 접의자들이다. 이 특별한 게임의 이름은 브로 볼(Bro Ball)로, 아마도 내가 오늘 밤 듣게 될 얘기 중 제일 민망한 이름일 테지만('형제의 고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 이름을 붙인 근거는 짐작이 됐다. 52세의 IT 전문가 에이브 무어는 선수 교체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오락과 체육'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따지는 머리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이런 회합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존재감을 보이려 들지는 않거든요."

나 역시 나름의 선입견을 갖고 이 기삿거리를 찾아왔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나는 이 그룹은 광신적인 숭배 집단일지도 모른다고 반쯤은 의심했다. (무어는 자기도 처음에는 나랑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는, 이런 회합들은 여전히 자기들 어머니 집에 빈대 붙어 소파에서 잠을 자는 찌질이들을 위한 거라고 의심했다. 더 나쁜 선입견은, MDI는 자신들이 어째서 요즘에 사회를 강타한 #미투 운동의 진정한 피해자인지 떠들어대는 편협하고 고집 센 백인 남자들을 위한 자리일 거라는 거였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무척이나 빠르게 내가 품은 가정에 도전했다.

5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동안의 미남 그레고리(그의 본명은 아니다)는 그래미를 수상한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해온 성공한 음악 프로듀서다. 그는 이

런 식의 후원 그룹을 필요로 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봤나? 선입견이 작용했다.) 그레고리는 10년쯤 전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부형의 초대를 받아 팀 미팅에 처음 왔다. 그는 그날 밤 축구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도 처음에는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걸 발견했다. 남자들은 서로를 자상하게 대하며 배려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껄끄러운 얘기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레고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떠들어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어떤 프로젝트를 친구와 협업하기로 약속했는데, 더 이상은 그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어낸 온갖 거짓말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레고리의 회상이다. "여기 오고 20분 이내에 내가 나아가야 할 뚜렷한 길이 보였습니다. 이 남자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는 걸 도와줬죠."

내가 참가한 회합에서도 비슷한 대화 – 아무리 좋게 얘기해주려 해도, 남성들이 서로에게 헛소리 작작해 대라고 대놓고 떠들어댔다고밖에는 묘사할 수 없는 대화 – 를 목격했다. (MDI를 다른 전통적인 후원 그룹과 구별되는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접근법일 것이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세세하게 소개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팀에게 닦달을 받은 후에야 부인과 몇 달간 섹스를 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남자를 지켜보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보라.

MDI 회장 지오프 톰린슨은 이 방식은 의도적으로 채택한 테크닉이라고 설명했다. "해고당한 사람은 자기 상사가 밥맛없는 놈이었다고 상사 탓을 할 겁니다. 그러고는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실 거고, 그러면 친구들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내일 더 좋은 직장에 취직될 거야!'라고 듣기 좋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팀 미팅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와서 실직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니 유감이야. 그런데 말이야, 당신은 보스하고 맺어야 할 이런 핵심적 관계를 어떤 부분까지 맺고 있었지?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2년 안에 여기로 다시 돌아올 거야.'" 정중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효과적인 것 같기는 하다. 톰린슨은 MDI 미팅에서 주먹다짐이 벌어진 건 꽤 오래전 일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다고 말한다. "누군가 열 받은 모습을 보이면, 상대의 급소를 찔렀다는 걸 깨달은 회원들은 그 상대에게 더 집중적으로 달려들 겁니다."

당연히, 톰린슨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안다. 그는 MDI 회장이지만, 동시에 MDI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20년쯤 전에 보스가 등을 떠미는 바람에 토론토에서 그의 첫 팀에 합류했다. 보스는 그가 승진 시즌마다 계속 미역국을 먹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이 미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많은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톰린슨의 말이다. 심리치료를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문장을 알 것이다. MDI가 남성들에게 진짜로 제공하는 것은 회원들의 개인적 성장에 필요한 행동 지향적 도구 세트와 '팀메이트들'이다.

LA 미팅에서,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는 큰 문제가 하비 와인스타인과 그의 권력 오용, 그리고 다른 유명한 남성들이 저지른 잘못이다. 그레고리는 그 주제를 열심히 다루고 싶어 한다. 그가 말했다. "그 남자들이 우리 팀에 속해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들이 남한테 상처를 주기 전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9명의 출신 배경은 다양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놓쳤다는 기분을 느낀다는 공통점을 가진 듯 보인다. 그들이 놓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교훈이나 통과의례,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지침 등이다. MDI는 그들이 그 공백을 채우는 걸 도와준다. 내가 잭(항공업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블루칼라)이라고 부를 남자는 결혼생활이 삐걱거리던 7년 전 MDI에 왔다고 말했다. 잭은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잭 곁에 있었지만 감정은 그 자리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그를 캠핑에 데려갔지만, 이런저런 지도를 해준 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잭의 토로다. "'이것은 그때 적용된 규칙들이었고, 요즘에는 이런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어'라고 말해줄 사람을 기다린 거죠."

그가 이 동아리에서 찾아낸 것은 그의 말을 경청할 시간을 기꺼이 내주려는 남자들 무리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다. 그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한 후("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넌더리를 내요. 나는 철이 들 필요가 있어요."), 그의 MDI팀은 그가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감을 쌓는 걸 도와줬다. 예를 들어, 잭은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가 창피해하던 부분 중 하나다. 그래서 팀메이트들은 그를 회계 담당자로 임명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수법을 구체적으로 익히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룹이 멤버들을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방법은 더 추상적이다.

나중에 에이브가 자기 이야기를 내게 털어놨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기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위탁가정을 들락거렸다. 그는 아내에게 쫓겨난 직후인 40세 때 그의 첫 팀 미팅에 왔다. 그의 사고 패턴은 부정적 생각이 잔뜩 고인 오물 구덩이였다. 그는 평생을 자기혐오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다. "나 자신을 똥 덩어리 같은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 말이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었기에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형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팀메이트들 앞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법을 배우면서 아내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법도 배웠다. 1년 후, 그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가, 아마도 내가 LA에서 들은 말 중 제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팀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혼생활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비슷한 발언을 거듭해서 들었다. 팀이 누군가의 결혼을, 재정적인 미래를,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다. 팀은 남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포르노를 덜 보게 도와줬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에서 여태까지 얘기된 그 모든 남성의 성장담에 담긴 핵심적 투쟁인, 그들의 아버지와 대면하는 걸 도와줬다.

미국은 요즘 남성이 되기 어려운 시대다. 30년간 그 나름의 남성들 그룹 미팅을 주최해왔고 새로 참여하려는 멤버들의 이름이 적힌 대기자 명단을 갖고 있는 라비노위츠 교수는, 여성들이 벌이는 해방운동 때문에 남성들이 자신들을 재정의하려고 허둥지둥 움직이게 된 이후 참여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팅의 전체적 상황은 지독히 진부해 보일 수도 있다. 내가 참석한 MDI 미팅의 어느 순간,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눈을 쏘아보며 자기 손을 다른 남자의 가슴에 얹고는 그의 진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건 진심으로 겸손한 행위일 수도 있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회합은 오후 10시에 그들의 이름 '애로우헤드'를 하늘을 향해 외쳐대는 것으로 끝났다. 각각의 팀은 자신들의 이름을 선택한다. 뉴욕에 있는 어떤 그룹은 자신들을 초대형 쓰레기 폐기장(Massive Dump)이라고 부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유치하면서도, 팀 미팅을 끝낸 후 멤버들이 느끼는 정서적 해방감을 반영한 재미있는 이름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화살촉을 뜻하는 애로우헤드는 더욱 날카로운 이름이다. 이 팀의 멤버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헤치고 나아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화살촉의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서 얻어진 겁니다." 그레고리의 설명이다.

우리의 포스트–와인스타인 세상에서, 한 남자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보는 입을 다물고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곳이 백악관이든 드라이브–스루 햄버거 가게든 우리 남성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이 분명하다. 공들여 더 나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일. 우리 팀, 파이팅.


VICTOR KERLOW

WOMEN UNITED

할리우드, 실리콘밸리, 국회의사당, 요식 업계의 여성들이 급진적 변화를 위한 내부 연합체를 결성하고 있다.

by
jessica p. ogilvie



그녀의 가까운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주의회 의사당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성희롱을 당하는 데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는 연명장이 나올 거야'라는 문장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캘리포니아 주의회 고위 간부인 엘리스 기오레의 말이다. "'너도 서명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 그녀는 전화기를 빤히 쳐다봤다. 기오레가 전직 캘리포니아 주의원 라울 보카네그라의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해 조직 내부에 항의를 제기하고 8년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주의사당에서 상원의 수석 직원으로 새로 취직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왔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귀에서 큰 소리가 웅웅거리더군요. 내 즉각적인 반응은 '맙소사, 또 그런 거야? 도대체가 서로에게 손을 대지 않으면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였어요."

하비 와인스타인 스캔들이 할리우드의 위계를 무너뜨린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2017년 10월의 일이었다. 갑자기 기오레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태풍의 눈에 서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 문제의 그 연명장은 로비스트 아다마 이우가 정리한 짧은 문건이었다. 나중에 '우리는 충분히 말했다(We Said Enough)'로 명명된 이 연명장은 진보적인 주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내부에 만연한 성적인 위법 행위를 큰 소리로 폭로했다.

기오레는 그 문제를 숙고하며 주말을 보냈다. 그 사건을 공개한다는 결정은 쉬운 게 아니었다. 주의회 의사당에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건 자신의 평판과 생계 수단을 위험하게 만드는 짓이라는 뜻이다.

"나는 여자들이 무슨 일을 신고했다가 엉뚱한 곳으로 전근되는 걸 봐왔어요." 연명장에 서명한 공보 담당 수석비서 사브리나 록하트의 토로다. "누군가한테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사당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기오레가 항의를 제기했음에도, 보카네그라는 현직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그는 기오레와 거리를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 요구가 유효한 기간은 2년에 불과했다.) 그는 2012년 그리고 또 2016년에 의원에 선출됐다. 기오레는 그가 출세한 이후 내내 다른 여자들을 괴롭혀왔다는 걸 발견한 후에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친구가 말하더군요. '네가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결국 연명장에 서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죠."

'우리는 충분히 말했다' 연명장은 빠른 시간 내에 140명이 넘는 여성의 서명을 받았다. 그 연명장은 10월 1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명 논설로 실렸다. 주정부는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반응을 보였다. 보카네그라는 또 다른 여성 6명이 그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인 11월 말에 의원직을 사임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직서에서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기회주의자'이며 '독선적'이라고 부르는 걸 빼먹지 않았다.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토니 멘도자가 여성 동료들을 연달아 희롱해왔다는 게, 그중 최소 한 명은 사건이 벌어질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게 밝혀진 후 위원회 의장 자리와 다른 두 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밀려났다. "'우리는 충분히 말했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록하트의 설명이다. "여성들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뭉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침묵 속에서 당할 만큼 당해왔어요."

정부의 여성 직원들과 대표자들이 막후에서 조직을 꾸리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10월, 일리노이 주의회 의사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300명 이상 서명한 그들 나름의 연명장을 공개했다. 한 달 이내에 시카고의 아이라 실버스테인 상원의원이 가해자로 지명된 후 주의회의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사임했다. 일리노이 하원과 상원 모두 성희롱 태스크포스를 창설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 관련 법률은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지사 브루스 라우너는 해마다 성희롱 교육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월에는 로드아일랜드 주의원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았다. 여성 하원 대표가 법안이 통과되는 걸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폭로한 다음이었다.

10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적 위법 행위를 했다는 고발을 당한 남자를 미국 정부의 최고위직에 앉혀놓은 2016년 대통령 선거가 불을 댕긴 결과,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성차별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뉴스 보도가 그 불길을 옮겨 붙인 결과, 성차별주의와 성희롱으로 점철된 현실을 감내하려는 여성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성희롱, 더듬기, 원치 않는 성적 접근,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짓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니다. 귓속말 네트워크를 통해, 직장에 있는 속이 시커먼 남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으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해왔다. 이 네트워크들이 필수적이었던 것은 법이 이런 행태를 바로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법을 만드는 의원들 자신이 가해자였을뿐더러, 성범죄는 법으로는 쉽게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사건들은 은밀하게, 그리고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처벌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 편히 지내왔다. 실제로, 그들은 기존의 법률에는 구애받지 않은 듯 보인다. 미국은 1964년부터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해왔지만, 반면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당하는 2차 피해는 꽤나 현실적이다. 그들은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된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결정을 해야 해요. 그짓이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들면서까지 공개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걸까?" 록하트의 개탄이다.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여성들의 귓속말 네트워크가 여성들이 질러대는 비명으로 탈바꿈했다. 정부, 그리고 할리우드의 잘 홍보된 타임즈 업(Time's Up) 캠페인 외에도,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겠다는 여성들의 결정이 첨단산업과 미디어, 저널리즘, 서비스산업과 그 외의 산업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 활동을 독특하게 만드는 건 이번 사례가 여성들로만 구성되지 않은 청중을 향해 여성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내밀한 경험을 털어놓은 첫 사례라는 것이다. 배후에서 함께 연대한 여성들은 한때는 사적으로만 나누던 대화를 공개 연명장으로, 공유하는 구글 문건들로, 가해자를 지목하고 전원이 여성으로 이뤄진 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획기적인 활동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진정한 희망이 처음으로 깜박이는 걸 목격했다.

'미디어계의 추잡한 남성들(The Shitty Media Men)' 리스트가 토네이도처럼 언론계를 강타했다. 2017년 10월에 업계의 귓속말 네트워크를 옮겨 적었다고 주장하는 문건이 출현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명단을 접하게 됐다. 이 문건을 돌린 익명의 제공자에 따르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70명이 넘는 남성 기자와 작가, 발행인은 '파티에서 싫다는 데도 여자들을 자꾸 만지는 것'부터 '여러 건의 강간 혐의'에 이르는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었다.

원래는 이 문건의 작성자도 익명이었다. 2018년 1월, 저널리스트 모이라 도네건은 〈하퍼스〉 잡지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기 앞서, 그녀가 리스트 작성을 시작한 〈더 컷〉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정체를 밝혔다. 많은 여성 저널리스트처럼, 허프포스트의 여성 에디터 알라나 바기아노스도 리스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바기아노스의 회상이다. "그런데 동료들하고 몇 시간을 논의한 뒤, 우리는 이 문건이 실제로는 우리한테 그리 놀라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슬프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걸 많은 여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희롱을 이미 경험해봤어요. 스물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바기아노스의 설명이다. 도네건은 리스트에 오른 제일 악명 높은 남자 2명이 브루클린의 한 파티에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목격한 얘기를 에세이에 썼다. 그녀의 여성 친구는 의아해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저 인간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니? 이런 자리에 여전히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미국작가조합 동부지부의 노조 조직책 메건 맥로버트는 여성 노조원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 그 여성은 자신과 동료들이 지금까지 느낀 실망감과 두려움, 좌절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탈바꿈시키는 걸 조합이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오케이, 단순히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싶지는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고 싶어'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입소문을 통해, 맥로버트와 디지털 미디어에 종사하는 다른 여성들은 30명쯤 되는 그룹을 조직했다. 대부분이 여성인 그 그룹은 작가조합 사무실에서 첫 회합을 가졌다.

11월 초 향후의 대화를 위한 토대를 쌓으려는 의도로 2시간짜리 회합이 열렸다. 강간 문화, 성폭행, 성희롱 같은 단어의 정의가 내려졌고, 멤버들의 다양성을 연구한 결과가 공개됐으며 – 강간범보다 강간 피해자를 더 상세히 조사하는 보도 같은 – 강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뤄졌다.

작가조합 그룹은 다시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미디어계의 추잡한 남성들 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 몇 명은 사직하거나 해고됐다. 하지만 언론은 그들에게 다른 업계의 남성들에게 퍼부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비난을 가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많은 뉴스룸을 감독하는 이들이 남성들이고, 그들이 다른 산업의 가해자들을 폭로하는 헤드라인은 실으면서도 자신들이 속한 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경향은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노조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뭉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바기아노스가 말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변화시켜야 하는 시스템 자체의 이슈예요."

멜로디 맥클로스키는 그녀의 신생 기업 스타일시트(StyleSeat)에 펀딩을 받으려 애쓰면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 뷰티와 건강을 취급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고객들이 각각의 지역에 있는 뷰티 전문가들과 접촉하는 것을 돕는 이 회사는 현재 1만6000개 도시에서 활동 중이다.

그런데 그녀가 – 작년에 거의 60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하는 투자 총액 중 여성이 창립한 스타트업에는 고작 15억 달러(약 1조 6000억원)만 투자한 – 벤처캐피털 회사들과 초기 미팅을 할 때, 맥클로스키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거듭 묵살하는 남자들과 맞닥뜨렸다. 어떤 투자자는 맥클로스키에게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도우려고 미팅 자리에 여성 어시스턴트들을 데려오기도 했다. "나는 그녀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영민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일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건 그녀들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상황을 '나는 자격 있는 여자들은 고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여자를 붙잡아서 이 자리에 끌고 온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2011년의 일이다. 당시 맥클로스키가 아는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인 환경에 맞서기 위해 단결한다는 아이디어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남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일하라는 압력이 무척 셌어요"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작년에 모든 게 변했다. 일터에서 자행되는 성차별주의와 성희롱을 다룬 기사들이 쇄도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여성들이 여전히 옆줄로 밀려나고 무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명백해졌다. '밸리의 코끼리(Elephant in the Valley)'라고 불린,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200명 이상의 고위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서베이는 응답자의 90%가 컨퍼런스나 사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가진 미팅에서 성차별주의적인 행동을 목격했다는 걸 밝혀냈다.

하이테크 업계의 여성들은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해 위민 인 테크놀로지(Women in Technology), 위민(Women) 2.0, 프로젝트 인클루드(Project Include), 원더 위민 테크(Wonder Women Tech)를 비롯한 혁신적 조직을 이미 여러 개 설립한 상태다. 한편, 맥클로스키와 동료들은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우리에겐 힘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설명이다. "우리는 벤처 사업을 하는 여성들이 창업하고 경영하며 다른 기업의 이사회에 합류할 여성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와 동료 창업자들은 분기마다 만나기 시작했다. 이 그룹은 '젊은 여성들이 일터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부터 성희롱을 막는 방법에 이르는 모든 것을 논의해왔다. 맥클로스키는 최근에 여성으로만 구성된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룹이 젊은 여성들에게 펀딩 받는 법을 조언하기 위해 야근을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변화는 정부나 할리우드에서 그랬듯이 신속하거나 공개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여성 활동이 그룹 외부에서조차 전향적인 인식이 확고히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맥클로스키는 밝혔다. "더 많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우리는 여성 파트너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끔찍해, 나는 올바른 조직을 만들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녀의 설명이다. "이건 극도로 낮은 기준으로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당장은 그 기준을 받아들일 거예요."

샤니타 토마스는 레스토랑 업계에서 11년 넘게 일해왔다. 처음에는 뉴욕주 버펄로에서, 그다음에는 고향인 브루클린에서.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전에는 한 번도 서빙을 한 적이 없는 단골손님을 서빙했다. "그에게 가서 커피를 따라줬어요. 그러고는 다른 손님을 맞으러 가는데 그가 이러는 거예요. '이봐, 젖통 큰 흑인 아가씨, 그 안에 내 커피에 넣기에 충분한 우유가 들어 있나?'" 토머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지무지하게 창피했어요." 그 사건을 보고하러 간 토머스에게 보스는 말했다. "그 새끼는 진상이야. 괘념치 마." 그녀가 더 많은 희롱을 당하고 보스에게 더 많이 항의하자, 그녀의 근무 시간은 "간신히 집에 날아오는 청구서를 지불하고 셋돈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줄어들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모든 게 내가 일터에서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레스토랑기회센터연합(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 회장 사루 자야라만은 톰슨의 사연은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흔한 축에 속한다고 말했다. 조직이 실행한 서베이는 80%에 이르는 레스토랑 노동자들이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걸 밝혀냈다. 서빙하는 사람들은 주로 팁을 보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자야라만은 말했다. "손님이 무슨 짓을 하든 참아야 해요. 우리가 받는 청구서의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고용인이 아니라 손님이니까요."

많은 경우, 레스토랑 지배인들은 유해한 분위기를 오히려 부추긴다. "경영진이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더 섹시하게 입으라니까. 가슴골을 보여야 팁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냐.'" 자야라만의 설명이다. "이건 성희롱을 부추기도록 강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웨이트리스나 바텐더, 칵테일 웨이트리스로 경력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희롱을, 심지어는 성폭력을 평범한 작업 환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야라만과 ROC연합은 할리우드가 대중의 눈앞에 그 문제를 가져오기 훨씬 전부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그녀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희롱에 항의하기 위해 레드 카펫에 등장한 몇 안 되는 활동가에 속했다. 그녀는 의회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진행해온 –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팁 수수 요건을 제거할 – 법안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반영한 법안을 제출해왔어요." 그녀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이 순간을 잘 활용하고 있죠." 이런 활동에 관여했던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다. 기오레가 말했다. "여성들 입장에서 이건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세상에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착한 남자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를 위해, 지금은 남녀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해결책의 일부로서 한 배를 타야 할 때다. "나를 옹호해줄 백기사는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한다. "나한테 필요한 건 내 뒤를 받쳐줄 직장 동료예요."


VICTOR KERLOW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 그 영화는
분명 지금
다르게 보인다.
평가는 각자의
몫이다.

by
송경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대도 가능하겠다. 시대나 환경, 상황에 따라 미의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건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1917년 마르셀 뒤샹이 소변기의 위치만 바꿔놓고 '샘'이라는 제목을 달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예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미술관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혁신적 시도로 보았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뒤샹의 '샘'이 당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화두를 던졌다는 점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행위의 본질을 되짚는 질문은 때때로 행위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

도덕적 가치, 사회적 합의, 윤리, 미의식 등 기준을 잡아주는 가치들은 결국 집단의 산물이다. 당연히 집단이 형성된 지역, 구성원,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의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당연한 것이 한쪽에서는 미개한 것으로, 한때는 올바른 것이 나중에는 추악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모든 가치가 상대적인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치라는 단어에 상대성이 짙게 묻어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반면 절대적 기준 혹은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철학자들이 찾아 헤매는 진리도 그와 유사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예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감각, 이를테면 숭고미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불변한다. 혹은 그렇다고 믿어진다.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을 보고 오늘날 한국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공유되는 감각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예술이라는 행위는 이 두 가지 타협 불가능한 명제 사이에 버티고 있다. 예컨대 가치 불변의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건 존재하는가. 예술은 사회적 규범, 도덕, 윤리와는 별개의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술 역시 사회적 약속의 부산물로 연계해 판단해야 하는가. 단순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은 육체에 깃든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욕망을 육체의 형태로 빚어냈다 해도 좋겠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16세기 조선시대에 가져다 놓는다면 전혀 다른 맥락으로 파악할 것이다. 외설이라는 금기를 범한 것으로 오인되기 쉽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에서 예술이 탄생한 맥락과 소비하는 맥락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표적 예가 레니 리펜슈탈 감독이다. 1935년 제작한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영화 〈의지의 승리〉는 아직도 논쟁이 해소되지 않은 작품이다. 1934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4일간의 나치당 전당대회를 담은 이 필름은 나치의 선전용 다큐멘터리다. 그럼에도 당대의 여타 다큐멘터리와 비교할 때 이 작품이 거둔 기술적 성취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11회 베를린 올림픽을 기록한 〈올림피아〉(1938)는 어떤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신기원을 연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니 리펜슈탈은 일련의 영화를 통해 독일 영화계의 선구자로 칭송받는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레니 리펜슈탈의 영화를 두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영화 자체의 미학과 별개로 그 영화의 목적, 레니 리펜슈탈이 부역했던 나치의 만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영화들의 순수 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윤리적 책임과 완벽히 분리되긴 어려웠다. 레니 리펜슈탈은 평생 천재 다큐멘터리 감독과 나치의 얼굴이라는 두 가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그것은 예술과 예술가의 거리 혹은 관계에 대한 관객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이기도 하다.

불변의 가치냐, 시대의 요구냐. 적어도 예술에 국한해선 두 가지 모순된 명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창작자의 행동이 창작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 가령 걸작을 연출한 감독이 나중에 범죄자임이 밝혀진다면 그가 남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속의 칼〉(1962), 〈악마의 씨〉(1968) 등을 연출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예로 들어보자. 로만 폴란스키는 1975년 10대 여성 모델에게 누드 사진 촬영을 강요했다는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1977년에는 13세 여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1978년 재판 직전 유럽으로 달아났고, 그때부터 40년간 유럽을 떠돌았다. 미국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그의 영화 작업은 계속됐고, 2002년에는 〈피아니스트〉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다. 2009년 스위스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이자 영화인들이 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물론 그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작품까지 부도덕해지는 건 아니다. 로만 폴란스키가 명감독이라는 점이 그의 범죄를 가려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때 관객은 예술가와 그의 예술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과연 그렇게 해도 좋은가의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과연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애초에 예술 작품을 작가의 윤리와 완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세간의 평을 피해갈 수 없는 감독은 또 있다. 냉소적 지식인의 초상, 뉴요커의 우울을 그려온 우디 앨런 감독은 고령임에도 쉼 없이 필모그래피를 늘려가던 연출가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비 와인스타인 성추문 파장 이후 우디 앨런의 영화에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영화인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우디 앨런이 미아 패로가 입양한 딸 순이와 결혼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다르다. 입양한 딸 딜런 패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우디 앨런은 적극 부인했지만 동료 영화인들은 빠르게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여기서 다시 질문, 우디 앨런의 부도덕한 행위가 그의 영화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가. 영화는 영화라고 선을 긋는 관객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그의 영화를 즐기기 어려운 관객도 있을 것이다.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판단은 다시 관객의 몫으로 돌아간다.

최근 한국 영화계도 이러한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으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그의 작품에 대한 혐오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공개될 때부터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 논쟁을 벌인 작품이지만 이제 감독의 범죄 행위와 맞물리며 영화와 현실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영화가 남성 위주의 소재와 시선에 갇혀 있다는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미투 운동이 쐐기가 되어 가치 전반에 균열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시대의 목소리는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거리에 대해 다시금 묻는다. 당신은 이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영화배우 문소리 씨는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 성희롱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과정의 올바름 없이 결과의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지당한 말이다. 지금 할리우드를 뒤바꾸고 있는 타임즈 업 운동의 연장선에서 로만 폴란스키와 우디 앨런을 지지한 영화인들 역시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는 중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서 그런 걸까. 아니다. 그때는 아직 틀린 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정의 올바름은 아름다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쩌면 로만 폴란스키나 우디 앨런의 영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건 그 자체로 시대의 맥락과 정서를 반영한 결과다. 한때 독일 영화계가 레니 리펜슈탈의 영화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것처럼 말이다. 서 있는 위치가 바뀌면 풍경이 바뀌는 법이다.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아름답다. 불변의 가치냐, 시대의 요구냐. 적어도 예술에 국한해선 두 가지 모순된 명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흐름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양쪽 모두를 경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자의 판단은 그런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P

송경원은 〈씨네21〉 기자이자 평론가다.
영화를 보고 말하고 쓴다.
납득한 만큼만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자 한다.

THE NEW WAVE

B-FREE & JEREMY QUEST



비프리가 입은 팔죽색 아노락은 **LIBERAIDERS by HIDE STORE**,
티셔츠는 **RICHARDSON by HEIGHTS STORE**. 제레미 퀘스트가 입은 체크 셔츠는
SUPREME x COMME des GARÇONS 제품

변화야말로 목숨 같은 것, 래퍼 비프리와 제레미 퀘스트가 새 물결을 일으킨다.

photography
by
koo songy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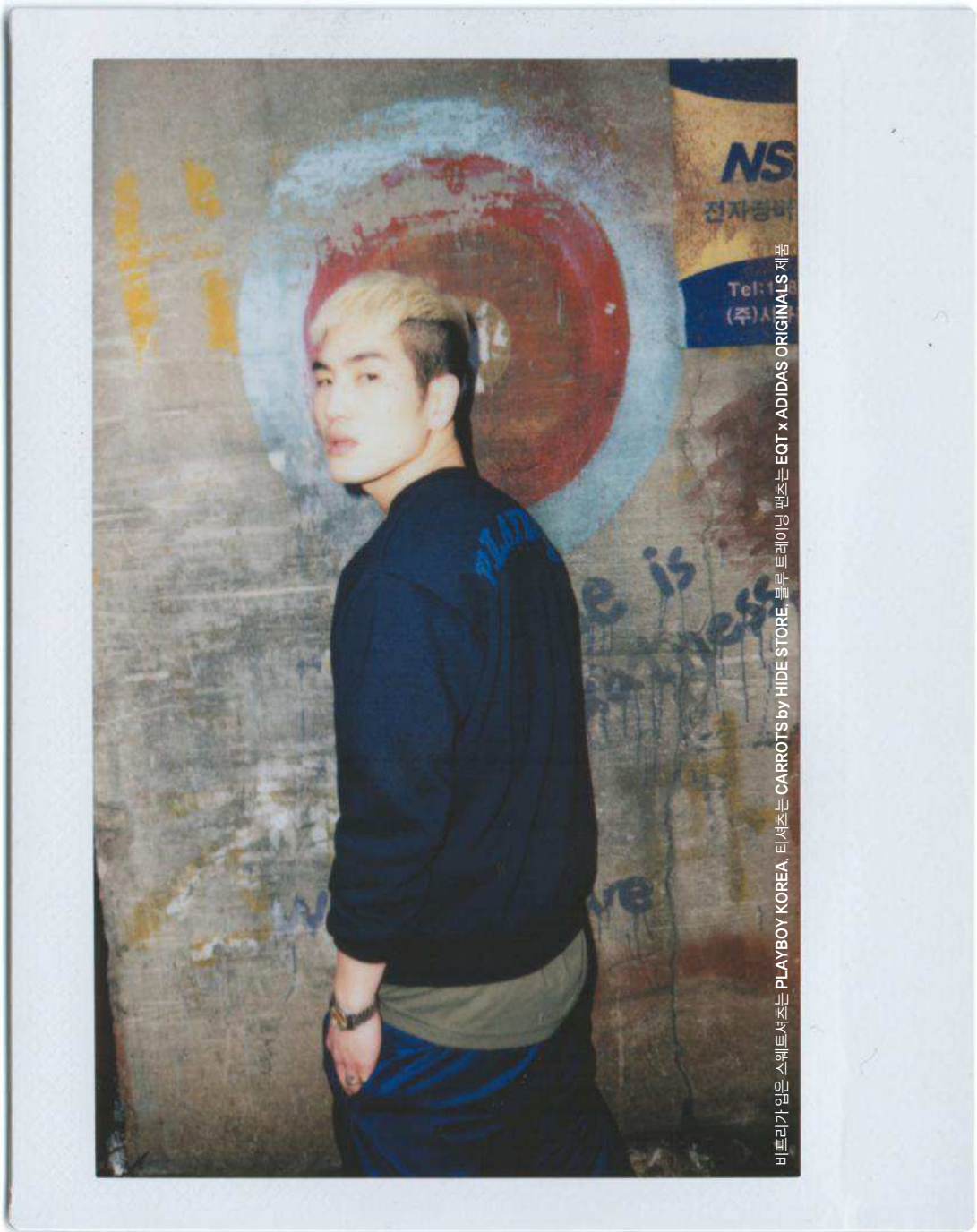
장소협조 퍼니랜드 홍대

비프리가 입은 후디는 **STUSSY**, 레인 재킷은 **SUPREME**, 팬츠는 **BRAHMANE**,
제레미 퀘스트가 입은 주황색 티셔츠와 블랙 아노락은 모두 **BRAHMANE**, 트랙 팬츠는 **T.L.F.T by HIDE STORE**,
스니커즈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걸 다 보고 싶었다면, 이제는 터널 비전, 포커스. 그냥 나, 우선 나. 전에는 우리였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B-FREE

Q1: 뉴웨이브 레코즈의 수장 비프리란 말이 이제 익숙한가요?

Free: 아직 어색해요. 뉴웨이브는 제가 살아남기 위한, 저를 위한 회사였어요. 지금처럼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 적응하고 있어요.

Q2: 정규 음반만 따지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Korean Dream〉에 이어 낸 2016년의 〈Free From Seoul〉이 마지막이죠. 〈Korean Dream〉이 남을 설득하기 위한 먼 곳으로의 외침으로 들렸다면, 〈Free From Seoul〉은 굉장히 가깝게 들렸어요. 조곤조곤 자기 얘기를 하는 인상.

Free: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꼰대 같았다고 해야 하나? 굳이 가사로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그렇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제 행동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엔 남에게 영향을 주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면, 이제는 내가 즐기고 싶어요.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거든요.

Q3: 실망의 계기가 있었나요?

Free: 많았죠. 근데 그것보다 멋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해주고 바라지 말라고. 잊어버리라고. 맞네, 싶었죠. 처음 음악 시작할 땐 공연장에서 신나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내가 즐겁게 살자, 예요. 세상을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엔 그랬죠. 열정적이고 사회적이었달까. '왜 남들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지?' 같은 생각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만 지치더라고요.

Q4: 분노가 나를 이끈다, 라는 유의 말을 과거 인터뷰에서 자주 했죠. 이젠 분노가 사라진 건가요?

Free: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걸 다 보고 싶었다면, 이제는 터널 비전, 포커스. 그냥 나, 우선 나. 전에는 우리였거든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Q5: 그렇다면 지금 그런 '나'의 모습은 맘에 드나요?

Free: 좋아요. 지금이 전성기. 옛날엔 패기와 힘과 분노가 있었다면, 이제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Q6: 지혜가 사람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Free: 옛날엔 본능적으로 일을 벌였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죠. 일단 하고 보자. 물론 지금도 그런 태도는 변함없어요. 어떻게 더 잘할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망설이진 않아요.

Q7: 사람들이 비프리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을까요?

Free: 거친 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만난 적 없는 분들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면 대화하기를 꺼려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험적이고 밝고 호기심 많고.

Q8: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 비프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명확한 사람?

Free: 맞아요. 그것도 예전이랑 달라요. 싫은 게 생기면 웬만하면 혼자 품고 있고, 아니면 그걸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냥 막 얘기부터 꺼내는 게 아니고.

Q9: 지금까지 낸 싱글, EP, 정규 음반을 모두 합하면 서른 개가 넘어요. 성실함이 뮤지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Free: 그건 아니에요. 그것보단 무조건 빨리빨리 내야 된다, 에 가까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누군가는 하나에 엄청 공을 들이고 싶어 하는 거고. 전 모든 결과물엔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늦으면 의미가 없다. 최근에 낸 싱글도 거의 다 번 개송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더 정성을 들일걸, 하는 아쉬움도 있죠. 올해 나올 정규 음반은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는 중이에요.

Q10: 비프리의 과거 음반은 낯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랩을 했나? 싶은. 예를 들어 피처링을 포함한 신곡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비프리의 파트인지 주의 깊게 들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Free: 나름 너무 진지한 사람이었고, 아직도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가볍게 하고 싶어요.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음악이 일회용도 있구나. 그것도 좋은 거다!

Q11: 이른바 '시그너처 사운드'나 한 장의 '클래식'에 대한 욕심이라면요?

Free: 있죠. 없다가 생겼어요. 한동안 일회용적인 싱글을 냈으니까, 정규 음반은 다를 거예요. 사실 싱글을 그렇게 낸 건 이유가 있어요. 〈Free From Seoul〉 만들면서 CJ에서 제작비를 빌렸는데 그거 갚아야 하니까. 이제 할 만큼 했고, 여유도 생겼으니까 제대로 집중해보려고요.

Q12: 새 음반에서도 언제나처럼 신예 프로듀서의 곡을 기대할 수 있나요?

Free: 그럼요. 이 문화가 더욱 발전하려면 이미 뭐든 해나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반대로 제가 신선한 인물들의 영향을 받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그런 프로듀서랑 작업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이미 잘나가는 사람들은 어딘가 갇혀 있을 수 있고, 서로 고집도 세고.

Q13: 내가 원하는 걸 더 쉽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Free: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죠. 내가 감독이 돼서.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되게 낯게 봐요. 그래서 잘나가는 래퍼나 프로듀서들이랑 뭔가 하기엔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해요. 또 한편으로 이제 누구랑 협업을 하든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옛날엔 '이 사람은 뛰어나니까 성격이 어떻든, 나한테 어떻게 굴든 다 받아주고 작업해야겠다' 싶기도 했는데 지금은 싫어요. 내가 더 중요하고, 귀찮아요.

Q14: 지금 'Hot Summer' 들으면 어때요?

Free: 싫어요. 'Hot Summer'는 어쩌다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음악이 아닌 외부적 요인이 많이 개입한 느낌이에요. 산이 디스도 그렇고 빈지노가 홍보를 했다, 박재범이 홍보를 했대, 같은. 제가 너무 진지한 것도 별로고.

Q15: 음반 이름도 진지했잖아요. 〈Korean Dream〉. 그 음반 자체가 이제 비프리에겐 큰 의미가 없나요?

Free: 아니요. 〈Korean Dream〉은 좋아요. 그 분위기가 질린 것뿐이에요. 한편으론 속 시원한 음반이죠. 내가 한때 그랬었네, 참 패기 있었구나.

Q16: 〈Free From Seoul〉에선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했죠. 지금도 그런가요?

Free: 아니요. 그것도 바뀌었어요. 서울은 제가 필요하고, 저도 서울이 필요해요. 서울이 좋고. 〈Free From Seoul〉 때는 거만했어요. 기업으로부터 돈을 너무 쉽게 받았거든요. 큰돈을 받았어요! 펑펑 쓰고 지옥을 겪었죠. 다 갚았고 이젠 괜찮아요.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지혜롭게 나눠서 써야죠. 그때는 그래서 자만했어요. 서울도 필요 없고, 그냥 평화로운 데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 저는 서울에 살아야 돼요. 음악 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예요.

Q17: 지금 이 생각도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Free: 바뀌죠. 사람이 원래 맨날 바뀌는 거잖아요?

Q18: 비프리에게 절대 바뀌지 않는 진실 한 가지는 뭔가요?

Free: 기준이 있어요. 고집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건데, 그걸 벗어나지 않는 거. 음악 색깔이 가끔 변해도 메시지는 크게 안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즐기고 싶다, 내 자신이 먼저다 해도 주변 친구들을 챙기고 싶은 맘도 그렇고.

Q19: 그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Free: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저도 가끔 거만해지면 "너희는 이렇게 못하고, 난 이렇게 한다"고 할 테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엔 변함없어요.

Q20: 〈The Cut〉의 쇼트 다큐멘터리 필름 '뉴웨이브'에선 "나는 전설이 되고 싶다"고 했죠?

Free: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전설이냐, 너무 피곤하다, 그러다가도 레거시는 남겨야지, 라고 결심하는. 지금은 전설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내 음반을 돌아봤을 때 '오, 이거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JEREMY QUEST

Q1: 데뷔 후 첫 인터뷰인가요?

Quest: 한국에선 그렇고, 중국에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Q2: 질문에 답하기 전에 특별히 미리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Quest: 저는 항상 모험을 한다는 것. 이름도 제레미 퀘스트잖아요. 항상 퀘스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Q3: 지금 제레미 퀘스트 앞에 놓인 첫 번째 퀘스트는 뭔가요?

Quest: 한국에서 어떻게 팬층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한국말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죠. 첫 믹스테이프가 4월 20일에 나와요. 비주얼도 많이 고민이고요.

Q4: 중국에서 경력을 시작한 것도 모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까요?

Quest: 전 상하이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 잠시 미국에 있었고. 운 좋게 한국에 오게 됐죠. 이제 2년째예요. 집에서 부모님이 한국어를 쓰시고, 주말학교도 다녀서 상하이에서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유창하진 못해요.

Q5: 지난해 10월 싱글 'Hugh Hefner'를 발표했죠. 기사로 발매 소식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의 삶을 동경하나요?

Quest: 엄청. 플레이보이가 바람둥이란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인생을 즐기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휴 헤프너는 엔터테인먼트 신 전체에 문화적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장을 열었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Q6: 휴 헤프너는 이른바 '알파 메일'에 가깝죠. 제레미 퀘스트는 그런 남자로 보이진 않아요.

Quest: 물처럼 흐르는 편이에요. 분위기를 타고, 시간이 가는 대로. 지금 상황에 놓인 것들에 충실하려 하고. 마초적이거나 주도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딜 갈 때도 누가 부르면 간다든가. 음악에 관해서라면, 항상 새로운 영감을 찾고요.

Q7: 요즘 랩이라면 힘주거나 윽박지르기보다 어떻게 힘을 잘 빼느냐, 가 더 중요한 때죠.

Quest: 근데 또 제가 요즘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재즈 힙합, 특히 어 트라이브 콜드 퀘스트 들으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플로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잖아요. 프레시 프린스(윌 스미스)도 좋아해요. 랩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자기만의 오라가 있죠. 래퍼라고 해서 마초적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거칠게 자라진 않았어도 볼 거 다 보고 겪을 거 다 겪어봤어요. 제 음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히는 제가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Q8: 흘러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지금 제일 새로운 건 뭘까요?

Quest: 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순환. 그중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지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새로운 일인 듯해요. 패션, 음악 다 언제나 레퍼런스를 갖고 새로운 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Q9: 그렇다면 지금 가장 레퍼런스 삼고 싶은 건요?

Quest: 재즈 힙합이요. 절대 녹슬지 않아요. 소스를 약간 바꾸는 그런 변화를 줘보는 거죠. 영 밴스(Yung Bans)란 아티스트가 있는데, 샘플을 진짜 잘 써요. 드럼도 신선하고. 저는 그쪽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고 있어요.

Q10: 데뷔 후 지금까지 낸 싱글에서 재즈 랩의 영향이 크게 드러나진 않는 듯해요.

Quest: 곧 나올 믹스테이프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도,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일을. 그 전까진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들었을 때 '아, 오케이' 정도의 곡만 냈죠.

Q11: 더 좋은 걸 숨겨놓은 건가요?

Quest: 많이 숨겨놨죠. 아주 많이. 중국에서 듀오 프로젝트(VROSKIII)도 하고 있거든요. 그 음반도 준비 중이고. 거기서도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중국에서도 힙합이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Q12: 정부 차원에서 힙합을 규제하고 있지 않나요?

Quest: 그 이슈가 되게 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언더그라운드 신이 다져졌죠. 그런데 상하이에는 제가 우러러볼 수 있는 아티스트가 한 명도 없었어요. 중국 전체로 봤을 땐 MC Hotdog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홍콩의 에디슨 첸도 있고. 만나본 적도 있는데, 본받을 점이 많아요.

Q13: 비프리는 본받을 만한 선배이자 사장인가요?

Quest: 완전히 그렇죠. 특히 행동력. 생각한 대로 바로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그게 부족하거든요. 고민이 많고 좀 안에 쌓아두는 편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만들어놓고도 바로 발표 안 하고. 근데 형 덕분에 작년에 많이 내게 됐죠.

Q14: 래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Quest: 태도와 관찰이요. 그리고 결단력.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 흐지부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살아야 하고.

Q15: 스스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편이라 하지 않았나요?

Quest: 네. 결정장애가 있어서. 어쨌든 음악에서는 다 내려놓고 보여주고 싶어요. 다양한 장르로.

Q16: 〈쇼 미 더 머니〉 출연도 고려 해봤나요?

Quest: 아니요. 멋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란 것도 알고 있고, 카메라도 많이 싫어해요.

Q17: 무대는요?

Quest: 무대는 괜찮아요. 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도 항상 좋아하고. 신선하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안 건드려본 걸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Q18: 제레미 퀘스트가 만드는 음악의 중심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Quest: 모험 같은 건데, 무슨 일이든 자기를 그 상황에 놓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라. Put yourself in it.

Q19: 그렇게 살고 있나요?

Quest: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항상 그 상황에 있어요. 그걸 못 즐겨도 즐기려고 노력해요. 일단 시작하면 쭉 하고. 고민은 많아도 무서움은 별로 없어요. 후회도 안 하는 편이고. 당연히 시행착오가 항상 좋진 않죠. 그만큼 시간이 소모되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젊으니 무조건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Q20: 어떤 야망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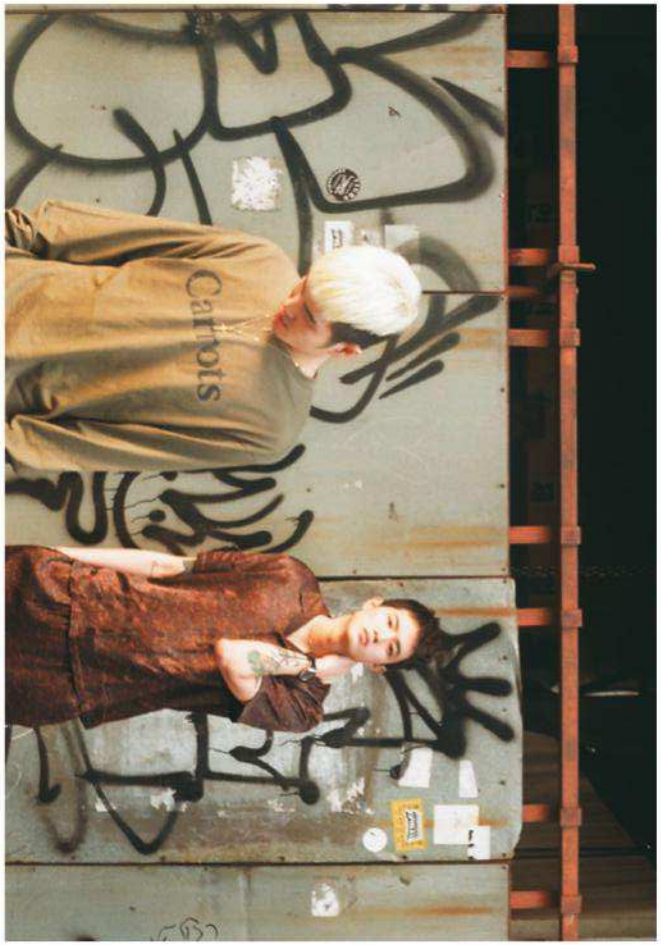
Quest: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으면 좋겠어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고. 이번 믹스테이프로 큰 성공을 거두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레미 퀘스트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했으니,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라는 점도.

"물처럼 흐르는 편이에요. 분위기를 타고, 시간이 가는 대로. 지금 상황에 놓인 것들에 충실하려 하고. 마초적이거나 주도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레미 퀘스트가 입은 스웨트 셔츠는
PLAYBOY KOREA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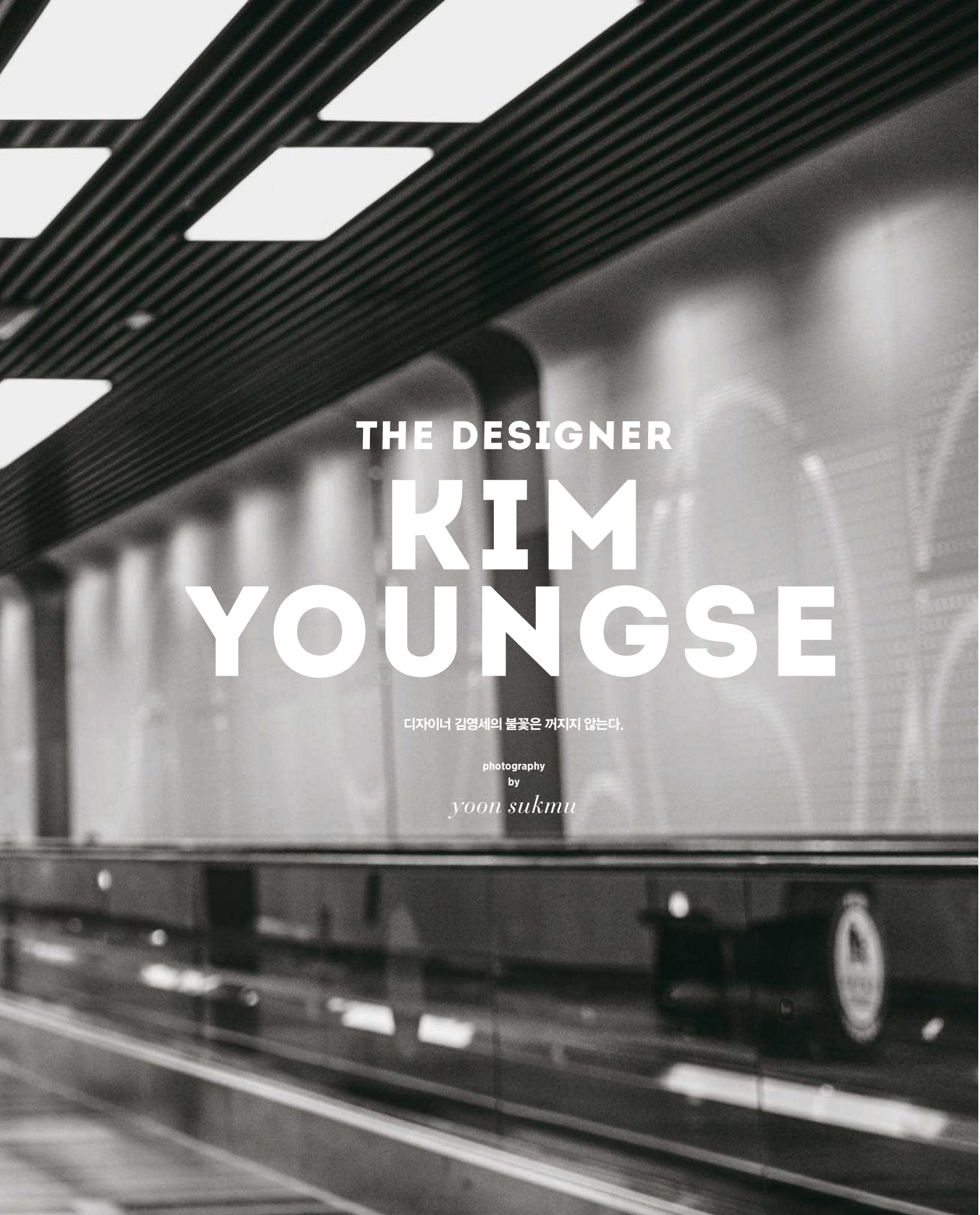
비프리가 입은 카키 티셔츠는 **CARROTS by HIDE STORE**,
블랙 재킷은 **SUPREME x COMME des GARCONS SHIRT**, 블루 트레이닝 팬츠는 **EQT x ADIDAS ORIGINALS**,
제레미 퀘스트가 입은 카키컬러 재킷, 페이즐리 실크 셔츠와 하프팬츠는 모두 **STUSSY** 제품





비프리가 입은 카키 티셔츠는 **CARROTS by HIDE STORE**, 제레미 퀘스트가 입은 페이즐리 실크 셔츠는 **STUSSY** 제품





THE DESIGNER
KIM YOUNGSE

디자이너 김영세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photography
by
yoon sukmu



"꿈을 이룬다는 말은 적절치 않아요. 꿈은 이뤄가는 거지 이룬다, 이뤘다는 과거형은 아닌 걸로 알아요. 또 꿈은 변하고요. 지난 30년간 한국의 디자인 역사에 나름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봉은 무거웠다. 약 1.3kg. 가볍고 충격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를 썼지만, 무겁다는 점에는 변함없었다. 기술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한 일이다. LPG 화로나 다름없는 물건이니까. 묵직한 성화봉을 성화봉송 주자처럼 머리 높이로 들어봤다. 그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품은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비장함이든 부담감이든 설렘이든 무엇으로든 꽉 차 있을. 올림픽을 즐겼다. 매일 결과를 챙겨 봤고, 끝나고 나니 무척 허전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수많은 부정적 관측과 마찬가지로, 비관적 태도를 취했을 뿐이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 그런 편견을 바꿔놓았다. 김연아였다. 김연아가 성화대 앞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그리고 서른 개의 굴렁쇠를 타고 오른 불꽃이 성화대에 붙었다. 올림픽이 시작됐다.

김영세는 평창 올림픽 성화봉과 성화대를 디자인했다. 김영세의 이름이 낯설 순 있다. 하지만 김영세가 디자인한 제품을 모를 순 없다. 오늘 촬영을 맡은 포토그래퍼는 김영세가 디자인한 휴대용 가스버너 랍스터를 아직 갖고 있다고 했다. 1993년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상(IDEA) 금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아이리버 iFP-100, 애니콜 '가로본능', 라네즈 슬라이딩 팩트 등은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행태를 바꿔놓았다. 일단 목에 걸고 싶게 생긴 MP3 플레이어와 휴대폰 화면이 꼭 세로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제안엔 굳이 말이 필요 없었다.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숨은 기능까지 있다는 설명서의 깨알 같은 글씨보다 훨씬 설득력 있었다.

김영세를 서울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만났다. 아침이었고, 사람들이 개장 시간에 맞춰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들길은 이름 그대로 길이었다. 단출한 무빙워크가 있었고, 지하철이 도착하면 붐비고 아닐 땐 한산했다. 4호선 이촌역부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어지는 255m 길이의 통로. 길이 과시하기 시작하면 그 길이 불편해진다. 나들길은 그렇지 않았다. 평면의 벽에 점으로 새겨진 박물관 전시 유물들은 곧 보게 될 입체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뿐, 태극기의 건곤감리를 형상화한 천장의 조명은 그야말로 제 일을 할 뿐이었다. 박물관을 향한 '워밍업', 김영세의 표현에 따르면 '애피타이저'. 바닥에는 건곤감리의 사괘 중 '곤'만 새겨져 있었다. 곤은 땅이란 뜻을 포함한다. 억지인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은근한 볼륨으로 황병기의 '비단길'이 흘러나왔다. '모던'한 비단길을 걸어, 한반도의 보물을 만나러 가는 길.

그는 성화대만큼이나 나들길을 만족스러워했다. 제품 디자인으로 맛볼 수 있는 성공의 끝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스케일'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일까? 긴 해외 유학과 창업 및 경영으로 스스로를 애국자라 칭하는 그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역설적으로 한국을 보여주는 방식과 다루는 요령에 대해 더욱 객관적 시선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사진을 촬영하자는 아이디어도 김영세가 냈다.

사용자를 생각하고,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이너. 그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가열차게 일을 벌인다. 디자이너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저서명 〈퍼플피플〉처럼 보라색이 도드라지는 역삼동 이노디자인 센터의 디자인 또한 그런 계획의 일부다. 사옥 일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하고자, 최근 그는 새로운 기업에 디자인을 투자하고 투자자 네트워크를 꾸리는 등의 일을 하는 디자인 액셀러레이터, DXL-랩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디자인이 제품과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제 그는 디자인 생태계를 디자인한다.

김영세의 책상은 DXL-랩의 첫 단추, 막 출시를 앞둔 전천후 텀블러 샤블리에로 꽉 차 있었다. 텀블러의 한쪽 면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반대쪽으로 뒤집어 막 내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제품. 모래시계의 형태를 차용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적 도발인 동시에 시대의 목소리일 'Goodbye paper cups!'란 슬로건을 썼다. 김영세의 계획이자 꿈이기도 할 것이다. 샤블리에는 프랑스어로 모래시계를 뜻하는 말이다. 모래시계는 고갈되지 않는다. 모래가 다 떨어지면, 거꾸로 세우면 그만이다. 그러면 다시 100%가 되어 제 페이스대로 갈 길을 간다. 김영세의 끝나지 않는 도전처럼.

Playboy: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 김연아가 개회식에서 성화 점화를 하던 그 장면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겠죠. 어떻게 보셨나요?

Youngse: 미국에 있을 때라 NBC TV로 봤는데, 뭉클했어요. 아름다운 퍼포먼스였죠. 성화대의 흰 달항아리 이미지랑 스케이팅도 굉장히 조화로웠고. 문득 뒤에 보이는 성화대가 내 작품이란 생각을 하니 정말 영광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사실 점화 방식도 다들 고민을 많이 했죠. 성화대가 스타디움 뒤 별도의 30m짜리 타워로 서 있는 거라. 그 거리까지 불길을 쏴줄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제 아이디어가 채택됐는데, 불꽃이 30개의 동그라미를 타고 올라가게 하자는 거였어요.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3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한 기간. 그걸 기념하자.

Playboy: 이노디자인을 설립한 게 1986년이니,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어떤 세월이라 말하고 싶나요?

Youngse: 파란만장이죠. 그리고 개척 기간. 특히 한국에선 산업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분야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부터 디자인을 공부한 뒤 한국에 산업디자인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야무진 꿈을 꿨어요. 유학하러 온 게 아니라, 내 회사를 반드시 만들어 성공하겠다. 이후 팔로알토 실리콘밸리에 가서 이노디자인이란 간판을 내걸었죠. 오는 3월 28일이 32주년이에요.

Playboy: 이번 인터뷰에선 한국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이제 유학 당시의 꿈을 이룬 건가요?

Youngse: 일부는요. 꿈을 이룬다는 말은 적절치 않아요. 꿈은 이뤄가는 거지 이룬다, 이뤘다는 과거형은 아닌 걸로 알아요. 또 꿈은 변하고요. 지난 30년간 한국의 디자인 역사에 나름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 창업하고, 대기업 회장실 찾아다니고,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히트 상품이 세계에 이름을 알렸죠. 그건 1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2단계가 뭔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Playboy: 김영세가 한국을 다루는 방식은 모던하다, 는 말은 어떤가요?

Youngse: 일단 오늘 촬영한 국립중앙박물관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스펙을 보니까 255m짜리 터널, 천장, 바닥, 왼쪽, 오른쪽 해서 1km가 넘는 화폭을 얻은 것 같았죠. 흥분해서 첫 스케치를 했어요. 태극기의 음양을 표현하는 곡선과 사괘의 직선을 모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40년 후에도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가장 심플한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디자이너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디자이너의 마음을 알리는 거구나.


Sablier
Sablier



김영세가 디자인한
커피와 차
텀블러 샤블리에(Sablier)가
4월 5일, 전 세계
동시 출시된다.
텀블러에
원두 가루를
넣고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린 뒤,
텀블러를 거꾸로 뒤집어
막 내린 커피를
마실 수 있다.
'Goodbye paper cups!'와
'Save the earth by
design'이란
기치를 내걸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건 항상 앞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Young'이고 이미 한 일이 많은 사람은 'Old'이고, 사실 디자인은 그 일 자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Playboy: 김영세 최고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나요?

Youngse: 나의 최고 작품은 아직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시한 미래밖에 없을 것 같아서.(웃음) 지금까지 한 것 중 가장 큰 의미를 담은 건 확실해요. 건곤감리 조명은 볼 때마다 한국인의 강한 근성 같은 느낌? 그 옆의 자연스러운 곡선은 부드러움. 가장 아름다운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괘와 음양이 밸런스를 이루는,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사실 이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란 작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모은 거죠. 절제된 아름다움이랄까.

Playboy: 달항아리를 모티브 삼은 성화대도 그런 맥락이겠죠?

Youngse: 성화대 최종 디자인을 할 때 화로랑 달항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최종적으로 조용하고 우아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달항아리를 채택했고요. 성화봉도 백자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Playboy: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도 서울은 차고 넘치는 디자인으로 가득한 곳이죠. 어떻게 보세요?

Youngse: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있죠. 다이내믹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질서가 있었으면 해요. 고요함과 여유도. 2000만 가까운 인구가 사는 서울권이 짧은 시간에 팽창한 것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무지하게 부지런하고 급하게 움직이면서 스피드 오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베스트 디자인은 나올 수 없었고. 지금까지가 1단계라면 서울도 2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Playboy: 랜드마크가 될 만한 디자인으로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나요?

Youngse: 너무 흥분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이노디자인 사옥이에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한 건데, (리모델링 전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이런 건물이 서울에 수만 개는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역삼동에 이노디자인 센터를 지은 건, 이 지역을 창업의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예요. 리모델링하면서, 거리를 전부 이렇게 조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이 커지는 거죠. 할 일을 자꾸 만드는 건 기분 좋은 거니까. 바로 이 건물에 우리 자회사 DXL-랩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선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를 키워요. CEO들이 작은 회사에 투자하고 이끌면서 공유경제를 만들어나가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내 능력은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을 작은 회사에 투자하자. 지원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우리 디자인을 사용하는 회사와 함께 성공하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지금까지 10개 회사 정도에 투자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의뢰가 오는 프로젝트만을 하는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인을 투자하는 디자이너인 거죠.

Playboy: 전통적 디자이너로서라면 다루지 않은 영역이 드물죠. 예쁘다는 생각보다 사용자의 행태를 바꾼 제품들이고요.

Youngse: 디자인은 혁신이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퍼스트란 말을 좋아해요. 전부터 의아했던 게, 왜 기업들이 이미 구체적 스펙을 만들어놓고 껍데기를 디자인해달라고 의뢰하나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1999년에 디자인 퍼스트란 전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디자인 회사에서 돈도 안 받고 디자인을 미리 공개해버리니까. 그런 연습 게임부터 시작해서 라네즈 슬라이딩 팩트, 애니콜 가로본능, 아이리버 프리즘 등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디자인을 갖고 갔어요. DXL-랩을 통해서도 그런 디자인 퍼스트를 실천할 기회를 많이 만들 거예요. 예전엔 디자이너가 제품을 마무리하는 선수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사업의 선봉 요소를 쥐고 있다는 생각으로.

Playboy: DXL-랩이 디자인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Youngse: 가능성이 보여야죠. 사업성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노디자인의 디자인 역량으로 살릴 수 있느냐. 30년 전 회사를 세울 때도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똑같은 체험을 다시 한다는 게 신기해요.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단계의 디자인이죠. 이런 걸 나는 빅 디자인이라 그러거든요? 빅데이터 못지않게 중요한 빅 디자인이란 트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Playboy: 그래도 디자이너로서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 순간은, 직접 그린 디자인이 탄생했을 때 아닐까요?

Youngse: 결국은 똑같아요. 여기 샤블리에 텀블러 같은 경우엔 펜을 들고 그릴 때의 쾌감도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제품이 출시돼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혁신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즈니스가 창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모험과 기대감이 제품을 그릴 때의 기대감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기쁠 수도 있겠지만, 사용자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샤블리에는 DXL-랩의 원 컴퍼니, 첫 번째 회사예요. 다른 9개 회사랑 다른 점은, 제가 아예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 2년 동안 개발해서 제품이 나왔고, 4월 5일에 세계 동시 출시를 해요. 굿바이 페이퍼 컵스(Goodbye paper cups!)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는데, 그날이 식목일이죠.

Playboy: 실용적인가, 예쁜 것인가를 넘은 이로움을 고민하는 단계인가요?

Youngse: 예전부터 굿 디자인은 진선미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진은 진실된 기능이에요. 선은 착한 가격.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미는 아름다움. 단순히 예쁜 것만을 추구하는 게 디자인이 아니니까. 어떤 상품이 세상에 나타나면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책임 의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샤블리에 패키지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Save the earth by design'. 또 하나의 미션이죠. 이노디자인과 협업하는 기업의 최종 결과물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 위주로 도전하고 있어요.

Playboy: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스스로 젊다고 느끼나요?

Youngse: 그럼요. 인터뷰할 때 김영세 괄호 열고 몇 살, 쓰는 것 제일 싫어해요. 디자이너는 늙으면 안 돼요. 스티브 잡스는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Stay young." 2년 전 계원예술대학교 졸업식 축사하러 가서 그 얘길 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그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건 항상 앞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은 'Young'이고 이미 한 일이 많은 사람은 'Old'이고, 사실 디자인은 그 일 자체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젊어보였다면, 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면 굉장히 프로이기 때문이겠죠.

Playboy: 10년 후의 김영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Youngse: 모르죠. 그걸 미리 안다면 프로가 아니지.



GIRLS DON'T CRY

누가 레이싱 모델과 링 걸을 모함했나.

photography
by
kim jiyang

레이싱 모델이나 링 걸이 되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 정해진 건 없다. 하지만 격투기장과 레이싱 경기장에 선 그들은 모두 20~30대이고, 어떤 기준에서 '예쁜' 여자들만 있다. 섹시함을 한껏 강조한 유니폼과 보디라인을 돋보이게 하는 포즈의 여성들. 카메라는 언제나 집요하리만치 이 여자들을 좇는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성 상품화와 인권 문제가 대두되며, 세계적 레이싱 대회 F-1도 그리드 걸(레이싱 모델)을 기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싱 모델, 링 걸들이 직면할 미래는 어떨까? 몇몇 국내 모터쇼는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레이싱 모델 대신 패션 모델을 기용한다"고 선언한 지금, 한국의 레이싱 모델과 링 걸은 어떤 입장일까? 〈플레이보이〉는 그들의 '몸' 대신 진솔하고 담백한 언어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기준도 두지 않기 위해 사진에 색(色)을 넣지 않기로 했다. 카메라 앞이라면 대체로 '여성의 미'를 강조하기 위해 애써 가슴과 엉덩이를 내밀어야 했던 그들에게 몸의 힘을 빼달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우리는 레이싱 모델, 링 걸의 '민낯'을 마주했다. 자연스럽다, 아름답다. 이건 평가가 아니다. 공명이고 공감이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이들을 모함했나?

톱과 재킷은 모두 **& OTHER STORIES**, 스커트는 **DAEJOONGSO**, 부츠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너넛걸이 살아 있는 빈티지한 타일은 **YOUNHYUN** 제품

레이싱 모델, AJ타이어베이 레이싱팀

박하

드라마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어요. 꿋꿋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박하'라는 이름만 들어도 시원시원한 느낌. 이름처럼 제 인생도 시원시원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에 데뷔했으니까 햇수로는 5년이 됐네요. 친구들의 권유로 레이싱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은 AJ타이어베이 소속이고요. 대회가 열리면 서킷장으로 출근해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용인이고 영암, 인제에도 있어요. 소속팀을 홍보하고 레이서를 서포트하는 일을 하죠. 레이서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주된 업무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지만, 서킷 열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햇볕도 강렬해요. 그래서 모델들이 레이서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우산도 오래 들고 있으면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차 옆에서 예쁜 척하고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레이서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차가 돋보일 수 있도록 포즈를 취하는 것도 어렵죠. 인식과 달리 일하면서 만난 모델들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 많았어요. 놀랄 만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주다하 씨가 롤모델이에요. 데뷔했을 때 자주 보던 모델 선배이기도 했고요. 생전에 후배들도 잘 챙겨주는 밝은 사람이었어요. 올해는 운동도 열심히 해볼까 해요.

셔츠는 **DAEJOONSO**, 팬츠는 **TOMOROWW LAND**, 슬리퍼는 **BOHEMIA DESIGN** 제품

VIP보다 경기장 가까이에서 경기를 볼 수 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경기장의 박진감이 특히 좋아요. 링 걸은 피켓만 들고 예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출전하는지 체크하고 경기 중 선수가 부상을 당해 치료받을 때면 링 위에 올라가 분위기를 정리해야 할 때도 있어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격투기의 인기는 한국보다 다른 아시아 지역이 더 뜨거워요. 상하이, 베이징에서도 대회가 많이 열리죠. 작년 겨울에는 태국 〈플레이보이〉 촬영을 했어요. 촬영장 분위기도 결과물도 마음에 들어요. 매거진 커버는 처음이라 드디어 자랑할 일이 생겼구나 싶었죠.(웃음) F-1 대회의 그리드 걸 퇴출 소식, 들었어요. 점점 레이싱 모델과 링 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 게시물처럼 간접적인 경험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회나 쇼를 보러 온 관람객은 모두 멋있다고 하거든요. 선정적인 의상이 문제라면, 의상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인데, 여자건 남자건 똑같지 않나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모델과 링 걸을 퇴출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시되어야 하잖아요. 최근 요리에 재미를 붙였어요. 요리라기보다는 플레이팅 수준에 가깝지만.(웃음)



미니 드레스와 슈즈는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왕길, TFC

김세라

학비랑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얼짱'이 인기 있을 때라 안 나가본 선발 대회가 없을 정도였죠.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친언니가 레이싱 모델을 해보라고 했어요. 의외죠? 언니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천직이다' 싶을 정도로. TFC 걸은 2016년부터 했어요. 피켓을 들고 링 위에 오르죠. 상상만큼 무대 중앙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워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케이지 바깥쪽에 난간이 있거든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거기가 곧 링 걸의 무대예요. 전선이랑 물병 그리고 땀에 젖은 수건들이 뒤엉켜 있죠.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첫 리허설 중 넘어질 뻔했어요. 계단도 깜깜한 데다 미끄러웠거든요. 아무도 이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예뻐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라는 나름의 철학이 생겼죠. 그래도 경기장 곳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지방에서 1박 2일 스케줄로 온 팬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롭진 못해요. 캐스팅 때문에 미팅을 가도 그 시선과 말들이… 스트레스죠. 2018년에는 '김세라'라는 이름을 더 알리고 싶어요. 레이디 가가가 롤모델이에요. 개성도 강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희연



재킷은 **HELMUT LANG**, 티셔츠와 슈즈는 모두 **TOP SHOP**, 팬츠는 **ZARA** 제품

2년 됐어요. 처음 레이싱 모델 일을 할 땐 마냥 신기하고 재밌었죠. 지금도 일할 땐 자부심을 느껴요. 레이싱 모델의 역할은 팀의 사기를 충전하는 것과 홍보예요. 레이싱 모델을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요. "레이싱 모델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최전선에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20~30대 젊은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섹시한 여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문제시할 거라면, 남자 모델을 기용하거나 레이싱 모델들이 모터스포츠와 관련해 전문성을 띠도록 트레이닝하면 더 좋을 텐데, 아쉽죠. 레이싱 모델이 열심히 한다는 말을 모델이 자신을 기용한 갑(甲)에게 이성적인 어필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 고용자들 중엔 본인의 이성 취향에 맞게, 물건 고르듯 레이싱 모델을 기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레이싱 모델들이 겪는 성차별인 것 같아요. 저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해요. 피해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겪은 파렴치한 사건을 토로한 뒤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연대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더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는 이 일을 무탈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볼 때 보람될 수 있도록.



사실 잘 몰랐어요. 레이싱 모델의 역할을요. 저만 해도 '레이서 옆에서 우산 들고 있는 여자들'이라 여겼을 정도예요. 1년을 활동해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모델의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패션 모델을 하다가 레이싱 모델을 시작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훨씬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학벌과 기수를 따지는 패션 모델 세계는 좀 버거웠어요.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뿌듯해요. 유니폼을 입고 서킷장에 들어설 때 기자나 팬이 알아봐 주거든요. "넥센팀의 이영 씨다!" 하면서요. 패션 모델 때는 그런 소속감이 없었어요. 선후배 위계질서가 딱딱하기만 하고. 지금은 식구 같아요. 선수의 컨디션을 꼼꼼히 챙기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돕죠. 작년에 담당했던 선수는 경기 후 완전히 탈진 상태였어요. 곁에서 보고 엄청 놀랐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그렇고 레이싱카 안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레이싱 대회가 꼭 충돌 사고 때문에 위험한 경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레이싱카에 몸을 담고 완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였죠. 언젠가 레이싱 모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게 방송이 될 수도 있겠죠.

슬리퍼는 **BOHEMIA DESIGN** 제품, 드레스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드레스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이싱 모델이 되기 전엔 패션 모델만 했어요. 그러다 2016년 한 모터쇼에서 레이싱 모델 대신 패션 모델을 세우자는 취지로 패션·광고 모델을 섭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참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레이싱 모델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무대 체질인가 봐요. 모터쇼에서 카메라를 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진 찍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 있죠?(웃음) 그리고 레이싱 모델계엔 팬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게 신기했죠. 팬들도 생기고 제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 이 일이 너무 즐겁지만 없어졌으면 하는 건 노골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줄었다곤 하는데 그래도 매년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터쇼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희야, 오버하지 말고 패션 모델처럼 고급스럽게 가만히 있어." 저도 패션 모델이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모터쇼 관계자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패션 모델을 쓴다는데, 그럼 레이싱 모델과 일하면 이미지가 나빠지나요? 글쎄요. 제가 처음 레이싱 모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말렸어요. 계속 패션 모델 하지 왜 그러냐고. 이젠 모두 저를 응원해요. 팬들도 많아졌고. 작년엔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팬들의 투표로 진행한 인기상도 받았어요. 제가 젤리를 좋아하는데, 그걸 아는 팬들이 커다란 젤리 박스를 두 개나 보내줬어요. 요즘은 그거 먹으면서 만화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링 걸의 섹시한 이미지만 생각하잖아요. 원챔피언십은 국제경기라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데, 링 걸을 선정적으로만 보는 시선은 한국이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링 걸의 역할은 경기 라운드 진행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홍보 역할도 하고요. 파이터는 아니지만 원챔피언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는 일이죠. 매 경기마다 몇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요. 이렇게 큰 경기의 링 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원챔피언십의 링 걸 총 7명이 모두 한국 사람이란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껴요. 저는 링 걸로 일하며 긍정적 성차별만 느껴봤어요. 해외에서 일하다 만난 사람 중 이런 것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싶은 일도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여자는 약하고 항상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기분 좋고 감사했지만, 차별이라면 차별이죠. 한편으론 문화의 차이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미투 운동이 이슈잖아요. 성차별을 느낀 여성들이 하나둘 자신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젠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고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성으로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용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응원하는 맘이에요.



슈즈는 JIMMY CHOO 제품, 드레스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레이싱 모델,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유다연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성격도 남자애 같고 예쁜 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레이싱 모델 일을 할 땐 힘들었죠. 그러다 점점 자신감이 늘고 재밌었어요. 이 일은 가장 젊고 예쁜 나이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모가 장점이 되니 기분 좋았죠. 레이싱 모델을 선정적으로만 본다면, 씁쓸하죠. 레이싱 모델은 소속 레이싱팀과 팬 그리고 관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F-1이 레이싱 모델을 기용 안 한다고 했어요. 성적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없앤다는 의견도 있죠. 그럼 노출 있는 유니폼을 바꾸든 레이싱 맨을 도입하든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전통 있는 레이싱 모델을 이렇게 없애는 건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싱 대회가 내린 결정이니까요. 좀 다른 얘긴데, 잘나가는 레이싱 모델을 보면 '스폰을 받을 거다', 이런 못된 시선이 있잖아요. 당당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잘되는 모델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일할 때 늘 속으로 다짐해요. '진짜 멋져 보여야겠다.' 그리고 눈에 힘주고 자신감 있게 카메라 앞에 서요. 저 25살에 상경해서 지금까지 허튼 짓 안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부모님께 "잘 살고 있다." 얘기할 만큼 당당하게 살 거예요. 목표는 레이싱 모델로 톱이 되는 것. 그리고 "유다연 참 성격 좋더라. 열심히 사는 친구야." 이런 얘기 들을 만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解氷

: 해빙

사진가 옥토가 찍은 푸른 계절.

photography
by
okto



'무제', 2015



'물의 빠는 대체로 그림자를 통해 관측할 수 있습니다', 2017

"나는 봄을 맞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거든."

–

버지니아 울프, 〈어느 작가의 일기〉 中

이옥토는 회화를 전공했으며 2016년부터 사진을 업으로 삼아왔다. 사물과 사람, 시간을 오래 바라보는 일을 좋아하고, 겉과 겉이 맞닿는 꿈이 결이라 믿는다. 저서로는 포토 에세이 〈사랑하는 겉들〉이 있다.

LOVES:

4월은 잔인한 달.
〈플레이보이〉를 꽃피우는
여자들의
순잔한 도발처럼.



트라이앵글 톱은 DAZE DAYZ.
코치 재킷은 MARK GONZALES 제품

4월의 플레이메이트
소마는
푸른 물빛 꿈을 꾼다.

photography
by
yoon sukmu

Soma

"어릴 때 항상 욕조에 들어가 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TV에서 여주인공이 거품 목욕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따라 하고 싶은 거예요. 입욕제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던 때고, 그냥 집에 있던 샴푸로 잔뜩 거품을 내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다 거품이 걷힌 어둡고 푸른 물 속을 봤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던 기억이 나요." 그 소녀는 뮤지션이 되어 물과 푸른색을 두려워하는 스스로의 공포를 마주했다. 지난해 앨범 〈Somablu〉로 데뷔한 R&B 뮤지션 소마 얘기다. 두려움의 흔적도 찾기 어렵던, 코를 찡그리며 짓궂게 웃는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마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그녀는 푸른 내면을 활짝 열어 보였다.



트라이앵글 톱과 바텀은 DAZE DAYZ,
트랙팬츠는 ADIDAS 제품



레드 스웨트는 **MARK GONZALES**, 보텀은 **DAZE DAYZ**,
슬립온 스니커즈는 **VANS** 제품



스윔슈트는 DAZE DAYZ 제품


Mmm' Records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20-152
620-152 Hannam-dong Yongsan-gu
www.mmmrecords.co.kr
You don't have to be rich to be my girl, you don't have to be cool to rule my world



트라이앵글 톱은 **DAZE DAYZ**,
코치 재킷은 **MARK GONZALES**, 스니커즈는 **VANS** 제품


enter
ht take
and
off
ver



코치 재킷은 **MARK GONZALES**,
트라이앵글 톱과 보텀은 **DAZE DAYZ**, 슬립온 스니커즈는 **VANS** 제품



SOMA



@somablu

인어가 되고 싶은 소녀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림을 잘 그렸고, 좋아하던 건 엄마랑 할리우드 영화 보는 것과 거울 보는 것. 치장에도 관심이 많았다. 욕조 안에 있는 걸 좋아했고, 인어가 되고 싶었다. 잠이 많았고.

소마가 되기 이전의 다솜 부모님 말을 빌리면 '뭣도 없으면서 자존감만 센 사람'이었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걷는다면 '무조건 도착할 사람'이었다. 한번 입으로 뱉은 목표는 꼭 지키리라 다짐했고, 지켜지리라 믿었고, 꽤 지켜졌다.

유일무이한 아이콘 흑인음악이 멋있어 보였다. 알리시아 키스처럼 되고 싶었고. 처음엔 그게 다였다. 지금은 청자에게 편안하게 와 닿는 음악을 하고 싶고, 유일무이한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싶다. 내 음악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단어는 아마도 타협 혹은 대립.

음악 그 자체 vs 무대 위 남의 시선 굳이 꼽자면 무대 위 시선을 더 즐기는 편이지만, 그 시선을 즐기려면 음악을 즐기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부산에서 했던 블루아폴로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곳은 나의 고향이었고, 고향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함께한 첫 번째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서 음악을 뺀다면 아마 빈 깡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오타쿠?

즐거운 일탈 일탈이 짜릿하려면 비밀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함께할 때 즐겁고, 귀엽고, 섹시한 사람이 이상형이다. 그리고 나를 어떤 것보다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필수조건이다. 아 또, 웃는 모습이 예뻐야 한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땐 그 사람이 이상형이 된다.

최근에 본 섹시한 것 오늘 아침 방울토마토를 씻어 입에 넣어주던 남자친구.

페미니스트와 〈플레이보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남자들을 위한 잡지'보다 '솔직한 성인들을 위한 잡지'라는 게 좀 더 인식된다면!

생일 12월 21일
별자리 사수자리
혈액형 A형







트라이앵글 톱은 **DAZE DAYZ**,
코치 재킷은 **MARK GONZALES**, 스니커즈는 **VANS** 제품



SHE'S A RAINB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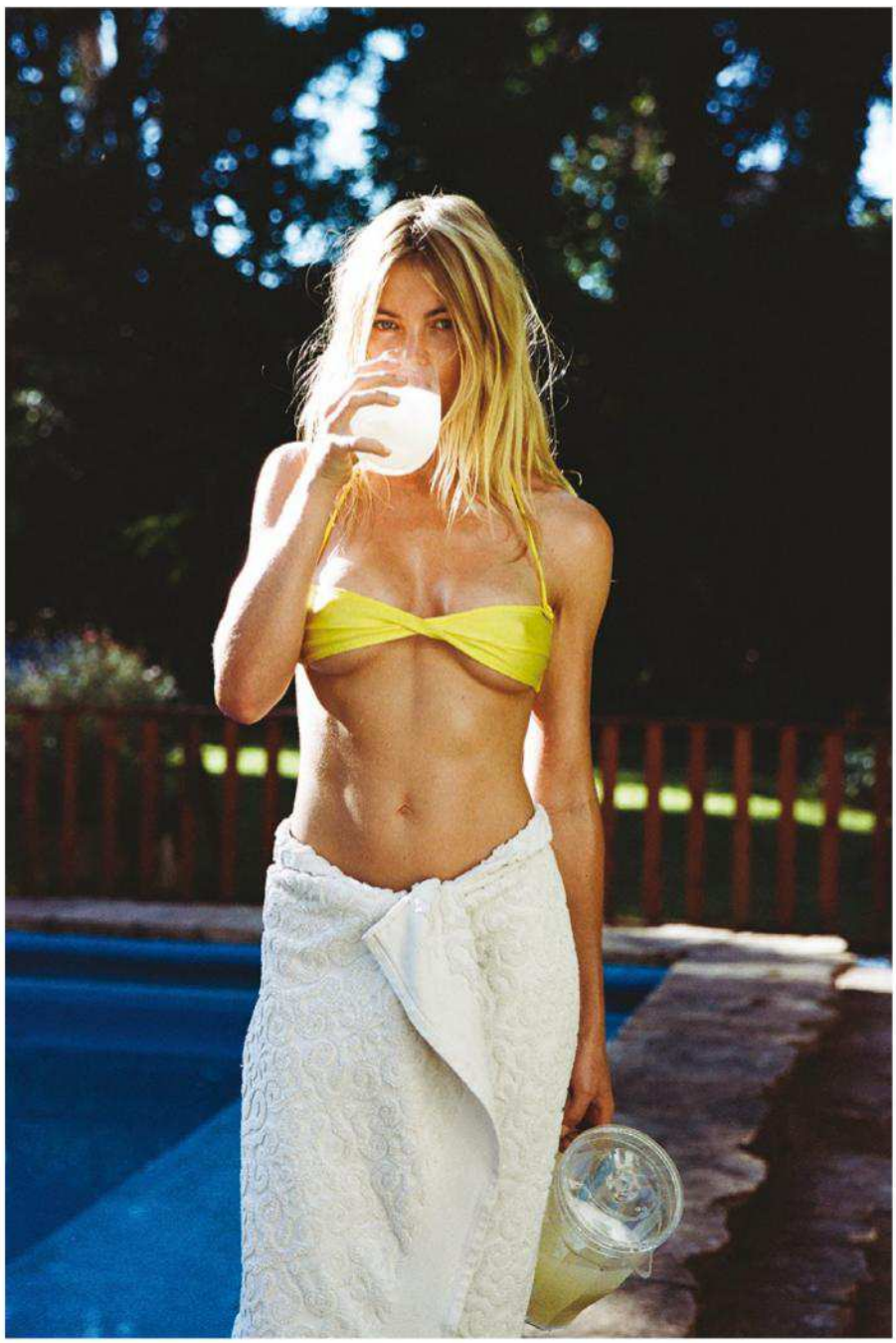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태양 아래 선 엘리스 테일러. 인간 프리즘이 되어 빛을 분출하는 호주의 핫 걸.

photography by *cameron hammond*









playgift : editor lee sunyoung
photographer park jaeyong

SEALED WITH A KISS

플레이보이가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



"Kiss me and you will see how important I am."

키스해줘요.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일 테니까.

–

실비아 플래스

귀한 보라색 장미가 만개한 순간을 자수정과 로즈 골드,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로즈 디올 프리 카텔란' 컬렉션 반지와 목걸이,
장미 넝쿨을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재현한 '부아 드 로즈' 컬렉션 반지는 모두 **Dior** 제품

REMINDS:

아트, 소설, 고전 인터뷰 등 4월, 〈플레이보이〉가 문득 리마인드해주는 것들.



All Hallows Eve, 2014, indian ink

ARTIST IN RESIDENCE - CARTOON - CLASSIC - FICTION - INTERVIEW CLASSIC - PLAYBACK



© Dakota Gordon



FEMME FATALE

STELLAR LEUNA

불안은 지금의 스텔라 루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펑크 록과 오컬티즘(Occultism)을 사랑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스텔라 루나.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흑백이다. 무엇보다 클래식하다는 이유에서다. "불안은 언제나 많은 영감을 줘요. 중국계 호주인으로 시드니에서 자란 10대의 저는 어딜 가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언제나 도망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자신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드 코어 록 밴드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 보드카 라벨을 디자인하는 등 아티스트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전시 제목도 자신의 작품 이름인 'Fatale'로 했다. 집착에 가까운 18세기 유럽의 낭만주의에 대한 애정을 작품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악마와 마녀의 모습이 공존하는 10대 소녀 일러스트를 주로 그린다. 불안함과 순수함을 동시에 담기 위해서다. 그녀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는 곧 시드니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만큼 인기를 얻었다. 브랜드 반스의 '반스 파크 시리즈' 아티스트로 참여해 스케이트장을 자신의 일러스트로 채웠고, 2015년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ll about Women' 페스티벌에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주로 록 밴드의 티셔츠와 코믹 북에서 볼 법한 그녀의 일러스트는 2018년 패션 컬렉션에도 등장한다. 어느 날 한 통의 낯선 메일이 왔고, 거기엔 그녀의 일러스트를 프라다 컬렉션에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작 당사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다고. 몇 개월 후 밀라노에서 열린 프라다 2018 S/S 컬렉션에 일러스트 'Fatale'이 런웨이에 올랐다. 1940년대 미국의 만화가 준 타프 밀스(June Tarpe Mills)의 코믹 북에 등장하는 히로인에서 영감을 받은 'Girl Invented'라는 주제의 컬렉션. 그녀를 포함한 8명의 아티스트가 작업한 여성 일러스트가 런웨이를 꾸몄다.

"밤을 새면서 쇼를 생중계로 봤어요. 영상을 다 본 다음에는 SNS에서 해시태그로 올라온 제 작품을 하나하나 찾아봤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프라다 쇼에 쓰인 스텔라 루나의 작품은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Fatale'이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담배를 물고 있는 단발머리 소녀. 그 소녀는 선글라스 뒤로 표정을 숨긴 채 정면을 담담하게 응시하고 있다. 선글라스에 불타는 집과 차가 비친다. 카오스 상태에서도 '스스로 강해지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곧 프라다와 함께한 작업이 끝날 테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뮤직 비디오나 앨범 재킷 작업도."

(좌)
Devil's Music,
2014,
indian ink
(아래)
Fatale,
2014,
indian 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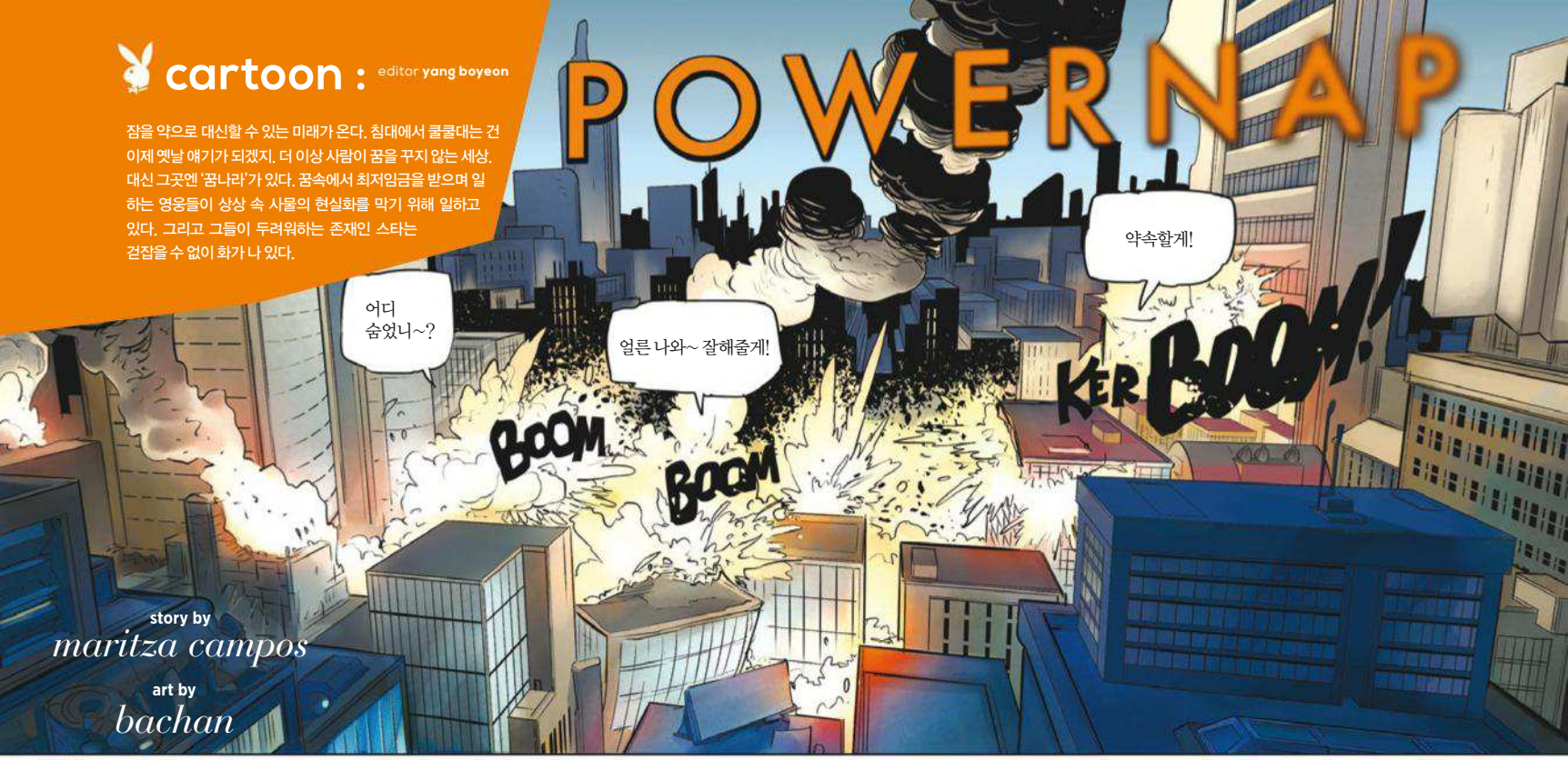
(좌)
Feeding Ritual,
2014,
indian ink
(아래)
Doppelganger,
2014,
indian ink





cartoon : editor yang boyeon

잠을 약으로 대신할 수 있는 미래가 온다. 침대에서 쿨쿨대는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되겠지. 더 이상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세상. 대신 그곳엔 '꿈나라'가 있다. 꿈속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영웅들이 상상 속 사물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스타는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 있다.



story by
maritza campos

art by
ba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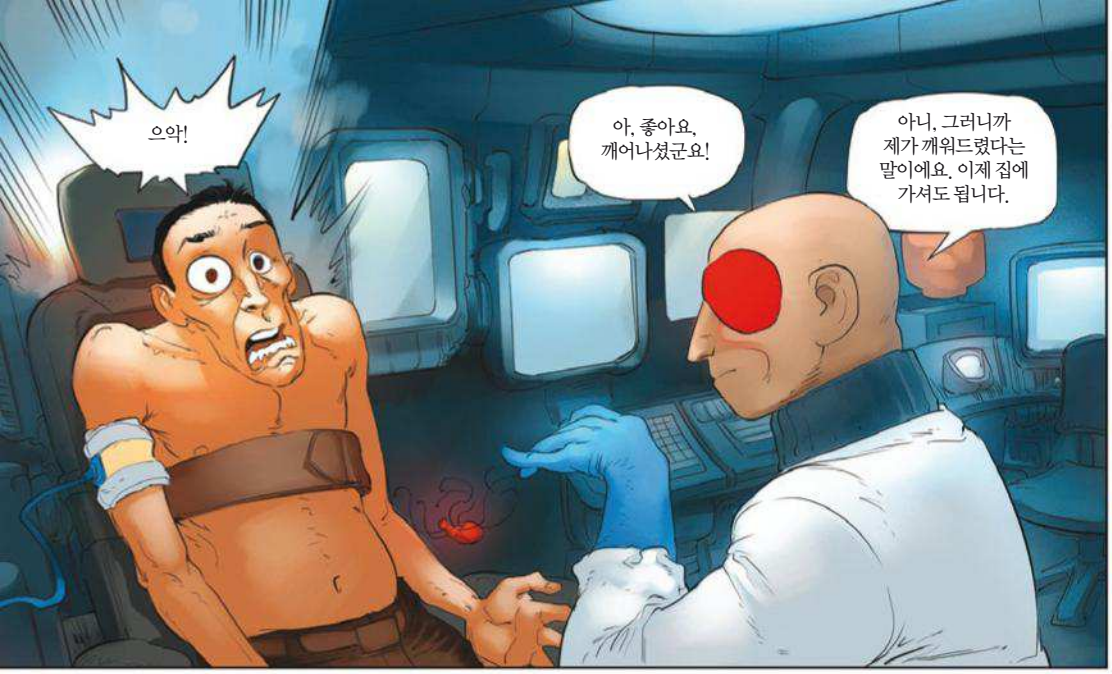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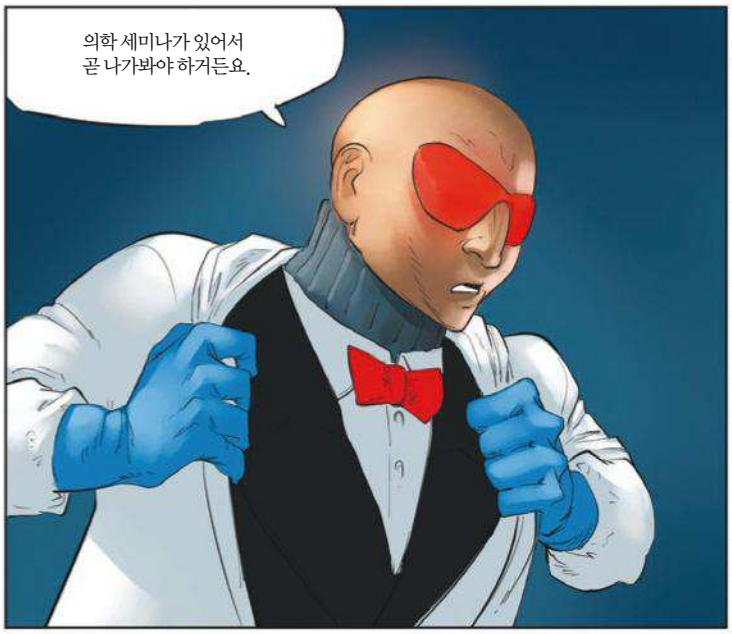

후,
이제 다 죽은 건가.
여기는
제대로 버티는
놈들이 없네?
쳇,
이렇게 수준
낮을 줄이야.
SHHWWN
!!!!
SNIKT!
ZIP
이봐! 이게
무슨 짓이야?!
얼굴을 베려던
게 빗나간 거라서
말이야!
SMASH
누구 맘대로!
THMP!
CLIK
CLAK
엣!
오, 이런,
미안해.
THOOM!
THOOM!
THOOM!


미사일을 무기로 싸울 땐 검 따윈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안녕.
젠장!
SQUISH
난 다 보이지~
BOOM
CRACK
WHACK
ARGH!
CRUNCH
꼴 좋네. 이제 누가 그녀를 해치우지?
네가 해! 그건 네가 전문이잖아!
이봐, 전문가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중 누가 새로운 전문가가 될 거고?
어쩌면 우리 눈엔 안 보이는 천사를 보게 될지도 몰라.
죽고 싶다 이거지?
죽어볼래, 어?
으.
천사들은 내가 스타의 '핵똥침'을 맞고 나서야 마중 나오겠지.
일단 가봐. 카프카가 무기를 던져줄 거야.
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던진다고?


어,
안녕?
널 보낸 건
수녀들이지?
절대 아냐.
제발 그러지 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알았지?
그냥 네가…
항복하는 건 어때?
아, 그래?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군.
아니 진짜야!
슈퍼 울트라건으로 널 한 방에
죽여버릴 수도 있다니까.
지금,
당장,
이라도.
휴,
알았어.
전송 완료!


으악!
아, 좋아요, 깨어나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깨워드렸다는 말이에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잠깐만, 뭐요? 이제 막 천하무적 스타가 항복하려던 참인데!
예~ 그렇겠죠. 스펜서 씨, 하지만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됩니다.


의학 세미나가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하거든요.


시급은 제대로 주는 거죠? 빨리 끝난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잡았다, 요놈.
이런 젠장!
하! 역시 넌 수녀들하고 한패였어!
기도나 하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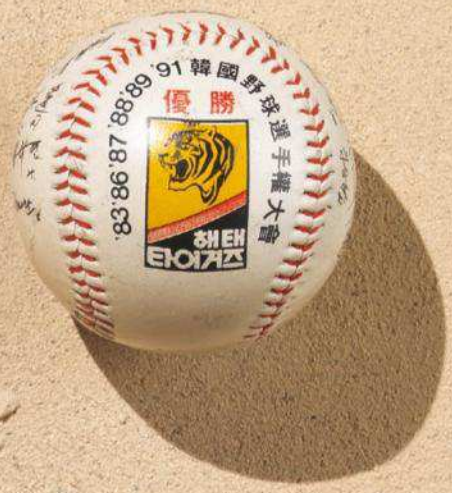

잠깐만요! 아직 모르시나 본데,
총기 휴대가 법으로 금지라는 뉴스 아직
못 봤어요?
칫,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찌질아!
진짜예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GGGK
뭐라고?
그럼 누가 내 노동료를 지불하지?
제 말이 그거예요.
MOVIES
이런,
그럼 이제 난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저야
모르죠…
혹시…
저랑 영화 보러 안 갈래요?
SNRKH..



박수동

번데기 야구단

야구는
끝나지 않는다.



야구는 매일 한다. 오늘 경기를 놓쳐도 내일이 있다. 야구는 길다. 한두 시간쯤 딴청을 피우다 돌아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1년에 100경기 넘게 치른다. 그래서 야구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스포츠와 다를 수밖에 없다. 매 순간 일희일비하는 이벤트보다, 별일 없어도 매일 만나는 벗에 가깝다. 〈소년중앙〉에 연재한 〈번데기 야구단〉의 단행본 초판은 1979년에 나왔다. 만화에도 실명으로 등장하는 백인천과 김재박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 1982년엔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정열을, 온 국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국 프로야구가 정식 출범했다. 그해부터 겨울을 빼고는 매일 야구를 즐길 수 있었다. 어느 팀 어린이 회원이 되느냐가 교우관계를 좌우하던 날들, 박수동 화백의 그림 또한 매일 열리는 야구처럼 친숙하고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만화 속 주인공 뻔은 꿈을 꾼다. 국제경기에서 만루 홈런을 치는 꿈. 뻔의 아버지는 신이 나서 야구단을 만들고,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린다. 복덕방 아저씨가 감독을 맡고, 동네 친구들이 앞다퉈 모였고, 같이 여행을 떠나고, 경기를 치르고, 동네에 남은 친구를 그리워하고, 집에 편지를 쓴다. 야구는 연습조차 혼자 할 수 없다. 던지면 받아줘야 하고, 치면 잡아줘야 한다. 야구에 대한 기억에는 꼭 글러브를 낀 아버지가, 형이, 친구가 있다. 그렇게 야구엔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다. "장차 우리나라 온 국민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라는 뻔의 친구 메뚜기처럼 국가대표 4번 타자의 꿈을 꾸던 소년은 이제 퇴근 후 외야석에서 맥주를 마시는 중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야구 경기는 열린다. 그래서 올해도 꿈을 꾼다. 4월은 그런 달이니까. "아니 (복덕방) 영감님 야구를 할 줄 아세요?", "야구라면 자다가도 깨는데, 이래 봬도 나도 왕년엔 야구선수였어요." 봄의 야구장에서 어떤 날의 꿈과 오늘의 일상이 만난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로 사연이 날아왔다. 기억은 가짜일 수 없다.

by
백영옥


AIR

– 1 –

문제의 편지가 날아온 건 피디에게 라디오 디제이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이틀 후였다.

편지를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였다.

"작가님이 방송 중에 직접 읽기는 힘들겠죠?"

녹음 스튜디오로 들어온 연출 피디가 난감한 얼굴로 편지지를 내밀었다. 만년필로 썼는지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다.

"진짜 악필이죠? 일단 읽어보고 판단해주세요. 내용은 좋은데.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라디오에는 상품을 타기 위해 상습적으로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름을 바꾸거나, 이메일 주소를 수시로 바꿨다. 이런 사연을 선별하는 능력도 라디오 스태프에겐 필요했다. 방송국에는 블랙 컨슈머처럼 상품을 목적으로 가짜 사연을 수시로 보내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을 정도였다.

"작가님, 사연은 금요일 방송에 나갈 겁니다. 그날 스튜디오 녹음이 두 개니까 미리 원고 보내드릴게요."

피디가 잠시 나를 바라봤다.

"어제 국장님한테 불려갔다 왔어요. 작가님 못 잡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어디서 또 무슨 소문을 듣고 오신 모양인데…."

피디의 왼쪽 뺨이 쉼표처럼 패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꾹 참을 때 생기는 보조개였다.

– 2 –

나흘 전, 공원을 산책하다 벚꽃에서 연둣빛 새순을 봤다.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내고, 벤치에 앉아 그날 라디오의 클로징 멘트를 썼다. 벚꽃 피는 계절은 떠나기에도 머물기에도 좋은 때다. 햇볕에서 순한 봄 냄새가 느껴졌다.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로 가는 비행기 티켓과 일주일을 머물 호텔을 그곳에 앉아 결제했다. 발 뺄 구석을 사전에 없애버리고 싶었다.

몇 년 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회사 후배에게 은행에서 대출금을 빌려보라고 한 적이 있다. 농담이 아니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빚이 있으면 어쨌든 일은 하게 되어 있다.

"빚 갚는 맛에 일한다는 건, 비유하면 뭐랄까. 트레이너한테 준 돈이 아까워서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

"죽도록 싫지만 결국은 하게 된다?"

"그래. 사표 내기 싫어서 집이 아니라 회사로 택배를 불렀어. 순간의 기쁨과 함께 밀려오는 카드값 불안을 지렛대로 쓴 거지. 자본주의가 크게 번창한 이유를 그때 정확히 알게 됐어."

"월급의 절반은 먹는 데 쓰고, 절반은 먹어서 찐 살 빼는 데 쓰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머리가 좋은 후배였다.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울면 괴로우니까 웃는 법을 익힌 사람 특유의 위트가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8시 출근 10시 퇴근인 회사원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다. 작가와 회사원 생활의 병행이었다. 둘 다 잘해내긴 힘들었다. 일을 택했고 누구보다 빨리 승진했다. 가장 빨리 소진된 건 필연적이었다. 사표를 낸 후 보란 듯이 5년 넘게 불규칙적으로 살았다. 몸무게가 24kg까지 찌고 빠지는 급격한 변화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은 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

3년 넘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일주일 이상 서울을 떠난 적이 없었다. 새벽 3시 취침, 오전 10시 기상, 밤 11시 출근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만으로도 생활에 리듬이 생겼다. 오후만 있던 일요일처럼 마주치지 않고 스쳐 지나간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인생을 두 배로 당겨 사는 기분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다만 매일 밤 12시에 상담 프로그램을 맡게 된 소설가라는 자리가 참 애매해서, 사연을 읽다가 마음 찌그러지는 일이 잦았다.

– 32세 직장인 남자입니다. 며칠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한다고요.

사연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경우는 없다.

– 축의금 보낼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연애할 때 제게 준 선물 리스트 영수증도 있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어요.

사연은 예상 밖의 감정으로 흐르기 일쑤였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기출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친구, 연인, 가족, 회사 문제 같은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약간의 변주가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삶의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공식'을 외워 적용하면 관계 역시 얼마간 수월해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롭다.

문제는 거리다. 출근길 만원의 지하철에서 불쾌했던 이유, 책상에 금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협박했던 초등학교 때의 기억까지 관계의 문제는 결국 '거리'와 관련 있다. 정신과의사 김혜남의 책에서 사람 사이의 적정 거리에 대한 수치를 찾아냈다. 가족이나 연인같이 친밀한 사람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거리는 0~46cm, 친구와의 적정 거리는 46~1.2m, 회사 사람들과의 적정 거리는 1.2~3.6m. 저자는 그걸 휴먼 스페이스란 말로 표현했다. 삶이 기출문제였다면 이런 숫자들이 꽤 유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방송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깨져버렸다.

피디의 왼쪽 뺨이
쉼표처럼 패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꾹 참을 때
생기는
보조개였다.

사랑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 될 때,
우리는 대개
함정에 빠진다.
입고 있는
옷이라도 젖을까
허우적대다,
결국 미끄러진다.

– 암에 걸렸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된다는 수학 선생님 말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알면서도 수학 같은 건 포기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인생이 수학은 아니다.

–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사연은 한 번 더 항암 치료를 원하는 가족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괴롭다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열두 차례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은 육신은 거덜나 있었다. 질문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국 질문일 때가 있다. 가장 답이 어려운 경우다. 어떤 질문 앞에선 말문이 막힌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침묵'이란 말이 가능하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 놀랍게도 할 얘기가 많을 것이다.

– 애인의 불륜을 목격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피디가 내게 건네준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흔히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리의 반대말은 복잡함이다.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더는 살고 싶지 않은 암 환자와 애인의 불륜을 목격하고도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늘 있었다. 유망주지만 춤추고 싶지 않은 무용수,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글 쓰고 싶지 않은 작가, 유능한 팀장이지만 직장에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인처럼 말이다.

어느새 삶의 궤도를 이탈해 안개 속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다. 살기 위해 수술받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헤어지지 않고, 헤어진 오랜 연인에게 뒤늦은 복수를 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이 편지가 가진 복잡성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편지는 내게 익숙한 한 이름으로 끝났다.

나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헤어진 옛 연인의 이름이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그의 말은 예상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끔찍하게 무서웠다. 갑자기 진공상태처럼 그의 말이 멀찍이서 들렸다. 예상하지 못한 건 오히려 내 반응이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실수였다. 그때도 나는 그걸 알았다.

"기억할게!"

그것이 10년 전,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금세라도 눈물이 고일 것처럼 그의 눈 주위가 빠르게 충혈되고 있었다. 그때는 나와 헤어지는 게 슬퍼서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알 만큼의 실패가 내 안에 쌓인 탓일 거다. 눈물을 흘린 건 벅차서, 드디어라는 회한 때문이었을 거다. 사랑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 될 때, 우리는 대개 함정에 빠진다. 입고 있는 옷이라도 젖을까 허우적대다, 결국 미끄러진다. 어째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동사를 쓰는가. 그것은 의리를 지키지 못한 자가 흘리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모든 깨달음은 사후적이다. 사랑이 끝나야 그제야 시작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는 내게 여러 번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뭐가 미안하냐고 묻길 원하는 사람 같았다. 그러니 애써 물을 필요가 없었다. 일부러라도 묻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헤어지는 연인들이 현명해지길 원하는 건 무리다. 사람은 끝까지 어리석다.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바보가 된다.

– 작가님의 방송이 시작된 첫날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꼭 기억해주세요.

피디가 건네준 편지의 마지막 말은 '기억해주세요'였다.

'기억할게'와 '기억해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할까.

이것이 만약 소설이라면, "기억할게"라고 떠난 남자에게 "기억해줘"라고 답한 여자가 등장하는 장편이라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떠해야 할까. 나는 피디가 건네준 편지를 손에 구겨 들었다.

손으로 쓴 편지의 효용성이 직접 쓴 정성과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편지가 한때 사랑의 증거였다면 그것은 떠나버릴 때조차 사랑에 복무한다.

옛 편지는 모닥불에 던질 수 있다. 갈가리 찢어버릴 수 있다. 이별의 예식에 이보다 어울리는 건 없다. 활활 타오르는 옛 편지들은 과거의 이별을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증표가 된다. 사랑의 증거를 없애버린다는 건 그것을 간직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기억은 결코 연대기 순이 아니다.

나는 잘못 인쇄된 책처럼 엉망진창인 글씨를 생각했다. 뒤죽박죽 엉켜버린 기억 속의 더 낯설어진 그가 서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내게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답장 없는 편지를 계속 보낸 건 나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연달아 문자메시지가 울렸다. 피디였다.

– 작가님!!!!! 그 사연 방송 못합니다!!!!!!!!

문자메시지 속 느낌표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열뜬 분노와 흥분이 느껴졌다.

나는 손 안에 움켜쥐었던 편지를 폈다. 90대 노인의 얼굴처럼 우글우글 주름이 가득해진 편지의 일부 글자들이 희미해져 있었다. 편지를 조심스레 펴자 구깃해진 편지지 사이 글자들이 우루루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이 불었다.

편지지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렸다. 금세 찢어질 것처럼.



"가짜 사연이에요!"

피디가 말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이랬다.

퇴근길, 그는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의 맨 뒷칸에 탔다. 여느 때처럼 그는 자신이 늘 서던 자리로 가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그가 서 있는 오른쪽에서 한강이 보였기 때문이다. 한강을 지나며 도심의 불빛을 보거나 낙조를 보는 게 지난 7년 간 이어진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른쪽 방향에 교복을 입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서 있었다. 그는 곧장 헤드폰을 끼었다. 친분이 있는 기획사 이사가 건네준 아이돌 가수의 음원을 들을 생각이었다.

사실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퇴근길이었다.

지난 7년간 매일 타는 지하철이었고, 매일 내리는 3번 출구였고, 2번 엘리베이터였고, 매일 보는 한강이었다. 하지만 그날, 유일하게 다른 딱 한 가지 점 때문에 그의 눈에는 전혀 뜻밖의 풍경이 들어왔다.

한강을 등지고 그가 본 풍경은 낯설었다. 그는 한강 대신 담벼락에 매달리듯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아파트를 바라봤다. 같은 높이의 아파트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덤덤하게 점거하고 있었다. 고개를 쳐들어도 높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파트가 가깝게 느껴졌다. 곧이어 담벽락 위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하면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이나 속옷 빨래가 보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정작 보게 된 뜻밖의 것이었다.

"찻길에 여자가 보였어요."

"여자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차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위험천만하게 걷고 있는 여자 한 명이 보였다. 여자는 긴 머리에 나팔바지 같은 걸 입고 있었다. 차가 빠르게 지나갈 때마다 여자의 머리와 바지가 깃발처럼 미친 듯이 나풀거렸다.

"애인과 싸우고 도중에 차에서 내린 여자처럼 보였어요."

그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청평인지 가평인지 기억마저 희미하지만 화가 난 아내가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른 후, 거의 다이빙하듯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음… 이게 어제 준 편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가 피디의 얼굴을 보며 물었을 때, 그는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실타래처럼
많은 것들이
뒤엉키면서 몇 가지
새로운 가설들이
떠올랐다.

"그때 제 차 안에 있던 책이 작가님 소설이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거든요. 아내가 고집이 워낙 세고 독한 데가 있어서… 여튼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사연은 내가 10년 전, 한 계간지에 발표한 단편과 내용이 같았다. 사연 속에 등장하는 문장 몇 개는 아예 똑같은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이나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의 지명도 같았다.

"그 사연은 작가님 소설을 표절했어요. 어쩐지 처음부터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분이요. 사연 주신 분 어쩐지 이상했어요."

피디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치 전화 올 줄 알고 기다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를 기다렸다?"

"네. 얘길 많이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분, 작가님 팬인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나는 피디를 바라봤다.

"여자라고요?"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실타래처럼 많은 것들이 뒤엉키면서 몇 가지 새로운 가설들이 떠올랐다. 소설을 쓰느라 여러 개의 구성안을 놓고 고민할 때처럼, 가지와 결론이 달라진 이야기 서너 개가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스튜디오 안에 놓여 있던 선인장이 보였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꽃이 피어 있었다. 빨간색 꽃이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피디님…."

나는 피디의 얼굴을 바라봤다.

"소개하죠."

피디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작가님, 그거 가짜 사연이라니까요. 그것도 작가님 소설을 베낀건데…."

나는 청평인지 가평인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디의 기억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편지는 직접 읽을게요."

편지는 아직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작가님, 하지만 제가 분명히. 게다가 글씨도 정말 엉망이고 타이핑도 해야 할 텐데…."

나는 최대한 무표정하게 피디를 바라봤다. 10년 전, 헤어지면서 그에게 슬픔과 분노를 들키지 않기 위해 썼던 안간힘을 기억한 게 얼마간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 사연, 표절이 아니에요."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 5 –

삶의 중요한 질문은 잘못된 형태로 발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편지를 누가 왜 보냈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다.
왜 '지금' 보냈는가다.
내가 라디오를 그만두려는 지금.

– 6 –

헤어진 연인이 유명인이 되었다.
언젠가 자신에게 했던 얘기가 책이 되거나 노래가 되어 발표된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서점에서, 길거리에서 그 책을 들고 있거나 그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이런 종류의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라디오를 켜면 옛 연인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과거가 단절되지 않은 채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이다. 나는 '거의' 확신한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잊지 않는 게 아니다. 잊는 능력이다.
피디가 말한 소설의 제목은 '거꾸로'였다.
희완은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희완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내 주위에 없었다. 하지만 그 소설은 픽션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두 명이었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헤어진 애인의 이름은 희완이 아닌 완희였다.
'거꾸로'는 그러므로 표절이 아니었다.
완희의 이야기를 훔쳐 희완의 얘기로 만든 건 그 시절의 나였다.

위로란 한 번의
위로가 아니며,
구원은 단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리내서
읽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한 번
위로받는다.

– 7 –

나는 사연을 방송한 후, 계속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디제이를 그만두기로 한 그날이 다가오도록, 아무 기별도 오지 않았다. 내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의 애인인지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였다.
디제이를 그만두겠다는 예고 방송을 한 날, 팀 전체가 회식을 했다. 마지막 회식이 될 자리였다. 다들 술을 많이 마셨고, 삼겹살을 많이 구웠고, 덕담과 칭찬과 아쉬움이 오갔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 피디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작가님, 저 진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꼭 답을 해주셔야 돼요. 나랑 약속부터 하세요!"
그의 얼굴은 술기운에 벌게져 있었다.
"그날, 왜 웃으셨어요?"
"내가 언제요?"
"발 빼시려는 겁니까? 표절 아니라고 하면서 웃으셨잖아요. 배꼽 빠진다는 듯이 크게 웃었잖아요. 표절이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작가한테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표절 아니라니까."
"작가님!!!!!!!! 제가 그 일 터지고 다음 날 국립중앙 도서관까지 갔어요. 출판사에도 전화했고요. 계간지 좀 보내줄 수 있느냐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웃으셨어요? 그거 표절 맞잖아요. 맞잖아요, 표절! 표절 맞다고!"
나는 피식 웃었다. 크게 웃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좋은 선생이라면 단번에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학생보다 더 많이 배우는 건 언제나 선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닌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이 배운다.
사랑이 소중하지 않아서 빨리 헤어지라고 말한 게 아니다. 사랑이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 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거다. 잘못된 관계를 붙잡고 있다는 건 좋은 관계가 오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000개가 넘는 사연을 방송에 소개하고 상담하면서 내가 알게 된 두 가지가 있다.
위로란 한 번의 위로가 아니며, 구원은 단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한 번 위로받는다. 중요한 건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편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그것이 이미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편지'라는 형식이 가진 힘이다. '글'을 쓰기 위해선 일정 부분 내 몸 같던 고통을 분리해야 하고, 그런 분리가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다.

소설가 백영옥은 2006년 단편소설 〈고양이 샨티〉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2008년 첫 장편소설 〈스타일〉로 세계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고,
〈다이어트의 여왕〉, 〈아주 보통의 연애〉, 〈애인의 애인에게〉 등 주로 여자, 사랑, 삶에 관한 소설을 썼다.
최근 그의 산문집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은 출간 17개월만에 30만 부 판매를 돌파했다.

이때 시간은 결코 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릎이 꺾인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란
말을 쉽게 해선 안 된다.
어떤 분노는 그것이 분노인 줄도 모르다가,
사람을 통째로 흔들기 때문이다.
헤어진 옛 연인에게 청첩장과 함께 계좌번호와
영수증을 보낸 여자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쉽게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쉽게 지치거나
낙관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예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너도 아이를 낳아보면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을 쉽게 역지사지에 대한 예시쯤으로 이해한다.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거란 뜻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아이를 낳아 키우니 부모님의 고통과 힘듦을 이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무심한 말과 정신적 폭력을 용서할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다. 지난 3년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하는 게 사랑이나 미련 때문은 아니다. 어렵게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서, 과거 자신의 사랑이 감정적, 경제적 착취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때 시간은 결코 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릎이 꺾인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란 말을 쉽게 해선 안 된다. 어떤 분노는 그것이 분노인 줄도 모르다가, 사람을 통째로 흔들기 때문이다. 헤어진 옛 연인에게 청첩장과 함께 계좌번호와 영수증을 보낸 여자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에 대해 쉽게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쉽게 지치거나 낙관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먼지가 쌓이고, 배가 고프고, 치워야 할 그릇이 쌓이는 것처럼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테니까.

"그 편지, 글씨가 엉망이었잖아요. 제가 발로 써도 그보다는 잘 쓰겠어요."

피디가 갑자기 발을 치켜들더니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내가 왼손으로 써도 그보다는 잘 쓰겠어요."

막내 작가가 왼쪽 손가락을 꿈틀거렸다.

"내가 혓바닥으로 써도 그보다는…."

조연출이 나를 보며 혓바닥을 내보였다.

"이제 얘기해주세요. 방송 그만두는 진짜 이유."

피디가 빤히 나를 바라봤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었다.

"사실 편지가 왔어요."

피디가 말했다.

"사연 소개하고 이틀 후에 도착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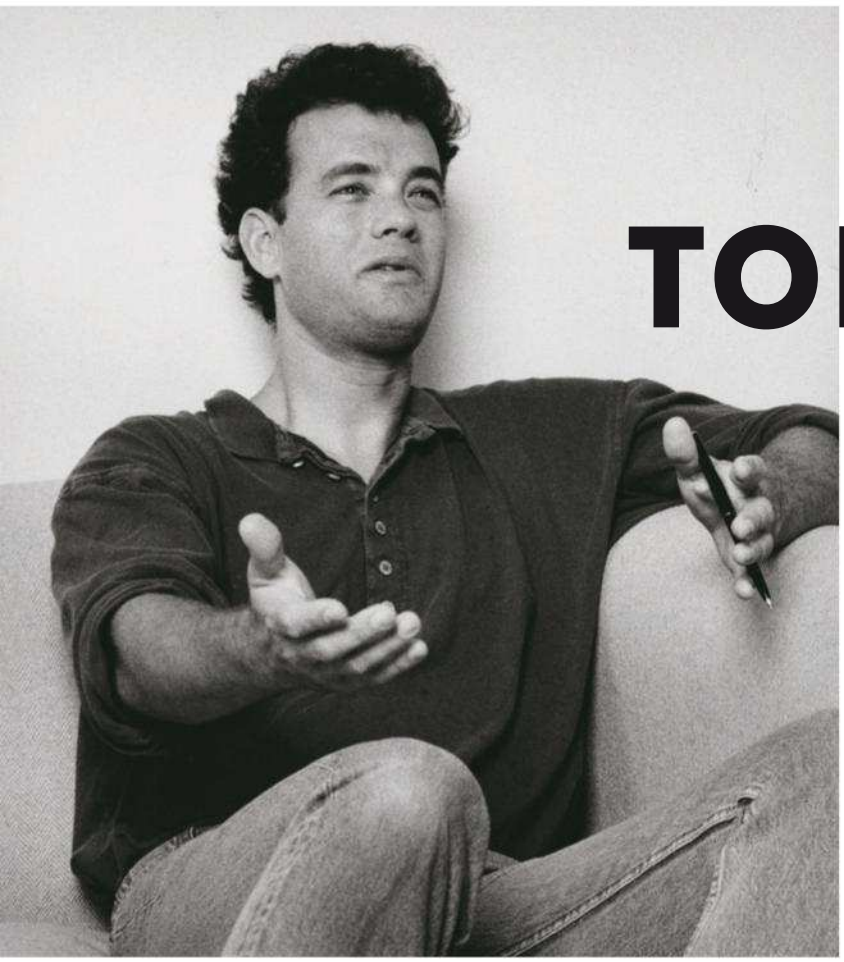
열어놓은 창문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저 바람을 맞으면 내일이라도 곧 벚꽃 몽우리가 터질 것이다. 이 바람 끝에는 매화와 목련이, 저 바람 끝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필 것이다. 봄은 예감으로 가득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작가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피디의 왼쪽 뺨이 쉼표처럼 패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꾹 참을 때 생기는 보조개였다.



THE MOST HONEST
TOM HANKS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스타들의 세계가 화려하고 호사스럽지만은 않은 이유는 톰 행크스 같은 묵직한 영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두 번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 전, '오스카 기대주'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를 〈플레이보이〉가 만났다. 1989년,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닌 가장 '행크스다운' 34세의 톰 행크스 이야기.

by
david sheff

photography
by
wayne williams

사학자 대니얼 부어스틴의 말을 빌리면, 할리우드는 '세상에 잘 알려졌다고 잘 알려진' 사람들로 가득 찬 벨루가 캐비아 캔 같다. 스크린 밖에선 파파라치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배우들과 특정한 사회적 대의를 지지하는 배우들이 있다. 재산이 엄청나다고 알려진 배우들, 이름을 내건 향수로 알려진 배우도 있다. 핵 실험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이름을 떨친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수를 써도 체포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배우도 있다. 머리카락 때문에 유명한 배우도, 텁수룩한 수염 때문에 유명한 배우도 있다. 그리고 톰 행크스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가 유명해지기 위해 카메라 밖의 이미지에 의존해야 했다면, 그는 유명해지지 못했을 거다. 그 스스로도 자신이 딱히 잘생기지 않았으며, 재치 넘치는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달변가도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 그는 주먹다짐을 하지도, 마약을 하지도, 술을 진탕 마시지도, 구설수에 오르거나 정치에 대해 공개적 발언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요즘 사방에서 톰 행크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대형 스크린에서부터 〈SNL〉의 시즌 프리미어, 〈뉴스위크〉의 커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 사내에게 오스카상을 안겨주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한 가지 일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한다는 것. 행크스는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한다. 커리어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평론가와 동료 배우들이 그에게 표하는 경의는 놀랄 만한 수준이다. 그는 캐리 그랜트와 지미 스튜어트 등 위대한 배우들과 비교되곤 한다. 샐리 필드와 재키 글리슨 등 연기파 배우를 상대로 연기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과묵한 평론가들도 그를 묘사할 때는 로버트 드니로와 알 파치노, 잭 니컬슨 같은 배우들에게 쓰기 위해 아껴둔 단어를 총동원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연기를 대단히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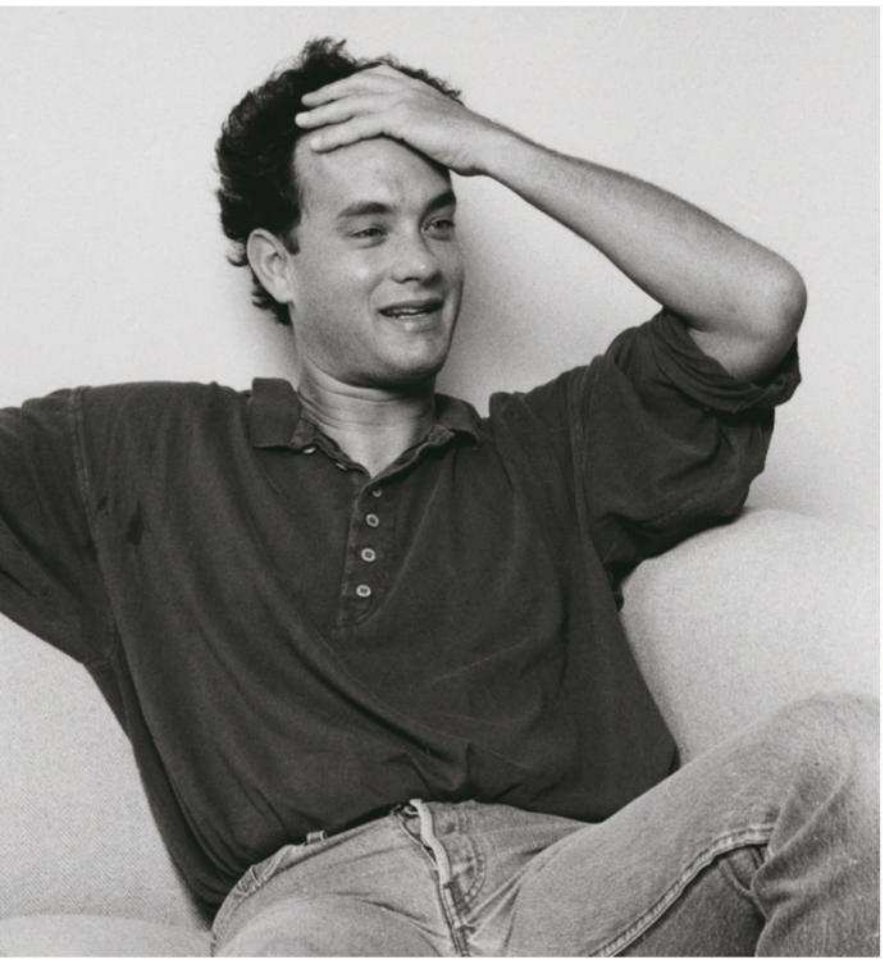
1988년은 '톰 행크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년과 어른의 신체가 뒤바뀌는, 매번 비슷한 줄거리의 영화들이 할리우드를 침공하는 사이 〈빅〉(1988)이 공개됐다. 그의 경쟁자 중에는 더들리 무어와 저지 레인홀드도 있었다. 하지만 〈빅〉에서 행크스는 다른 영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던 솔직한 모습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안겼다. 자신의 몸이 커지면 좋겠다고 바라다가 실제로 그렇게 된 열세 살 소년의 이야기는 개봉하자마자 크게 히트를 쳤다. 성공한 모든 코미디가 그렇듯, 〈빅〉에도 인상적인 순간이 있다. 어른이 되고 처음 참석한 파티에서 캐비아를 먹고 역겨워하는 행크스, 초대형 건반 위에서 로버트 로지아와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는 행크스, 엘리자베스 퍼킨스에게 정말 자신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면 자기는 위에 있고 싶다고 말하며(이층 침대의 위층에서

자고 싶다는 뜻이었다) 달아오른 그녀의 열망을 식혀 버리는 행크스, 몸처럼 거시기도 커졌는지 확인하려고 팬티 속을 들여다보는 행크스, 실타래처럼 긴 줄들이 뿜어져 나오는 스프레이가 마치 입에서 발사되는 것처럼 장난을 치는 행크스. 그리고 물론, 조그만 애피타이저용 옥수수를 점잖게 한 줄씩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행크스까지.

〈브로드캐스트 뉴스〉(1987)와 〈애정의 조건〉(1983)을 코미디언 역할을 맡아 고군분투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 충분히 잘 연기해내기 어려운 역할. 그는 마이크로 쭈뼛쭈뼛 다가가는 법, 대사와 파트너 없이도 웃긴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펀치라인〉이 개봉했을 때, 평론가들은 영화 자체보다 행크스의 연기가 더 낫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후 오스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행운과는 거리가 먼 그의 과거를 감안하면, 이 모든 상황은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다. 1956년에 태어난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다섯 살에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 남동생과 떨어져 지냈고 아버지, 형, 누나와 함께 살았다. 행크스의 아버지는 외식업계에서 일했지만, 이 가족은 툭하면 이 도시, 저 도시로 이사를 다녔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와 그의 자녀 5명을 가족으로 맞았다. 2년 후 또다시 이혼이 찾아왔고,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 들어왔다. 행크스의 친어머니는 더욱 불안정한 삶을 보냈다. 세 번이나 결혼을 했고, 성장기의 행크스는 친어머니를 거의 만날 수 없었다.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란한 가정은 아니었던 셈이다.

학교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딱히 취미가 없던 그는 새크라멘토의 지역 전문대학에서 드라마 수업을 들었고, 드디어 몰입하고 싶은 관심사를 찾았다. 그가 맡은 첫 업무는 무대 담당이었고, 이후 그는 승승장구했다.





연출한 〈빅〉의 제작자 제임스 브룩스는 사실 그 역을 해리슨 포드나 로버트 드니로가 맡길 바랐다. 행크스는 그가 운 좋게 건진 제3의 선택이었다. 영화는 제목처럼 '큰' 성적을 거뒀다. 1000억 이상을 벌어들이며 1988년 최고 히트작 중 하나가 됐고, 극찬을 받은 행크스를 금세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펀치라인〉(1988)도 빼놓을 수 없다. 〈빅〉보다 먼저 제작했지만 뒤늦게 개봉한 이 영화에서 행크스는 재능이 뛰어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스탠드업

행크스는 새크라멘토의 학내 극단에서 일할 때 배우 사만다 루이스를 만났다. 두 사람은 뉴욕에서 결혼하고 이곳으로 이사했으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내를 샅샅이 뒤졌다. 힘겹게 삶을 이어갔지만 결국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야 했고, 여기서 행크스는 처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제안받았다. 대부분의 장면에서 행크스가 피터 스콜라리와 함께 여장을 한 채 등장하는 시트콤 〈절친〉의 배역이었다. 열성 팬들이 있었지만, 이 시트콤은 2년 후 제작이 취소됐다. 행크스가 처음으

로 메이저 영화의 배역을 따낸 건 바로 그때였다. 론 하워드 감독의 〈스플래쉬〉(1984)에서 인어와 사랑에 빠진 사내 역을 맡은 것이다. 이 영화는 1984년 최대 히트작 중 하나가 됐다.

〈스플래쉬〉 이후 행크스는 6년간 무려 12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지만, 그 모든 영화의 공통점은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의 천재가 주인공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총각 파티〉(1984)의 술과 여자들을 좇는 사내, 〈머니 핏〉(1986)의 다 쓰러져가는 맨션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새 주인, 〈광고 대전략〉(1986)의 무뚝뚝한 아버지를 둔 광고계 신동, 〈드라그넷〉(1987)의 천하태평하지만 안전한 섹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조심성 있는 남자이자 댄 애크로이드의 파트너.

행크스와 루이스는 1987년에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두 명 있었다. 행크스는 코미디 〈정글의 플레이보이〉(1985)에 평화봉사단 단원 역할로 출연하며 만난 리타 윌슨과 작년에 재혼했다. 그의 다음 영화는 곧 개봉 예정인 〈유령 마을〉(1989)로, 브루스 던과 캐리 피셔가 출연한 코미디다.

〈플레이보이〉가 톰 행크스의 삶을 추적하기로 결정하자, 많은 여성이 본지의 필자이자 인터뷰 진행자인 데이비드 셰프의 조수로 따라가겠다고 나섰다. "내가 녹음기 틀어줄게요. 어때요?" 누구보다 프로 정신이 투철한 셰프는 그 임무를 용감하게 혼자 수행했다. 그는 행크스와의 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행크스는 운동복과 스니커즈 차림이었고, 면도를 깜박한 상태였다. 미키 마우스 우편함과 칩앤데일 재떨이 바로 옆에 있는 디즈니 스튜디오에 자리 잡은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날. 사무실 위치가 디즈니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빌딩인 것은 어느 정도 적절한 듯했다. 안으로 들어가보았는데, 그곳이 행크스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다. 매킨토시 SE 위쪽의 벽에는 '친애하는 톰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넣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의 결혼을 축하하고, 〈탑건〉(1986)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를 극찬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물론, 행크스는 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행크스를 만난 순간, 그가 상냥하고 겸손하며 딱 한 가지에만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언론계 종사자는 그 누구도 집에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집이 LA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철저하게 지키는 비밀 중 하나인 것 같았다.

여러 차례 만나며 진행하던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집 밖으로 마중을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서 있는 거기가 외부인이 우리 집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지점이에요." 나는 겨우 차고에 있었을 뿐이다. 위치를 밝히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의 집은 특별히 호화롭지도 않고 집 앞에 있는 차들도 명품은 아니었다는 말은 해둬야겠다. 그날 아침, 그는 웨트슈트 차림이었다. 우리는 그가 최근 즐기기 시작한 서핑을 하러 갈 예정이었다.

그는 차고에서 서핑 장비를 꺼내 트렁크의 골프 클럽 세트 옆에 밀어 넣었다. 차체 위에 서프보드를 고정하고, 차에 탄 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그는 커다란 보온병에서 따른 커피를 내게 건넸다. 그가 직접 내린 커피였고, 이미 알맞은 양의 크림이 들어 있었다. 해안도로를 향해 차를 몰고 선셋 불러바드를 내려가는 동안, 그는 커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말리부 해변에 차를 세운 그는 내게 타월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바닷가에서 더 편안히 지내려면 타월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 '배려심이 참 깊군.' 게다가 그는 그렇게 끝내주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나는 이 코미디 배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언제 웃기기 시작하는 거야? 농담은 언제 나오는 거지?

그때, 파도가 밀려왔다. 큰 파도는 아니지만, 파도는 역시 파도였다. 행크스는 파도를 잡으려고 미친 듯이 첨벙거렸다. 파도는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시 후 또 파도가 다가왔는데, 그 파도도 놓쳤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기다렸다. 양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저 멀리 있는 보드 위에서.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고, 그는 다시 첨벙거리기 시작했다. 이번 파도는 제대로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일어서려다가 쓰러졌다. 서핑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된 사람치고는 의지가 굳센 사람인 게 확실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바다로 향했다. 어느새 그는 저 멀리 있었다. 첨벙거리다가 파도를 놓치고, 다리를 보드에 올렸다 내리길 반복하며, 머리카락은 정수리에 달라붙은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점점 흥미로워졌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카메라가 지금 그를 찍고 있다면, 행크스가 등장하는 전형적인 장면일 거다. 어떤 일에 극도로 진지하게 몰입하는 그는 순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우스꽝스럽고 얼빠진 모습이었다."

● **Playboy:** 당신은 전성기를 만끽하고 있어요. 평론가들은 당신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대중도 당신을 사랑하는 듯합니다.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없는데, 도대체 이게 웬 난리죠? **Hanks:** 내가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재치 넘치고 웃기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면 좋겠어요.(웃음) 사실, 나도 감을 못 잡겠어요. 100만 년이 지나도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내 할 일을 할래요.

● **Playboy:** 톰 행크스를 다루는 글에는 '상처받기 쉬운(vulnerable)'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Hanks: 끝내주네요. '상처받기 쉽다'라. 또 '그는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것처럼 보인다'는 문장도 있죠.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기 문제는 두세 번 연달아 히트를 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도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 **Playboy:** 캐리 그랜트와 비교되는 건 어떤가요?
Hanks: 〈정글의 플레이보이〉가 나온 후에 시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에서 나는 보스턴 억양을 구사하고 옷을 굉장히 멋지게 입는 쿨한 남자죠.

● **Playboy:** 당신도 그랜트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Hanks:** 맞아요. 수많은 여성들이 캐리 그랜트를 사랑했고, 수많은 남성들은 딱 그처럼 되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런 비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글의 플레이보이〉에서 내가 연기한 남자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는 늘 상황에 어울리는 얘깃거리를 갖고 있고, 모든 여자를 사로잡죠. 제임스 본드 영화처럼 순수한 판타지예요.

● **Playboy:** 출연작 〈총각 파티〉도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죠. **Hanks:** 맞아요. 나는 〈총각 파티〉에서 여자랑 자지 않는 유일한 남자였지만요. 그 영화는 그냥 여성의 가슴을 보여주는 조잡한 로큰롤 코미디예요. 〈포키스〉(1981)랑 〈동물농장〉(1978) 같은 영화들이 잔뜩 만들어지던 시절의 영화였죠.

● **Playboy:** 10대들이 술 마시고 섹스하는 영화에 출연한 배우라는 이미지가 고정되는 걸 걱정하나요?
Hanks: 그 영화 이전에 〈스플래쉬〉에 출연했어요. 로맨틱한 주인공 역할이었어요. 물고기하고 사랑에 빠진 순수하고 상사병 걸린 사내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건전한 영화죠.

● **Playboy:** 영화계에 진출하는 데뷔작으로도 괜찮은 영화고요. **Hanks:** 맞아요. 내가 그 영화를 한 이유는 많은 거물급 배우들이 그 영화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당신이 거물급 배우고, 론 하워드 감독이 아역 배우 시절에 연기했던 오피 테일러가 당신에게 월트 디즈니를 위한 영화를 만들자고 한다면, 당신도 그 제안을 냉큼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 **Playboy:** 실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Hanks:** 굉장한 제안으로 들렸으니까요. 그때까지 영화에 출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스플래쉬〉와 〈총각 파티〉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는 못하겠어요.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 있으면서 그 배역을 따낸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요.

● **Playboy:** 그다음에 출연한 〈사랑의 스파이〉(1985)와 〈정글의 플레이보이〉가 개봉했을 때는 겸손했겠군요. **Hanks:** 그럼요. 히트작이 생긴 배우는 엄청

난 관심을 받게 마련이죠. 〈스플래쉬〉는 850억원 이상, 〈총각 파티〉는 420억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는걸?" 하지만, 두 작품 이후 무언가 새로운 걸 알아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오만하고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더군요.

● **Playboy:** 그게 당신한테 일어난 일인가요? **Hanks:** 사람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숭배하게 만들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 들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 일에 몸담은 건 재미있기 때문이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끝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이유가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을 통제해요. 하지만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관심을 모두 받게 되죠. 머리로는 온갖 종류의 기이한 편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고요. 요즘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꽤 잘 파악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만의 투쟁을 오래전에 끝냈어요.

● **Playboy:** 어떤 종류의 투쟁인가요? **Hanks:** '나는 지금의 모든 관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몰려와서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시기. 솔직히 말하면, 현재의 나는 스스로를 과장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해요.

● **Playboy:** 우리끼리 평론가로 변신해서 당신 출연작들을 비평해볼까요? **Hanks:** 좋아요.

● **Playboy:** 〈스플래쉬〉. **Hanks:** 많은 돈을 벌어들인, 정말 좋은 영화.

● **Playboy:** 〈총각 파티〉. **Hanks:** 줄거리가 진짜 재미있고, 놀랄거리도 많은 영화. 물론 역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영화.

● **Playboy:** 〈사랑의 스파이〉. **Hanks:** 아주 좋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뚜렷한 초점이 없고, 그나마 있는 초점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영화였죠. 관객이 제대로 이해할 만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아니에요. 돈도 전혀 못 벌었고요.

● **Playboy:** 〈정글의 플레이보이〉. **Hanks:**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60퍼센트 정도의 재미를 갖춘 영화. 나머지 40퍼센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판결은 관객의 몫이었는데, 그리 좋은 얘기는 듣지 못했죠.

● **Playboy:** 〈머니 핏〉. **Hanks:** 일부분은 아주 웃기지만, 대부분은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동안 돈을 꽤 많이 벌었지만, 그러다 흥행세가 뚝 멈췄어요.

● **Playboy:** 〈광고 대전략〉. **Hanks:** 약간은 분열된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죠. 웃겨보려고 애를 쓰면서도 감동까지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해온 연기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지붕을 뚫고 나갈 정도의 반응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썩 좋은 성적을 올린 영화였어요.

● **Playboy:** 〈에브리타임 위 세이 굿바이〉(1986). **Hanks:**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영화.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출연작 중 가장 아름다운 영화였죠.

● **Playboy:** 〈드라그넷〉. **Hanks:** 많은 돈을 벌었지만 기대만큼은 벌지는 못한 영화. 지나치게 복잡한 영화였어요. 영화 자체에 문제점이 많아요. 더 웃겨야 했어요.

● **Playboy:** 〈빅〉. **Hanks:** 관객의 의식을 솔직하게 어루만진 진짜 좋은 영화.

● **Playboy:** 〈펀치라인〉은요? **Hanks:** 뭐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제일 어려운 영화예요. 그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 **Playboy:** 짐작 가는 이유가 있나요? **Hanks:** 내게 이유를 가늠해보라고 한다면, 기를 쓰면서 부당한 비판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못한 짓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영화는 내가 한 일 중 가장 멋진 작업이었어요. 우리는 캐릭터에 대해, 나 자신의 여러 모습에 대해 적나라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하게 연기했죠.

사람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숭배하게 만들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 들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 일에 몸담은 건 재미있기 때문이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끝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 **Playboy:** 무슨 뜻이죠? **Hanks:** 〈펀치라인〉에서 내가 연기한 남자는 나의 모습 중에서도 최악의 측면이 반영된 캐릭터일 거예요.

● **Playboy:** 그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Hanks:** 우선, 그는 극도로 경쟁심이 강해요. 단점이라 해야 할 정도로요.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삶을 위한 행동과 생계를 위한 행동의 비중이 동등해요. 그처럼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요. 배우라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일하고 있을 때예요.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이후 조금 더 성숙해졌어요. 하지만….

● **Playboy:** 요즘 일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Hanks:** 연기자들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궤양에 걸리고, 마약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 **Playboy:** 6년간 12편의 영화에 출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Hanks:** 불안감은 부분적인 이유예요. 다시는 또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다는 기분이 매 순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곤 하죠.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성취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었지만,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만 같아요.

● **Playboy:** 〈뉴스위크〉 커버를 장식했죠? 세상의 인정을 받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던가요? **Hanks:**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 생각은 그냥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히죽거리지 않을 때 찍은 사진을 쓸 수는 없는 걸까?'였어요. 내가 정말 멋지고 잘생기게 나온 사진을 찍어놓고도, 이렇게 얼빠진 표정을 지은 사진을 썼더라고요.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뉴스위크〉의 커버 모델이 되길 원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줘요. 나는 내 출연 작품을 홍보하고 있으니 "그래, 좋아. 계속 밀어붙여"라는 말을 하게 돼요. 지금은 찬양 일색이지만, 분명 악평 일색인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대비해야 해요. 들려오는 말 중, 영원한 진실은 하나도 없어요. 특정 순간에만 맞는 말일 뿐이죠. 불과 몇 달 안에 역풍이 몰아치곤 해요. 지금 〈뉴스위크〉 커버는 누구죠? 제럴드 리베라네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 **Playboy:** 〈뉴스위크〉는 당신을 굉장히 다정하고 착한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당신은 심지어 그걸 주제로 〈SNL〉에서 독백을 했죠. 〈뉴스위크〉가 옳았나요? **Hanks:** 그들은 내가 크게 관심을 쏟지 않은 일을 보고, 다정하고 착한 성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혼동했다고 생각해요.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을 하려고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나요?"라고 말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들은 원하는 걸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나는 그들이 내게 무슨 옷을 입히고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건 아니죠. 신경을 쓰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걱정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아요.

● **Playboy:** 패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톰 행크스 컬렉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Hanks:** 지금 입고 있는 차림 그대로요. 무채색의 낡아빠진 옷들이죠. 라벨이 없어요. 어디에도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요. 요즘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옷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 **Playboy:** 셰어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런 것처럼 당신 이름이 붙은 향수를 내놓을 생각이 있나요? **Hanks:** 네. '바닐라 익스트랙트 행크스'. 귀 뒤에 살짝 뿌리세요. 정말 좋은 냄새가 날 거예요.

● **Playboy:** 〈펀치라인〉 비디오가 대여점에 깔리기 전에 얘기해보죠. 실제 코미디언을 그 역할에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Hanks:** 당신이라면 후기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 때 화가 역할

에 실제 화가를 캐스팅할 건가요?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 **Playboy:** 왜죠? **Hanks:** 예를 들어 〈레니〉(1974)는 위대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지독히도 정확하게 다룬 영화였어요.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웃긴 영화가 아니었죠. 관객으로서 우리는 레니 브루스가 하는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리지 못했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죠. 우리는 〈펀치라인〉이 그런 영화처럼 되지 않도록, 작품 안에서 관객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도 웃길 수 있는 스탠드업 대본을 원했어요. 여러 면에서 힘든 일이었죠.

● **Playboy:** 당신이 맡은 캐릭터의 미친 듯이 강렬한 모습은 시나리오에 적혀 있던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 역할에 개성을 불어넣은 건가요? **Hanks:** 음, 그 유머는 대중의 뇌리를 장악하는 공격적인 것이어야 했어요. 내 캐릭터는 사람들을 웃긴 다음에, 그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죠. 실생활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코미디언들이 있어요. 리처드 프라이어가 확실히 그런 유형이죠. 프라이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이 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코미디언으로 4명을 꼽을 수 있어요. 프라이어, 브루스, 그리고 스티브 마틴. 마틴은 스탠드업 코미디를 제일 많이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요즘 여러 코미디 클럽에서 들끓는 분노의 배후에는 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맙소사!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 **Playboy:** 밀튼 버얼? 로빈 윌리엄스? 제리 루이스? **Hanks:**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를 진행해요.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네요.

● **Playboy:** 개리 샌들링? **Hanks:** 곧 생각이 날 거예요. 생각나면 소리칠게요.

● **Playboy:** 당신이 〈펀치라인〉의 역할에 무엇을 불어넣은 것인지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모두 시나리오에 있던 건가요? **Hanks:** 아뇨. 그건 종이에 글로 적거나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시도해보고 직접 구축해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클럽에서 공연하면서 그 방식을 조금씩, 차근차근 구축했어요. 내 분량은 같은 코미디언인 친구 랜디 페흐터와 배리 소벨이 쓴 거예요. 처음 몇 번은 혼자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을 불러 함께 해나갔죠. 지독한 시련을 겪었어요. 끔찍했죠. 내가 가진 대본으로 5분 정도는 공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대본은 40초 분량밖에 안 됐고, 결국 남은 4분 20초 동안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진땀을 흘려가며 개망신을 당했죠.

● **Playboy:** 그 정도로 심했어요? **Hanks:** 네. 스스로 얼간이 같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나는 얼굴이 팔린 놈이라 어느 정도 안전망이 있긴 했죠. 하지만 그 효과는 1분 30초 정도뿐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관객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들을 웃겨주길 기대해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내 공연이 성공해 그들에게 먹혔어요. 믿어지지 않더군요. 아주 중독성 있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드레날린이 분출됐어요. 사람들을 광란의 상태로 몰아가는 공연의 힘이란…. 로버트 클라인!

● **Playboy:** 예? **Hanks:** 로버트 클라인이요! 그가 네 번째 인물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진실되고 참신한 공연을 하는 코미디언이라고 느꼈어요.

● **Playboy:** 스탠드업에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중독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요? **Hanks:** 스탠드업 코미디언은 모든 걸 통제하니까요. 공연의 제작자이자 연출가이자 작가이자 스타예요. 홀로 무대에 오르죠. 마이크 앞에 혼자만 있는 거예요. 1회에 2시간씩 공연을 하는, 청중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코미디언들이 있죠. 관객을 지배하며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혼자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말을 소화한 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전히 혼자 해나가는 거죠.

작가가 말하는 건
머릿속에 잠시 동안만
머무르고, 그 이후에는
내가 직접 시나리오를 읽으며
공감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뇌리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끌려요.

● **Playboy:** 그러면 당신의 코미디 습관은 어떤가요? 한밤중에 남들의 눈을 피해 코미디 클럽에 들어갈 건가요? **Hanks:** 오, 아뇨, 아니에요. 이 영화를 끝으로 스탠드업하고는 연을 끊을 거예요. 연기를 하며 스탠드업 공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 직업이 천직이어야 해요. 그런데 스탠드업 코미디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 **Playboy:** 〈펀치라인〉과 〈광고 대전략〉에서 당신이 연기한 캐릭터는 아버지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죠.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그 주제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인가요? **Hanks:** 시나리오를 읽는 초기 단계부터 그런 요소가 내 의식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작가가 말하는 건 머릿속에 잠시 동안만 머무르고, 그 이후에는 내가 직접 시나리오를 읽으며 공감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뇌리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끌려요. 나중에 영화를 촬영하며 캐릭터를 구축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들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나를 강타하곤 해요. 아버지는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졌어요. 〈광고 대전략〉에서 영화 속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간 기억이 났어요. 당시 그는 혼수상태였죠. 몸만 거기 있을 뿐, 실제로는 거기 계시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게 전부였고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거기서 뭔가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Playboy:** 그 영화에서 당신의 아버지 역을 재키 글리슨이 맡았습니다. 노련한 배우를 상대로 연기하는 게 겁이 나지는 않았나요? **Hanks:** 어느 정도는 겁을 먹었죠. 하지만 우리는 절친한 동료로서 함께 일했어요. 내 딴에는 공손하게, 존경심을 보이며 작업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100퍼센트 확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몸놀림이 굼뜬 편이었죠. 그래도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아침 9시 정각에 촬영장에 나타나 5시까지 쭉 작업을 이어갔죠. 모든 걸 완벽하게 파악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파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일을 했어요. 정말, 프로 그 자체였어요.

● **Playboy:** 그 영화가 시작될 때, 당신이 10킬로미터 상공에서 스튜어디스와 섹스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Hanks:** 맞아요. 음, 그 영화는 성 의식이 지금보다 덜 성숙한 시기에 만들었어요. 내가 연기한 캐릭터는 현란한 말발로 여자들을 침대에 끌어들이는 능력의 소유자죠. 섹스를 정말 많이 해요. 이 영화는 '안전한 성관계'를 논하던 시대가 오기 전에 제작한 작품이에요.

● **Playboy:** 〈드라그넷〉에서 콘돔을 다루며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것과는 정반대죠? **Hanks:** 맞아요. 1987년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며 그 이슈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볼 땐 〈드라그넷〉이 안전한 성관계를 최초로 등장시킨 영화였어요. 그 장면은 촬영을 다 마친 다음에 찍은 거예요. 브리지로 쓸 일부 장면을 재촬영해야 했거든요. 그때 내가 콘돔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제작진은 현대의 첫 '안전한 섹스' 신을 만들어냈죠. 대사는 없었어요. '콘돔 상자를 집어 든다. 안이 비어 있다. "미안해, 나 못하겠어"라고 말하는 듯 어깨를 으쓱한다'.

● **Playboy:** 당신의 차기작은 뭔가요? **Hanks:** 〈터너와 후치〉(1989)라는 영화예요. 헨리 윙클러가 연출을 맡았어요. 경찰이랑 개가 나오는 영화예요. 말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재미있는 난장판이 벌어지죠. 아마 독자들이 이 인터뷰가 실린 〈플레이보이〉를 손에 쥘 때쯤, 한창 촬영 중일 거예요.

● **Playboy:** 당신의 그 입담은 어릴 때 발달한 건가요? **Hanks:** 어린 시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자유로웠죠. 중학교 때는 세상을 떠돌아다녔고요.

● **Playboy:**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누린 건가요?
Hanks: 아뇨. 정신은 제대로 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차를 몰고 샌프란시스코의 콘서트에 가서 환각제를 복용하지는 않았으니까.

● **Playboy:**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Hanks: 아버지는 요식업에 종사하셨어요. 가끔은 카페였고, 때로는 식당이었고, 호텔 웨이터들이 근무하는 잘 갖춰진 레스토랑이기도 했어요. 나는 셋째인데, 다섯 살 때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형하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 **Playboy:**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힘들었나요?
Hanks: 두 분이 같이 계신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늘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두 분이 갈라설 때, 아버지는 나와 형, 누나 이렇게 세 명을 데려가셨어요. 남동생은 어머니 곁에 남았고요.

● **Playboy:** 왜 나눠 맡은 건가요? **Hanks:**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부모님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어요. 두 분 모두 아이 넷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죠. 내가 이혼하게 됐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 어떻게 자식들을 갈라놓을 수 있었느냐고 여쭤봤죠. 대답은 "그 시점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해라"였어요.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우리는 다 같이 리노로 이사했어요. 새어머니에게는 아이가 다섯 명이나 있었어요. 갑자기 아이 여덟 명이 한집에 쿵쾅거리며 살게 된 거예요. 생면부지인 우리는 서로를 밀쳐냈죠. 학교에서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 말고, 집밖과 옥상을 배경으로 그렸어요. 그림 속 아버지는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언제나 고되게 일하셨으니까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갈라선 후,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 **Playboy:** 두 번째 가족을요? **Hanks:** 가끔 소식은 듣는데, 어디에 사는지는 몰라요.

● **Playboy:** 어머니는 자주 만나봤나요? **Hanks:** 그 당시에는 간간이 연락만 했어요. 어머니는 재혼하셨는데,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죠.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입에 풀칠하기 위해 기를 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였어요. 두어 번 만났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다시 3남매와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이후 우리는 샌 마테오에 있는 고모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동안 살았죠. 아버지는 뒷마당에서 주무셨고요. 그러다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우리끼리 사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아이들이 깔끔한 집에서 사는 TV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방이 뜯겨나가고 얼룩덜룩한 아파트에 살았으니까요. 게다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점점 망가졌어요. 그 드라마처럼 하인도 없었고요.

● **Playboy:** 그 당시 영화 광이었나요? **Hanks:** 언제나 영화를 봤어요.

● **Playboy:** 우러러보는 스크린 속 영웅이 있었나요?
Hanks: 로버트 듀발이요. 그는 거리를 걷기만 해도 끝내줬어요. 잭 니컬슨도 그런 사람이었죠. 로버트 드니로도요. 제이슨 로바즈의 연기는 뭐든 봤어요. 스티브 매퀸은 정말 멋졌고요. 배우뿐 아니라 영화 감독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탠리 큐브릭은 엄청난 사람이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는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영화일 거예요. 줄거리와 모든 예술적 요소, 영화 그 자체까지 정말 끝내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영화예요. 그저 경이로울 뿐이에요. 22번 봤어요. 극장에서요. 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큐브릭이 집어넣은, 뭔가 색다른 것을요. 그는 신뢰를 하게 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나는 그냥 느끼기만 하죠. 우리는 같은 우주에 있다는 것을요. 영화 이외에 내게 큰 영향을 준 건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은 것, 그리고 5, 6학년 때쯤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에요.

● **Playboy:**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 콜필드와 일체감을 느꼈나요? **Hanks:** 스스로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 시기를 거칠 때는 모두가 그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책의 내용이 나 자신이나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홀든 콜필드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와 비슷한 고독감을 느끼던 기억이 나요. 또 다른 건 '헛소리(crap)'라는 단어가 쓰인 것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유형의 그 모든 헛소리…".

● **Playboy:**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게 된 것은요?
Hanks: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가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폴란드의 한 집에서 끌려나오는 어린 소년을 찍었더군요. 그 아이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세상에! 이 아이는 나보다 더 어리잖아!'였어요. 그러면서 홀로코스트의 공포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일어났는데 알아내려고 애쓰면서요.

● **Playboy:** 진지한 아이였군요. **Hanks:** 아뇨. 다른 아이들보다 진지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딱 그 사진 한 장을 본 이후로 그 상황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진을 보고 받은 느낌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클랜드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셔서 3남매끼리 주로 지냈어요. 저녁을 직접 차려 먹었는데, 그게 그 어떤 일보다도 재미있었어요. 냉동용 콩과 당근, 시금치를 내다버린 기억이 나요. 그게 없으면 아버지는 우리가 그걸 먹었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대신 스테이크를 불에 태우고 빵 사이에 끼워 먹었어요. 즉석으로 매시트포테이토도 만들곤 했는데, 그게 우리의 저녁 식사였어요. 나는 지금도 토마토 수프를 못 먹어요. 전기난로 주위에 맴돌던 토마토 수프의 탄 냄새에 대한 기억 때문에요.

● **Playboy:** 꽤나 영양가 높은 얘기로 들리네요.
Hanks: 영양 결핍으로 무슨 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아무튼 우리는 많은 걸 배웠고, 독립성이 강했어요. 빨래도 직접 했어요. 물론 실제로 그리 깨끗하진 않았지만요. 이사 나갈 무렵에는 거의 아수라장이었어요. 어른들의 감독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딸이 세 명 있는 여자였어요. 우리는 다시 이사를 갔어요.

● **Playboy:** 툭하면 이사를 다니는 것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Hanks:** 아뇨. 하지만 1966년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만사가 미쳐 돌아갔죠. 3남매끼리 2년 반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침구를 정돈하지 않고 지내던 우리가 침구를 가지런히 하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디어디는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도요. 누나는 늦게 집에 오는 것 때문에 곤경에 처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반 토막 났죠. 누나는 어머니와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나와 형은 아랫집에서 단둘이 살았고요. 밥 먹을 때만 나머지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마저도 대화가 거의 오가지 않았어요.

● **Playboy:** 그 모든 상황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Hanks: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자립심을 키워줬다는 점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는 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대단히, 대단히 가벼운 몸으로 훌쩍 자리를 떠나죠.

● **Playboy:** 그렇다면 저주는요? **Hanks:** 정서적으로 그리 좋지 않을 때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그 일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내가 영구히 뿌리 내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 **Playboy:** 첫 결혼에 실패한 이유가 그건가요?
Hanks: 일부는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이가 생겨서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게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군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혼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텐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뒷이야기는 www.playboykorea.com에서 이어집니다.)

PLAY MARKET

〈플레이보이〉의 시선을 잡아끈 4월의 뉴스.





2







1 S.T. 듀퐁 슈즈, 시즌맞이 컬렉션 S.T. 듀퐁 슈즈가 새 시즌을 맞아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아뜰리에, 라인 디, 데피, 젯 4가지 라인으로 구성된 기존 제품에 봄과 어울리는 산뜻한 컬러를 입히고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로 경쾌한 매력을 살렸다. 02-2106-3596 www.stdupont-shoes.co.kr **2 마크 곤잘레스 아트워크, 국내 상륙** 스케이트보더의 전설이자 브랜드 창립자인 마크 곤잘레스가 제작한 아트워크가 한국에 상륙했다. 올해 5월에 예정된 메인 전시회의 사전 프리뷰 형태로 전시 중인 붉은 자동차 모양의 'Katze Wagen'은 독특하고 위트 있는 모습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02-338-3316 www.barrels.co.kr **3 팀버랜드, 캐주얼 스니커즈 '플라이룸' 컬렉션** 팀버랜드가 스타일과 편안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스니커즈 '플라이룸' 컬렉션을 출시한다. 가죽과 패브릭을 혼합한 소재로 제작했으며, 56%를 공기로 채운 고탄력 아웃솔과 통기성 좋은 풋베드를 활용해 착화감이 우수하다. 02-6935-9300 www.timberland.co.kr **4 허쉘, 국내 첫 단독 매장 오픈** 캐나다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허쉘이 국내에 첫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이태원에 자리 잡은 '허쉘 서플라이 서울'에서는 이번 시즌 하와이에서 영감을 받은 '알로하 컬렉션'을 비롯한 여러 컬렉션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클래식한 백팩부터 힙색과 여행용 캐리어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도 구입 가능하다. 02-792-4628 herschel.com **5 푸마,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튜린'** 푸마가 최근 브랜드의 국내 모델을 넘어 글로벌 앰배서더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신제품 '튜린'을 공개한다. '상상 그 이상(Beyond Dream)'을 주제로, 흰색과 검은색의 깔끔한 디자인에 앰배서더가 직접 디자인한 패턴 로고를 새겼다. 02-2136-1000 kr.puma.com



1 반클리프 아펠, '라크 드 노아' 전시회 반클리프 아펠이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받은 '라크 드 노아' 컬렉션 전시회를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미국의 시각예술가 로버트 윌슨이 참여했으며, 동물을 모티브로 제작한 브랜드의 클립 60여 종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장면을 형상화했다.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DDP에서 진행된다. 02-310-1586 www.vancleefarpels.com **2 라도, '하이퍼크롬 캡틴쿡' 컬렉션** 라도가 도시적인 삶을 지향하는 커플과 예비 부부를 위한 '하이퍼크롬 캡틴쿡 컬렉션'을 소개한다. 37mm, 45mm 두 가지 제품 모두 레트로적 매력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디자인했다.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제작해 내구성도 뛰어나다. 02-2143-1825 www.rado.com **3 티파니가 빛낸 아카데미 시상식**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셀레브러티가 티파니의 주얼리를 선택했다. 네크리스, 이어링, 워치와 키 팬던트 등 다양한 제품을 착용했으며, 특히 갤 가돗이 착용한 2018 티파니 블루 북 컬렉션의 네크리스는 27캐럿의 아쿠아마린 센터스톤과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로 제작해 강렬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02-310-1837 www.tiffany.kr **4 로저드뷔, '벨벳 캐비어' 컬렉션** 로저드뷔가 '벨벳 캐비어' 컬렉션을 선보인다. 기존의 '벨벳' 컬렉션에 최고급 캐비아에서 받은 영감을 더했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스트랩은 브랜드만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크리스털 마블로 제작했다. 02-2118-6026 www.rogerdubuis.com



1 비브라스, 봄을 닮은 MOTD 립스틱 비브라스가 화사하고 선명한 봄과 어울리는 'MOTD 립스틱'을 추천한다. 팬톤이 선정한 2018년 트렌드 컬러 '체리토마토'와 '울트라 바이올렛' 등 총 21가지 컬러로 출시해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다. 한 번 발라두면 평균 8시간 동안 부드럽고 촉촉하게 지속된다. 02-2257-8886 www.vivlasmall.com **2 브리티시엠, 환경을 생각하는 '에띡' 라인** 브리티시엠이 지구의 달을 기념해 '브리티시엠 에띡' 라인을 제안한다. 에띡 샴푸와 에띡 트리트먼트는 천연 성분을 함유해 자극이 적을 뿐 아니라 모근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 함께 구성된 치약과 칫솔을 포함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 02-518-3444 www.british-m.com **3 불리, 인그레이빙 서비스 시행** 파리의 뷰티 브랜드 불리가 현지에서만 진행하던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선보인다. 예민한 피부를 위한 저자극 증성 데마톨로지 비누 '사봉 수폐팡 비누' 등 브랜드의 액세서리에 특별한 이니셜을 새길 수 있다. 한정 기간 동안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진행된다. 1544-5114 www.bulykorea.com **4 바이레도, 북유럽 나무의 향 담은 '우즈 캔들'** 바이레도가 북유럽 숲을 연상시키는 '우즈 캔들'을 출시한다. 브랜드의 고향인 스웨덴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숲속에서의 여행'을 테마로 강렬한 화이트 시더우드 향을 담았다. 02-3479-1688 www.byredo.com **5 모스키노, 달콤하고 싱그러운 '쏘리얼 칩앤시크'** 모스키노가 다가오는 계절을 닮은 '모스키노 쏘리얼 칩앤시크'를 선보인다. 미들 노트에 담은 피오니의 플로럴 향은 톱 노트의 시트러스 향과 함께 달콤하고 싱그러운 매력을 자아내며, 우디 계열의 베이스 노트와도 부드럽게 어울린다. 브랜드 고유의 톡톡 튀는 감성으로 디자인한 보틀도 돋보인다. 02-3453-7577 www.moschino.com **6 모로칸 오일, 모발 교정 에센스 '멘딩 인퓨전'** 모로칸 오일이 모발 건강을 위한 에센스 '멘딩 인퓨전'을 출시한다. 갈락토아라비난, 코코넛 알칸 등 4가지 주요 성분이 갈라진 머리카락의 끝을 모으고 손상을 예방한다. 아르간 오일과 퀴노아 단백질을 첨가해 영양 공급은 물론, 엉키거나 곱슬거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1666-5125 www.moroccanoil.com



1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와이 낮 술?' 클래스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의 루프톱 바 '더 그리핀'에서 '와이 낮 술?(Why Not Sul?)' 클래스를 개최한다. 영화와 여행, 인문학과 연계한 즐거운 강연과 함께 정하봉 소믈리에의 와인과 서정현 바텐터의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격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다. ☎ 02-2276-3344 ◍ www.jwmarriottddm.com **2 써스데이 플랜테이션, 피부 안정 돕는 '블레미쉬 젤'** 최근 국내 첫 론칭한 호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써스데이 플랜데이션'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 '블레미쉬 젤'은 브랜드의 시그너처 아이템이자 멜라루카 앨터니폴리아 나무에서 얻은 '티 트리 오일'을 첨가해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 070-4858-3763 ◍ www.thursday-plantation.co.kr **3 BMW, 2세대 뉴 X4** BMW가 중형 쿠페 모델 X4의 기능을 강화한 '뉴 X4'를 공개했다. 향상된 섀시 기술과 낮아진 무게중심을 통해 더욱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으며, 세련된 외관과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시스템' 등 편리한 첨단 기능도 갖췄다. 10월 국내 공식 출시 예정. ☎ 02-3441-7800 ◍ www.bmw.co.kr **4 유닉스전자, 반려동물 위한 이발기** 유닉스전자가 '펫팸족(Pet-Family)'의 증가에 발맞춰 애견용 이발기를 출시한다. 뷰티 가전 브랜드로서 쌓아온 모발과 모질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담았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세라믹 티타늄 날과 빗살 캡 4종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용을 도와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 1577-0569 ◍ unix-elec.co.kr